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모색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20. 12.



◦ 발행일 : 2020년 12월

◦ 문의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 전화 : 02-863-9580(마을지원팀),
02-2060-9580(주민자치사업단)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52나길 25, 2층
- 홈페이지 : www.guromaeul.org

[(재)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 전화 : 02-3210-0909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92
- 홈페이지 : www.makehope.org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구로구 마을자치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구로구 마을자치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모색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2.

(재)희망제작소 소장 권한대행
임주환

연구책임

정창기 (재)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센터장

연구진

이규홍 (재)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이다현 (재)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9
1. 연구의 개요	21
2. 연구의 배경	22
3. 연구의 목적	23
제2장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추진현황	25
1. 마을공동체 추진현황	27
1) 마을공동체 추진근거	27
2)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34
3) 구로구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48
2. 주민자치 추진현황	60
1) 주민자치 추진근거	60
2)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73
3) 주민자치회 운영	83
3. 요약 및 시사점	110
제3장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참여주민 인식조사	119
1. 개요	121
2. 심층인터뷰	122
1) 심층인터뷰 개요	122
2) 심층인터뷰 분석	124
3. 설문조사	149
1) 설문조사 개요	149
2) 설문조사 분석	152

4. 요약 및 시사점	261
제4장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과제	271
1. 융합을 위한 방향	273
2. 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및 과제	278
부록	293
1. 심층인터뷰 질문지	295
2. 설문조사 질문지	309
참고문헌	333

표 목 차

[표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29
[표 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주요 내용	31
[표 3] 구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32
[표 4] 마을공동체 법적 근거 주요 현황	33
[표 5]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3대 원칙	38
[표 6] 서울시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방향	38
[표 7] 서울특별시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과제, 전략, 실행의제	39
[표 8]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단계별 분류	40
[표 9] 서울특별시 2기 마을공동체 핵심가치, 전략-추진과제, 실행의제	43
[표 10] 구로구 행정부서 추진체계	48
[표 11] 구로구마을자치센터 추진체계	49
[표 12] 구로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	50
[표 13] 2012~2019 구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현황	50
[표 14] 2015~2019 단계별 구로구 마을공동체 선정사업	51
[표 15] 구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연령별 대표제안자 수	52
[표 16] 구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행정동별 선정사업 및 참여자 수	52
[표 17] 구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유형별 현황	53
[표 18] 구로구 마을공동체 교육목적 및 방향	56
[표 19] 2020 마을아카데미 모두의 성장학교 교육과정	57
[표 20] 2020 마을지원활동가 양성교육 과정	58
[표 21] 2020 마을·자치 강사 양성교육 과정	58
[표 22] 주민자치 제도화 연혁	62
[표 23] 지방자치법 시행령 주요 내용	63
[표 2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63
[표 2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의 주요 내용	64
[표 26]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65
[표 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요 내용	66

[표 28]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주요 내용	69
[표 29]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70
[표 30]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 주요 현황	72
[표 31]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기능 및 추진체계	73
[표 32] 주민자치센터 이해당사자별 역할	75
[표 33] 전국 주민자치위원 현황(2019.12.31.기준)	76
[표 34] 구로구 주민자치위원회 현황(2020.12.기준)	77
[표 35] 전국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2019.12.31.기준)	77
[표 36] 전국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지원현황(2019.12.31.기준, 단위:백만원)	78
[표 37]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2019.12.31.기준, 단위:개)	78
[표 38] 2019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마을축제 사례(구로구청. 2019)	78
[표 39] 구로구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실태 평균	81
[표 40] 주민자치회 협력형, 통합형, 주민주도형 모델 비교	86
[표 41] 주민자치회 성공 모형(행정안전부. 2013)	87
[표 42]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역할과 권한 비교(행정안전부. 2013)	88
[표 43] 2013년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31개 지역(행정안전부. 2013)	89
[표 44] 전국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추진현황(2020.6.26. 기준. 행정안전부)	90
[표 45] 특별법, 조례상의 주민자치회 기능	95
[표 46]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주민자치학교 교육내용	100
[표 47] 구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부서	102
[표 48] 구로구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목표	103
[표 49] 구로구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현황(2019.11.기준. 구로구청)	104
[표 50] 구로구 주민자치학교 이수 주민 현황(2019.11.기준. 구로구청)	104
[표 51] 구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 현황(구로구청. 2019. 단위:천원)	104
[표 52] 구로구 2021 자치계획 주민투표 현황	105
[표 53] 구로4동 2021 자치계획 실행의제 현황	106
[표 54] 가리봉동 2021 자치계획 실행의제 현황	107
[표 55] 개봉1동 2021 자치계획 실행의제 현황	107

[표 56] 오류1동 2021 자치계획 실행의제 현황	108
[표 57] 성별	152
[표 58] 연령	152
[표 59] 마을:거주동	153
[표 60] 자치:거주동	153
[표 61] 생활권	154
[표 62] 거주기간	154
[표 63] 마을:참여주민의 역할	155
[표 64] 자치:마을공동체 활동 여부	155
[표 65] 마을:'마을공동체' 연상 단어	156
[표 66] 자치:'마을공동체' 연상 단어	156
[표 67] 마을:'주민자치' 연상 단어	157
[표 68] 자치:'주민자치' 연상 단어	157
[표 69] 마을:역할별 '마을공동체' 연상 단어	158
[표 70] 마을공동체 참여 목적	159
[표 71]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목적	159
[표 72] 역할별 마을공동체 참여 목적	160
[표 73] 연령대별 마을공동체 참여 목적	161
[표 74] 연령대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목적	162
[표 75] 거주기간별 마을공동체 참여 목적	163
[표 76]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목적	164
[표 77] 마을공동체 활동기간	165
[표 78]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평균 활동기간	165
[표 79]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시간대	166
[표 80] 마을:참여 장애 요인	166
[표 81] 마을:생활권별 참여 장애 요인	167
[표 82] 마을:참여 시 기대하는 점	168
[표 83] 마을:역할별 참여 시 기대하는 점	168

[표 84] 마을:연령대별 참여 시 기대하는 점	169
[표 85] 마을: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171
[표 86] 마을:역할별 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172
[표 87] 마을:연령대별 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173
[표 88] 마을:생활권별 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174
[표 89] 마을:적극 활동 주민 비율	175
[표 90] 마을:관계 맺은 주민 수	175
[표 91]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기간	175
[표 92] 주민자치위원회 평균 활동기간	176
[표 93]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시간대	176
[표 94] 자치:참여 장애 요인	176
[표 95] 자치:생활권별 참여 장애 요인	177
[표 96] 자치:참여 시 기대하는 점	178
[표 97] 자치:연령대별 참여 시 기대하는 점	179
[표 98] 자치: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180
[표 99] 자치:연령대별 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181
[표 100] 자치:적극 참여 위원 비율	182
[표 101] 자치:관계 맺은 주민 수	182
[표 102] 마을공동체 참여 의향	183
[표 103] 활동기간별 마을공동체 참여 의향	183
[표 104] 생활권별 마을공동체 참여 의향	184
[표 105] 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마을공동체 참여 의향	185
[표 106] 마을공동체 참여 부정 이유	185
[표 107] 마을공동체 참여 기대 요소	186
[표 108] 마을공동체 활동 평가	188
[표 109] 마을: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	189
[표 110] 마을:활동기간별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	189
[표 111] 마을: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190

[표 112] 마을:역할별 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190
[표 113] 자치: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191
[표 114]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191
[표 115] 마을: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192
[표 116] 마을:역할별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192
[표 117] 자치: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193
[표 118]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193
[표 119] 마을: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194
[표 120] 마을:역할별 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194
[표 121] 자치: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195
[표 122]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195
[표 123] 마을: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196
[표 124] 마을:역할별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196
[표 125] 마을:연령별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197
[표 126] 마을: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198
[표 127] 마을:역할별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198
[표 128] 마을:활동기간별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199
[표 129] 마을:생활권별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200
[표 130] 마을공동체 활동 인식	201
[표 131]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인식 정도	201
[표 132] 생활권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인식 정도	202
[표 133] 마을공동체 활동내용 인식 정도	202
[표 134] 생활권별 마을공동체 활동 내용 인식 정도	203
[표 135] 마을자치센터 지원 내용 인식 정도	203
[표 136] 생활권별 마을자치센터 지원 내용 인식 정도	204
[표 137]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평가 및 인식	205
[표 138] 자치: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	205
[표 139] 자치:활동기간별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	206

[표 140] 자치: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207
[표 141]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207
[표 142] 마을: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208
[표 143] 자치: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208
[표 144]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209
[표 145] 마을: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209
[표 146] 자치: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210
[표 147]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210
[표 148] 마을: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211
[표 149] 자치: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211
[표 150] 자치:연령대별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212
[표 151]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212
[표 152] 자치: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213
[표 153] 자치:생활권별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214
[표 154]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214
[표 155] 마을공동체 참여주민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인식	216
[표 156] 마을: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정도	216
[표 157] 마을:역할별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정도	217
[표 158] 마을:활동기간별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정도	217
[표 159] 마을:생활권별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정도	218
[표 160] 마을: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 인식 정도	219
[표 161] 마을:역할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 인식 정도	219
[표 162] 마을: 활동기간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 인식 정도	220
[표 163] 마을: 생활권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 인식 정도	221
[표 164] 마을: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인식 정도	221
[표 165] 마을:역할별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인식 정도	222
[표 166] 마을:활동기간별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인식 정도	222
[표 167] 마을:생활권별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인식 정도	223

[표 168] 마을:주민자치위원회 참여방법 /선정방법 인식 정도	224
[표 169] 마을:역할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정도	224
[표 170] 마을:활동기간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정도	225
[표 171] 마을:생활권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정도	226
[표 172] 마을:마을자치센터 역할에 대한 기대	227
[표 173] 자치:마을자치센터 역할에 대한 기대	227
[표 174] 마을:역할별 마을자치센터 역할에 대한 기대	229
[표 175] 마을:활동기간별 마을자치센터 역할에 대한 기대	230
[표 176] 자치:활동기간별 마을자치센터 역할에 대한 기대	231
[표 177] 마을:구로구청 역할에 대한 기대	232
[표 178] 자치:구로구청 역할에 대한 기대	232
[표 179] 마을:역할별 구로구청 역할에 대한 기대	233
[표 180] 마을:활동기간별 구로구청 역할에 대한 기대	234
[표 181] 자치:활동기간별 구로구청 역할에 대한 기대	235
[표 182] 주민자치회 활동 인식	237
[표 183] 마을: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차이 인식	237
[표 184] 자치: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차이 인식	238
[표 185] 자치:생활권별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차이 인식	238
[표 186] 마을:4개동에서 시범동 시행 인식	239
[표 187] 자치:4개동에서 시범동 시행 인식	239
[표 188] 자치:생활권별 4개동에서 시범동 시행 인식	240
[표 189] 마을:주민자치회 권한 인식	240
[표 190] 자치:주민자치회 권한 인식	241
[표 191] 자치:생활권별 주민자치회 권한 인식	241
[표 192] 마을:주민자치회 참여방법/	242
[표 193] 자치:주민자치회 참여방법/ 선정방법 인식	242
[표 194] 자치:생활권별 주민자치회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243
[표 195] 자치:주민자치 개념과 의미 인식	243

[표 196] 자치:생활권별 주민자치 개념과 의미 인식	244
[표 197] 마을:주민자치회 소속 여부	245
[표 198] 마을:주민자치회 참여 의향	245
[표 199] 마을:역할별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	246
[표 200] 마을:생활권별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	246
[표 201] 자치:주민자치회 참여 의향	247
[표 202] 자치:활동기간별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	247
[표 203] 마을:주민자치회 참여 부정 이유	248
[표 204] 자치:주민자치회 참여 부정 이유	249
[표 205] 마을:주민자치회 참여 기대요소	249
[표 206] 자치:주민자치회 참여 기대 요소	250
[표 207] 마을:주민자치 핵심의제	251
[표 208] 마을:역할별 주민자치 핵심의제	252
[표 209] 마을:활동기간별 주민자치 핵심의제	253
[표 210] 마을:생활권별 주민자치 핵심의제	254
[표 211] 자치:주민자치 핵심의제	255
[표 212] 자치:활동기간별 주민자치 핵심의제	256
[표 213] 자치:생활권별 주민자치 핵심의제	257
[표 214] 마을: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	258
[표 215] 마을:소속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	258
[표 216] 자치: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	259

그림 목 차

[그림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추진체계	34
[그림 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비전 체계	35
[그림 3] 2020 마을자치실천대학 교육과정	36
[그림 4] 2019 지역혁신청년활동가 현장프로젝트 결과공유회	37
[그림 5] 202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매뉴얼	37
[그림 6] 서울특별시 공동체 공간의 운영유지율(2017년 기준)	42
[그림 7] 송파쌤(SSEM) 송파인물도서관 온라인 콘텐츠	45
[그림 8] 2020 은평구마을공동체한마당 영상, 포스터	46
[그림 9] 2020년 마을공동체 10대 공약	47
[그림 10] 구로구 마을공동체 추진체계	48
[그림 11] 구로구마을자치센터 추진체계	49
[그림 12] 2012~2015년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건수	51
[그림 13] 구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사례	54
[그림 14] 구로구 마을공동체 동네별 소통모임	55
[그림 15] 구로구 마을공동체 구로 별별시장	55
[그림 16] 2020 마을·자치 강사 양성교육 프로세스	58
[그림 17] 주민자치회 협력형, 통합형, 주민주도형 모델	85
[그림 18] 서울형 주민자치회 종암동(좌), 시흥3동(우) 사례	90
[그림 19] 논산시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 사례	91
[그림 20] 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회 온라인 주민총회 사례(우리동넛)	92
[그림 21] 서울형 주민자치회 추진 배경	94
[그림 22] 주민자치위원회와 서울형 주민자치회 비교	94
[그림 23]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체계	95
[그림 24] 주민자치회-동자치지원관-동행정간 협력구조	96
[그림 25] 서울형 주민자치회 임원별 역할	97
[그림 26] 서울형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주제	97
[그림 27]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요 프로세스	98

[그림 28] 서울형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단계	99
[그림 29]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진행단계	99
[그림 30]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용 예산	101
[그림 31] 서울형 주민자치회 자치구별 도입 계획	101
[그림 32] 구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체계	102
[그림 33] 성별	152
[그림 34] 연령	152
[그림 35] 마을:거주동	153
[그림 36] 자치:거주동	153
[그림 37] 생활권	154
[그림 38] 거주기간	154
[그림 39] 마을:참여주민의 역할	155
[그림 40] 자치:마을공동체 활동 여부	155
[그림 41] 마을:‘마을공동체’ 연상 단어	156
[그림 42] 자치:‘마을공동체’ 연상 단어	156
[그림 43] 마을:‘주민자치’ 연상 단어	157
[그림 44] 자치:‘주민자치’ 연상 단어	157
[그림 45] 마을:역할별 ‘마을공동체’ 연상 단어	158
[그림 46] 마을공동체 참여 목적	159
[그림 47]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목적	160
[그림 48] 역할별 마을공동체 참여 목적	161
[그림 49] 연령대별 마을공동체 참여 목적	162
[그림 50] 연령대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목적	163
[그림 51] 거주기간별 마을공동체 참여 목적	164
[그림 52]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목적	164
[그림 53] 마을공동체 활동기간	165
[그림 54]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시간대	166
[그림 55] 마을:참여 장애 요인	166

[그림 56] 마을:생활권별 참여 장애 요인	167
[그림 57] 마을:참여 시 기대하는 점	168
[그림 58] 마을:역할별 참여 시 기대하는 점	169
[그림 59] 마을:연령대별 참여 시 기대하는 점	170
[그림 60] 마을: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171
[그림 61] 마을:역할별 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172
[그림 62] 마을:연령대별 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173
[그림 63] 마을:생활권별 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174
[그림 64] 마을:적극 활동 주민 비율	175
[그림 65] 마을:관계 맺은 주민 수	175
[그림 66]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기간	175
[그림 67]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시간대	176
[그림 68] 자치:참여 장애 요인	177
[그림 69] 자치:생활권별 참여 장애 요인	178
[그림 70] 자치:참여 시 기대하는 점	178
[그림 71] 자치:연령대별 참여 시 기대하는 점	179
[그림 72] 자치: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180
[그림 73] 자치:연령대별 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181
[그림 74] 자치:적극 참여 위원 비율	182
[그림 75] 자치:관계 맺은 주민 수	182
[그림 76] 마을공동체 참여 의향	183
[그림 77] 활동기간별 마을공동체 참여 의향	184
[그림 78] 생활권별 마을공동체 참여 의향	184
[그림 79] 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마을공동체 참여 의향	185
[그림 80] 마을공동체 참여 부정 이유	186
[그림 81] 마을공동체 참여 기대 요소	186
[그림 82] 마을: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	189
[그림 83] 마을:활동기간별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	189

[그림 84] 마을: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190
[그림 85] 마을:역할별 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190
[그림 86] 자치: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191
[그림 87]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191
[그림 88] 마을: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192
[그림 89] 마을:역할별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192
[그림 90] 자치: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193
[그림 91]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193
[그림 92] 마을: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194
[그림 93] 마을:역할별 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194
[그림 94] 자치: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195
[그림 95]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195
[그림 96] 마을: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196
[그림 97] 마을:역할별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196
[그림 98] 마을:연령별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197
[그림 99] 마을: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198
[그림 100] 마을:역할별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198
[그림 101] 마을:활동기간별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199
[그림 102] 마을:생활권별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200
[그림 103]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인식 정도	201
[그림 104] 생활권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인식 정도	202
[그림 105] 마을공동체 활동내용 인식 정도	202
[그림 106] 생활권별 마을공동체 활동 내용 인식 정도	203
[그림 107] 마을자치센터 지원 내용 인식 정도	203
[그림 108] 생활권별 마을자치센터 지원 내용 인식 정도	204
[그림 109] 자치: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	205
[그림 110] 자치:활동기간별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	206
[그림 111] 자치: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207

[그림 112]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207
[그림 113] 마을: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208
[그림 114] 자치: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208
[그림 115]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209
[그림 116] 마을: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209
[그림 117] 자치: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210
[그림 118]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210
[그림 119] 마을: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211
[그림 120] 자치: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211
[그림 121] 자치:연령대별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212
[그림 122]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213
[그림 123] 자치: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213
[그림 124] 자치:생활권별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214
[그림 125]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215
[그림 126] 마을: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정도	216
[그림 127] 마을:역할별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정도	217
[그림 128] 마을:활동기간별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정도	218
[그림 129] 마을:생활권별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정도	218
[그림 130] 마을: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 인식 정도	219
[그림 131] 마을:역할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 인식 정도	219
[그림 132] 마을:활동기간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 인식 정도	220
[그림 133] 마을:생활권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 인식 정도	221
[그림 134] 마을: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인식 정도	221
[그림 135] 마을:역할별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인식 정도	222
[그림 136] 마을:활동기간별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인식 정도	223
[그림 137] 마을:생활권별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인식 정도	223
[그림 138] 마을:주민자치위원회 참여방법	224
[그림 139] 마을:역할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정도	224

[그림 140] 마을:활동기간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정도	225
[그림 141] 마을:생활권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정도	226
[그림 142] 마을:마을자치센터 역할에 대한 기대	228
[그림 143] 자치:마을자치센터 역할에 대한 기대	228
[그림 144] 마을:역할별 마을자치센터 역할에 대한 기대	229
[그림 145] 마을:활동기간별 마을자치센터 역할에 대한 기대	230
[그림 146] 자치:활동기간별 마을자치센터 역할에 대한 기대	231
[그림 147] 마을:구로구청 역할에 대한 기대	232
[그림 148] 자치:구로구청 역할에 대한 기대	233
[그림 149] 마을:역할별 구로구청 역할에 대한 기대	234
[그림 150] 마을:활동기간별 구로구청 역할에 대한 기대	235
[그림 151] 자치:활동기간별 구로구청 역할에 대한 기대	236
[그림 152] 마을: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차이 인식	237
[그림 153] 자치: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차이 인식	238
[그림 154] 자치:생활권별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차이 인식	238
[그림 155] 마을:4개동에서 시범동 시행 인식	239
[그림 156] 자치:4개동에서 시범동 시행 인식	239
[그림 157] 자치:생활권별 4개동에서 시범동 시행 인식	240
[그림 158] 마을:주민자치회 권한 인식	240
[그림 159] 자치:주민자치회 권한 인식	241
[그림 160] 자치:생활권별 주민자치회 권한 인식	241
[그림 161] 마을:주민자치회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242
[그림 162] 자치:주민자치회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242
[그림 163] 자치:생활권별 주민자치회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243
[그림 164] 자치:주민자치 개념과 의미 인식	243
[그림 165] 자치:생활권별 주민자치 개념과 의미 인식	244
[그림 166] 마을:주민자치회 소속 여부	245
[그림 167] 마을:주민자치회 참여 의향	245

[그림 168] 마을:역할별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	246
[그림 169] 마을:생활권별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	247
[그림 170] 자치:주민자치회 참여 의향	247
[그림 171] 자치:활동기간별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	248
[그림 172] 마을:주민자치회 참여 부정 이유	248
[그림 173] 자치:주민자치회 참여 부정 이유	249
[그림 174] 마을:주민자치회 참여 기대요소	250
[그림 175] 자치:주민자치회 참여 기대 요소	250
[그림 176] 마을:주민자치 핵심의제	251
[그림 177] 마을:역할별 주민자치 핵심의제	252
[그림 178] 마을:활동기간별 주민자치 핵심의제	253
[그림 179] 마을:생활권별 주민자치 핵심의제	254
[그림 180] 자치:주민자치 핵심의제	255
[그림 181] 자치:활동기간별 주민자치 핵심의제	256
[그림 182] 자치:생활권별 주민자치 핵심의제	257
[그림 183] 마을: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	258
[그림 184] 마을:소속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	259
[그림 185] 자치: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	259
[그림 186] 타운홀 미팅 프로세스(희망제작소, 2019)	279
[그림 187] 국민해결 2018 프로세스	281
[그림 188] 구로 1번가 프로세스(구로1번가 홈페이지)	283
[그림 189] 금천 1번가 사례	283
[그림 190] 마포구 2019 마을자치어울마당 사례	285
[그림 191] 고양시 관산동 마을정책상상모임 사례(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2020)	287
[그림 192] 2019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연구	289
[그림 193] 구로구 마을-자치 융합을 위한 과제	290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개요
2. 연구의 배경
3.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개요

1) 연구명 : 구로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모색 연구

2) 연구기간 : 2020년 8월 31일 ~ 12월 11일

3) 연구의 범위

- ①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원
- ② 시간적 범위 : 2020년 ~ 2021년
- ③ 내용적 범위 : 서울시 마을공동체 및 서울형 주민자치 추진현황 조사
 - : 타 자치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연결 사례 조사
 - :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위원)회 추진현황 분석
 - :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조사 및 이해관계자 면접
 - : 구로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과제 도출

4) 사업수행방법

- ①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이론 분석 (9월 ~ 10월)
 -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개념과 배경, 제도적 설립과정 등 추진근거를 분석하고, 관련 법·조례·규칙 등 법적 근거 분석을 통한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의 이론적 토대를 정립한다.
- ② 서울시 및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추진현황 분석 (9월 ~ 10월)
 - 서울시 마을공동체 추진체계, 1기, 2기 마을공동체 정책,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등 서울시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및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내 5가지 핵심사업(공모사업, 성장학교, 지역자원연계, 특화사업, 홍보사업)을 분석해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의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한다.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체계 분석, 전국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구로구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등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을 종합적 분석,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과정을 살펴본다.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체계 분석, 전국 주민자치회 현황, 구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현황 등 주민자치회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 ③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이해당사자 심층인터뷰 (9월)
 -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마을자치센터(주민자치 사업단) 담당자, 동자치지원관, 구로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다.
 - 개인심층면접, FGI 등의 방법 활용하며, 집단면접 시 1회당 2~4인 내외로 진행한다.
- ④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참여 주민 인식조사 진행 (10월 ~ 11월)
 - 구로구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과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실태와 활동 인식을 분석하고, 각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와 상대 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서울형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조사와 향후 거주 또는 생활동에서 주민자치회 전환 시 참여 여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와 핵심의제 등을 조사한다.
- ⑤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과제 제시 (11월 ~ 12월)
 -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추진현황 분석, 구로구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및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2. 연구의 배경

-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을 위해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해(2000년) 읍면에서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서울시는 제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2013~2016년)을 수립하였으며, 마을의 현안과 문제를 마을주민 스스로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풀어가는 마을공동체를 위해 지원해왔다.
-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근거가 조례 상에만 명시되어있고, 상위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위원회의 활동이 센터 운영과 심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자치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 이에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마을(행정동) 단위 주민모임을 주민자치회로 통합하고, 자치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주민자치 안착을 도모하고 있다.

- 구로구는 2020년 4개동(가리봉동, 구로4동, 개봉1동, 오류1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 중이며, 서울시 방침에 따라 향후 전동 확대를 계획 중이다. 이에 기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구로구 상황에 맞는 주민자치회 구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3. 연구의 목적

1) 구로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의 유기적 연결 방안을 모색

- 행정과의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추진된 ‘주민자치위원회’ 시스템과 풀뿌리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 현안에 대한 주민의 공동대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마을공동체’ 시스템 간의 유기적 연결점을 모색한다.

2) 마을과 자치 융합을 위한 지원방안을 도출

- 참여주민, 행정부서 담당자, 중간지원조직 운영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과 평가, 융합에 대한 인식과 추진 방향 등 의견을 청취하여 마을과 자치 융합을 위한 방향을 도출한다.
-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체계와 기능,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주민자치회 확대동 추진을 고려하여 주민 그룹 간의 융합을 위한 지원과제 및 행정-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제시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추진현황

1. 마을공동체 추진현황
2. 주민자치 추진현황
3. 요약 및 시사점

1. 마을공동체 추진현황

1) 마을공동체 추진근거

(1) 마을공동체 개념

-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배경에 대해 김상돈(2014)은 한국 사회가 겪은 압축적 근대화와 신자유주의로 인해, 핵가족화, 공동주택거주, 잦은 이주 등이 발생했고, 원자화되고 파편화된 인간관계의 독특한 사회환경이 구성되었다고 밝힌다. 이로 인해, 마을주민 간의 상호교류 단절과 유대감 상실로 전통적 마을공동체는 붕괴되고 있으며, 회복의 관점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성찰과 복원이 현재의 민과 관이 협력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다. 또한, 마을 만들기를 “주민이 실질적으로 중심이 되어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 마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김상돈, 2014).
- 유창복(2018)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해 “마을공동체 회복에 초점을 맞추며, 사람 중심의 가치 회복과 신뢰의 관계망을 재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마을을 활성화한다는 개념은 “주민들 사이의 커뮤니티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속 다양한 공동체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다.
- 서울시는 마을공동체를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로 정의하고(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2012), 주민 참여에 기반한 주민주도성과 주민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구로구 또한 마을공동체를 “이웃 주민 간 정을 통한 인간관계망 형성에 초점을 맞춰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로 정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나서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펼치는 종합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구로구마을자치센터는 마을공동체를 “주민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생활과제를 이웃과 함께 해소하는 호혜적 생활 관계망”으로 정의하며, 지역사회 공공문제를 해결해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주민주도형 자치계획을 수립해 실행하는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한다.

- 앞선 배경과 정의를 통해, 마을공동체는 사람 중심의 가치, 상호신뢰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하며, 일상생활 속 의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공의제를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공동체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공동체적 단위다. 또한, 주민 간의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중심의 결정과 추진을 통해 마을 단위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활동 주체로도 설명할 수 있다.

(2) 마을공동체 법적 근거

- 구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은 서울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12.3.15. 공포·시행)와 구로구 「구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12.10.11. 공포·시행)를 근거로 하며, 각 조례는 광역, 기초 단위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의, 원칙, 사업, 위원회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2조(정의)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 서울시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장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
 4.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 16조(구성 및 임기)

-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공동위원장은 정무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주택·경제·복지·문화·자치행정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시의원 2명
 2.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담당관이 된다.

- 제1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장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 제22조, 23조(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제22조(종합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종합지원센터 기능)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출처: 법제처(<http://www.moleg.go.kr>)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의 지원신청 조건과 사업선정심의회 구성, 사업지원횟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소 3명 이상 주민의 공동명의로 사업을 신청하도록 신청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을 활동을 위한 공간지원 사업에는 최대 5년 5회 이내, 활동지원 사업에는 3년 3회 이내로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

[표 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주요 내용

제2조(지원신청 및 접수)

- 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3명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사업선정심의회 구성·운영)

- ①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별로 구성한다.
- ②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과반수는 외부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한다.
 1. 사업별 관련분야 전문가
 2. 주민대표 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사업별 관련업무 공무원
-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별 선정 시기, 지원 횟수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개최한다.

제5조(지원 횟수 제한)

-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간지원 사업 : 5년 5회 이내
2. 활동지원 사업 : 3년 3회 이내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유사한 사업은 사업주체와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공간지원 사업이란 사업 중 주민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며, 활동지원 사업은 사업 중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주민 공동체 활동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6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의 정보공개)

시장 또는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례전파 등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주민모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모임명
2. 주 활동지역(모임장소)
3. 활동내용
4. 대표자명
5. 주요사업 계획 등

*출처: 법제처(<http://www.moleg.go.kr>)

- 「구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되어있다. 다만, 마을만들기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경우, 서울시는 20명으로 위원을 구성하며, 3년 임기에 1차례 연임제를 두고 있다. 구로구는 15명의 위원을 구성하며, 2년 임기에 1차례 연임제를 두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3] 구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3장 마을공동체 위원회 제15조, 16조(구성 및 임기)

제15조(구성)

-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택·경제·자치행정·마을공동체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6조(임기)

-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②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http://www.moleg.go.kr>)

[표 4] 마을공동체 법적 근거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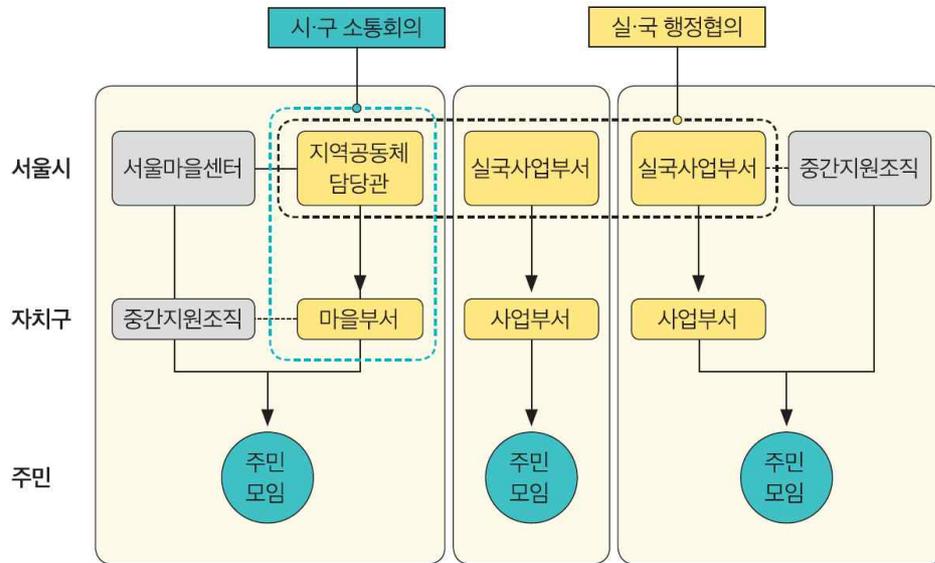
구분		법규명	조항	관련 내용
지방 정부 단위	서울시 조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마을공동체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9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구로구 조례	구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추진체계 및 현황

-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추진체계로 서울시 단위와 자치구 단위의 행정부서가 존재하며, 서울시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인 서울특별시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와 자치구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을 두고 있다. 서울시 지역공동체 담당관과 자치구 마을부서 담당자가 참여하는 시·구 소통회의가 월 1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담당관과 실국 사업부서 담당자가 참여하는 실·국 행정협의를 분기별 1회 진행되고 있다.

[그림 1]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추진체계



*출처: 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 백서

- 중간지원조직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주민의 필요에 따라 계획하고 직접 만드는 마을공동체 실현”을 비전으로 서울형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마을공동체 활동가 역량 강화, 자치구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마을공동체 홍보전파, 서울형 커뮤니티 거점 활성화, 동단위 마을 자치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비전 체계



*출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① 서울형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사업·제도 전반을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행 모델을 개발해 성과를 확산한다.
 - 주요 연구 과제 선정을 위한 대내외적 수요 파악
 - 연구자 네트워크 등 연구 전반 모니터링, 아카이빙
 - 연구 공유회 개최
 - 마을공동체 학술 논의 강화와 정책 옹호 기능 확대를 위한 정책웹진 발간
 - 정책 개발과 제안을 위한 정책 공모사업 추진

② 마을공동체 활동가 역량 강화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치구 마을활동가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자기 주도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교육기반을 조성한다.
 - 대상 : 마을사업지기, 마을지원활동가, 정책지원활동가,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등 다년차 마을활동가
 - 마을공동체 핵심가치 및 분야별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자치실천대학 운영

[그림 3] 2020 마을자치실천대학 교육과정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필수
단계	뿌리과정		역량별전문과정			리더십과정			자주학습과정
역량군	가치+ 기술		기술			가치+기술+정보			가치+기술+정보
학점	3	3	2	2	2	2	2	2	3
교육과정	조직가기초	조직가심화	갈등해결	지역자원조사 방법론	퍼실리테이션	민관협업과 정책환경의 이해 (기초)	민관협업과 정책환경의 이해 (실습)	조직운영 역량강화	마을소논작성, 현장기반 자기활동 고찰
정원	20명	10명	15명	15명	20명	15명	20명	20명	10명
시수	40시간	40시간	20시간	20시간	28시간	20시간	20시간	20시간	24시간
시기	7월-9월	*2020년비운영	7월	8월	9월(7분과중 11월(피드백과정))	8월-9월	*2020년비운영	*2020년비운영	6월-11월
요건	입학수강신청 안내 입학자격 : 2년차 이상 서울시 마을활동가 * 각 과정은 시기별로 개설되며, 해당 과정별 수강신청 필수 * 전공필수, 전공 선택 과정은 단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과정별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신청서 및 추천서 개별 제출 필수 * 2020년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일부 과정이 축소 운영 합니다.					졸업요건 * 전과정 15 학점 이상 취득시 졸업 * 전공필수 과정은 필히 이수, 과정별 1과목 이상 이수 필요 * 과정별 필수 과제 제출까지 완료해야 학점 인정 * 개별 교육과정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③ 자치구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지원

- 민관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중간지원조직 역량을 강화, 주민 공모사업 개선 및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자치구 지역공동체 기반을 조성한다.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연계·협력으로 공동체 참여자 확대 및 다양화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성과 확인, 마을지원활동가 지원제도 개선 기초자료 마련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실무 수행 역량 강화
 - 직무별 전문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④ 마을공동체 홍보전파

- 마을 사례 및 성과를 홍보 전파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확대하고, 공동체 공감대 형성 및 의식 확산을 통해 마을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정책 홍보
 - 안정적인 홍보기반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정보 제공
 - 대외 연계망 구축과 마을공동체 성과 확산을 통한 대외 홍보 활성화

⑤ 서울형 커뮤니티 거점 활성화 지원

- 미래세대의 마을살이를 지원하는 주체형 사업과 지역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점형 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 미래세대 커뮤니티 활성화: 청년마을활동가 발굴 및 양성,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 서울형 커뮤니티 활성화: 우리마을지원사업(공간) 운영 지원, 찾동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

[그림 4] 2019 지역혁신청년활동가 현장프로젝트 결과공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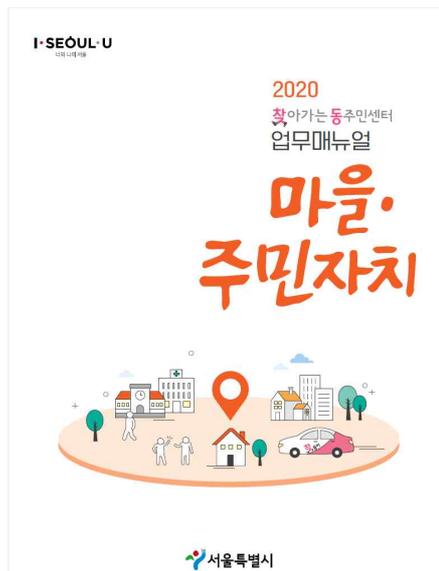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⑥ 동단위 마을 자치 조성지원(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 지원단과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단 통합 운영을 통해 시와 자치구의 마을자치 융합 전환을 지원하고 주민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동단위 마을자치 조성 지원: 마을과 주민자치 활동성과 도출, 사업 취지 확산하는 공유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 사업의 종합적 성과 콘텐츠 생산, 동단위 사례기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촉진
- 현장지원 연구: 동단위 마을자치 조성을 위한 제도 설계 및 보완

[그림 5] 202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매뉴얼



*출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 서울특별시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① 개요

-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장 제6조(기본계획)를 근거로 5년마다 수립하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 최상위 계획이다. 2012년 서울시는 ‘자립 지원’, ‘맞춤형 지원’, ‘인큐베이팅 지원’을 마을공동체 3대 지원 원칙으로 정하고 해당 원칙에 의거 서울특별시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했다.

[표 5]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3대 원칙

원칙	내용
자립 지원	주민 스스로 지원 조달 주민 당사자의 자기 조달 이후 부족분에 대한 정부 지원
맞춤형 지원	마을에 기초가 없거나 미약한 경우의 지원 주민 스스로 씨앗을 뿌리고 마을활동을 하는 경우 지원 마을 관계망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 장기적인 마을인프라가 필요한 경우 지원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신청 전 ‘찾아가는 상담제’ 운영 마을활동가와 분야별 전문가의 합동 컨설팅 시스템 운영 자기주도적 평가, 상시적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출처: 안현찬 외(2016: 31) 재구성

-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방향은 주민주도 마을공동체의 기초토대 구축을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기초제도 및 추진조직 마련’, ‘공동체 활동 형성 지원’, ‘인프라 토대 구축’ 등을 시행했으며,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와 마을 지향 행정 시스템 정착을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네트워크 육성 및 확산’, ‘마을 단위 행정 일반화’ 등을 추진했다.

[표 6] 서울시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방향

주민주도 마을공동체의 기초토대 구축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와 마을지향 행정 정착
2012년 토대준비기	2015년 네트워크 육성기
기초제도 및 추진조직 마련 공동체 지원사업 조기 추진을 통한 기반 조성	공동체 네트워킹 지원 마을간 연계 프로그램 육성

▼	▼
2013년 씨앗육성기	2016년 확산발전기
공동체 활동 육성 지원 공동체 형성 기반 보완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을활동 확산
▼	▼
2014년 인프라 구축기	2017년 지속가능기
공공의 역할기반 구축 완성 마을공동체 희망단계 준비	희망단계 진입 마을단위 행정 일반화

*출처: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13). 기본계획 요약보고서

-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은 1기 기본계획에 따라 총 3대 과제·10대 전략·25개 실행의제로 분류되어 추진되었다. 3대 과제는 ‘마을사람 키우기’, ‘마을살이 함께하기’, ‘마을지향적인 민관협력 만들기’이며, 핵심 요소로 주체, 활동, 인프라-시스템을 강조했다.

[표 7] 서울특별시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과제, 전략, 실행의제

3대 과제	10대 전략	25개 실행의제
마을사람 키우기	1. 창의적인 마을활동가 양성	마을아카데미로 마을활동가 양성
	2. 청년의 활력과 역량 활용	마을활동가 활용 및 일자리 지원
		중장기적으로 청년 창업 지원
3. 여성의 활동·역량 강화		돌봄공동체 운영 지원
		여성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여성 참여 확대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
마을살이 함께하기	4. 함께 사는 재미가 있는 공동체 문화 조성	작은 공동체 활동 활성화
	5. 이웃돌봄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노인에게 일거리 제공
	6. 마을경제 활성화	협력적 소비활동 육성
서비스형 사업발굴 및 컨설팅 마을공동체기업 지원		
7. 에너지 절감마을 조성	에너지 관련 공동체 활동 지원, 성공사례 전파	

마을지향적인 민관협력 만들기	8. 주민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지원
		실질적 민관협력을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
		서울마을센터의 현장지원 활성화
	9. 현장밀착형 마을인프라 구축	주민주도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 운영
		북카페 조성 지원
		마을예술창작소 설치, 운영 지원
		청소년 휴카페 설치 지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공공시설 유희공간 개방
	10. 마을지향 행정서비스 정착	마을단위로 종합 지원이 가능한 행정체계 정착
		마을지향적 공무원 육성
		장기적으로 마을지향적 도시계획 정착

*출처: 서울특별시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단위사업의 특성에 따라 ‘모임 형성 지원’, ‘활동 지원’, ‘공간 지원’, ‘모임 간 연계 지원’, ‘종합적 마을계획 수립 지원’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안현찬 외(2019)에 따르면 공모사업의 대부분은 1단계 모임형성 지원 사업으로, 전체 사업의 63.9%에 달해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다.

[표 8]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단계별 분류

단계	내용	단위사업 예시	보조금 규모 (백만원/년)
1단계 모임형성 지원	소규모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이웃만들기 부모커뮤니티 자치구 자체 사업	1~6
2단계 활동 지원	육아, 문화, 미디어 등 주제별 활동 지원	우리마을활동지원 아파트마을공동체 다문화마을공동체	6~50
3단계 공간 지원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우리마을공간지원 마을예술창작소 마을기업(서울시)	25~100
4단계 모임 간 연계 지원	사업 참여 주민과 모임 간 교류로 지역 단위 네트워크 형성 지원	우리마을프로젝트 마을연계망	5~7

5단계 종합적 마을계획 수립지원	성숙한 마을공동체의 중장기적인 진단과 발전방안 수립 지원	동네단위 마을계획 마을과 학교(상생형) 에너지자립마을	15~280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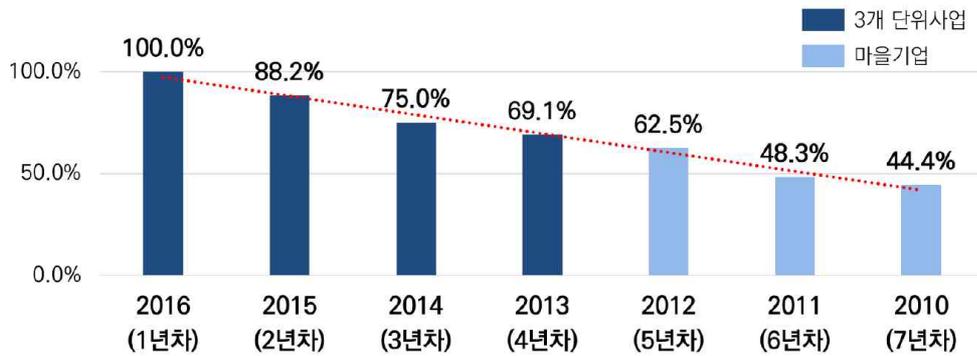
*출처: 안현찬 외(2019)

② 성과와 과제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2013년부터 관련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산시켜왔다. 1기 기본계획 추진 중반인 2015년에는 서울시 내 11개 사업부와 25개 자치구에서 총 56개의 단위사업이 시행되며 마을 지향적인 행정 체제가 구축되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25개 자치구로 확산되면서, 사업 참여주민의 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2만 8천 명으로 양적으로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사업의 적극 참여층이 30·40대 여성으로 전체 참여자의 73%에 달해, 기본계획의 10대 전략 중 하나인 여성의 활동·역량 강화와 관련한 성과가 있었다.
- 10대 전략 중 하나인 현장밀착형 마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서울시 전역에서 주민이 주도하거나, 행정이 주도하는 공동체 공간 331개소가 조성되었다. 이중 실행의제인 마을예술창작소는 54개소가 조성되었으며, 155개 마을기업에 공동체 공간이 조성되었다.
- 25개 의제 중 '작은 공동체 활동 활성화' 의제에 따라 소규모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지원되었고, 1단계인 모임형성 지원 단계의 사업이 2013년부터 급증해 매년 서울시 전역에서 1,000여 개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육아, 교육, 주거,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 서울시 전역에서 마을공동체 참여주민, 활동, 인프라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특정 성과 연령대의 주민이 마을공동체 활동과 참여에 소외되는 현상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년과 노인층, 남성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이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참여주민의 활동을 지원하고,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지원활동가가 참여주민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 마을지원활동가는 2016년 기준, 163명으로 13만 명에 달하는 참여주민과 비교했을 때 0.00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활동가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과제로 남았다.
- 5단계 사업 대비 1단계 모임형성 지원사업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단계별 지원사업의 다양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3단계 공간지원, 4단계 모임 간의 연계지원, 5단계 종합적 마을계획 수립지원 단계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단위사업과 단계 간의 상호연계를 강화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 서울시 전역에 공동체 공간으로 331개소가 조성되어 공간 인프라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

지만, 연차별 공간 운영유지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어, 공동체 공간 자립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림 6을 보면, 2015년에 설립된 2년 차 공간의 경우, 운영유지율이 88.2%이지만, 2010년도에 설립된 7년 차 마을기업의 경우 운영유지율이 44.4%에 불과해, 해를 지날수록 운영유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간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시설조성비와 사업비에 집중되고, 임대료나 인건비 등의 운영비는 참여주민이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간운영이 어려운 곳이 많다.

[그림 6] 서울특별시 공동체 공간의 운영유지율(2017년 기준)



*출처: 안현찬 외(2019)

(3) 서울특별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① 개요

-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2013년부터 5년간 추진된 1기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수립되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이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 및 활동가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단계별 지원사업의 다양화, 공동체 공간의 자립 기반 마련 등 1기 기본계획의 과제로 제시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추진과제와 실행 의제들이 제시되었다.
- 2기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은 먼저, 청년, 50+, 어르신 등의 참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으로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 플랫폼을 구축해 주민이 의제를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예산 동지역회의 등을 주민자치회로 통합하거나 흡수해 자치계획의 실행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세 번째로 교육을 통한 주민의 역량 강화와 공동체 공간을 확대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와 자치구 행정부서와 중간지원조직 간의 기능을 재정비하며, 자치구로 권한을 이전해 현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 2기 기본계획에서는 마을과 자치가 정책적 접근으로 함께 다루어지고, 주민주도와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마을과 자치 참여주민 간의 다양한 협력 방안이 고려되었다.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비전은 “마을과 자치, 시민이 만드는 서울”로, 목표는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생활자치 활성화”로 수립되었고, ‘사회적 우정’, ‘주민자치’, ‘지속가능’, ‘분권·협치’를 4대 핵심가치로 정하며, 10대 추진과제와 26개 실행의제로 구성되었다.

[표 9] 서울특별시 2기 마을공동체 핵심가치, 전략-추진과제, 실행의제

4대 핵심가치·전략	10대 추진과제	26개 실행의제
사회적 우정 연대와 협력의 경험 축적	1. 공동체 참여자 확대·다양화	모임형성 지원을 통한 참여자 확대
		다양한 참여집단 유입 전략 도입
	2. 교육을 통한 정책 공감대 확산	자치구 마을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시민 대상 마을공동체 교양강좌 민주주의 시민학습, 사회참여모임 지원

주민자치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	3. 주민자치회 설립 지원	주민자치위원회를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
	4. 주민자치회 권한·책임 강화	주민세(개인균등) 징수분 주민자치회 사용 주민자치회 주도 지역발전 지원
지속가능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축적	5. 공동체 지원 확보·축적 촉진	현금 외 공동체 자원, 자부담 인정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직접지원 다양화
		마을활력소 조성·운영
		공동체 공간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공동체 기금 조성 지원
	6. 정책지원 전문가 양성·배치	마을자치전문가 양성·배치
		마을일자리 창출 및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
	7.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사업종료 후 일상적 활동 지속 지원
지역기반 사회적협동조합 등 설립 지원		
마을공동체 종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및 단체협력을 통한 컨설팅 전문성 제고		
분권·협치 주민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8. 마을 자치 통합 지원체계 구축	자치구 주도 현장 밀착형 공모사업 추진
		협력적 정책 추진 활성화
		시·구 중간지원조직 기능 명확화
	9.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연계	마을공동체 DB 시스템 개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연계·협력
	10. 사회문제 해결형 모델 발굴·제시	열린육아방 확대로 지역에 공동육아 모델 정착
		사회문제 해결형 마을공동체 사업 모델 발굴

*출처: 서울특별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4) 타지치구 운영사례 및 마을공동체 이슈

① 송파교육모델(송파쌤 SSEM)을 통한 마을강사 양성 및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 2019년 상반기부터 개발에 들어간 송파교육모델(송파쌤 SSEM)은 공교육과 행정·민간이 함께 참여해 창의적인 미래인재육성 및 아동·청소년, 평생교육 등 송파의 모든 교육을 아우르는 자치구 단위 교육 모델이다. 특히, 송파의 전문가, 마을인재, 마을기업 담당자들이 인물도서관이 되어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인물도서관이 유명하고, 555명의 마을 인사가 인물도서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1만5천여 명의 학생들이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를 지원받고 있다(시사경제신문, 2020). 또한, 2019년부터 청소년의 문화예술, 창의분야 교육을 지원하는 송파쌤(SSEM) 마을강사를 공개모집하고, 90명의 마을강사를 선발해 강사 양성과정과 교육 현장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선발된 마을강사는 학교 교사와 협력해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연극, 패션디자인, 애니메이션, 드론, 코딩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의 문화예술과 창의분야 교육을 지원한다. 송파구는 마을 단위의 교육활동가를 양성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해 마을 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그림 7] 송파쌤(SSEM) 송파인물도서관 온라인 콘텐츠



[송파쌤 LIVE 인물도서관] 서현 교수

*출처: 송파쌤

② 팬데믹 시대 마을 단위 과제와 실천: 2020 은평구마을공동체한마당 사례

- 2020 은평구마을공동체한마당이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주관으로 2020년 10월 26일부터 5일간 은평구 5개 권역에서 연달아 진행되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활동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현장 내용을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했다. “팬데믹 시대에 마을이 가져가야 할 과제와 마을 단위의 작은 실천”을 주제로 열렸으며, 마을 구석구석을 탐방하는 마을여행도 함께 진행돼 은평마을에 대한 이해와 마을공동체 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은평구마을공동체한마당은 16개 동네넷이 주축이된 5개 권역 별 기획단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그림 8] 2020 은평구마을공동체한마당 영상, 포스터



*출처: 은평인터넷방송,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③ 마을공동체 10대 공약(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은 마을정책에 관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 먼저, 주민들의 기본생활권 보장과 강화를 위해 돌봄과 양육, 주거, 교육 등의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따라, 생활SOC, 커뮤니티케어 연계를 통한 마을공동체 요양원 설치 및 운영, 마을의 다양한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 마을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을 비롯한 전국의 마을공동체 지원 단위 등은 2013년부터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마을공동체 정책과 사업이 정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법적 근거가 지방정부의 조례 차원에만 마련되어 있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주민자치제도의 혁신을 통해 민관협치와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마을 단위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까운 읍·면·동장을 직선제로 전환하여 주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주민이 직접 만든 자치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 농촌과 도시, 아파트 등 지역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특화된 마을공동체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을수당 지급,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마을의 청년 지원, 아파트 커뮤니티 플래너, 마을·아파트 공동식당, 창의놀이터 등 지역 환경과 조건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그림 9] 2020년 마을공동체 10대 공약

Seoul • Maeul • Story

전국 마을공동체가 제안하는 10대 공약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① 기본생활권이 보장되는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

 - 더불어사는 마을 만들기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 돌봄·양육·교육 통합지원 체계 구축
 - 마을돌봄 개념을 접목한 인권 조례 제·개정
- ② 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

 - 정부·지자체의 역할 및 의무, 정책과 원칙 등이 담긴 기본법 제정
 - 당차원의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및 비전 수립
- ③ 주민자치제도 혁신**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실시
 - 주민자치제 도입: 주민세 개인 균등분율 주민자치제로 전환
- ④ 마을요양원 설치·운영**

 - 생활SOC, 커뮤니티케어 연계를 통한 마을공동체 요양원 운영
 - 마을회관의 농촌공동체복지 중심시설로 전환 운영
- ⑤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제도화**

 - 공유공동체주택 지원기금 조성
 - 도시재생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및 사업 지원
- ⑥ 주민 자율 이웃소통센터 설치·운영**

 - 권역별 및 읍·면·동별 이웃 소통센터 운영
 - 분쟁조정 전문활동가 양성 및 교육
- ⑦ 농촌 마을정책 추진체계 정비**

 - 읍면 단위 주민생활권 중심의 농촌정책 강화
 - 농촌 대상으로 마을수당 제도 도입: 행정리, 면 단위 시범 도입
- ⑧ 도농 상생 정책지원제도 개선**

 - 도농 교류 활성화와 연계한 공공일자리 확대
 - 생산지별 도농 연합체 출범 및 지원정책 마련
- ⑨ 청년 지원 정책**

 - 마을공동체 농업 및 농촌 공공임대주택 확대
 - 청년문화예술공유 공간 확대
 - 지방소멸 대상 마을에 대한 규모 있는 청년 지원
- ⑩ 내 삶이 편안한 마을공동체**

 - 아파트별 커뮤니티 플래너 배치
 - 마을·아파트 공동식당 사업 추진
 - 창의놀이터 만들기
 - 영구 임대아파트 공유공간 마련
 - 농촌마을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개선
 - 세대간 풀앗이 운영
 - 병원이동보호지원 서비스 제도 마련



*출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http://seoulmaeul.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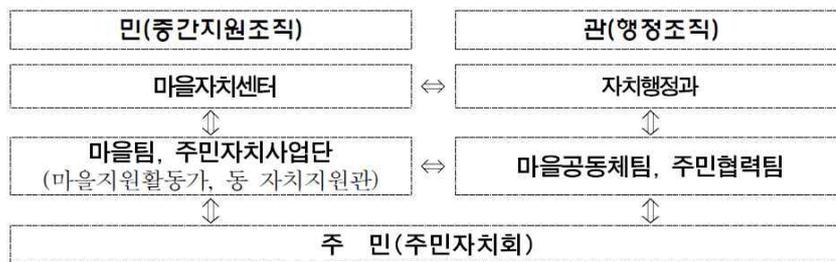
3) 구로구 마을공동체 운영현황

(1) 구로구 마을공동체 추진체계 및 목표

① 추진체계

- 행정부서인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내 마을공동체팀과 주민협력팀, 중간지원조직인 마을자치센터 내 마을팀과 주민자치사업단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구로구의 마을공동체 추진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로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¹⁾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마을자치융합 사업’ 등으로 구성해 추진해왔다.
-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관련 구로구의 민관협의체는 위촉직 8명(구의원, 전문가, 주민대표로 구성), 당연직 5명(행정) 등 운영위원 13명으로 구성된 구로구마을공동체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며, 행정부서와 중간지원조직 간의 민관 정례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그림 10] 구로구 마을공동체 추진체계



*출처: 구로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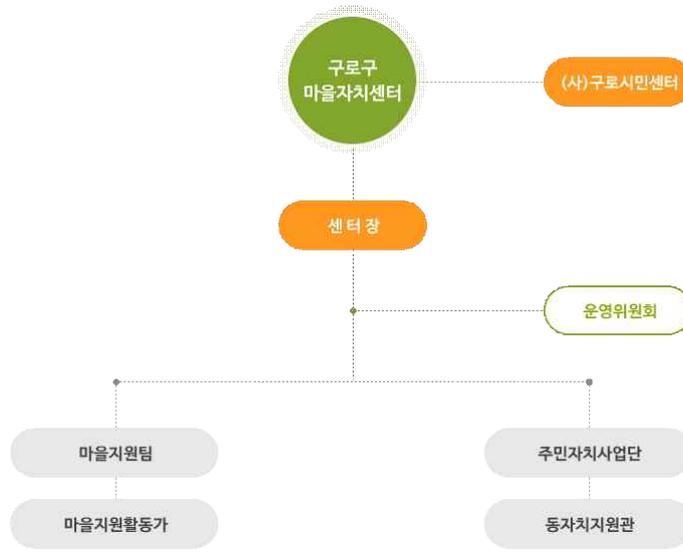
[표 10] 구로구 행정부서 추진체계

국	부서	팀명	인원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	6
		주민협력팀	5

*출처: 구로구청

1) 201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이 추진되면서 구로구는 행정 주도의 마을넷 네트워크를 출범시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협력과 참여를 도모하였다. 2014년에는 민간주도의 구로마을공동체네트워크가 「구로구 마을생태계 조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내 마을공동체 정책을 추진했으며,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의 구로마을생태계 조성단 운영위원회(구로마을공동체네트워크+구로마을공동체연구소)를 구성하여 추진했다. 2018년 6월에는 중간지원조직인 구로마을센터(위탁 운영법인: 사단법인 구로시민센터)가 설립되었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자치사업단의 출범 및 합류(2019)로 현재의 구로구마을자치센터가 출범했다.

[그림 11] 구로구마을자치센터 추진체계



*출처: 구로구마을자치센터

[표 11] 구로구마을자치센터 추진체계

센터	팀명	인원
구로구마을자치센터	마을지원팀	3
	마을지원활동가	14
	주민자치사업단	2
	동자치지원관	4

*출처: 구로구마을자치센터

② 추진목표 및 전략

- 「구로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의 연도별 추진목표 및 전략으로 2019년은 “마을자치 토대 구축”을 목표로 자치 전담조직 구성, 마을지원활동가, 동자치지원관 발굴 및 역량 강화 지원, 공동체 공간 안정적 운영 등을 추진했다. 2020년은 “마을자치 융합”을 목표로 마을자치융합사업 발굴 및 추진, 마을자치 융합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지원 등을 추진했다. 2021년에는 “마을자치 확장”을 목표로 주민자치회 전동 시행에 따른 지원, 자치계획수립 및 교육, 컨설팅, 홍보, 상담 등 지원, 동별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마을자치 안정·지속”을 목표로 주민 역량강화 및 자치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표 12] 구로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마을자치 토대 구축 ·자치 전담조직 구성 ·마을자치의 만남 ·마을자치 경험 공유 ·마을지원활동가, 동 자치지원관 발굴 및 역량 강화 지원 ·공동체 공간 안정적 운영	마을자치 융합 ·마을자치융합사업 발굴 및 추진 ·마을자치 융합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지원	마을자치 확장 ·주민자치회 전동 시행에 따른 지원 ·자치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시 교육, 컨설팅, 홍보, 상담 등 지원 ·동별 아카이브 구축	마을자치 안정·지속 ·주민자치회 전동 지속 운영 ·주민 역량강화 및 자치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출처: 구로구청

(2) 구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및 네트워크 현황

① 구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현황

-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구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은 연평균 80여 건 정도고, 2017년 가장 많은 114건의 공모사업을 지원했으나, 2018년부터 70여 건의 사업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2019년에는 74건의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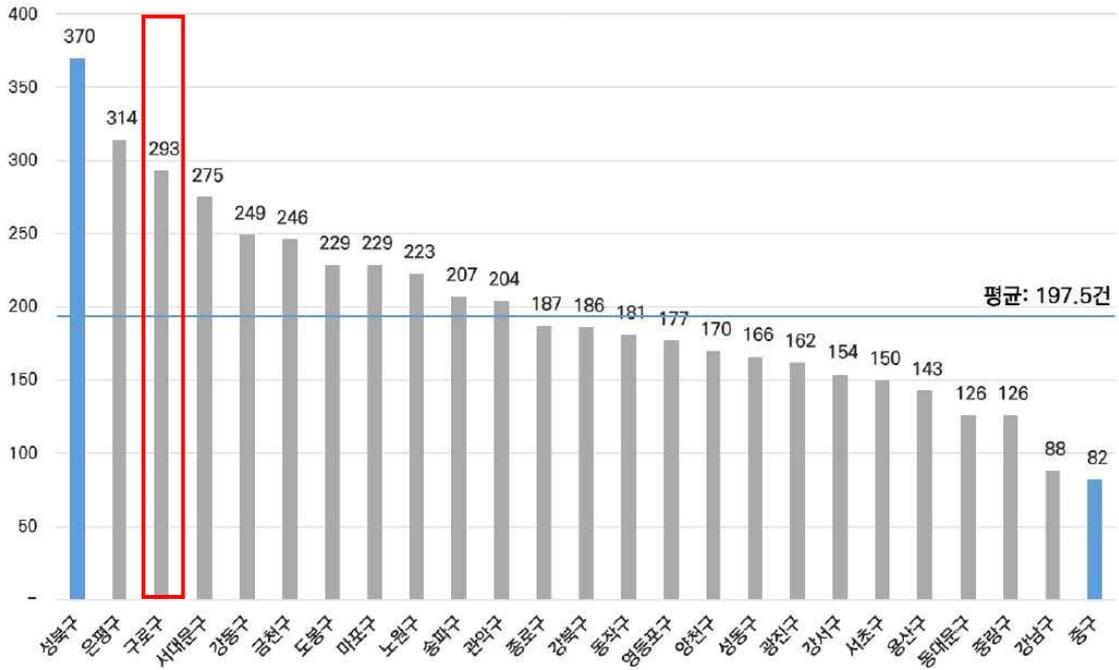
[표 13] 2012~2019 구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2	84	95	92	104	114	72	74

*출처: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구로구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건수를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타 자치구 대비 공모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2012~2015년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건수



*출처: 안현찬 외(2019)

- 2019년 기준 구로구의 마을공동체 사업 5단계 중 모임형성 지원사업은 40건으로 전체 54%에 해당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에서도 모임형성 지원사업이 다른 단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과 유사하다. 2019년에는 3단계인 공간지원과 4단계인 모임 간 연계지원의 경우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반면, 5단계인 종합적마을수립 지원의 경우 사업 건수가 2016년부터 15건으로 5년간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표 14] 2015~2019 단계별 구로구 마을공동체 선정사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건	%	건	%	건	%	건	%	건	%
1.모임형성사업	59	64.1	69	66.3	56	49.1	39	54.1	40	54.0
2.활동지원	26	28.3	13	12.5	40	35.0	17	23.6	19	25.7
3.공간지원	2	2.2	3	2.9	3	34.2	1	1.3	0	0
4.모임간연계지원	3	3.3	4	3.8	0	0	0	0	0	0
5.종합적마을수립	2	2.2	15	14.4	15	13.2	15	20.8	15	20.3
합계	92		104		114		72		74	

*출처: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공모사업에 지원한 대표제안자를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8년간 총 881명의 제안자 중 40대가 341명(38.7%)으로 가장 많고, 50대 210명(23.8%), 30대 146명(16.5%) 순으로 많았다.

[표 15] 구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연령별 대표제안자 수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총
2012~2015	9	29	117	255	126	44	29	609
2016	0	1	5	20	21	18	3	68
2017	0	0	18	30	34	22	9	113
2018	0	0	4	20	15	5	0	44
2019	0	0	2	16	14	10	5	47
소계	9	30	146	341	210	99	46	881

*출처: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구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행정동별 선정사업 및 참여자 수를 비교해보면, 구로1동과 오류1동, 오류2동에서 선정된 사업 수가 많고, 활발한 참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전체를 놓고 보면, 해가 갈수록 공모사업이 줄고 있으며, 주민의 참여 또한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6] 구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행정동별 선정사업 및 참여자 수

구분	2016		2017		2018		2019	
	선정사업수	참여자수	선정사업수	참여자수	선정사업수	참여자수	선정사업수	참여자수
가리봉동	7	1,087	3	555	0	0	4	58
개봉1동	3	1,035	7	1,115	8	871	2	25
개봉2동	7	1,070	11	405	2	34	1	33
개봉3동	6	1,321	4	5,016	0	0	1	14
고척1동	6	1,103	7	5,154	8	447	3	38
고척2동	8	5,394	8	2,436	0	0	2	21
구로1동	11	1,527	20	1,274	13	257	9	111
구로2동	6	1,559	5	1,195	0	0	5	63
구로3동	5	1,055	5	95	0	0	3	43
구로4동	5	1,079	4	125	0	0	4	32
구로5동	5	2,005	6	119	0	0	0	0
수궁동	6	2,344	6	165	6	261	2	17

신도림	7	1,767	4	85	2	50	2	55
오류1	9	2,045	7	248	12	983	12	399
오류2	5	2,102	15	1,070	4	53	9	155
미기재	8	300	2	60	2	104	0	0
타자치구	0	0	0	0	0	0	0	0
소계	104	26,793	114	19,117	72	3,060	74	1,064

*출처: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 2019년 구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총예산은 일억칠천사백십팔만오천(174,185,000원)이며, 이중 서울시 보조금은 47.6%고 (83,066,000원), 구로구 보조금은 52.3% (91,119,000원)로 자치구 보조금 지원 비율이 서울시 보조금보다 높은 상황이다. 2019년 기준, 구로구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규모는 서울시 자치구 중 마포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표 17] 구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유형별 현황

유형	사업명	사업주체	사업내용	추진실적
씨앗기	동단위이웃만들기 사업	3인 이상 신규 주민모임(단체)	공동육아, 요리교실 등 주민 공통관심사 나눔	29개 주민모임
	소모임형성사업			28,566천원 지원
모임성장	골목공동체 사업	기존 마을 공동체 경험 있는 3인 이상 주민모임(단체)	재능기부 활동 및 사회 공헌 활동(모금, 독거노인 생활환경 개선 등)	19개 주민모임
	마을의제 실행			49,619천원 지원
	활동지원사업			
	주민주도 공간사업			
모임확장	주민모임연합사업	주민모임 2개 이상 모임(단체)	주민모임간 소통을 통한 화합의장 마련(마을탐방, 친선당구대회 등)	2개 모임 6,000천원 지원
특화사업	행복마을조성사업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화합한마당, 축백나무제례, 직거래장터 등 동특화사업	15개 단체 67,500천원 지원
	시니어들의 마을살이	60세 이상 시니어	시니어 특화 지역사회 공헌활동	4개 모임 10,000천원 지원
	마을활력소 활성화 지원사업	활력소 주민운영협의체	활력소를 거점으로 한 주민들간 소통모임	4개모임 12,500천원 지원

*출처: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 구로구 공모사업을 ‘씨앗기’, ‘모임성장’, ‘모임확장’, ‘특화사업’으로 분류하면 특화사업에 90,000,000원(전체 예산의 51.6%)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이중 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하는 ‘행복마을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 씨앗기 단계에는 공통된 관심사를 주제로 3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동단위이웃만들기 사업과 소모임형성사업을 지원하며, 아코디언, 요리교실 등의 사업 등 총 29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모임성장 단계는 마을공동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골목공동체 사업, 마을의제 실행, 주민주도 공간사업 등을 지원하며, 천왕동마을축제 “위대한작당”, 어린이 생태텃밭 등 19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모임확장’ 단계는 2개 이상의 주민모임(단체)을 대상으로 주민모임연합사업을 지원하며, 마을탐방, 친선당구대회 등 2개 모임을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특화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의 행복마을조성사업, 6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마을살이, 마을활력소 주민운영협의체를 대상으로 하는 마을활력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고, 2019년 총 23개 단체 및 모임에서 사업이 진행됐다.
- 특히, 시니어마을살이의 경우, 사회문제해결형 특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니어 모임에 간사를 지원해 제안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과 회계 정산 등을 지원하고, 시니어 마을살이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해 마을공동체의 이해, 우수사례지 탐방,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13] 구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사례



*출처: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② 구로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현황

- 구로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로는 동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동네별 소통모임을 구로구 전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향동, 수궁동, 오류동 네트워크인 ‘향상수오사랑’이 2개 권역, 고척동, 개봉동 네트워크인 ‘소통고개’ 2개 권역, 신도림동, 가리봉동, 구로동 네트워크인 ‘신나게 가는 구로’가 2개 권역으로 나뉜다. 권역별 소통모임은 월 1회 이상의 정기적 모임을 통해 마을사업 및 공동체 활동 공유 등을 진행한다.

[그림 14] 구로구 마을공동체 동네별 소통모임



*출처: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 또한,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테마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참여하는 마을 장터 구로 별별시장이 201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5월 부터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벼룩시장, 체험마을, 먹거리마당 등을 진행했다. 2019년 구로 별별시장에는 약 3,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그림 15] 구로구 마을공동체 구로 별별시장



*출처: 구로구청

- 광역 단위 마을 네트워크 구축으로 타 시군구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구로구의 사례를 타 시군구에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구로구에 도입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구로구의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방식을 공간 조성 벤치마킹으로 대전 유성구에 공유한 사례, 마을만들기지방정부연합회 회원으로 구로구의 마을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

(3) 구로구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 구로구마을자치센터는 구로구의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으로 참여주민·사업지기를 대상으로 한 마을아카데미 ‘모두의 성장학교’, 마을지원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마을지원활동가 양성교육’, ‘마을·자치 강사 양성’을 진행한다. 교육과정별 목적과 방향으로 모두의 성장학교의 경

우 새로운 마을리더를 발굴하고, 주민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차별성 있고, 주민의 수준에 따른 마을교육을 제공하며, 마을과 자치의 융합을 위한 교육과정도 지원한다. 마을지원활동가 양성교육의 경우, 주민 친화적 마을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지원활동가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행정 간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전문활동가를 육성, 구로구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며, 활동가로서의 기본소양 정립 등을 지원한다. '마을·자치 강사 양성' 과정이 경우, 활동가, 동자치지원관, 동자치간사,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등 활동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며, 마을·자치 강좌를 전담하는 전문강사 양성이 목적이다. 마을자치 강사에 대한 마을자치센터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마을·자치 강사의 성장과 교수법 등의 내용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 강사진 제공을 방향으로 한다.

[표 18] 구로구 마을공동체 교육목적 및 방향

	모두의 성장학교	마을지원활동가 양성교육	마을·자치 강사 양성
대상	참여주민, 사업지기	마을지원활동가	마을지원활동가, 동자치지원관, 동자치간사, 마을자치센터 등 마을·자치 활동 경험자
목적	새로운 마을리더 발굴, 주민의 역량 강화 도모	주민 친화적인 마을활동 추진, 마을지원활동가 육성	찾아가는 마을·자치 강좌를 전담하는 전문강사 양성
방향	·사업지기, 주민 대상 차별성 있는 마을교육 제공 ·입문, 발전, 심화과정 등 수준별 교육 제공 ·마을교육 내용의 다양화, 심층화 ·마을자치 융합지원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형성 ·주민-행정 간의 가교역할 하는 전문활동가 육성 ·구로구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마을지원활동가 기본소양 정립	·마을자치 강사에 대한 마을자치센터의 책임성 강화 ·마을자치 강사의 성장 ·강사의 질 향상 및 다양한 요청에 따른 전문 강사진 제공

*출처: 구로구 마을자치센터(재구성)

① 2020 마을아카데미 모두의 성장학교

- 구로구 마을공동체 참여주민, 사업지기를 대상으로 한 모두의 성장학교는 세분화된 대상에 따라 5가지 교육과정으로 나뉜다. 먼저, 마을공동체 입문 주민, 신규모임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입문과정'을 운영하고, 참여모임을 대상으로 모임의 성장과 활동 범위 확장을 지원하는 '발전과정', 공동체 활동 거점공간인 마을활력소의 주민운영협의체, 공간지기를 대상으로 공간운영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특화과정', 활동가를 대상으로 개

념에 대한 심층이해와 활성화 기법 등을 지원하는 ‘심화과정’, 마을, 자치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각 활동의 개념과 융합의 당위성, 마을 의제 발굴 등을 지원하는 ‘융합과정’이 있다.

[표 19] 2020 마을아카데미 모두의 성장학교 교육과정

과정	교육대상	인원	교육목표	교육주제
입문과정	마을공동체 입문자, 주민공모사업 신규모임(단체)	40명	· 마을사업에 대한 공감도 및 인지도 확대 · 새로운 마을사업 참여 주민 발굴	· 마을공동체 및 마을자치 이해하기 · 유머니즘으로 공동체성 회복하기 · 공감하는 대화로 공동체성 회복하기
발전과정	주민공모사업 참여모임(단체)	40명	· 마을사업을 통한 주민과 모임의 성장 · 모임에서 마을로 관심과 활동 범위 확장	· 사업 홍보기법 교육 · 의사소통 및 관계형성 1:2 · 구로마을 비전 워크숍 · 회계 배움터 및 문서관리 실무
특화과정	마을활력소 주민운영협의체, 공동체 공간 운영지기	35명	· 마을공동체 및 공동체 공간의 이해 · 공간운영지기의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 공동체 공간 운영지기 역량강화 · 공동체 공간 우수사례지 탐방
심화과정	마을지원활동가	35명	· 자기주도성을 가진 마을 활동가 양성 · 개인의 성장을 넘어 지역 활동가로 성장지원 ·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역량 강화	· 마을에서 복지 개념 이해하기 · 마을자원 조사 방법 및 사례 · 마을 주민조직 활성화 방법 및 사례
융합과정	마을공동체사업 참여자, 주민자치사업 참여자	50명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상관관계 및 마을자치 융합의 당위성 이해	· 주민자치가 기반이 되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 구로마을 의제 발굴 및 비전 수립 워크숍

*출처: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 마을아카데미 모두의 성장학교는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총 14개 주제로 마을사업지기, 마을활력소운영지기, 마을지원활동가, 일반 주민 등 2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② 2020 마을지원활동가 양성교육

· 마을지원활동가 양성교육은 ‘마을지원활동가의 역할’, ‘주민이 만드는 마을’, ‘마을멘토이야기’를 주제로 1월간 3차례 진행되었다. 마을활동가로서의 역할, 활동 프로세스, 소통기법 등을

배우고, 마을과 공동체의 개념,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과정, 마을활동가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표 20] 2020 마을지원활동가 양성교육 과정

구분	교육주제	교육내용	강사
1강	마을지원활동가 역할	-마을지원활동가의 역할 이해 -관·중간지원조직·주민 사이의 역할 이해관계 -마을지원활동가의 활동 프로세스 이해 -마을 사례를 통한 상담 실제 -마을 활동에서 민주적인 소통기법	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2강	주민이 만드는 마을	-주민이 만드는 마을이란? 공동체는무엇일까? -마을공동체 정책 흐름 이해 -지원사업 및 공모사업의 이해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
3강	마을멘토이야기	-선배마을지원활동가의 마을 살이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중요성 -구로구 마을공동체 발전 로드 및 현황	마을지원활동가
4강			

*출처: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③ 2020 마을·자치 강사 양성교육

- 마을·자치 강사 양성교육은 ‘마을공동체 이해’, ‘교수법 사례 발굴’, ‘교안 개발 피드백’, ‘출강’ 순의 프로세스로 지원되었다. 특히, 올해는 마을과 자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함께 자신만의 강의법과 교안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었다.

[그림 16] 2020 마을·자치 강사 양성교육 프로세스



*출처: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표 21] 2020 마을·자치 강사 양성교육 과정

회차	교육주제	교육내용	강사
1강	마을·자치 이해	-마을·자치 배경과 의미, 개념 정리하기	(사)마을

2강	자신만의 강의 콘텐츠 개발	-강의 철학과 나만의 콘텐츠 완성 -무엇을 말하고 전달할 것인가?	가치혼합경영 연구소
3강	만족도 높은 강의 노하우	-강의 스킬과 교안 작성 -강의는 말하는 자의 것이 아닌 듣는 자의 것이다	
4강	강의 교수의 원포인트 레슨	-강의 실습 및 평가	

*출처: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2. 주민자치 추진현황

1) 주민자치 추진근거

(1) 주민자치 개념 및 흐름

① 주민자치 개념

- 주민자치의 개념은 ‘주민이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지방자치의 핵심원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등 다양한 개념으로 논의되어왔다. 먼저,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주민 행위의 개념은 Verba와 Huntington이 대표적으로(김문호, 2015), 주민자치를 “공식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의도적 행위” 또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일반 주민의 행위”로 보았다. 또한, 이규환은 주민자치를 “주민들이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주체 의식을 갖고 참여하여 투입기능을 수행하는 행위”로 정의한다(김문호, 2015).
-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핵심원리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김문호(2015)는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의사에 의해 운영되는 주민자치”이며, “우리사회 지방자치의 재개와 함께 변화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주민참여가 확산함에 따라, 주민 중심의 행정 체제를 이루는 주민자치가 대두했다”고 밝힌다. 즉, 주민자치의 최종 목적은 궁극적으로 관주도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주민주도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전제한다.
- 주민자치는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 논의되고 있다. 이호(2014)는 행정구역에 단지 거주하는 것만으로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住民)이 스스로의 일을 다스리는 것, 즉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을 다스리는 것”을 주민자치로 해석한다. 최근열(2014)은 주민자치를 “주민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자신의 부담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주의 원리, 즉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업을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제도”로 설명한다.

② 주민자치 흐름 및 제도화 과정

- 주민자치의 흐름은 지방자치의 시행과 퇴보, 회복의 과정과 함께 해왔다. 1952년,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 이후, 5.16군사정변과 함께 퇴보한 지방자치는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1991년 지방의회 구성’, ‘1995년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를 거치면서 행정 체제에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 체제와 권위적인 지휘·감독 관행 등으로 인해 ‘자치권 이양’ 및 ‘자주재정 권한 이전’은

지지부진하였다(김문호, 2015(박응격, 2012에서 재인용)).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추진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본질적으로 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주민자치가 관건이었으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었다(최근열, 2014).

-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1998년, 행정자치부는 민원업무 중심의 전통적 행정업무를 수행해온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을 위한 자치, 문화, 복지, 교육 등의 사업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999년 2월, 민원 처리 중심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읍·면·동 사무소 폐지는 전국군수구청장협의회 및 해당 공무원들의 반대로 철회되고, 대신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 단위에서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2000년 7월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가 읍·면·동 단위 전면에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읍·면·동장의 주도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주민에게 실질적 주체로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자치기구로서의 대표성 결여, 자치역량 미흡 등의 한계 또한 지적되었다(최근열, 2014).
- 읍·면·동 단위 행정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인한 주민자치 활성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정부는 2010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2011년부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심의와 자문의 기능에 그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역할을 전환하는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에 대한 연구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추진되었다. 2012년 5월에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근린자치분과에서 주민자치회 모델로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을 발표해, 주민자치 기능 강화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
-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세 가지 모델 중 최종적으로 협력형 모델²⁾을 선택하고, 시범실시하겠다고 발표한다. 2013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대체 입법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협력형 모델을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되어 현재까지 7년간 시행되고 있다.
- 최근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이 동등한 권한과 함께 지방행정에 참여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³⁾의 핵심축인 ‘지

2)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행정이 동등한 관계에서 협의·심의하고, 주민자치 관련 사업을 실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에서 강화된 모델

역균형 뉴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안정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토대로 하며, 주민과 공동체가 주도하는 혁신적 지방자치의 과제으로써 주민자치회 확산을 추진 중에 있다(오지은, 2020).

[표 22] 주민자치 제도화 연혁

1998	행정자치부: 읍·면·동 사무소 기능, 주민자치센터로 대체하는 내용 보고(김대중 정부)
1999.2	행정자치부: 읍·면·동 사무소를 폐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내용 발표
2000.7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전면 시행
2010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011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주민자치회 모델'에 대한 연구 추진
2012.5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근린자치분과: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모델 발표
2013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협력형' 모델 기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2020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과 함께 주민자치회 확산

3) 한국판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하며,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지역균형 뉴딜로 구성된 전략을 의미한다.

(2) 주민자치 법적근거

- 주민자치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2000.7.1. 주민자치 센터 조항 추가)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13.5.28. 공포·시행)에 의거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근거를 제공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규정하고, 지방행정 사무 중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추진기구로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의 주민자치기구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 기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표 23] 지방자치법 시행령 주요 내용

제8조 별표1-타(읍·면·동 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출처: 법제처(<http://www.moleg.go.kr>)

[표 2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자치분권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 2의2.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규정된 사항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한 사항
5.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7. 읍·면·동의 주민자치기구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읍·면·동의 주민자치 기반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
10. 제8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11. 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항
12. 그 밖에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출처: 법제처(<http://www.moleg.go.kr>)

- 주민자치회 시행에 있어서 법적 근거 상의 한계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고를 목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을 시범적으로만 시행할 수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7월, 주민주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실현 등을 위해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직접참여제도 개선’,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0-369호)을 입법발의했으나, 2020년 12월 2일,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제26조가 삭제된 채로 국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로써,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회 설치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의 시범적 설치 권한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며, 2020년 올해 주민자치회 시범제도의 시행 7년을 넘었음에도 여전히 시범적 설치 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발생한다.

[표 2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의 주요 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민자치' 주요 내용
①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 강화 : 주민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
②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 주민이 조례 제정, 개·폐를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 ③ 직접참여제도 개선 : 주민감사 청구인 수상한 기준을 하향 조정, 청구가능기간 연장, 단순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19세→18세)
- ④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 : 주민자치회 구성·사무 등 기본사항과 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20.7.16. 공포·시행)를 근거로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정의하는 주민자치는 주민이 지역의제의 발의,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체계이며, 주민자치회는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된 조직을 뜻한다.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장은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 강화,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 자치회관 운영 등을 지원하고, 이와 같은 사무를 비영리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표 26]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지원과 자치회관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 조례에서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의제의 발의,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②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③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 2.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3.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회관 시설 및 환경 개선
 2. 자치회관에 대한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3. 자치회관 도농교류 활성화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

-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출처: 법제처(<http://www.moleg.go.kr>)

- 구로구의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근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2006.3.31. 공포·시행)⁴⁾에 의거한다. 구로구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자치회관의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는 것이 원칙으로, 주민자치, 문화여가, 복지, 시민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조직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위촉 권한은 동장에게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되며, 2년 임기에 위원장만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표 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4) 구로구는 2006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2008년 12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했다.

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자치회관 제4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7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연 1회 자치회관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⑧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⑨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자치회관을 운영하거나 수탁한 경우(이하 "민간 운영"이라 한다)민간 운영자는 자치회관 운영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12조(주민참여)

-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동의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7조(구성 등)

-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내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 경우 당연직 고문은 3명 이내의 고문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된 사람
- ③ 삭제 [2002. 7. 30.]
- ④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당적을 갖지 아니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⑦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 ⑧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⑨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연구·개발, 상호 정보교환 사항 등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 ⑤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http://www.moleg.go.kr>)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자치회관의 사무 전체 또는 일부를 개인,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동별 특성에 맞는 3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1개 이상의 단위사업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구로구 관내 자치회관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하기 위해 구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두고, 동별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구로구 관내 자치회관에 대한 지원, 정책 연구개발, 주민자치활동, 지역공동체 형성 등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

[표 28]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주요 내용

제2장 자치회관 제7조(위탁)

-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법 및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 운영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탁운영의 대상, 범위, 위탁방식, 위탁기간, 위탁조건,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위탁운영자 간 별도의 위·수탁 협약으로 정한다.

제4장 주민자치위원회 제26조(분과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조례 제17조제9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동별 특성에 맞게 3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1개 이상의 단위사업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제33조(설치)

구청장은 조례 제17조10항에 따라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한다.

1. 자치회관 시설 등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협의회 구성)

- ① 협의회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하되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에는 회장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둔다.
- ③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협의회에서 위원 중 호선하고, 총무는 신임회장이 선임한다.
- ④ 고문은 구로구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협의회 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또는 주민자치회 회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공석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출처: 법제처(<http://www.moleg.go.kr>)

-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구성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로구는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8.12.27. 공포·시행)를 통해 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구로구는 주민자치회의 정의와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주민총회”로 정의하고, 주민자치회가 수립·실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자치계획”으로 정의한다.

[표 29]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실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 ②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은 정원 외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첨 없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②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시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표 30]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 주요 현황

구분	법규명	조항	관련 내용	
중앙 정부 단위	시행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1-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제28조	주민자치회의 기능
			제29조	주민자치회의 구성

지방 정부 단위	서울시 조례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로구 조례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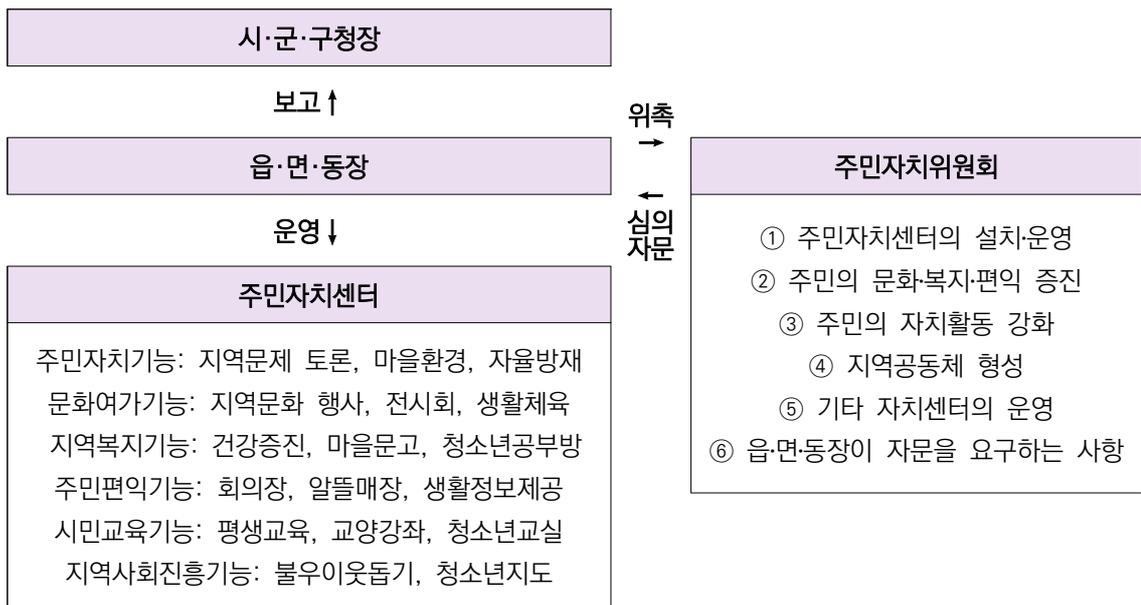
2)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1)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및 체계

①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

- 현재 시행 중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위촉을 받은 25명 내외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며, 읍·면·동 단위 행정 주요 정책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읍면동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등 6가지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기능’, ‘문화여가 기능’, ‘지역복지 기능’, ‘주민편익 기능’, ‘시민교육 기능’, ‘지역사회진흥 기능’을 수행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 읍면동장이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에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동장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표 31]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기능 및 추진체계



② 주민자치위원 위촉 기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 권한은 읍·면·동장에게 있으며, 읍·면·동장은 위원 위촉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별 여건에 따라 동장, 통장대표, 동 직능단체의 대표, 위원회 대표, 지역 전문가 등 위원 후보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 중 5명 ~ 9명

이내의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선정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맡는다. 선정위원회는 아래 기준으로 추천되거나 선정된 사람 중 25명 이내로 위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위원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 대상 : 읍·면·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자생단체의 대표자 중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된 사람
 -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된 사람
- 기준 :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고,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을 초과하지 않으며, 여성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주민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출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며, 임원진(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과 3인 이내의 고문 역시 읍·면·동장이 위촉 권한을 가지고 있어, 행정기관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③ 주민자치센터 이해당사자별 역할

- 주민자치센터의 이해당사자로서 수강생과 참여주민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와 피드백을 전달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센터 관련 안건과 사업, 프로그램 등을 심의하고, 운영 사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주민자치센터 담당자는 읍·면·동장이 동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원봉사자 중에서 임명하며, 센터 관련 정보 수집, 분석, 평가, 프로그램 기획, 시행, 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고용한 강사는 수강생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고문의 경우, 참여주민과 수강생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군 구청에 애로사항을 전달한다. 행정단위인 읍·면·동주민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전반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시·군·구청은 주민자치에 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표 32] 주민자치센터 이해당사자별 역할

이해당사자	역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센터 관련 안건 심의 주민자치센터 사업 및 프로그램 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
담당자 (공무원, 위원, 자원봉사자 등)	주민자치센터 관련 정보 수집, 분석, 평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 및 평가
수강생·참여주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강사	수강생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고문	참여주민, 수강생 등의 의견 청취 시군구청에 애로사항 전달
읍·면·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행정지원
정부(시·군·구)	주민자치 관련 기본 정책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출처: 기영화 외(2012)에서 재구성

(2)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① 전국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현황(2019.12.31.기준)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포함해 전국에서 활동 중인 주민자치위원 수는(고문 제외) 총 68,177명으로 여성은 26,912(39.5%)명, 남성은 41,265명(60.5%)이다. 업종별 주민자치위원 수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위원이 23,296명(34.1%)으로 가장 많고, 행정안전부의 업종 기준으로 분류할 수 없는 기타 업종 종사자, 농축어업 순으로 많다.
- 서울시의 경우, 7,938명(전국 위원의 11.6%)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고, 이중 여성 위원은 3,668명(46.2%), 남성 위원은 4,270명(53.8%)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903명(전국 위원의 17.4%)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표 33] 전국 주민자치위원 현황(2019.12.31.기준)

통리반장			직능, 민간단체			회사원			전문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5,066	3,481	1,585	8,807	4,894	3,913	4,969	3,397	1,572	2,855	1,683	1,172
자영업			농축어업			기타			합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3,296	17,575	5,721	9,995	6,560	3,435	13,189	3,675	9,514	68,177	41,265	26,912

*출처: 행정안전부

② 구로구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현황(2020.12.기준)

- 구로구는 전체 16개 동 중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중인 4개 동을 제외한 12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실시하고, 총 273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전체 273명의 위원 중 113명(41.4%)은 여성위원이고, 160명(58.6%)은 남성위원이며, 오류2동, 구로2동, 고척2동은 여성위원 비율(각 60.9%, 52.0%, 52.3%)이 남성위원보다 높다. 개봉3동은 가장 많은 위원이 활동하고 있고, 2020년 1월 1일 오류2동에서 분동된 향동은 20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임원진을 성별로 보면, 12개 동 임원진 총 27명 중 여성은 8명(29.6%), 남성은 19명(70.4%)이고, 오류2동과 수궁동의 경우 여성이 위원장이다.

[표 34] 구로구 주민자치위원회 현황(2020.12.기준)

신도림동 고문 1, 위원 22 (위원장 1, 부위원장 1)	구로1동 위원 23 (위원장 1, 부위원장 2)	구로2동 고문 3, 위원 25 (위원장 1, 부위원장 1)	구로3동 고문 2, 위원 24 (위원장 1, 부위원장 1)
구로5동 고문 3, 위원 21 (위원장 1, 부위원장 1)	고척1동 고문 1, 위원 23 (위원장 1, 부위원장 1)	고척2동 고문 3, 위원 21 (위원장 1, 부위원장 2)	개봉2동 고문 2, 위원 23 (위원장 1, 부위원장 1)
개봉3동 위원 26 (위원장 1, 부위원장 1)	오류2동 고문 3, 위원 22 (위원장 1, 부위원장 2)	수궁동 고문 2, 위원 23 (위원장 1, 부위원장 1)	향동 위원 20 (위원장 1, 부위원장 1)

*출처: 구로구청

③ 전국 주민자치센터 현황(2019.12.31.기준)

- 전국 3,491개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수는 3,119개이며, 전체 행정구역의 89.3%이다. 이 중 주민자치위원회가 시행 중인 곳은 2,493개 읍·면·동으로 전체의 80%이며,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 중인 곳은 626개 읍·면·동으로 전체 20.0%이다. 주민자치센터를 명칭으로 사용하는 곳은 2,462곳이며, 서울시의 경우 대부분 자치회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 서울시 전체 425개 동 중 423개 동에 자치회관(주민자치센터 등)이 설치되었고, 이 중 주민자치위원회가 시행 중인 동은 252개 동으로 전체의 59.6%이며,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 중인 곳은 171개 동으로 전체의 40.4%이다.

[표 35] 전국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2019.12.31.기준)

시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읍면동 수			
	계	읍	면	동	계	읍	면	동
계	3,491	230	1,182	2,079	3,119 (89.3%)	184	911	2,024
명칭사용실태 (단위: 개소)								
계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	주민자치회	자치센터	주민회관	기타		
3,119	2,462	386	157	2	1	111		

*출처: 행정안전부

- 전국 3,119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의 지원금액은 1,163억 원 정도로 이 중 41.0%는 운영비, 34.3%는 인건비, 13.7%는 사업비로 지원된다.

[표 36] 전국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지원현황(2019.12.31.기준, 단위:백만원)

연간지원 총금액				
계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기타
116,336.0	47,802.3	39,980.4	15,930.4	12,622.9

*출처: 행정안전부

- 전국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는 45,038개로 이중 문화여가 성격의 프로그램이 32,386개(71.9%)로 압도적으로 많다. 그다음으로 시민교육 6,326개, 지역복지 2,507개, 주민자치 1,424개, 지역사회진흥 1,318개, 주민편익 893개 순이다.

[표 37]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2019.12.31.기준, 단위:개)

계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진흥	기타
45,038	1,424	32,386	2,507	893	6,326	1,318	184

*출처: 행정안전부

④ 구로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현황

- 2019년, 구로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지역의 직능단체 및 기관과 연계한 마을축제 및 주민 어울림 한마당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었으며, 15개 동에서 19번의 마을축제 등이 열려, 축제당 약 500~4,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부분의 주민자치활동이 추진되지 못했다.

[표 38] 2019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마을축제 사례(구로구청, 2019)

동	축제명	일정	참여주민	장소
고척1동	제3회 고척1동 마을축제 (GO! Up to the Sky!)	2019.08.31.(토)	약 4,000명	고척스카이돔 광장
수궁동	제1회 수궁동 청소년 창작영화제	2019.09.05.(목)	약 150명	구로청소년문화의집 지하1층
구로1동	구일 한마당 축제	2019.09.21.(토)	약 2,000명	주공(아)분수대, 구일고운동장 등

(3)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기초자치단체의 범주를 시·군·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읍·면·동은 시·군·구에 속한 하부 통제의 범위로,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는 주민자치위원회 또한 지방자치제도 내에서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행정의 기초 단위로 위상과 권한, 역할을 갖기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단위의 자치 권한 부여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이호, 2014).

① 주민자치 실행 주체로서 역할과 권한이 미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은 주민자치센터(자치회관)의 설치와 함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제공하는 법률들이다. 특히, 서울시와 구로구의 조례는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역할·기능, 위원선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이 규정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일부 기능으로만 국한된 점에서 한계가 발생한다. 법률이 내포하는 최상위 목적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주민자치위원회가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기에는 제도적 근거가 약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 법률상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책임지는 단위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동장으로 규정되어있는 점도 한계이다. 동장이 읍·면·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까지도 책임을 지면서,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간의 구별이 모호해질뿐더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주민자치 현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권한을 갖는 읍·면·동장이 센터의 일부 사항만을 주민자치위원회와 심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위원들은 의견제시자 또는 시설관리위원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김문호, 2015).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역할 등이 중심이 된 법적인 근거를 통해 읍·면·동 행정단위에서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는 것이 아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책임 권한을 갖는 읍·면·동장에 심의·자문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협력자” 정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제한적인 이유는 법률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읍·면·동 단위 행정 사항,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사항 등에 대한 “심의·자문”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행정에 전달하는 것만이 아닌, 위원들의 주민자치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만 국한된 역할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실행”하는 단위가

아닌, 또 하나의 “대의기구”로써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법률상에 명시되어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과 권한은 제도상 어디에도 규정되어있지 않다.

② 자치기구로서 대표성 형성이 어려운 환경

-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권한이 읍·면·동장에게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의 자치기구로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시·군·구청장이 임명하는 읍·면·동장은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선출된 것이 아니므로, 읍·면·동장에게 위촉을 받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기구로서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직능, 관변단체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모호한 영역 속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자치조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지역의 유지집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민자치위원들 또한, 여러 개의 관변, 직능단체 소속을 겸하고 있는 점(김문호, 2015)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더욱 퍼져 있다. 본 연구가 구로구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주민자치) 활동을 해왔다. 언제나 느낀 것은 말이 주민자치이지 관치다. 자치라 할 수 없다.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적어도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주민 역할이 중요하고, 그만큼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런 것들이 없이, 죽이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한쪽은 소외되고, 잘못하면 패갈림되고 하는 폐단이 나타난다. - 구로5동 주민자치위원

-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조직으로서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위원 선정과정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공정한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주민자치위원의 선정 방식은 ‘추천받은 자에 대한 선정’과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 방식으로 구성된다.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자생단체의 대표자로서 추천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은 읍·면·동장이 구성한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따라서, 적극적인 공개모집을 통해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가 확보되는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선정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것인가의 여부가 대표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공개모집에 응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다면, 공개모집 방식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위원의 구성은 결국 추천에 의존하는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법률을 통해 읍·면·동장이 선정위원장을 맡고 있고, 위촉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 주민자치위원으로 추천되는 사람은 자연스레 읍·면·동장과 연관된 인물이거나, 행정단위에서 추천된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공개모집을 거쳐 다양한 계층과 성, 사회적 역할 등을 고려한 후보군을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는 기능은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주민자치위원들의 대표성 또한 강화되지 못하는 것이다.

③ 일상적 자치활동과 지역자원과의 연계 저조

- 지역 내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논의 및 의사결정 구조 등의 기반 마련이 선결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일상적 자치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일상적 자치활동을 법적으로는 위원들이 참여하는 월 1회의 정기회의와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는 임시회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월 1회의 참여 의무만이 규정되어있는 것이다. 본 연구가 구로구 주민자치위원 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여실태는 주평균 3.1시간, 월평균 2.7일, 연평균 14.4일로 월 1회의 정기회의 숫자를 조금 넘기는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역시도 위원들의 자치활동 참여가 월 1회 정기회의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김문호, 2015).

[표 39] 구로구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실태 평균

구분	평균
활동시간(주평균)	3.1
활동일(월평균)	2.7
활동일(연평균)	14.4

- 문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월 1회의 정기회의 또는 월 1회를 조금 넘기는 정도의 참여만으로는 지역의 자치 의제를 파악하기 어려울뿐더러, 의제에 대한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일상적 자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정기회의와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구로구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 결과,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주민자치위원들의 일상적 자치활동이 정기회의를 넘어서 활발해지지 못하는 상황이며, 위원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도출되지 못하는 자치 의제들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에 의해 채워지거나,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들만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자치 의제를 결정하는 폐쇄적 의사 결정구조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의(代議)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으며, 주민은 의사 결정을 위해 단순 참여하는 동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의 유지집단 정도로 인식되고, 자치 활동 또한 활발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이 다양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위원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구조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다.
- 주민자치위원의 일상적 자치활동 강화와 주민자치회의 개방적 의사결정구조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주제에 해당하는 분과위원회와 전문성 또는 경험을 갖춘 자생적 풀뿌리 시민단체가 주관이 되어 사업을 추진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 주민자치 사업을 주도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에 협력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지역의 경험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장-통·반장-직능단체 등을 넘어 다양한 주제와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와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의제를 다루거나,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의제를 만들지 못하거나, 역할과 권한 등의 이유로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치 활동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지역에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다.

3) 주민자치회 운영

(1)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00년 7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 이후, 주민자치위원회는 전국의 읍·면·동 단위로 확산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실행 주체로서의 권한·역할 미비’, ‘자치기구로서의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일상적 자치활동의 부진과 지역자원과의 연계 저조’ 등 주민자치위원회 내외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한계가 제기되어왔다. 2010년에는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특별시·광역시시의 개편,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시·군·구의 통합에 이어, 읍·면·동의 주민자치 기능 강화의 내용이 담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당시의 지방분권 추진체계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분권 촉진위원회로 이분화되어 있었다(김문호. 2015). 따라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두 법률을 통합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⁵⁾이 2013년 제정되었다. 특별법은 읍·면·동의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기능·구성(제27조~제29조)을 규정하고 있다.
-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조례 단위에서만 규정하던 주민자치조직에 대한 근거를 중앙 단위 법령상에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조직에 대한 독립적 위상이 확보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개편 과정에서 시·군·구 통합으로 거대해진 시·군·구의 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읍·면·동의 자치 기능 강화의 방편으로 주민자치회의 규정을 삽입한 점에서, 주민자치회 자체적인 필요에 의한 논의라기보다는, 행정체제개편의 부속된 조치로 다루어진 한계 또한 있었다(이호. 2014).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연구 및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주민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김문호. 2015). 이 또한, 지방분권과 행정체제개편의 부속된 조치로 주민자치를 대하는 행정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②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을 위한 논의

- 2011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근린자치분과⁶⁾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심의와 자문의 기능에 그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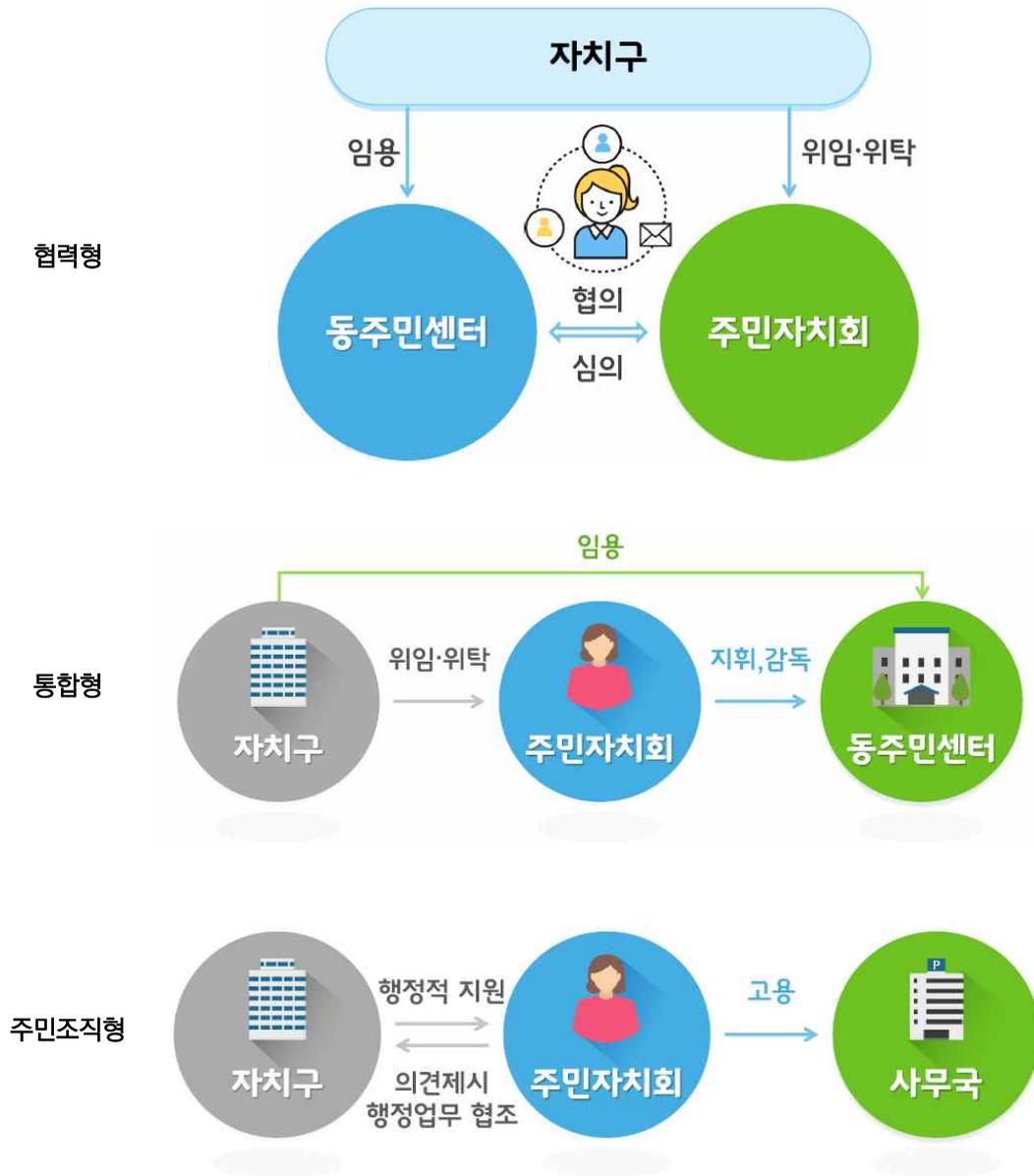
5) 2018년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일부 개정된 사항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과 기능, 역할 등을 전환하는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에 대한 연구를 추진했다. 그 결과, 2012년 5월,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의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이 발표되었다.

- 먼저 협력형 모델은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행정이 동등한 관계에서 협의·심의하고, 주민자치 관련 사업을 실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의 읍·면·동장의 위촉 권한이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시·군·구의 권한으로 격상하면서 읍·면·동과 대등한 관계로 격상시킨 모델이다. 협력형의 특징은 읍·면·동 주민센터가 현재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정사무에 대해 주민자치회에 위임·위탁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필요에 따라 공무원 파견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통합형 모델은 주민자치회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속으로 두고, 읍·면·동 행정을 주민자치회 산하에 두어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읍·면·동 단위 행정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모델이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 기능과 더불어 읍·면·동 행정기능, 시군구에서 위임·위탁하는 사무 모두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 주민조직형 모델은 기존의 읍·면·동 행정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폐지하는 대신 주민자치회를 두는 모델로 주민자치회는 독자적인 사무기구와 함께 동 단위 정책 의사결정과 집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주민주도 근린자치의 실현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았다(이호. 2014, 김문호 2015).

6)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3개의 분과위원회(구역분과, 기능분과, 근린자치분과)를 두었는데, 이 중 근린자치분과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자치경찰 실시, 기타 주민자치 강화와 관련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국가기록원. 2015).

[그림 17] 주민자치회 협력형, 통합형, 주민주도형 모델



*출처: 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주민자치학교 교재

[표 40] 주민자치회 협력형, 통합형, 주민주도형 모델 비교

구분	협력형	통합형	주민주도형
권한	주민자치기능 결정·집행 읍·면·동 행정기능 협의	주민자치기능 결정·집행 읍·면·동 행정기능 결정	주민자치기능 결정·집행
읍면동 주민센터	존치(행정기능 유지)	주민자치회 산하 사무기구로 전환	폐지(시군구에서 수행)
행정과의 관계	읍·면·동과 연계·협력	시·군·구 하부 행정기관	시·군·구와 연계·협력

*출처: 김문호, 2015

- 세 가지 모델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비교해보면, 주민자치 기능에 대한 협의와 심의 권한에서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 확대된 것이 큰 차이다. 또한, 읍·면·동 행정사무 수행의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통합형은 수행과 함께 결정 권한을 갖고, 협력형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협의와 심의 기능을 하며, 주민조직형은 주민자치 기능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행정과 주민자치회 간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통합형은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해 시·군·구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하부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며, 주민주도형은 시·군·구 단위에서 추진하는 행정사무와 연계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행정과는 독자적인 위상과 권한을 가진다. 협력형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연계하고 협력하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일한 역할을 유지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와는 대등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다.
-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근린자치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한 3가지 모델 모두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본방향을 안전행정부에 통보했다(김문호, 2015). 그러나, 모델에 대한 법제처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통합형 모델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 및 특별법상에서 읍·면·동 행정사무를 주민자치회 산하로 두는 것은 불가능하며, 주민조직형 모델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 입장임으로 읍·면·동 폐지를 위한 결정이 우선해야 판단이 나왔다(김문호, 2015). 따라서, 법률상의 개정 없이, 지방조례만으로도 수행이 가능한 협력형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모델로 선정되었다(김문호, 2015 (김필두, 2015)에서재인용, 하혜영, 2020).
- 안전행 정부는 협력형 모델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 방식을 택하고, 총 2가지 기본모형과 5가지 선택모형으로 나누어 모집에 지원하는 지역이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모형은 주민자치회가 복지재원 배분의 구심체 역할을 통해 지역복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지역협력형’과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안전마을형’으로 나뉜다. 선택모형은 ‘도심창조형’, ‘평생교육형’, ‘마을기업형’, ‘지역자원형’, ‘다문화어울림형’으로 나뉘며, 모집에 지원하는 지역에서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표 41] 주민자치회 성공 모형(행정안전부, 201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				
↑ ↑ ↑				
기본모형				
지역복지형		안전마을형		
지역 내 산재된 복지자원 배분의 구심체 역할 수행으로 지역복지 공동체 활성화		자발적인 생활안전 강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의 구심체 역할 수행		
선택모형				
도심창조형	평생교육형	마을기업형	지역자원형	다문화어울림형
<p>소규모 동네재생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추진</p>	<p>지역주민의 수요, 계층별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p>	<p>주민자치회 중심의 수익사업 추진으로 지역문제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 및 자생적 역량 강화</p>	<p>지역 명소, 지역 특산물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브랜드 가치 창출 및 제고</p>	<p>다문화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p>

- 중앙행정 차원에서는 주민자치회 성공 모형을 통해 여러 각도에서 시범추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다음, 주민자치회 추진을 결정하려는 입장이었다. 다만, 시범사업 결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기능의 구체적인 사항을 법적 근거로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아닌, 지방조례 상에 맡겨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건과 상황이 제각각인 지방행정 현상이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을 떠맡는 상황이 초래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추진해온 지역들이 새로운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고민이 채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별다른 협의 없이 행정 주도로 성공모형을 구성해 시범실시 지역 선정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었다. 실제로 시범실시에 지원한 다수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사업재정을 지원받기 위한 방편으로써 신청에 응하기도 했다(이호, 2014). 하지만, 주민자치회 전환을 통해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었다. 무엇보다, 협력형 모델의 결정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독립적인 위상과 권한으로 읍·면·동 행정과 협력하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 또한, 읍·면·동과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실행 조직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③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권한 비교

-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협력과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능으로 전환한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시·군·구 또는 법령으로 위임·위탁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선정과정의 민주성, 투명성 등으로 지적받아 온 주민자치위원 선정과정은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는 과정으로 전환되고, 위원위촉 권한은 읍·면·동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으로 변경되었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과 대등한 관계로 격상되며, 읍·면·동 단위 행정 사항에 협력하는 등의 파트너십을 이루게 된다. 재원조달 및 활용 권한 또한 확대되었는데, 읍·면·동의 지원 예산에 대부분 의존해야 했던 상황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며 수익사업, 위임·위탁사업을 통한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조금 지원과 기부금 활용 또한 가능해졌다.

[표 42]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역할과 권한 비교(행정안전부, 2013)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주요기능	주민자치센터 운영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협력·자문	주민자치 기능 결정·집행 위임·위탁 사무 수행
위원선정	각급 기관·단체 추천 및 공개모집 신청자 중 읍·면·동장이 선정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위원위촉	읍·면·동장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
행정과의 관계	읍·면·동 주도로 운영	읍·면·동과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 구축
재원조달	읍·면·동의 지원 예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등	자체재원(수익·위탁사업 등) 보조금, 기부금 등

④ 전국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현황

- 안전행정부는 2013년 3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개모집⁷⁾을 통해 시범지역으로 31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후 주민자치회 관계자 1차 워크숍, 표준조례안 통보, 동자치지원관 운영을 거쳐, 2013년 7월부터 주민자치회 구성이 시작되었다. 전체 31개 시범지역 중 10개 지역은 안전관리 네트워크 구축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안전마을형으로 선정되어 추진되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 마장동과 은평구 역촌동이 첫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표 43] 2013년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31개 지역(행정안전부, 2013)

시도	시범지역	시도	시범지역
서울(2)	성동구 마장동, 은평구 역촌동*	경기(5)	수원시 행궁동, 송죽동*, 부천시 송내1동, 김포시 양촌읍*, 오산시 세마동
부산(2)	동래구 안락2동, 연제구 연산1동*	강원(2)	고성군 간성읍*, 인제군 인제읍
대구(1)	수성구 고산2동	충북(1)	진천군 진천읍*
인천(1)	연수구 연수2동	충남(4)	천안시 원성1동*, 아산시 탕정면, 논산시 벌곡면, 예산군 대흥면
광주(3)	남구 봉선1동*, 북구 임동, 광산구 운남동	전북(2)	군산시 옥산면, 완주군 고산면
대전(1)	동구 가양2동	전남(2)	목포시 신흥동, 순천시 중앙동*
울산(1)	북구 농소3동	경북(1)	안동시 강남동
세종(1)	부강면	경남(2)	창원시 용지동, 거창군 북산면*

*안전마을 선정지역 (10개)

-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은 2013년 31개 지역에서 출발해 2014년 47개, 2018년 95개, 2019년 408개로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2020년 6월 기준, 전국 3,491개 읍·면·동 중 626개 읍면동(20.0%)에서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체 425개 동 중 171개(40.2%) 동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어있으며, 경기도는 543개 읍·면·동 중 104개 (19.1%) 읍·면·동에 설치되어 추진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전체 20개 읍·면·동 중 10개(50%) 읍·면·동에 설치되어 광역단위에서는 비율상 가장 많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의 효과적 추진과 주민과 공동체가 주도하는 혁신적 지방자치를 추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7) 2013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166개 지역이 공개모집에 지원했으며, 이중 민관합동선정위원회는 31개 지역을 최종선정했다.

[표 44] 전국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추진현황(2020.6.26. 기준. 행정안전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71개 40.2%	10개 4.8%	6개 4.3%	70개 45.4%	32개 33.6%	21개 26.5%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4개 7.1%	10개 50%	104개 19.1%	42개 21%	3개 1.9%	64개 30.9%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개 1.2%	28개 9.4%	10개 3%	48개 15.5%	-	

-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전동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성동구(17개 동)와 금천구(10개 동)이며, 두 자치구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단계인 지난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성동구 종암동은 2017년 주민자치회 구성을 시작해, 2018년 여름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마을대청소, △공용주차장 건설, △이육사 문학거리 조성, △마을이야기 책자 제작 사업 등 14개 자치사업을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 단위 ‘주민 헌혈의 날’을 지정해, 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주민 헌혈 실천을 주도하고 있다. 금천구 시흥3동 주민자치회의 경우, ‘주민이 이끌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자치마을’을 주제로 장기적인 마을비전을 수립하고, △주민 관계망 구축을 통한 마을기금 조성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위수탁 등의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박미마을 주민공동체 운영회, 주민편익시설 운영위원회와 함께 △박미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3동 주민자치회는 2020년 12월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의제실행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림 18] 서울형 주민자치회 종암동(좌), 시흥3동(우) 사례



*출처: 더지방포스트. 2019, 금천구민신문. 2020

- 논산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시 전체에서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추천하는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를 추진하고 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는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장을 주민이 면접과 토론, 투표를 통해 임명자인 논산시장에게 직접 추천하는 제도로 총 2,442명의 주민이 시민추천위원회를 통해 토론과 투표를 통해 읍·면·동장 후보자를 논산시장에게 추천했다. 올해 2020년 6월에는 노성면, 벌곡면, 가야곡면, 은진면에서 시민추천위원을 모집하고, 읍·면·동장 추천을 위한 면접과 토론, 투표를 진행했다.

[그림 19] 논산시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 사례



*출처: 논산시

- 2020년 12월,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지역으로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신평면 주민자치회는 온라인 앱인 ‘우리동넷’을 활용해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해 △신평면 금천리 도서관 건립사업 △여성청소년 자치센터 내 위탁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사업 △신평면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석문산단 인입철도 노선 변경 등 4가지 마을의제를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신평리 주민자치회는 이밖에도 주민자치 실행법인으로 ‘꿈꾸는 나무’를 설립, 송악읍과 신평면이 협력하는 ‘오봉제 문화공원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으며, 청소년 위원회 ‘별하’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해왔다(충청탐뉴스, 2020, 연합뉴스, 2020).

[그림 20] 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회 온라인 주민총회 사례(우리동넷)



*출처: 충청탑뉴스.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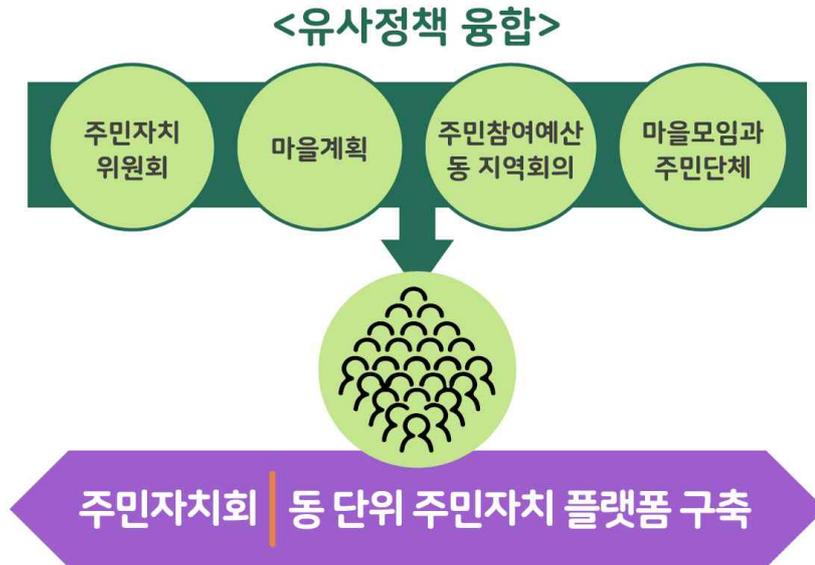
- 행정안전부와 당진시는 당진상공회의소, 당진여성기업인협회 등 당진시 관내 12개 기관과 함께 근로자의 주민자치 참여 보장을 위해 공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분권법에 근거해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활동을 할 경우, 공가 사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중부매일. 2019).

(2) 서울형 주민자치회

① 추진 배경

-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 경험 등을 바탕으로 마을과 자치의 융합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 단위 주민자치 플랫폼’으로써 추진되고 있다.
- 서울시는 2007년 읍·면·동 사무소가 읍·면·동 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시점에 읍·면·동에 속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동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해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다.
- 서울시는 또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2013년 제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주도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해왔다. 제1기 기본계획 아래에 2015년까지 추진된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 지향적인 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육아, 교육, 주거,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해냈다.
- 2015년 7월부터는 동 단위 행정혁신과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마을자치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사업을 13개 자치구, 80개 동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2019년까지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424개 동으로 확대해왔다. 찾동 사업의 핵심은 마을의 문제를 주민의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만드는 ‘마을계획’이다. 전체모임, 분과모임, 주민설명회 등 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론장을 만들며, 주제별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공유를 마을총회를 통해 가지며, 주민 간의 숙의·토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마을계획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향후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적인 자치계획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마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마을계획의 경우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활동 경험이 풍부한 민간 영역의 마을 전문가를 배치해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 서울시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 마을계획, 주민참여예산 등 지역회의 등 마을과 자치 단위로 추진되는 유사 정책들을 융합하고, 시민과의 최접점 행정단위인 동 주민센터의 민관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동 단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써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21] 서울형 주민자치회 추진 배경



*출처: 2020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주민자치학교 교재

-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비교해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위원 선정방식에 있어 주민자치 학교를 이수하는 것을 지원자격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한 주민을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위원 구성을 40대 이하 15%, 특정 성 60% 미만 비율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동 행정 협의 권한에 그치던 것에서 ‘자치계획의 수립’,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 선정 권한’, ‘주민세 개인균등분 환원사업 실행 권한’ 등 주민자치 기능 권한뿐만 아니라, 재원조달 및 활용 권한 또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 22] 주민자치위원회와 서울형 주민자치회 비교

내용	주민자치위원회	(서울형) 주민자치회
명칭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위원 인원	25명	50명 이내 (예비위원 10명)
선정방식	추첨 후 동장 위촉	주민자치학교 이수 후 공개모집과 공개추첨
위원 구성 비율	비율 없음	40대 이하 15%, 특정 성 60% 미만
위촉	동장	구청장
권한	자치회관 운영, 동 행정 협의 권한	자치계획 수립권,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 선정권, 주민세 환원사업 실행권, 행정사무 위수탁 및 행정사무 협의권
주민총회	없음	연1회
분과구성	위원으로 구성	주민 누구나 참여
지원체계	없음	자치구 마을자치센터 (구-동 단위 지원)

*출처: 2020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주민자치학교 교재

②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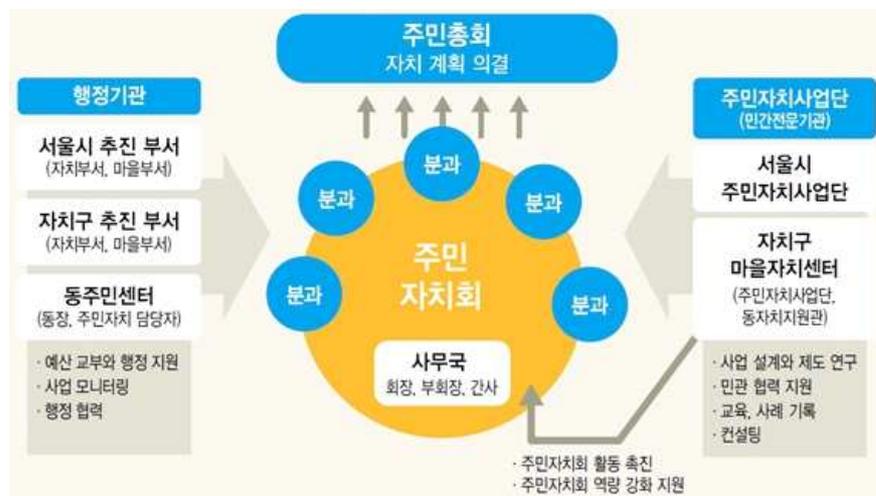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주민회합 및 발전을 위한 기능’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법령·조례·규칙으로 위임·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등 사무의 위임과 위탁의 기능에 관해 규정한다.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자치회 기능으로 ‘자율적 조직과 운영’,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자치회관 운영 등 행정사무의 위수탁 처리’, ‘자치계획, 주민총회 등 자치활동의 수행’, ‘주민참여예산 제안 등 동 지역회의 기능’,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역할로 정하고 있다.

[표 45] 특별법, 조례상의 주민자치회 기능

주민자치회 기능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1. 주민회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위수탁 처리 (자치회관의 운영 등)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교육, 행사, 미디어, 기금 등)

③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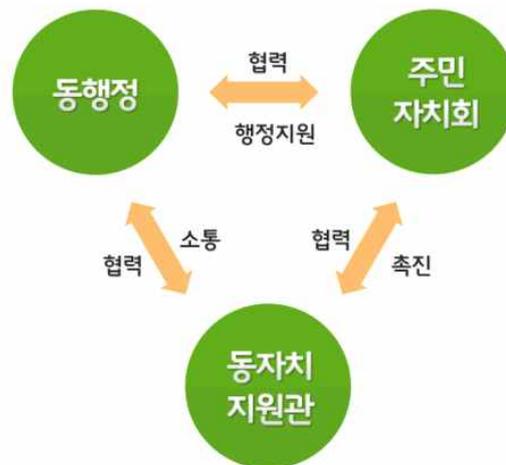
[그림 23]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체계



*출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추진하고, 지원하는 서울시 단위 행정부서, 자치구 단위 행정부서와 동행정이 있으며, 동행정은 주민자치회 예산 교부 및 행정지원, 동 단위 행정사무에 관해 주민자치회와 협력한다. 민간 추진 및 지원단위인 주민자치사업단은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과 함께 동 단위 현장에서 지원을 책임지는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동자치지원관이 자치구 마을자치센터에 소속되어 있다.
-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과 동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 활동 촉진과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사업 설계, 제도 연구, 민관협력 지원, 주민자치 교육 및 사례기록,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특히, 동자치지원관은 동주민센터에 파견 근무하며 주민자치회를 밀착 지원하고, 동행정과 주민자치회 사이의 협력 및 상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과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모든 수행과정에서 주민들과 일상적 관계를 맺으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힘쓰는 역할을 맡는다.

[그림 24] 주민자치회-동자치지원관-동행정간 협력구조



*출처: 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주민자치학교 교재

- 주민자치회 사무국은 주민자치회장, 주민자치부회장, 간사로 구성되며, 주민자치위원 중 회장, 부회장을 각각 1명씩 호선하고, 주민자치회 사무의 처리를 위해 주민자치회장은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장은 대내외적으로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정기회의 및 임원회의의 진행과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주민자치회 간사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사무실무를 총괄하며, 간사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예산 범위 내 실비 및 수당을 지원받는다.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선출된 간사는 주민자치 현장의 실무를 마을자치센터에서 파견된 동자치지원관과 함께 추진하며, '민관협력', '자치역량',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간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 감사는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며, 주민자치회의 운영, 회계, 사업 진행에 대한 투명성과 타당성 감사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25] 서울형 주민자치회 임원별 역할



*출처: 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주민자치학교 교재

④ 분과위원회

- 주민자치회 활동 강화와 참여자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회는 복수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생활·안전, 건강·복지, 문화·예술 등 분과 주제에 따라 구성되며, 위원들과 일반 주민들이 함께 모여 구체적인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는 활동 단위로, 분과위원회의 참여 자격은 주민자치회 위원뿐 아니라,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주민들도 포함된다. 또한, 일반 주민 분과원은 분과별 회의와 사업에 참여하면서 분과 활동에 대한 발언권도 가진다.
- 분과위원장은 분과가 구성된 이후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민주적으로 선출하며, 분과의 대표로서 분과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분과 운영을 총괄한다. 분과위원의 경우, 자치계획 수립 관련 제안과 함께, 자치계획과 분과 활동을 실행하고 평가하며, 월 1회 이상 분과회의에 참여한다. 분과위원 위촉과 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림 26] 서울형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주제



*출처: 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주민자치학교 교재

⑤ 주민자치회 프로세스

- 주민자치회 프로세스로 1차 연도에는 주민자치회 신규구성과 함께 주민자치회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주민자치 신규구성 과정에는 주민자치회 홍보와 위원모집, 주민자치학교 운영, 주민자치위원 공개추첨 과정이 포함된다.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운영 내규 작성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며, 주민자치회 임원진을 선출하고,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차 연도부터는 분과 주제에 따라 분과를 구성하고, 분과별 자치계획을 수립하며, 주민총회를 통해 동 자치계획을 최종결정한다. 또한, 자치계획이 결정되면 결과 정리와 함께 거주동 주민에게 공유하며, 계획에 따른 실행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친다. 3차 연도에는 자치계획을 실행한다. 자치계획의 실행을 위해 주민자치회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며, 계획에 따른 실행 이후, 사업에 대한 평가와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그림 27]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요 프로세스



*출처: 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주민자치학교 교재

- 각 분과에서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수립하는 사업계획은 주민총회를 통해 동 자치계획으로 최종 결정되며, 자치계획은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이다. 자치계획의 수립을 위해 주민자치회는 분과별 심층조사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며, 정책공유회 등으로 분과별 의제를 사업과제로 다듬는다. 이후, 주민자치회 조정회의 등을 통해 분과별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조정하며, 분기별로 진행되는 전체회의의 의결을 통해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 자치계획은 '분과별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동 행정사무 협의 및 수탁 계획', '자치회관 운영계획',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 등으로 구성된다. 주민자치회에서 수립된 자치계획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되며, 시·군·구청장은 검토 및 의견 전달 후, 결정된 자치계획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그림 28] 서울형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단계



*출처: 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주민자치학교 교재

-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되고, 주민자치회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동 자치계획의 결정,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등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동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결정한다. 주민총회 진행단계로 먼저 자치계획과 동 의제들을 공유하고 전시하는 등 참여주민에게 알리는 과정을 거친다. 공유 과정 이후에는 자치계획, 주민자치회 의제 등에 관해 숙의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고, 투표를 통해 최종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결정된 이후에는 자치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림 29]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진행단계



*출처: 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주민자치학교 교재

⑥ 주민자치위원 선출 및 교육

- 주민자치회 구성원은 임기 2년(한차례 연임)의 위원 50명으로 구성되고,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해 주민자치회는 위원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위원선정 대상은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주민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후보를 추리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⁸⁾. 특히, 위원선정 기준에 있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에서의 균형 있는 선발과 여성위원이 비율 확대 등을 노력해야 할 것을 권고하는 정도이지만,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경우, 40대 이하의 비율을 15% 이상으로, 특정 성 비율을 60% 미만으로 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8) 구로구의 경우, 2018년 조례 제정 당시, 정원 모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했으나, 2020년 6월 25일,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의 60%는 공개모집, 40%는 단체 및 주민조직 추천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권한이 기존의 동장에게 있었던 것과 비교해, 주민자치회의 경우, 위원 위촉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다.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동행정 협의 정도에 그친 기존 주민자치위원의 권한에서 확장되어, 전체회의, 분과회의, 분과장회의, 주민총회 등을 통해 위원들은 주민자치 활동의 전반을 평가하고, 자치계획을 결정하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사항을 의결한다.
-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위원 공개모집 신청 전, 주민자치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019년 기준, 서울시의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참여 정책의 흐름과 의미에 대한 이해,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이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강의와 워크숍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표 46]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주민자치학교 교육내용

주제	내용	방식
주민참여 정책의 흐름과 의미	시민참여, 공동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주민자치제도의 이해 마을공동체·주민자치의 활성화	강의, 워크숍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이해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취지와 배경 서울형 주민자치회 세부 프로세스 이해 주민자치회 시범단계별 사례와 성과	강의, 워크숍
서울형 주민자치회와 사람들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과 지원체계 주민자치회 위원의 태도와 관점 그룹별 워크숍	강의, 워크숍

*출처: 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주민자치학교 교재

⑦ 지원 및 활용 예산

-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으로 행정 지원과 민관협력 촉진을 위한 전담 인원인 동 자치지원관을 파견하며, 주민자치회 실무를 전담하는 간사의 활동비, 주민자치회 운영비, 사무공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 또는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단위에서 운영 컨설팅과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 주민자치회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서울시 동단위계획형 참여예산이 있으며, 주민세 개인균등납세분, 서울시 및 자치구 보조금 등이 있다. 특히, 동 지역회의가 담당하던 참여예산 관련 기능이 주민자치회로 이관되어 주민자치회는 참여예산 중 서울시 동단위계획형 의제에 대한 편성 권한을 갖는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경우, 동별 세대 수에 비례해 산정되므로 동마다 예산규모가 달라지며, 지역주민 불편해소, 문화행사, 지역특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에 활용된다.

[그림 30]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용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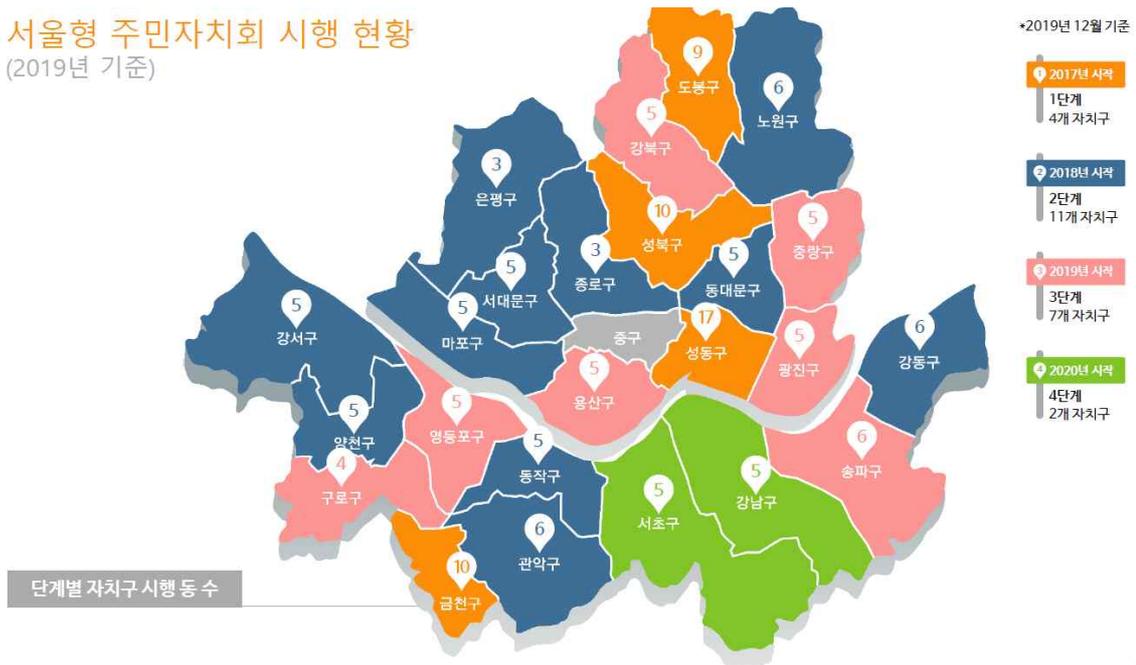
*출처: 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주민자치학교 교재

⑧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실시현황(단계별)

-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전체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에서 시행 중(중구 제외)이며, 2017년 1 단계로 4개 자치구(도봉, 성북, 성동, 금천) 26개 동에서 시작해, 2018년 2단계 11개 자치구(강동, 강서, 관악, 노원,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양천, 은평, 종로) 55개 동, 2019년 3단계 7개 자치구(구로, 영등포, 용산, 강북, 중랑, 광진, 송파) 35개 동, 2020년 4단계 2개 자치구(서초, 강남) 10개 동에서 진행해왔고, 2022년 425개 전동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20년 현재 전동을 시행하는 자치구는 성동구와 금천구이다.

[그림 31] 서울형 주민자치회 자치구별 도입 계획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현황
(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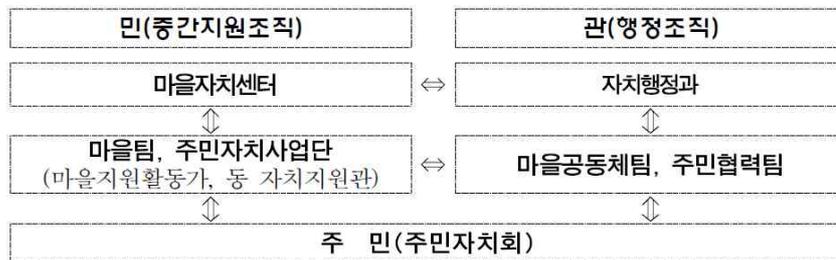
*출처: 2020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주민자치학교 교재

(4) 구로구 주민자치회 추진현황

① 추진체계 및 경과

- 구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체계로 중간지원조직인 구로구마을자치센터 내 주민자치사업단과 행정조직인 구로구청 자치행정과 내 주민협력팀이 있으며, 동자치지원관의 경우, 주민자치사업단 소속으로 4개 시범동에 각 1명씩 현장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구로구 주민자치사업단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구로구에서 추진하며 △주민자치회 신규구성 및 운영,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동 행정사무 위·수탁 처리, △자치회관 실질적 자율관리, △주민참여예산 편성, 결정 및 집행 등을 지원한다.

[그림 32] 구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체계



*출처: 구로구청

- 2018년 12월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2019.4.25.)을 통해 현재의 구로구마을자치센터 단위로 구성되었으며, 주민자치사업단 구성(2019.6.1.)을 거쳐, 주민자치회 위원모집 및 주민자치학교를 2019년 7월~8월까지 진행했다. 2019년 9월에는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을 진행하여 총 4개 동 200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고, 10월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상호 간의 인수인계가 진행되었다.

[표 47] 구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부서

추진 부서		인원
구로구청 자치행정과	주민협력팀	5
구로구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	2
	동자치지원관	4

*출처: 구로구청, 구로구마을자치센터

- 주민자치사업단의 경우, 주민자치 사업을 총괄하며, 주민 대상 교육과정 개발, 주민자

치회 구성·운영 및 사업지원, 동자치지원관 업무 지원, 현장기록, 아카이빙 등을 담당하며, 동자치지원관의 경우,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자치계획 수립, 주민자치회 회계, 동 행정과의 협력 및 소통, 주민 네트워크 형성 등을 현장에서 지원한다.

② 성과 및 추진목표

- 구로구 주민자치회의 성과목표는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등 모든 직능·민간단체를 아우르는 주민 대표 조직으로서 ‘주민자치 권한 및 대표성을 강화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과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해결하도록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 연도별 주민자치회 추진목표는 2018년,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과 함께 4개 시범동을 선정, 2019년, 주민자치사업단과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주민자치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고, 2020년, 분과위원회 구성,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으로 구체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추진하며, 2021년, 자치계획의 실행, 행정사무 위탁 협의, 평가 및 차년도 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 실행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표 48] 구로구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주민자치회 조례제정 4개 시범동 선정	주민자치사업단 구성 주민자치회 신규 구성	분과위원회 구성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행정사무 위탁 협약 평가 및 차년도 계획 수립

*출처: 구로구청

③ 시범동 추진현황

- 구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2019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3단계로 추진되었다. 2019년에는 구로4동, 가리봉동, 개봉1동, 오류1동 총 4개 동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2020년 8월 온·오프라인 주민투표를 거쳐 자치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21년에는 자치계획 실행을 예정하고 있다.
- 2019년 11월 기준 시범동별 50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전원 공개추첨 방식을 통해 선정되었다. 주민자치회 위원 중 주민자치위원회 경험이 있는 주민의 비율은 구로4동이 42%, 가리봉동이 24%, 개봉1동 10%, 오류1동 32%로 10~40% 정도 수준이다. 주민자치위원의 성별 비율은 4개 동 모두에서 여성위원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아, 구로구 주민자치위원회 추진 동의 평균 여성위원 비율 39.4%보다 크게 웃돌고 있다.

[표 49] 구로구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현황(2019.11.기준. 구로구청)

시범동	위촉인원	전 주민자치위원	여성위원	남성위원
구로4동	50명	21명(42%)	26명(52%)	24명(48%)
가리봉동	50명	13명(24%)	27명(54%)	23명(46%)
개봉1동	50명	5명(10%)	27명(54%)	23명(46%)
오류1동	50명	16명(32%)	26명(52%)	24명(48%)
총계	200명	55명(27%)	106명(53%)	94명(47%)

- 2019년 11월 기준, 4개 시범동에서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주민은 총 319명이다.

[표 50] 구로구 주민자치학교 이수 주민 현황(2019.11.기준. 구로구청)

주민자치학교	구로4동	가리봉동	개봉1동	오류1동	총계
이수자 수	60명	86명	109명	64명	319명

- 2019년 구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은 3억 3천 8백만 원으로 시비 3억 2천만 원(94.6%), 구비 1천 5백만 원(4.4%)으로 구성된다.

[표 51] 구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 현황(구로구청. 2019. 단위:천원)

연도	예산			편성내역
	시비	구비	계	
2019	320,542	15,000	338,542	시설비 : 24,000 자산취득비 ; 44,750 민간경상사업보조 : 16,667 민간위탁금 : 250,125 사무관리비 등 : 3,000

④ 2021 자치계획

- 주민자치회 4개 시범동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오프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대신 온·오프라인 주민투표를 통해 자치계획을 결정했다.
- 주민투표에 앞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자치계획 및 의제를 홍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거리홍보 등을 진행했으며, 동 주민센터, 지역거점공간에서 오프라인 주민투표와 네이버폼, 서울시엠보팅을 통한 온라인 주민투표를 2020년 8월 14일~28일까지 진행했다. 충분한 정보제공과 의제에 대한 고민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1표당 0.5표로 간주해 산정했으며, 4개 동 총 1,849명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체 참여주민 중 오류1동의 주민이 847명으로 가장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졌다.
- 자치계획에 상정된 의제는 구로4동이 6개, 가리봉동 3개, 개봉1동 7개, 오류1동이 8개이며, 이중 오류1동만 절반인 4개 의제가 선정되고, 나머지 3개 동은 모두 선정되었다. 선정 의제 분야는 거리환경과 문화·축제 등이 많았고, 의제 수에 따라 동별 1천 2백만 원~4천 4백만 원의 실행비가 편성되었다. 의제 하나당 평균 실행비는 약 5백만 원 정도이다. 동별 인구수에 따라 배분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 환급액은 개봉1동이 5천 5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고, 구로4동 4천 3백여만 원, 오류1동 3천 8백여만 원, 가리봉동 2천 3백여만 원 순이다.

[표 52] 구로구 2021 자치계획 주민투표 현황

구분		구로4동	가리봉동	개봉1동	오류1동
홍보	주민설명회	기관·단체 대상 3회	가리봉시장 등 4회	-	-
	거리홍보	-	3회	개봉역, 잣절공원 입구 등 4회	오류북부역, 경서농협 등 5회
오프라인 투표	일 시	8.18~20(3일)	8.25~26(2일)	8.21(1일)	8.24~28(5일)
	장 소	주민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지역거점
	주민투표수	208명	228명	44명	847명
온라인 투표	일 시	8.18~20(3일)	8.18~26(9일)	8.14~20(7일)	-
	온라인 도구	네이버폼	서울시엠보팅	네이버폼	
	참여주민수	106명	157명	259명	
	투표 간주수	53표	79표	130표	
투표 참여주민수		314명	385명	303명	847명

자치계획 수	주민세환급액 (단위:천원)	43,921	23,883	55,803	38,100
	상정의제 수	6	3	7	8
	선정의제 수	6	3	7	4
	선정의제 분야	거리환경 문화 자치회관 아동청소년	거리환경 문화 자치회관	거리환경 마을축제 자치회관 아동청소년	거리환경 문화교육 주민소통
예산 (단위:천원)	의제실행비	30,000	12,000	44,000	20,000
	의제당 평균실행비	5,000	4,000	5,500	5,000
	의제개발비	13,921 (30%)	11,883 (49%)	11,803 (21%)	18,100 (47%)

*출처: 구로구마을자치센터

- 구로4동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실행의제의 경우, 총 6개 의제이며 주민들의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의제는 '어르신을 위한 쉼터의자 설치'이다. 선정된 의제의 분야로 거리환경 조성과 관련해 3개 의제, 자치회관 내 프로그램 운영이 2개 의제, 어린이·청소년 관련 의제가 1개로 구성되었다.

[표 53] 구로4동 2021 자치계획 실행의제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안)	추진분과	사업비 (천원)	총 득표수
어르신을 위한 쉼터의자	어르신과 장애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쉬어갈 수 있는 의자 설치	문화복지	3,300	158
너희는 뭘하고 싶니	초3~중3을 공개모집, 수요조사를 위한 공론장 통해 활동을 찾고 실행	그루터기	8,000	136
알록달록골목 만들기	기존의 훼손벽화를 새로 디자인	생활환경	8,000	133
정감가는 골목조성	목재팻말로 골목 미관개선, 꽃화분 놓기(주민실명제), 골목축제 개최	생활환경	7,000	127
가족연인과 함께하는 자치회관 특강	교양강좌, 저자와의 대화 등 특강, 주민 간의 토론공유회 진행	자치회관	2,000	107
힐링마을소극장	자치회관 내 주민을 위한 작은영화상영회 개최	자치회관	1,700	96

의제개발비	의제개발을 위한 교육, 워크숍,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회	13,921	-
-------	------------------------------	-------	--------	---

*출처: 구로구마을자치센터

- 가리봉동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실행의제의 경우, 총 3개 의제이며 지역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한 지역융합사업인 ‘AAC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들의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다. 선정된 의제의 분야는 복지, 거리환경, 자치회관 관련 의제가 각각 1개씩 구성되어 있다. 가리봉동의 경우, 지역자원과 연계해 다문화, 장애인, 내국인 간의 언어소통을 지원하는 지역융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54] 가리봉동 2021 자치계획 실행의제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안)	추진분과	사업비 (천원)	총 득표수
AAC마을만들기	다문화, 장애인, 내국인간의 언어소통을 위한 AAC도입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한 지역융합사업	살고싶은 동네만들기	1,000	206
가리봉동 소식지 발행	분기별 동 소식지 발행, 주민리포터 발굴	자치교육 알리미	5,500	176
디지털단지오거리 꽃길조성	도로꽃길 조성 꽃길걷기와 베스트포토 이벤트	36.5도	5,500	134
의제개발비	의제개발을 위한 교육, 워크숍,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회	11,883	-

*출처: 구로구마을자치센터

- 개봉1동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실행의제의 경우, 총 7개 의제이며, 동네 가꾸기로 화단 조성사업이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다. 개봉1동의 특징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물놀이, 진로교육, 예술활동, 인문학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55] 개봉1동 2021 자치계획 실행의제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안)	추진분과	사업비 (천원)	총 득표수
-----	---------	------	-------------	----------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방치된 화분과 유휴지 조사, 화분과 화단 조성	주거환경	6,000	158
꿈꾸는 청년 버스킹 앤 프리마켓	지역 청년, 중장년의 예술활동 진작 위한 버스킹, 주민참여 프리마켓 운영,	행복마을축제	3,000	107
마을에서 즐기는 물놀이	공개모집을 통해 어린이 모집, 5일간 총 15회의 물놀이장 운영	행복마을축제	8,000	97
개봉1동 지도 알림판	주민의견, 지역소식 등 전하는 지역알림판 설치	자치회관운영	7,500	83
청소년 1인 멘토 및 진로, 직업소개	지역 청소년과 주민자치 연결 위한 사업, 청소년 꿈멘토, 현장방문. 동아리 구성	아동청소년	8,000	64
행복을 여는 인문학 강의	30~60대 연령대별로 욕구조사, 주민자치인식개선, 인문학 강의,	자치회관운영	5,500	56
마을책자앨범 만들기	2021년의 개봉1동의 기록을 책과 사진으로 구성, 스토리상영회 개최	주거환경개선	6,000	45
의제개발비	의제개발을 위한 교육, 워크숍,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회	13,921	-

*출처: 구로구마을자치센터

- 오류1동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 실행의제의 경우, 총 4개 의제이며, 골목길 쓰레기 청소, 안전마을 조성 등의 의제들이 높은 호응을 얻었다. 골목길 쉼터 등의 평상, 벤치 등을 설치해 마을 일을 논의하는 의제와 이웃친척 간의 화합을 증진하는 의제 또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통해 결정되었다.

[표 56] 오류1동 2021 자치계획 실행의제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안)	추진분과	사업비 (천원)	총 득표수
골목길 쓰레기 우리함께 해결해요	통별주민설명회와 홍보,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구역별 순찰조 구성운영	생활환경개선	5,000	656
안심 안전마을 만들기	주민대상 순찰대 모집, 구역지정과 알림표지판 설치, 안전교육과 홍보 확대	생활환경개선	5,000	638
골목길 쉼터에서 마을을 논하다	공유공간에 평상과 벤치 설치, 쉼터,포트럭 운영하며 마을일 의논하기	미래마을기획	5,000	455

외로워 말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멘토, 멘티 가족맺기, 합동생신상, 마을여행, 명절 가족행사 개최	문화교육복지	5,000	396
의제개발비	의제개발을 위한 교육, 워크숍,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회	18,100	-

*출처: 구로구마을자치센터

3. 요약 및 시사점

1)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회복을 지향, ‘주민주도’, ‘주민 삶의 변화’ 초점

- 마을공동체는 사람 중심의 가치, 상호신뢰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하며, 일상생활 속 의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공의제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는 실행체로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공동체적 단위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행되며, 추진체계로 서울시 단위와 자치구 단위의 행정부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와 자치구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을 두고 있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주민의 필요에 따라 계획하고 직접 만드는 마을공동체 실현’을 비전으로 서울형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마을공동체 활동가 역량 강화, 자치구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마을공동체 홍보전파, 서울형 커뮤니티 거점 활성화, 동 단위 마을 자치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는 조례에 근거해 5년마다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2013년~2017년까지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 추진되었다. 1기 기본계획은 2014년까지는 주민주도 마을공동체의 기초토대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2017년까지는 마을공동체 네트워크와 마을 지향 행정 시스템 정착을 핵심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1기 기본계획의 추진 결과, 마을 지향적인 행정 체제가 구축되고, 마을공동체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서울시 전역에 다양한 공동체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여성의 적극적인 활동·역량 강화에서 성과가 있었다. 또한, 작은 공동체 활동 활성화 의제에 따라 소규모 공동체 형성이 촉진되었는데, 육아,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과 마을지원활동가 양성, 단계별 지원사업의 다양화와 단위사업 간의 상호 연계성 강화 등의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한, 1기 기본계획 추진으로 조성된 공동체 공간의 운영·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 또한 과제로 남아있다.
- 2기 기본계획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 ‘주민자치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실질적 주민자치 안착’, ‘주민역량 강화와 공동체 공간 확대’, ‘자치구 권한 이전 통해 현장 변화에 대응력 강화’ 등을 방향으로, 1기 기본계획의 후속 과제를 보완하는 추진과제와 실행의제로 구성되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 전국 단위에서 논의되는 마을공동체 이슈로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온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과 함께 ‘읍·면·동장 직선제’, ‘주민세 개인균등분 환급금 활용’ 등 마을지원 정책 및 주민자치 제도에 대한 혁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민의 기본생활권 보장과 강화를 위한 돌봄, 양육,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농촌과 도시, 아파트 등 지역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특화된 마을공동

체 지원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구로구의 마을공동체 정책은 「구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행되며, 행정부서인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내 마을공동체팀과 주민협력팀, 중간지원조직인 마을자치센터 내 마을팀, 주민자치사업단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구로구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예산과 참여 규모의 측면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큰 규모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활발한 주민참여와 공동체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해가 갈수록 공모사업의 규모가 줄고 있고, 공모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또한 줄어드는 상황이다.

2)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을 통해 융합을 위한 체계·기반 마련

- 서울시는 마을과 자치에 대한 통합적 정책 접근을 추진하며, 마을과 자치 참여주민 간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고려해, ‘마을과 자치, 시민이 만드는 서울’을 비전으로,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생활자치 활성화’를 목표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기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 중 하나는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 플랫폼(서울형 주민자치회)을 구축해 실질적 주민자치를 정착시키는 것’이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참여예산 동지역회의 등을 주민자치회로 통합하거나 흡수해 자치계획의 실행력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 지원단과 서울형 주민자치 사업단의 통합 운영을 통해 시 및 자치구 단위 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동 단위 마을·자치 조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마을과 주민자치의 활동성과를 도출하고, 융합사업 취지를 확산하기 위한 주민 공유회를 개최하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 사업의 종합적 성과 콘텐츠 생산, 동 단위 사례기록 등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 구로구 또한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을 통해 마을과 자치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구로구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의 연도별 추진목표는 △2019 마을자치 토대구축, △2020 마을자치 융합, △2021 마을자치 확장, △2022 마을자치 안정·지속이며, ‘마을자치 융합사업의 발굴 및 추진’, ‘마을자치 융합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서울형 주민자치회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구로구의 마을 예산 중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행복마을조성사업’이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며, 단위사업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구로구는 특히 마을과 자치 융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정립을 시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마을공동체 참여주민과 사업

지기를 대상으로 하는 마을아카데미 모두의 성장학교 교육과정 내 융합과정을 구성하고, 마을과 자치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활동의 개념, 융합의 당위성, 마을·자치 의제 발굴 교육 등을 지원한다. 2020년 구로구의 융합과정 교육에는 마을과 자치 참여주민 50여 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마을·자치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융합 추진을 위한 교육 전문가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3)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원리로, 지방혁신 과정과 함께 추진

- 주민자치의 개념은 ‘주민이 정책결정과정에 개입하는 행위’, ‘지방자치의 핵심원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등 다양한 개념으로 논의되어왔다. Verba과 Huntington은 주민자치를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일반 주민의 행위”로 보았으며, 김문호(2015)는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의사에 의해 운영되는 주민자치”로, 우리사회 지방자치의 재개와 함께 변화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민 중심의 행정 체제를 이루는 주민자치가 대두했다고 밝힌다. 이호(2014)는 “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을 다스리는 것을 주민자치”로 해석하며, 최근열(2014)의 경우, 주민자치를 주민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자신의 부담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주의 원리로 바라본다.
- 주민자치의 흐름은 지방자치의 시행과 퇴보, 회복의 과정과 함께 해왔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1991년 지방의회 구성 이후, 지방자치는 행정 체제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기 시작했으나,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 체제와 권위적인 지휘·감독 관행 등으로 인해 실질적 자치권 이양 및 자주재정 관한 이전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추진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본질적으로 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운영되는 주민자치가 관건이었으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99년 행정자치부는 읍·면·동 사무기능을 주민자치 기능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발표했으나, 전국군수구청장협의회 및 해당 공무원들의 반대로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을 추진했다. 2000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센터의 설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2010년에는 읍·면·동 단위 행정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인한 주민자치 활성화의 한계 극복을 위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자치회 설치를 추진했다. 2012년에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

했으며,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행정과의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자치의 실질적 기능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협력형 모델을 주민자치회 시범모델로 정해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지역균형 뉴딜의 일환으로 주민과 공동체가 주도하는 혁신적 지방자치를 위해 주민자치회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 현재 시행 중인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범사업 시행 중인 주민자치회는 각각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조례로는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역할,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 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고를 목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을 시범적으로만 시행할 수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한계이며,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발의되었으나, 2020년 12월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제26조가 삭제된 채로 국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전히 시범적 설치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4) 주민자치위원회: 동 주민자치 안착에 기여, 대표기구로서 역할·권한 한계

-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위촉을 받은 25명 내외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며, 읍·면·동 단위 행정사항에 협력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자치 기능에 대해 심의·자문 역할을 맡는다.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위촉 권한과 함께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과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진(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과 3인 이내의 고문 역시 읍·면·동장에게 위촉 권한이 있어, 행정기관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이해당사자로서 수강생과 참여주민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 만족도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한다. 주민자치위원은 센터 관련 안건과 사업, 프로그램 등을 심의하고, 운영 사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읍·면·동장이 동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원봉사자 중 임명하는 ‘주민자치센터 담당자’는 센터 관련 정보 수집, 분석, 평가, 프로그램 기획, 시행, 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12월 기준, 전국 주민자치위원 수는 68,177명으로 여성은 26,912(39.5%)명, 남성은 41,265명(60.5%)이고, 업종별로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전국 3,119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있으며, 이 중

주민자치위원회가 시행 중인 곳은 2,493개 읍·면·동으로 전체의 80%이다. 서울시의 경우, 7,938명(전국 위원의 11.6%)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고, 이중 여성 위원은 3,668명(46.2%), 남성 위원은 4,270명(53.8%)이다. 서울시 전체 425개 동 중 423개 동에 자치회관(주민자치센터 등)이 설치되어있고, 이 중 주민자치위원회가 시행 중인 동은 252개 동으로 전체의 59.6%이다.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문화·여가 성격의 프로그램이 32,386개로 주민자치, 시민교육, 지역복지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구로구는 현재 12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있고, 총 273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위원 중 113명(41.4%)은 여성위원이고, 160명(58.6%)은 남성위원이다.

- 한편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역할, 운영, 기능 등을 둘러싸고 여러 한계가 지적된다. 먼저, 법률상에서 규정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일부 기능으로만 국한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기에는 제도적 근거가 약한 상황이다. 또한, 읍·면·동장이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까지도 책임을 지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이 제한적인 이유는 법률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읍·면·동 단위 행정 사항,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사항 등에 대한 “심의·자문”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실행”하는 단위가 아닌, 또 하나의 “대의기구”로 오해받는 상황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기구로서 대표성을 갖추기 어려운 환경 또한 지적된다. 읍·면·동장에게 위촉을 받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기구로서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으며,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자치조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지역의 유지집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조직으로서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원 선정과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인데, 공개모집에 응하는 주민이 많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결국은 추천에 의존하는 방식이 뚜렷한 상황이다. 즉, 공개모집을 거쳐 다양한 계층과 성, 사회적 역할 등을 고려한 후보군을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하는 기능이 취약하고, 이로 인해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또한 강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일상적 자치활동 또한, 정기회의를 넘어서 활발해지지 못하는 상황이며, 위원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도출되지 못하는 자치 의제들이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에 의해 채워지거나,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의제를 만들지 못하거나, 역할과 권한 등의 이유로 시도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로 인해, 자치활동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 또한 크다.

5) 주민자치회: 실질적 집행·결정 권한 확대, 행정주도의 전환 과정은 아쉬움

-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은 2010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특별법에는 특별시·광역시와 개편,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시·군·구의 통합에 이어, 읍·면·동의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민자치회 설치·기능·구성(제27조~제29조)이 담겼다. 2013년에는 지방분권추진과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으로 이분화된 추진체계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되었다. 이를 통해 지방조례 단위에서만 규정해오던 주민자치조직에 대한 근거를 중앙단위 법령으로 마련하게 되었고, 주민자치조직의 독립적 위상 또한 확보하게 되었다. 하지만, 행정체제개편의 부속된 조치로 주민자치회 논의가 다루어지고,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 연구 및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주민의 의견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등의 한계도 지적되었다.
-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근린자치분과는 새로운 주민자치회 모델을 위한 연구결과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세 가지 주민자치회 모델을 발표했다. 세 가지 모델의 핵심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와 심의 권한을 넘어 주민자치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집행 권한을 갖는 것에 있다. 최종적으로 법률상의 개정 없이, 지방조례만으로도 수행이 가능한 협력형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모델로 선정되었다. 협력형은 읍·면·동 행정사무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협의하고 심의하는 권한을 갖지만, 읍·면·동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자치의 실질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전국 단위에서 실시되었으며,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독립적인 위상과 권한으로 읍·면·동 행정과 협력하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 또한, 읍·면·동과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실행 조직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추진해온 지역들이 새로운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고민이 채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별다른 협의 없이 행정 주도로 성공모형을 구성해 시범실시 지역 선정이 이루어진 측면도 있었다. 실제로 시범실시에 지원한 다수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사업재정을 지원받기 위한 방편으로써 신청에 응한 사례가 많아, 주민 스스로의 변화와 목소리를 통해 주도하는 전환이 아닌, 행정 주도의 논의와 결정에 맞추어 전환 과정이 이루어지는 아쉬움이 있었다.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갖는다. 민주성, 투명성 등의 문제를 지적받아 온 주민자치위원 선정과정은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는 과정으로 전환되고, 위원위촉 권한은 읍·면·동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으

로 변경되었다. 재원조달 및 활용 권한 또한 확대되었는데, 읍·면·동의 지원 예산에 대부분 의존해야 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수익사업, 위임·위탁사업을 통한 자체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조금 지원과 기부금 활용 또한 가능해졌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 3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시범지역으로 31개 지역을 선정해 추진했으며, 2014년 47개, 2019년 408개, 2020년 626개(전체 20.0%) 읍·면·동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 ‘근로자의 주민자치 참여 보장을 위해 공가 활성화’ 등 전국 각지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6) 마을과 자치 융합을 토대로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동단위 주민자치 플랫폼으로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추진

-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 정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주도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경험을 토대로 마을과 자치의 융합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 단위 주민자치 플랫폼”으로써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되었다.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핵심사업으로, 마을의 문제를 공유와 속의·토론을 거쳐 주민의 주도로 해결하는 “마을계획”의 경험이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자치계획을 결정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프로세스 마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비교해 위원 선정방식에 있어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는 것을 지원자격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한 주민을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특히, 위원 구성을 40대 이하 15%, 특정 성 60% 미만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민자치회에서는 ‘자치계획의 수립’,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 선정 권한’, ‘주민세 개인균등분 환원사업 실행 권한’ 등 주민자치 기능 권한뿐만 아니라, 재원조달 및 활용 권한 또한 강화되었다.
- 주민자치회는 또한 일상적 자치활동 촉진을 위해 생활·안전, 건강·복지, 문화·예술 등을 주제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뿐 아니라,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주민들도 참여가 가능하고, 일반 주민 분과원은 분과별 회의와 사업에 참여하면서 분과 활동에 대한 발언권을 가진다. 분과위원회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구체적인 실천 단위이며, 자치계획 결정 이후에는 계획에 따라 자치사업 및 활동을 실행하고 평가한다.
- 주민자치회 프로세스의 핵심은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인 “자치계획”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자치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는 연 1회 “주민총회”를 개최한

- 다. 주민총회에서는 주민자치회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동 자치계획의 결정,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등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동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결정한다.
- 주민자치회가 활용 가능한 예산으로는 서울시 동단위계획형 참여예산이 있으며, 주민세 개인균등납세분, 서울시 및 자치구 보조금 등이 있다. 특히, 동 지역회의가 담당하던 참여예산 관련 기능이 주민자치회로 이관되어 주민자치회는 참여예산 중 서울시 동단위계획형 의제에 대한 편성 권한을 갖는다.
 -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전체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에서 시행 중(중구 제외)이며, 2017년 1단계로 4개 자치구 26개 동에서 시작해, 2018년 2단계 11개 자치구 55개 동, 2019년 3단계 7개 자치구 35개 동, 2020년 4단계 2개 자치구 10개 동으로 확대해왔다. 2022년에는 425개 전동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 구로구는 2018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2019년 4개(구로4동, 가리봉동, 개봉1동, 오류1동) 시범동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추진체계는 중간지원조직인 구로구마을자치센터 내 주민자치사업단과 행정조직인 구로구청 자치행정과 내 주민협력팀이 있으며, 동자치지원관의 경우, 주민자치사업단 소속으로 4개 시범동에 각 1명씩 현장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구로구 주민자치회 사업의 성과목표는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등 모든 직능·민간단체를 아우르는 주민 대표 조직으로서 “주민자치 권한 및 대표성을 강화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것”과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해결하도록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2019년 11월 기준 4개 시범동 총 200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전일 공개추첨 방식을 통해 선정되었고, 2020년 8월 주민투표를 통한 자치계획이 결정되어, 2021년에 계획에 따른 자치사업 실행을 예정하고 있다.

제3장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참여주민 인식조사

1. 개요
2. 심층인터뷰
3. 설문조사
4. 요약 및 시사점

1. 개요

1) 목적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지원현황을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실행하는 구로구청 및 마을자치센터 담당자로부터 직접 청취하고, 발전방향과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동을 진행하는 주민들의 활동 현황과 서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동의 융합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도출해 융합 추진 시 주민의 참여를 전망하고, 융합을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 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지원현황’, ‘활동현황’, ‘인식현황’, ‘참여전망’ 등을 토대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융합의 당위와 환경 등을 점검해, 융합을 위한 방향 설정의 근거를 마련한다.

2) 대상 및 조사방법

- ① 대상 :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동자치지원관, 구로구청 공무원 등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이해당사자
- ② 조사방법
 - 이해당사자 대상 개별심층인터뷰,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주민 대상 설문조사
 -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개념 인식, 참여실태 및 활동평가, 주민자치회 인식 및 참여의향 등 설문분석을 진행하고, 각 주민 그룹별 설문결과 토대로 비교분석을 진행한다.

2. 심층인터뷰

1) 심층인터뷰 개요

- ① 기간 : 2020년 9월 15일 ~ 9월 22일
- ② 대상 :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동자치지원관, 구로구청 공무원 등 18명

구분	참여자 명단 및 분야		인원 수
주민 (8명)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5명
	B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주민	3명
	C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민관 정책 담당자 (10명)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2명
	E	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 담당자	2명
	F	동자치지원관	4명
	G	구로구청 공무원	2명

- ③ 방법 : 개별심층인터뷰, 포커스그룹인터뷰(FGI)⁹⁾

④ 주요 질문

활동 주민 대상 질문	
공통질문	활동 현황과 활동에서 주목하는 점
	구로구청 및 중간지원조직(마을자치센터)의 지원에서 기대하는 부분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참여 여부 또는 의향
	주민 참여 및 의사결정 문화에 대한 의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융합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를 융합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
	주민자치회 내 마을공동체 경험자 참여 비중 및 현황
마을공동체 현황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및 마을공동체 정책추진에 대한 의견

9) 포커스그룹인터뷰 시 회당 2~4명 참석

주민자치 모델	주민자치회 모델(협력형, 통합형, 주민주도형)에 대한 의견
	주민자치회로 전환에 따른 체감도, 과거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이
자치위원 선정	자치위원 선정기준 및 선정비율에 대한 의견
주민자치 예산	주민자치회의 주민세 개인 균등 징수분 활용에 대한 전망, 의견

공무원 및 담당자 대상 질문

공통질문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지원정책 현황 평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융합에 대한 전망과 의견
	주민 참여 및 의사결정 문화에 대한 의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융합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를 융합하는 방향에 대한 의견
	주민자치회 내 마을공동체 경험자 참여 비중 및 현황
마을공동체 체계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추진 전망 및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주민자치 모델	주민자치회 시행 전동 확대 시 주민자치 현장에 예상되는 점
자치위원 선정	자치위원 선정기준 및 선정비율에 대한 의견
주민자치 예산	주민자치회의 주민세 개인 균등 징수분 활용에 대한 전망, 의견
중간지원조직	시, 구 중간지원조직 간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견
	중간지원조직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마을넷의 역할을 마을자치센터의 역할로 대체하며 발생한 성과 및 한계

2) 심층인터뷰 분석

(1)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대와 요구

-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기대하는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을 때,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과 중간지원조직인 마을자치센터의 인식에 차이가 발생한다.
- 참여 주민의 경우,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웃 주민과의 관계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추구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교육과 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활동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주체성 강화’ 측면에서 활동을 인식하고 있었다. 마을자치센터의 경우,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활동적으로 또한 자치적으로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각각의 답변을 비교해봤을 때, 주민은 ‘관계’, 마을자치센터는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 구로구청과 마을자치센터 모두에서 마을공동체 추진근거인 기본 법령이 부재한 탓에 정책 및 활동 추진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기본법 제정과 일원화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분	내용
<p>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주민의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 살면서 마을주민으로 소소하게 일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 안에(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들어와 있지 않았을 뿐이지 다 마을 활동이지 않나. 마을에서 뭔가 (활동을) 하는 거고 참여자가 될 수도 있고, 주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동안은 (내가) 참여자가 많이 됐었고... 주체자가 되기 시작한 것은 4년 정도 됐다... 옆집 아이 엄마들을 데리고 학부모 특강이나 이런 것을 내가 무료로 기획해서 제작한 ‘모래’를 한 4년간 (진행)했다. 나라 예산을 받아서 시작한 것은 1년 정도 됐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 (그동안) 내가 자비를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활동을) 계속 유지하는 게 보람은 있으나 한계가 있어서... (주변에서) “나랏돈을 받아서 좀 해라, 왜 돈을 쓰며 하나”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렇게)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사람을 모으거나 할 때도 아는 사람(끼리) 하니까 어디에 홍보하기도 그렇고 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작년에는 구로구청하고 연결이 돼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G-페스티벌이라는 큰 축제가 있는데... 보드게임 부스를 받았다. 현장에서 체험도 하고... 현장에서 조금씩 구매할 수 있게 연계했다. (활동 종료 후) 피드백이 되게 좋았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 다른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 보고 “너무 좋다, 우리도 해보자” 해서 저한테 배우러 오셨다. 그분들이 (현재) 보드게임을 전파하고 계시고, 작년이랑 올해 초랑 연결된 상태다. 그분들이 계속 “예산을 받아서 해라” 추천을 해주셔서 씨앗기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서로 얼굴만 알던 관계에서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소통이라기보다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회 중심의 행사를 통한 지역 관계망 구축) 활동들이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세금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생소하기는 하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자치라고 생각한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음악을 배우고 싶은 분들이 참여하고, 같이 배우면서 지역공동체를 알게 된다. 결국 음악을 통해서 자기 고장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 터전을 알게 된다. [A 마을공동체 활동지원가]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인해 활동지원가님을 만나게 되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다가왔었는데, 2, 3회째 하다 보니 모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슬기롭게 느껴진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 공모사업 100만원 얼마 되지도 않는 거라고 (참여주민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활동할 때) 그랬지만, 얼마 안 되고, 집에서 더 많이 쓰시는 거 저도 안다. 하지만 <u>훈련과정이라 생각하고 이걸 잘 수행하시면 활동이나 자치적으로도 성장하는 게 보이실 거다. 돈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쓰기 위해 사람들 만나고, 다양한 활동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심어지는 활동이다.</u>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마을공동체 추진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저희 활동하는 사람도 보장이라면 뭐하지만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겠나 싶다.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 (마을공동체의 경우) 계획은 있지만, <u>기본 법령이 없어 서울시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추진의 한계는 있다.</u> 저의 개인 생각은 (마을공동체) 법령이 되던, 자치 안으로 법령이 흡수되던, 제도적 기반 받침이 더 필요하고, 방향성은 마을과 자치의 융합이 맞지 않나 싶다. [G 구로구청 공무원]

(2) 마을공동체 활동의 한계

- 마을공동체 활동에서의 한계로 참여주민은 높은 '실무진입장벽', 소수 인원의 '역할 과중' 문제를 주된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생계와 활동을 병행'하는 어려움과 활동 대비 '예산 부족'을 꼽기도 했다.
- 마을자치센터와 구로구청의 경우, 마을공동체 활동 한계의 원인으로 주민 입장에서 마을공동체 개념과 활동 이해가 어려운 점과 활동 지원이 관계 형성에서 그치고, 취미여가적 성격을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를 꼽았다.
- 주민들은 3년간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으로는 공동체의 자립 여건 형성이 쉽지 않으며, 공동체 형성 지원에서 나아가, 자립을 위한 지원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마을자치센터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해주는 네트워크 연결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

구분	내용
마을공동체 활동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 중간에 (공모사업) 많이 그만두고 싶었다, 서류를 낼 때부터. 내 계획안이 다 내 머릿속에 있지 않나,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다 머릿속에 있는데 그걸 문서로 작성을 해서 상대방을 설득한 다음에 내가 선택이 되는데... 예산이 겨우 돈 백만원이 나온다... 조언을 해줄 분(활동지원가)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약간 현실적이지는 않았지만, 세세한 걸 만져주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기는 했다. 그렇지만 너무 번거롭고, 아예 (행정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어쨌든 진입장벽이 있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 올해는 면접 없이 서류만 갖고 합격한 케이스인데, 원래는 면접을 하고 씨앗기에 선정이 된다. (면접 통해) 프리젠테이션에 들어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텐데, 다른 분들이 뭐 하는지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정보가 많이 없다. 나중에 결과 발표로 보니까 보드게임 하는 데가 한군데 더 있더라.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분들 중에도 보드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각각이라는 거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알 거나 네트워크가 되면 (좋을텐데), 나 혼자 이렇게 고민해서... 회의도 하고 운영도 하고 혼자 다 하니깐 그러면 금방 지친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 최근에 교육받은 것 중에 마을성장학교를 했었는데,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 마을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좋은 사례, 성공사례들을 꼭 정리해줬던... 그리고 본인 마을에서 진행했던 성공사례도 정리해주셨던 분인데, 그런 걸 알면 이런 걸(공모사업 진행) 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다. 왜냐면 저는 그동안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됐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해서 굉장히 협소하게 완성도도 되게 떨어지고 되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맨땅에 헤딩하면서 많이 했는데, 이 단계(씨앗기)가 다 그런 단계다. 씨앗기를 거쳤다고 새싹기에 괜찮냐(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 내년엔 새싹기가 고민된다. 여기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올해 해보니까 되게 재밌고, 보람 있고 내년엔 또 해야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되게 힘들고 내가 지금 백만원 때문에 이렇게 매여있고, 내 일과도 자꾸 겹치고... 취지도 좋고 다 좋는데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든다. 재미있고, 물론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게 상호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어렵기만 하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 (새싹기 활동하시는 분에게) “씨앗기와 새싹기가 뭐가 달라요?” 물어보면 “돈이 늘어났어요”라고 한다. 본인이 하는 일은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하고 돈을 써야되는 데를 찾는 거다... 이걸 하려면 돈이 그만큼 필요한데 우리는 백만원만 쓰래, 근데 실제로 백만원만 쓰는 게 아니다... 백만원은 정말 형식적으로만 쓰고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더 많다... 예산처리 하면서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고, 영수증 처리처럼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되게 많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 4~5명은 항상 상시 멤버로 나와 있고, 날 좋은 날은 6~7명이 나와... 이런 경험이 쌓이면 그다음에는 훨씬 나오기가 좋은데 그게 쉽지는 않다. 한 명이 분명히 노고를 계속해야 한다, 계속 전화를 한다든지, 뭔가 계속 체크를 해줘야 한다. 평소에 카톡에 재밌는 걸 올려서 분위기 다운되지 않게 유지를 하는지 등 한 명이 갖는 역할이 많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 아이들이 다 커서 보드게임을 하지 않게 되더라도, 자발적으로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하려면 이런 활동들이 가치가 있고 이런 활동으로 내가 성장이 되고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그런 교육이라든가, (활동을 해나가는데) 어떤

	<p><u>어려움이 조금 덜해야 하는 거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가 모임을 하면, 쓸 수 있는 간식비가 있고… 참여 인원 얼굴이 다 나오게 사진을 찍고… 식사하러 가서도 마찬가지로 인원을 다 채워야 하고. 그런 형식적인 것들을 한 다음에 회의록 내용까지 적은 다음에 모임이 본론으로 (시작)된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그분한테(멘토로 여기는 선배 공모사업 참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쭙는다.… 물어볼 데가 여기에 활동가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어려움이 있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답변을 주시는데 아니고 토막토막, 형식적인 것만 알려주니까 저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처음 맞닥뜨린 구청 공문에서부터 뭘 해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뭘 내야 할지 문서로 오니까, 아이디어가 많고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조차도 되게 어려운 일로 생각해서 참여를 못 하는 것 같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동사무소의 행정팀장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대신 신청을 해주었다. 마을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몰랐고, 예산을 받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다. 주민센터에서 대신 신청을 해줬기 때문에 예산 신청이 잘못된 경우도 있었다. 올해 3년 차이로, 작년이 되어서야 마을공동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공모사업지원) 예산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렵다. 일정규모의 행사가 되어야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지원받은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보통 (공모사업) 지원금 150만원, 협찬금 150만원 정도의 비율로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생계를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산을 떠나서 시간을 맞추고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렵다. 참여를 유도하고, 진행하고, 마감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일이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동장시찰, 참여예산 이런 단어들이 (저에게도)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웠다. (용어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니 빨리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주민 입장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란 단어도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E 주민자치사업단 담당자] 마을공동체 활동은 주로 공모사업 위주인데, 오프라인 취미 활동 지원 수준인 것도 많다. 대부분은 문제의식 갖고 모이는 것이 아니다. 도시 안에서의 관계망 형성에 중점 두고 지원하는데, 발전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취미 활동 정도로 여기시는 것이 많다. [G 구로구청 공무원]
<p>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요구</p>	<p>[마을공동체 보조금 지원 이후의 공동체에 대한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가 올해로(마을공동체 공모사업) 3년되었다. 내년부터는 참여할 수 없다. (공모사업으로) 동아리를 운영하다보니 조금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그동안의 성장을 해왔었는데, 내년부터는 회원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거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자생을 위한 지원이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공모사업 지원의) 기본원칙이 3년이다. 3년을 지나게 되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잘 안된다. 마을사업지기 활동을

	<p>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3년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마을자치센터나 구로구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기간을) 연장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재량권이 있으면 좋겠다. [A 마을공동체 활동지원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제는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닌, 내가 사는 곳이 고향이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 때문에, 아이 키우는 분들 아이 키우느라 여유 없다 보니까 공동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 저희가 보통 프로그램을 평일 위주로 하는데 그분들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A 마을공동체 활동지원가] •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알 거나 네트워크가 되면 나 혼자 이렇게 고민해서... 회의도 하고 운영도 하고 혼자 다 하니깐 그러면 금방 지쳐서 나간다. 네트워크가 잘 되어있으면 이런 거 잘하는 경험 있는 분도 있고, 아이디어나 그런 것도 좀 내주시고, 나머지 참여만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그렇게 잘 돼야 하는데. (네트워크 연결지점을) 찾아주는 역할을 중간지원조직에서 해주면 아주 좋죠.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 마을자치센터 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활동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한다. 코치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니 반듯하게 일할 수 있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	--

(3)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

- 주민자치 참여 주민들은 주민자치를 “마을의 발전을 주민이 주도하고 토의하는 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마을자치센터와 구로구청의 경우 주민자치 조직이 주민의 자발적 노력과 봉사로 성장해왔다고 인식하였으며, 주민자치가 주민의 삶과 깊게 연결되었고, 주민의 조직된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한편, 마을공동체 참여주민은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 대해 지역의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마을 실정에 맞는 의제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 주민자치 참여 주민들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와 다양한 구성원과 의견들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구분	내용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에는 회사에서 근무도 하고, 대리점도 운영했었다. 그 당시에는 집에서 거의 잠만 자고 출근하는 식이어서 동네에서 실제로 생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일을 접게 되고, 부동산을 하게 되면서 산악회 활동을 하게 되었고, ... 주변 추천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동네에서 실제로 생활하게 되니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되고 하면서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B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주민] •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에 소속된 기관이었다면, 지금의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동네를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C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보다는 풀뿌리인 시민들의 의견이 위로 올라가고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C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사업을 실행하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었고, 주민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주민자치회로 오면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시키는 일들만 진행해왔고, 주민자치회는 독자적인 사업들을 구상해서 관에서 승인만 해주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이 생겼다. [C 주민자치회장]
- (주민자치회 시범동)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따라오는 수밖에 없다. 분과위원장과 총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간역할자로서 분과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민자치회) 시범 중이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사업보다는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틀을 만들고 있는 단계라고 본다. [C 주민자치회장]
- (분과활동에 대해) 3개의 분과가 활동하고 있다. 자치회에서 분과를 직접 구성하고 있다. 분과원들은 의결권이 없어서 발언권이 없다. 의결 사항들이 분과장의 발의를 통해 거쳐서 올라온다. [C 주민자치회장]
- (주민자치는) 개인이 잘살기 위한 것이다. 퇴근하거나 하교하거나 내가 있는 집에서 나왔을 때, 재밌는 공간이 되어가는 것이 주민자치라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주민자치를 통해 만들고 싶은 동네는 재밌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오래 머물고 싶은 곳, 그리고 살고 싶은 곳이다. [E 주민자치사업단 담당자]
- 마을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정책과 조례, 법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등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으니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할 때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잘 조직된 주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민자치도 필요한 것 같고, 마을 공동체도 필요한 것 같다. [E 주민자치사업단 담당자]
- 잘 조직화된 힘을 가져서 마을주민을 잘 살게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가 가야 할 방향인 것 같다. 만들어준 법으로 우리가 자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직된 힘으로 “이런 법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조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다. [E 주민자치사업단 담당자]
-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분들의 특성은 일단 열의가 많으시고, 마을 일에 관심이 많으신 주민들이신데, 때로는 그 관심을 지나치게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 일부의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욕심을 내시는데... 특히 위원이 되면 구청장한테 위촉장도 받으니까, 동네에서 약간의 권력을 누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대부분은 오랫동안 마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고, 봉사하셨던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주민자치) 성장해 나가는 것 같다. [E 주민자치사업단 담당자]
- 주민분들이 모임별로 커다란 가치를 지향하고, 궁극적인 것 생각하기보다는, 마을 활동을 같이 했냐, 안했냐, 나랑 네트워크가 되어있는 사람들 안에서 똘똘 뭉치는 성향 있다. (주민분들도) 모이는 것 네트워크 구성만 생각해서 그렇지. 공동체 활동의 공공성이나 지향점을 생각하고, 지역을 위해 큰 비전이나 사고가 있으시다면 편협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회

	<p>에 가서 꽃 피울 수 있게 해야 한다... 자잘한 네트워크 활동에서 융화되고, 조직될 수 있는 근간이 주민자치이다. [G 구로구청 공무원]</p>
<p>마을공동체 주민의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위원들이) 동네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동네마다 있는 민원들을 제대로 처리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다. 요구되고 있는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 마을공동체 활동이 동네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가 함께 활동해야 시너지가 날 것이라 생각한다.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서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다면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서로 어울려서 이야기를 하고 해야 서로 다른 입장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 지역의 문제를 주민자치회에서 공유해주지를 못한다. 고척동이 들어오면서 세가 많이 비싸졌다.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지역의 문제들을 주민자치회에서 해결해주면 한다. 자치회가 만들어 온 이슈들이 주민들의 내재되어 있는 감정들을 건드려주면 좋겠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 주민자치가 뭔지 알아가는 공청회나 마을회의 등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의제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참여할 생각이 있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p>[기타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안에 주민자치 조직이 있는 것이다. 거꾸로 주민자치 안에 마을공동체가 속해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A 마을공동체 활동지원가]
<p>주민자치를 위한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달랐던 것 하나는 서울시에서 수주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에 공고해서 동네에서 1년 정도 활동한 일이 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태양열 판넬 설치도 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 홍보 활동도 했다. 그 활동으로 상도 받았다... 행정에서 하라는 것, 주어진 것들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면, 행사 범위만 커지는 형식이고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지 못한다. 공모라도 따서 정말 동네에서 필요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공동체 중심의 행사와 연결을 주민자치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 [B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주민] • 내년부터 주민자치회가 되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자치)역량을 높였으면 좋겠다... 스스로 무엇을 할지 생각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한다. 새로운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해 반대 의견도 나오고, 서로 설득도 하면서 대화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 [B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주민] • 앞으로 (우리 동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20~60대 골고루 위원을 선정하고, 역량과 수준을 갖춘 사람. 남녀 비율도 50:50으로 하고, 분야별로 핵심(역량)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 행정지도 역할, 마을 가꾸기, 도로정비 등 지식을 갖춘 사람이 (모여) 조화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B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주민] • 도시재생 사업이라던가 참여예산제라던가 다 따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일원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회가 주류가 되어 한 뿌리로 가야 하는데, 여기저기서 무질서하게 개발 계획이 이뤄지고 있다. 여러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주민자치 중심으로 정책들이 일원화되고 통합될 필요가 있다. [C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 온 사람이 사태(상황)를 낱낱이 얘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체적인 노력으로 역량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람들과 기존의 구성원들을 융합시켜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C 주민자치회장]
--	---

(4) 주민자치 활동의 한계

- 주민들은 주민자치 활동에서의 한계로 토론 능력과 사업 진행능력 등을 포괄하는 ‘자치 역량’의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으며, 자치에 대한 인식 부족과 센터 운영 차원의 협소한 의제 현황을 지적하였다.
- 마을자치센터와 동자치지원관, 구로구청의 경우, 경직된 소통구조, 선거법 등 위원 활동의 제약사항, 대표성과 권한의 부족, 자치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을 지적하였다.
- 이해당사자별로 주민자치 활동의 한계로 꼽은 원인을 비교해보았을 때, 주민의 경우 ‘역량’, ‘인식’ 등 주체의 관점에서 지적하는 점이 두드러졌으며, 중간지원조직-행정의 경우 자치조직을 둘러싼 ‘구조’와 ‘환경’을 지적하는 점이 두드러졌다.
-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의 경우, 주민자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컸다. 주민들은 주민자치에 대해 ‘개념 또는 활동의 어려움’, ‘고정된 구성원’, ‘형식적 조직’, ‘자치 쪽의 (타활동에 대한) 무관심’ 등의 단어로 부정적 인식을 표출했다.

구분	내용
주민자치 활동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말까지 가면 20년 동안 (주민자치) 활동을 해왔다. 언제나 느낀 것은 말이 주민자치이지 관치다. 자치라 할 수 없다.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밖에 없다. 봄, 가을, 겨울, 벚꽃 축제 예산 따서 와서 하는 거 그런 것들만 하고 있다. 술 먹고 담화하는 것도 단체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도 자치생활의 역할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어도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주민 역할이 중요하고, 그만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런 것들이 없이, 죽이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한쪽은 소외되고, 잘못하면 패갈림되고 하는 폐단이 나타난다. [B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주민] •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에 소속된 기관이었다면, 지금의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동네를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주민자치회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른다... 지역에 애정을 갖고,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야만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친목 단체처럼 구성이 되어버렸다. 주민자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급여를 준다고 오해가 생겨,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회장이 되면 어떤 지위를 얻게 된다고 생각하여 회장이 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동원된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에) 남아 있다.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뀌면서 시스템이나 체계가 독립성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C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크지 않다고 본다. 열띤 토론을 하고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주어진 것들 안에서 실행하고 있다. [C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보다는 풀뿌리인 시민들의 의견이 위로 올라가고 반영되는 것이 필요한데, 사업을 진행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하다보니 큰 사업은 하지 못하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청소 사업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이나 낙후된 시설 보수 등의 문제도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라 보여진다. [C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 우리 동의 노인층을 보면 독거노인이나 무의탁노인들이 많다. 그분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본다. 이번 주민자치회에서 이동이 몇 시간 동안 없거나, 방문이 열리지 않으면 형광등의 센서가 울리는 자동센서등 설치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다. 몇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 [C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으로) 위원을 자체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다만,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자치 회의를 열고 지역 일을 같이 논의하고 운영을 해왔으면 인식이 바뀌었을 텐데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 영상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 주민자치 회원들은 아직 인식이 덜 바뀌었다.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탈퇴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C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 (주민자치회의 토론 문화에 대해) 주민자치회에서 의제 개발이 덜 되었다. 의제 개발을 해서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해야 한다. 현재는 그것보다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결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C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 교육에서 얘기하는 주민자치는 조직의 자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괴리를 느끼는 거다. 저희는 이상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여러분의 공동체를 관리하고, 마을을 변화시키는 일이 자치라고 말하는데, 막상 조직에 들어가면 상하가 너무 뚜렷하고 소통이 안 되는 구조다.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 주민자치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조례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반면 (위원들은) 선거법에 적용을 받는다. 때로는 주민투표를 주민분들에게 홍보하고 독려할 때, 레모나 이런 거 하나라도 뽑아서 개봉역에서 출퇴근하는 분한테 “애쓰십니다” 이러면서 하나 정도 주면서 주민자치계획을 홍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선거법 때문에) 전혀 할 수 없다. 조금 막힘이 있는 것 같다. [E 주민자치사업단 담당자]

- 2015년부터 마을기획단 시범사업에 들어가고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것이, “너무 서두른다. 왜 서두를까?” 하는 물음표가 많았다. 개인적으로 생각한 답은 딱 하나 홍보식 보여주기식 성과위주로 가다보니 기초가 탄탄하지 못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어느 시점에 가면 참 잘 안되

는 것을 많이 느꼈다.··· 각 동에서 위원들을 지도편달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사업단도 마찬가지로 각 동의 주민자치 사업과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주민자치회와의 가교역할, 이런 과정에 이론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내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또 여기 스케줄이 있다보니, 각 동별로 마을에 대한 특성이 다 있는데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 같다. [F 동자치지원관]

- 우리 지원관들도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좀 시간을 두고 (투입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사업단도 마찬가지다. 충분한 역량 강화를 하고 최소한 1년이라도 경험을 하고 워밍업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장에 나갔더라면, 오히려 4개 동에서 지원관들이 위원들 앞에서도 좀 더 자신있게, 확실하게 나름대로 구상한 것을 가지고 주민자치회 위상을 이끌어내는데 충실하지 않았을까 싶다. [F 동자치지원관]

- 구로구는 자치지원관을 뽑을 때 경쟁률이 굉장히 셧다. 그래서 (자치지원관의) 역량이 낮거나 그런게 아니다. 다른 구에서는 뽑은 상태에서 1달 이상 교육과정을 거쳐서 동으로 배치됐다고 한다. 그런데 구로구는 (자치지원관을) 뽑고, 소집해서 계약서 쓰고, 그 다음날(일주일)부터 동으로 출근이었다. 출근해서 “자 위원들 홍보를 하세요”가 시작된 것이다. 저희가 역량이 없었던 게 아니라 바로 사업이 시작이 되다보니 다들 당황했고, 주민들도 당황한 상황이었다. [F 동자치지원관]

- 50명의 자치위원이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 건 매우 좋으나, 막상 한꺼번에 와서 회의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때) 25명이 할 때는 심도 있게 논의될 것도 50명이 하다 보니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참 힘들고 토론에 오히려 모순이 생기는 상황도 있다. 원래 취지는 분과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분과가 모이기 어렵다.··· 분과상으로 토론하다 보면 전체 의견이 아니니까 결국 또 임원회에서 모든 의견들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거다. 분과활동이 핵심인데 실제로는 잘 안된다는 거다. 결국에는 주민자치회도 임원 중심으로 돌아간다. 결국 회장님만 동네에서 완장을 차는 완장 역할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F 동자치지원관]

- 마을 활동을 단 하루라도 해본 분하고 전혀 안 했던 분하고의 생각과 이해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처음 출범하면서, 타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존에 마을 활동을 했던 몇 분을 배정하고 그랬는데, 우리 구로구는 그런 게 없었다. 그러다보니 출범하는 과정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전혀 안했던 분들은 “왜 우리가 그걸 내야해, 해야해?” 하는 질문이 바로 나온다. [F 동자치지원관]

- 주민자치회를 주민 대표기구라고 이야기하고,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주민의 대표기구로서의 권한을 아직까지는 많이 행사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한다.··· 예산활용의 범위가 좁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아직 이제 막 알에서 깨고 나오다 보니까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연차가 나와 봐야 하지 않을까. [E 주민자치사업단 담당자]

- (주민들이 자치회로의 전환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가) 작년부터 자치학교를 열고, 위원을 꾸려 전체회의를 하고, 그런 과정으로 흘러오다가 코로나가 확산하고. 주민투표도 하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 활동도 어느 정도 했지만, 일반 주민들은 아직까지 우리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조차도 거의 모르는 상태라고 본다. [F 동자치지원관]

-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에서 최상급기관이라는 인식이 컸다. (위원들이)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조그만 행사여도 (위원들이) 회비를 자

	<p>발적으로 내고, 마을의 어른이라 생각해 지원금도 넉넉히 내었다. 그런데, 자치회가 되니까. 회비 내는 것 자체도 제한되고, 회비도 못 걷고... 대부분 공개추첨으로 들어오다 보니 주민자치하는 분들은 우리가 봉사하러 나왔는데, 돈을 내야 하나 하는 생각. 이걸 아니라는 생각이 (기존) 위원장님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G 구로구청 공무원]</p>
<p>마을공동체 주민의 주민자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주민자치를 하겠냐고 물으면 저는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민자치는 일단 너무 어렵다, 뭐하는 건지 내가 알아보고 넘어가기에 너무 어렵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u> • <u>마을에 그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없고 자치위원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참여했던, 기존에 분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해결을 하니 저게 해결이 될까? 약간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u> • <u>(주민자치회에) 우리 동네를 조금 더 생각했던 분들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더 맞을 수 있다, 생뚱맞은 분들이 저 할래요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려하는 부분은 같은 분이 같은 일을 계속 하다보면 뭔가 창의적이거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 때문이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u> • <u>주민자치회도 1년에 한 번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부분(행사를 통해 화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만드는)들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u> • <u>마을공동체 사업(상인회 중심의 지역 행사)에 주민센터는 배제되어 있다(주민센터에서 사업에 관심이 없다는 표현)... 같은 동네에 살고, 일어나는 일들에 무심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체 안에 주민센터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주민센터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에 의문이 간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u> • <u>(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어도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다. 감투만 씌워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주민센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예산만 쏟아붓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주민자치회가 무엇을 하는지 들어본 적도 없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 회장을 서로 하겠다고 다투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크게 기대가 없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u> • <u>(주민자치회 시범동에 대해) 아쉬운 점은 과거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은 지역 실정을 좀 안단 말이에요. 새로 되신 분들은 직장인 분들이 많다. 시간적 여유가 적다. 돌아가는 사정을 자세히는 못 알고, 수박 겉핥기로 알기 때문에, 의견을 내기가 힘이 든다. 장단점이 확실히 구분되더라.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회가 출범했지만, 절반의 성장으로밖에 볼 수 없다. [A 마을공동체 활동지원가]</u>

(5) 주민자치 추진체계 및 의제

- 주민자치위원 선정 및 구성에 관해 주민들은 공개추첨 비율을 강화하기보다는, 위원 선정 심의기능을 강화해 전문성을 갖춘 주민을 선정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 주민들은 특

- 히 공개추첨을 통한 공정한 선정이라는 긍정적 기능보다 공개추첨으로 인해 역량 있는 주민이 선정되지 못하는 부정적 기능을 더욱 우려스럽게 인식했다.
- 40% 단체추천을 통한 선정방식¹⁰⁾에 대해 동자치지원관 간의 인식 차이가 발생했다. 100% 공개추첨 방식에서 40%의 단체추천 신설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거나 역량 있는 위원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고정적으로 구성된 위원 구조를 공고하게 한다는 부정적 인식도 존재했다.
 - 주민자치회의 주민세 개인균등분 활용이 주민자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예산 운용 역량의 부족, 인구수에 따른 동별 주민세 예산 격차, 비주민자치 조직과의 갈등으로 인한 동네 이분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 마을자치센터(주민자치사업단)는 주민세 개인균등분 활용을 의제 기반 자치활동과 지역 특화 활동에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부 동자치지원관의 경우 주민세 활용이 주민자치위원회와 거주 주민 간의 상호 견제와 촉진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 동자치지원관은 올해 주민자치회 시범동에서 논의된 주민자치 의제를 평가하며, 소수 인원 중심의 의제 형성과 공론 과정이 약한 의제가 채택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 참여 확대에 기반한 의제 형성'과 '의제발굴과 자원조사를 위한 교육'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구분	내용
주민자치위원 선정 및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로구가 앞전에 조례 개정을 했는데, 선정비율을 4:6으로(단체추천 40%, 공개추첨 60%)했다. 최종적으로는 2:9 1:9비율로 공개모집이 확대되어야 한다. (향후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내가 주민자치위원을 해야할 이유 즉 소명 같은 것이 나와야 한다. [C 주민자치회 참여주민 및 A 마을공동체 활동지원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할 때, 동장 선정했지 않나. 자치위원들이 주로 추천을 해서 자기 마음에 잘 듣는 애들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따라오기는 잘 따라오지만, 약점이 있고, 공동체 형성은 안 된다. 자기 위주로 일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앞으로 마을자치가 되려면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추고 공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B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주민] • 60:40 (비율로 선정하기) 보다는 선정하는 심의 위원의 기능을 강화해 역량 있는 자치위원을 뽑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주민자치 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역량과 위상이 달라져야 한다. [B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주민]

10) 2020년 6월 25일, 구로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9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항의 1, 2를 신설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을 총 정원의 60%로,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을 정원의 40%로 정했다.

- (선정 비율) 퍼센트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본다. 전문성과 지역 애착심을 겸비한 사람들로 영입해야 한다. 친목단체처럼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C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 전문적으로 능력 있는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그 이외에 공동체 형성을 하고 친목을 형성할 수 있는 인원들은 분과 활동 중심으로 따로 구성해야 한다. 대신 자치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보상이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 [C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 (자치위원의 전문역량에 대해) 우선, 행정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려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사업 구상능력과 추진능력이 필요하다.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을 화합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으로 필요하다. [C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 (주민자치위원 중) 20~30%는 일하는 위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50명이 너무 많다. 회의 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정족수가 충족이 되는데,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듣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회의가 너무 길어지기도 한다. (자치위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끌어가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인원이 적더라도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구상이 필요하다. 소수이더라도 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역량있는 사람들로 중심으로 추진력있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C 주민자치회장]
- (자치위원들의) 동네를 위한 마음,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 동네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아무나 가입해서는 동네의 발전이 없다. 위원분들의 자질이나 역량이 필요하다. [C 주민자치회장]
- 선정비율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공개추첨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에서 활동을 했건 관계없이 동네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잘 추천하고, 추천해야 한다. [C 주민자치회장]
- 공개추첨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운에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네에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심의 추천을 잘 진행해야 한다. [C 주민자치회장]
- 기존의 기득권 의식이 팽배하다. (주민자치회) 하고 싶은 분은 (공개추첨에 대해) 엄청 거부했다. 그런데 추첨에서 떨어져 그분이 못 들어왔다. 그런 염려 때문에 구청장까지도 이거는 조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이분들 협의 회가 있다. 구 의원실에 엄청 쫓아다녔는데, 단체추천 비율이 없었다가 40%로 바뀌었다.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 마을을 경험했던 사람들과 안했던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차이는 크다. 그래서 다음 주민자치위원 모집할 때 그런 베이스(단체, 기관 추천 40%)가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마을도 경험자와 신규자가 같이 하나하나 스며들어 가면서 풀어나가야지, 어느날 갑자기 기존 단체들은 다 배제시키고 다 신규로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더 분란만 일으킬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이번에 구로가 이렇게(공개추첨과 함께 단체추천 비율 추가) 바뀐 건 너무 잘한 것 같다. [F 동자치지원관]
-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들은 보통 거수기 역할로 달려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위원 25명 뽑을 때도 위원장 뽑을 때 머릿수만 채워주는 데가 꽤 돼고, 이분들이 무리가 돼서 마을활동했던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거다... 그

	<p>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단체추천) 40%를 반대했다. 또 무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우르루 와서 자리잡고 있으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애길 하면, “니가 뭘 알아 우리가 이제까지 일했어 바뀔 수 없다”고 말한다. [F 동자치지원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 단체 비율이 생기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점점 비율을 줄여가는 것이 낫겠다?) 네. 처음에는 마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던 분들이 점점 마을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고 (그러면 40%단체 비율을 줄여가도 좋을 것이다.) [F 동자치지원관]
<p>주민세 개인균등분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전보다는 (자치회 운영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단지, 현재는 (위원들의 자발적) 지원받고 스스로 각출해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책임이 덜했는데, 주민세 개인 균등분의 지원을 받아서 행정집행을 하게 되면 책임이 더 따르게 될 것 같다.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역량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 [B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주민] • 자칫 잘못하면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서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 (예산에서) 나머지 소외된 분들은 매년 마을공동체 사업에 응모를 해야 한다는 것. 응모해서 심사결과에 따라 채택이 되면 하는 것이고, 안되면 못하는 것이다. (예산 때문에) 동네가 이분화될 수 있다. [C 주민자치회 참여주민 및 A 마을공동체 활동지원기] • 주민세와 주민참여예산은 이원화로 구분해서 가야한다. 주민세는 주민들의 순수한 세금이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은 전체적인 사업을 위해 쓰여야 한다. 예를 들면, 야외 물놀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800만원의 예산이 든다... 이런 물놀이 사업은 어린이들만 참여가 가능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참여예산으로 해야지 주민세로 운용해서는 안된다. [C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 (주민세는) 주민들이 내는 것에 맞게 주민들이 체감하는 분야에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주민자치회가 전문화되었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주민자치는 예산 낭비고,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보다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추어질 것이다. [C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 (주민세는) 동네마다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주민세가 많이 들어오는 곳은 잘해 놓기 때문에 계속 주민이 유입이 된다. 그러면서 계속 주민세가 많아지게 된다... 주민세가 없는 동네는 계속 주민세가 없을 수밖에 없어서... 균형 개발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주민세 관련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발생하는 격차를 메울 방법이 필요하다.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 [C 주민자치회장] • 주민세를 그냥 주는 건 아니다. 그냥은 절대 안 준다. 총회를 통해서 의제만 들어지면 주는데, 총회도 주민들이 모인다... 물론 의제를 만드는 건 분과지만, 분과원은 자치위원 아니라도 활동할 수 있다... (주민세에 대해 주민분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저는 당연히 조직이 만들어지고 동네에서 불편한 점 발견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세를 그냥 준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총회 통해 의제 만들어서) 준다고 하면 다 수긍한다.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 주민세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행안

부가 주민세를 쓸 수 있게 해줬으면 대책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거기에서 조정해야 한다.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 주민세 (활용에 대해) 정말 많이 고민해봤다, 어디에 써야 할까. 지금은 어디에 써야 한다는 지침이 있기는 하다...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주민세가 쓰이는 것을 찬성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 인구라든지 문화, 산업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회가 지역조사를 정말 꼼꼼하게 철저하게 해서 본인들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 주민자치사업단 담당자]

• (주민세가)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적인 성격의 예산으로 쓰이면 좋겠다. 단지 사업을 위한 돈이 아니라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무턱대고 여기서 했으니까 이런 것이 아닌. 그래서 지역자원조사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E 주민자치사업단 담당자]

• 분과별로 주민총회에 올라간 사업들을 보았는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안심LED등을 설치했다고 하면, 큰 고민없이, “저거 좋으니까 우리도 가져다 해야지”, 이렇게 사업이 만들어지기보다는, 우리 동은 타동보다 노인 인구가 많다고 하면 (노인 대상) AI 스피커를 설치해준다든지, 청소년 인구가 많으면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한다든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민세 활용에)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 [E 주민자치사업단 담당자]

• 지금 주민자치회는 주민세를 내려줄테니 꾸려라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주민들이 억지로 의제발굴을 한거다. 자연스럽게 (의제 형성)이 돼서 맞춰 예산이 내려온 것이 아니다. 5천의 예산을 줄테니 계획을 세워봐, 이게 자치계획이 돼버렸다. 그래도 순서는 뒤집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를 봤을 때,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만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E 주민자치사업단 담당자]

• 인구가 적으니까 (주민세)사업비가 적은 것은 어쩔 수 없다. 참여하는 주민도 적고 지역도 적고 혜택받을 주민도 적으니까 적게 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보완책은 시민참여예산제를 바꿔야 할 것이다. 몇 개의 구를 묶어서 (시민참여예산)을 하거나, 서울시 차원에서 구를 거치지 않고, 사업성만 보고서 지원하거나, 사업성만 보겠다고 하면 각 동에서 치열한 의제발굴을 하게 될 것이다. [E 주민자치사업단 담당자]

• 주민들이 (주민세 활용에 대해) 아직은 많이 모르지만, 주민총회를 두 번, 세 번 거치면서 많은 주민이 알게 됐을 때... (우리 마을계획)이 내가 낸 세금으로 진행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간의 견제라든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수단이 ‘주민세’다. 좋은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총회 투표할 때, “여러분이 낸 주민세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걸 강조했다. [F 동자치지원관]

• (주민분들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바라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주민세 낸 거 가지고 사업하면서 뭐해놨어 너네들”, 이런 결과도 나올 걸 예측해야 한다. [F 동자치지원관]

• 주민세에 대한 활용이 사실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주민활동사업이 아닌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 주민모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모임활성화사업으로 동아리 구성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해야만 쓸 수 있는 돈이 주민세다. 주민세에 활용방안에 대해 조금 더 열어줬으면 좋겠다... 현재로서는 많이 막혀 있어서 (주민세 활용한 자치계

	<p>획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F 동자치지원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와 관련해) 인구가 적은 동의 경우, 주민들이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G 구로구청 공무원]
주민자치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제발굴들이 이분들한테는 너무나 낯설다. 우리가 의제발굴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뭘 해야 하는지, 의제발굴을 하라니까 신월동 도로가 패였어요, 어디 건물 더러워요,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뭐 설치해주세요 그런 걸 의제라고 보는 거다... 주민자치는 1년차 사업은 그렇다치더라도 2, 3년차 사업으로 올라갈 때는 그거보다는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거기를 다르게 개선해 나가는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되는데, 그게 진정한 의제인데, 거기까지는 못간다. 그래서 의제발굴과 자원조사를 위한 참여주민의 역량강화가 먼저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이것까지 갈텐데. [F 동자치지원관] • 주로 마을에서 제일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골목길 쓰레기, 주차문제다. 해마다 그게 항시 일 순위 의제다. 그다음으로 (주민들이) 마을 활동을 하면서 문화공간, 소통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다 보니, (공간에 대한 수요가 두 번째). 분과에서 인근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 이해도를 높여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넣었는데 호응도가 좋아 주로 의제 일 순위가 됐다. [F 동자치지원관] • 올해는 첫 해다 보니 사실 일반 주민이 내는 의견보다, 소수의 그룹 또는 임원, 지원관의 아이디어들이 먼저 제시가 된 것이 좀 아쉬웠다. [F 동자치지원관] • 000동에서는 이번에 (주민투표) 굉장히 원칙에 따라 했다, 8개 의제 중 4개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선정됐다. 다른 3개동에서는 주민투표를 통해 선정은 했지만, 사업들이 모두 선정이 되는 상황이었다... 시범동이니까 “서로 상처주지 말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100% 다 수용이 되는, 엄밀히 말하면 꼭 해야하는 사업인가 하는 것까지도 다 채택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F 동자치지원관]

(6) 민관협치 및 거버넌스

- 마을공동체 참여 주민,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구로구청 담당자 간의 민관협치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의 경우, 민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행정의 소통의지 부족’을 꼽았다.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의 경우, ‘행정의 요구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행정에서는 자치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행정 차원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인식해 민관협치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 중간지원조직인 마을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마을과 자치 현장의 요구에 따른 결정권(재량권)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역할과 인원 대비 업무 규모가 많은 점이 지적되었다.

- 특히, 마을자치센터가 자체적인 지역자원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주도의 자원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마을자치센터 단독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소속 주민에게서 주민자치회 시범동 전환으로 동장과 주민자치회장 간의 갈등을 우려하는 인식이 존재했다. 주민들은 직선제가 아닌 동장이 주민자치 역할을 하는 것에 주로 부정적이며, 동장과 주민자치회장 간의 관계를 행정 서비스 제공(동사무소)과 의제 및 사업 주도(주민자치회)라는 분리된 역할로 인식하기도 했다.
 - 주민들은 동자치지원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다만 역할에 비해 많은 희생을 요구받고 있다고 인식했다. 동자치지원관의 적응 및 훈련기간이 부족한 점은 마을자치센터와 동자치지원관 모두에서 시급한 개선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확대동 시행으로 동자치지원관의 관할 동 증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했다.

구분	내용
민관협치 및 행정과의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과 대화는 많이 하지 않았다. 대부분 회계 쪽 일을 하다가 모르는 일이 있으면 마을자치센터의 센터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을 통해 알아가고 배우게 되었다. 회계를 혼자 처리하다 보니 매일 밤을 샜 정도로 업무 처리할 것이 많다. <u>구청과는 소통이 잘되지 않는다. 행정적인 일에서만 소통을 할 뿐이고, 마을자치센터와 소통을 더 많이 한다.</u>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 민관협치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거의 다 행정의 요구에 동조하는 형태다. 행정의 요구를 주민자치회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다. [C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 예전에는 자치담당 공무원이 거의 주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자생력을 가지려면 우리(행정)가 너무 나서는 것 보다, 지원관님, 간사님이 상주하시므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행정은) 한발 물러서 있다. [G 구로구청 공무원]
마을자치센터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2년마다 바뀌는데. 마을공동체 사업과의 연관성이 떨어진다.… 전문화 요원이 없다. 그러다 보니 주문관, 팀장이 바뀌면서 상부 지침 때문이겠지만, (관리 흐름이) 바뀔 가능성 있다. 반면에 마을자치센터는 거의 고정적이다. 근무조건만 맞으면 계속 있을 수 있다. 노하우가 있다는 이야기다. <u>마을공동체의 모든 시행은 마을자치센터가 하는데, 사업 편성, 예산 요구 등 더 충분한 재량권이 주어져야 한다. 현장의 재량권 높아져야 한다.</u> [A 마을공동체 활동지원가] • 과거에는 교육부터 모든 것을 서울시(중간지원조직)가 다 지원해줬다. 그게 딱 정리되면서 모든 게 자치구로 내려온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운영)관리하고, (사업)아이디어 내고, (교육을 위한) 강사도 초빙해야 하고.… 중간중간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서류도 있다. 우리는 지금 4명이지만, 다른 구는 구비로 5명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4명에서 <u>교육, 홍보까지 전면적으로 다 하려고 하니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다.</u>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p>[마을자원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자원을 주민이 직접 조사하는 것에 대해) 재밌을 것 같다. 중간지원조직에 서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예를 들어 오류1동에서 한다고 했을 때, 사업단, 지원관이 일주일 정도 썩 훑어서 (주민들과) 같이 조사하고 사업 의제를 발굴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우리도 사업단 자체적으로 지역 자원조사를 굵직한 것들을 했는데, 일단 수치적인 부분, 각 동네 인구, 노인 비율, 다문화 비율, 청소년 비율 이런 것들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다음에 구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인적자원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탐색해보고, 여기서 나중에 주민자치회가 여기랑 연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메모해놓고, 채워가는 중이다. [E 주민자치사업단 담당자]
<p>동장과 자치회장의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과</u>의 갈등이 이미 있는 곳도 많다.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면 별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동장은 관여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장은 행정적인 처리만 맡게 될 것이다... 일본은 자치가 10년 이상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의 자치를 모델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터치가 없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으며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회에서도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생할 수밖에 없다. (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간에) 협조체계를 갖춰야 한다. [B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주민] •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민원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치위원장과 동장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분간은 주민자치회로 바뀐다 하더라도 행정과 함께 가야 할 수밖에 없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것에 대해서도 깨우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B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주민] • 동장과 자치회장이 공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서로 협력하고 협치가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행정과 자치가 이원화가 될 수 있다. 서로 이견 다툼이나 세력 다툼으로 인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단점도 있다. [C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 <u>주민자치회 모델 중 동장이 없고 회장이 총괄하는 형태인 통합형을 좋게 보고 있다.</u> 현재 동장은 내정제이고, 서울 시장이나 구의원, 구청장 등은 직선제다. 구까지는 직선제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주민자치는 직선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잔뿌리인 주민자치도 한 뿌리에서 나와야 하지 않나 싶다. 따라서 동장도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동단위의 주민의 대표가 되는 동장이라면 직선제로 선출되는 것이 좋다. [C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 (풀뿌리 주민자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나 구로구의 재정적 보조가 있어야 하는데 보조를 받는 것은 동장이 직선제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동장이 내정제이다 보니 주민들의 고민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C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 동사무소는 민원이나 행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의제를 다루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C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p>동자치지원관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자치지원관은 파견된 지원이기 때문에 편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다. 교

	<p>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감사가 못하는 부분을 서포트해줄 수 있어 좋다. 세무와 회계를 모두 겸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어 좋다. <u>지원관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역할에 비해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동은 더 늘어날 예정인데 지원관의 인원은 늘어나지 않는다. 더 벽차게 되지 않을까 싶다. [C 주민자치회장]</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숙달할 만하면 바뀌게 되기 때문에 동의 행정 직원이 감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회장이 바뀌더라도 모든 사업들이 일관성이 있게 진행될 수가 있다. 회장이 바뀌고, 계속 감사가 바뀌게 되면 안 된다. 동자치지원관분들이 감사의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C 주민자치회장] • 주민자치사업단에서 파견된 사람의 역할이 행정적인 처리 등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지원관 한 사람이 2개의 동을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C 주민자치회장] • 타자치구 담당자분과 통화했었는데, 지원관 1분이 3개 동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 어머 지원관님 어떻게 해요? 체력관리 잘하세요 하고 끊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 한 동에 한 분도 쉽지 않은데 이게 예산과 관련이 있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다. [E 주민자치사업단 담당자] <p>[자치사업단-동자치지원관 적응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사업단과 동자치지원관에게) 한 달 혹은 3주 정도의 훈련 기간은 필요하다. 단장, 단원, 지원관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기간이 전혀 없어서 (사업단이) 지원관들하고도 라포형성이 안 된 상태였다. 3주, 최소 2주 정도는 지원관들하고도 라포를 형성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E 주민자치사업단 담당자] • (자치지원관은) 사업단하고 같은 조직이지만, 우리는 사실 주민 입장의 최접전에서 주민의 대변인으로 있다고 생각한다.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구청이나 시의 규정이나 그런 걸 전달해서 이분들의 룰을 정해준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주민을 이기지 못한다. 오히려 주민의 입장과 문제점들을 제대로 사업단에 전달해주면 사업단도 우리에게 들은 얘기와 구청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잘 조율을 해서 방법을 찾아서 중간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F 동자치지원관] • 우리도(자치지원관)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주민자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단체들의 활동, 알게 모르게 그들만의 룰이 있다. 그리고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르다. 우리도 전문가로서 투입이 된 게 아니라 지역에 주민으로 있다가 지원관으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단에서 배우기도 급급하다. 배워서 가서 얘기를 전달하면, 내가 잘 알면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뭐든 통제도 딱딱 되는데, 저희도 긴가민가하는 상황이 많고 이게 나중에 어떤 변화를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한다든지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어려운 게 있다. 내가 바랬던 주민자치회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게 충실하게 역할을 했는가 했을 때, 주민한테도 끌려가고 구청한테도 끌려가고 그래서 그 역할이 조금 부족했다. [F 동자치지원관]
--	---

역할

(7)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교육

- 마을공동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교육 내용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주민자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교육(행복마을 조성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 주민자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경우, 토론 및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학습, 민주주의 회의 기법, 주민-중간지원조직 간의 라포형성을 위한 소통기회 마련 등을 주제로 진행되며,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기반으로 교육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주민자치 소속 주민에 대한 마을공동체 교육은 주민들의 수용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구분	내용
주민대상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이라는 한 분야를 해도 대상이 다 다르지 않나. 마을활동가 교육, 일반 주민, 사업지기가 되신 분에 대한 교육도 있고. (교육 내용, 기획 관련) 생각은 많다... (교육)대상이 되게 점점 세분화된다. 옛날에는 '일반 주민 누구나 오세요'였다면, 지금은 (주민분들이)성장하면서 심화를 요구하시니까, 대상별로 계획을 짜야 한다. 모든 걸 다 품은 교육 계획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럴 역량이 힘들다.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 예전엔 마을 감성이 있는 분들로도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전문적인 분야별 영역의 사람이 (센터로) 들어오거나, 외주주는 형태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다. 그런데 행정은 "센터면 당연히 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고 말한다.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 교육은 마을지원 활동가, 마을지원 강사, 일반 주민, 사업지기,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이 있다. 선발하고 1년 단위로 12회 교육한다. 컨설팅, 상담, 각종 역량 기술 등이 지표로 존재한다... 그다음으로 일반 대상, 사업지기 대상 아카데미가 있다. (아카데미에서는) 아무래도 (마을 활동의) 가치나 편안한 교육을 해야 한다. "좋은 활동 하고 있구나. 이 정책이 이런 방향이구나" 정도를 알 수 있게.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분 중에 연속으로 되신 분은 열린마을 강좌라는 과정이 필수로 있다. (교육은 보통) 리더만 듣는다. 참여자도 같이 마을공동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강사를 양성한다. 자치까지 포함해서 했다.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 (사업지기 아카데미의 경우) 사업지기면 실무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홍보도 해야 하고, 마을 활동 사례도 알고, 갈등도 많아 소통기술도 배워야 하고, PPT 작성 등 잡다한 기술도 배워야 한다. 1년 동안 거의 한 달에 2번 이상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 주민자치회에도 저희가 교육을 가야 하는 상황이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비를 받았다. 행복마을 조성사업에서 자치구 동별 사업비를 지급한다. (이 예산으로 주민자치 쪽에) 마을공동체 관련 인식 교육을 하지만 다들 어려워하신다.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 타 구에는 없는데 구로구에는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있다. 14년부터인가 처음엔 200만원 주다가, 올해는 450만원씩 준다. 그 돈 플러스 자부담해서 (동마다) 축제를 크게 한다... 주민자치회 분들이 그냥 축제만 하면 뭐하니까 강사님 요

	<p>청하면, (마을 관련) 강의를 한다.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과 자치 관련 강의하면) 일반 주민들은 잘 받아들인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어디 얘기해봐.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런 게 있다. 자치위원 교육하면 머리가 아프다.… 작년인가 주민자치회로 넘어갈 때, 금천구 사례 들어가면서 했는데, 그러면 “우린 더 먼저했다” 그러면서. 구로구도 바뀔 거라고 하면 “누구 맘대로” 교육하는데 위원장이 일어났다.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 (주민자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는 법도 잘 배우지 못해서 (의사결정 및 논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가끔 회의할 때 큰소리도 나고, 잘 경청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학습, 교육을 기획하는 것이 우리(주민자치사업단)의 몫인 것 같다. [E 주민자치사업단 담당자] • 마을공동체나 주민자치회의 역할은 주민분들이 스스로 고민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중간지원조직)는 거기에 대해 약간의 촉진과 교육을 하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결국, 해답은 주민분들이 갖고 계신 게 아닐까 한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과 주민이)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하고, 라포형성이 되어야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데, 듣지 않으면, 내 얘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나. [E 주민자치사업단 담당자] • 주민자치리더스쿨이라고 해서 단장님께서 기획하셨다. 민주주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 회의 기법, 대화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2시간씩 6강을 했다. 주민들이 많이 아실 것 같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 아시지 않을까 했는데 (교육에 대해)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심화과정이 필요하다는 피드백도 주셨다. [E 주민자치사업단 담당자]
--	---

(8)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융합

-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과 주민자치 소속 주민 간의 융합에 대한 인식 차이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의 경우, “타조직으로 흡수된다”는 인식으로 인해 융합에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주민자치 소속 주민의 경우, 융합은 시기상조거나 어렵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마을공동체 주민이 “자기 조직으로 유입된다”는 인식으로 인해 긍정적 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중간지원조직과 행정 또한 마찬가지로 “마을 주민의 자치조직 유입”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다만,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융합을 공동체의 확장으로 바라보거나, 상호발전을 위한 관계로 바라보는 시각 또한 존재했다.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융합을 위해 추진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의 입장이 일치했다. 추진체계 융합을 위해 예산 집행의 일원화부터 직제를 마을과 자치로 나누는 것이 아닌, 교육, 홍보 등의 역할로 구분하는 등의 아이디어

어가 제안됐다.

- 마을과 자치의 공동의제 발굴과 마을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필요성에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의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기에 중간지원조직의 규모와 역할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마을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부정적 의견 또한 존재했다.

구분	내용
<p>마을공동체 주인의 융합에 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와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융합되기는 힘들다. 주민자치회는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은 것을 가지고 본인들끼리 먹고 논다고 생각을 한다. (함께 하게 되면 손발이 안 맞을 것 같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 마을공동체가(참여자들 대다수가) 소수의 취미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역의 현황을 다루는 주민자치와 연결되기는 힘들 것 같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회 사업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A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 • <u>마을공동체 하는 사업하고, 주민자치회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구분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u>... 주민자치회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 마을공동체 활동지원가]
<p>주민자치 소속 주민의 융합에 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유입시키면 좋겠다. [B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주민]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간에) 통합 워크숍 같은 것들을 연구해서 만들어 봐야 할 것 같다. 처음에는 (서로 간에) 어쩔 수 없이 서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진정한 통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끼리끼리하는 것을 타파하고 대외적으로도 포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B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주민] •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분들이) 지역에 관심도 있고, 그 분야에 대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해야 주민자치가 발전할 수 있다. 그것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 <u>실행력이 있고 능력과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위원을 할 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u> 주민자치위원들도 직선제로 선출하면 좋겠다. 50명 인원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 일할 수 있는 인원 10명으로도 충분하다. [C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 (주민자치위원으로) 전문역량을 갖고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해 키워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을공동체 사업단들은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들을 길러내고 훈련하고 경험하는 <u>경험이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단과의 결합으로 교육 컨설팅을 해주게 되면 협력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u> [C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 마을에 애착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30% 정도 되는 것 같다. 나머지 55~60%는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이해가 크게 없는 것 같다. 10~15%는

	<p>아예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C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의제로 결합하기에는 시기상으로 보여진다. [C 주민자치회 활동 주민] • (마을공동체 참여 주민이 주민자치회로) 유입이 잘 안 된다. (마을공동체 참여 주민들이) 자치회에 들어와서 규제를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사회적 경제 등등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유사하다. 우리 동네만큼은 다른 동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의제 개발하고 연구하자. 사업의 중복을 축소시켰으면 좋겠다. [C 주민자치회장]
<p>중간지원조직-행정의 융합에 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마을 활동하던 사람들이 (주민자치에)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u> 어쨌든 들어가면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토 하고, 생각도 꼬집어내고, 퍼실도 우리는 많이 한다. 마을활동을 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과 확실하게 다르다. (주민자치 경우) 위원장이 안건 내면 “(이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끝난다. 그리고 밥 먹으러 가고. 그런데 마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자기 의견을 내는 게 활발해진다. 그래서 마을 활동하던 사람이 (주민자치에) 들어가서 많이 변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 마을공동체 분들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데, 막상 (주민자치)조직에 부딪히면서 오는 괴리감이 있다.… 이상적인 것을 꿈꾸면 가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주민자치회는) “마을 애들은 왜 저래.” 하시고, “공동체 경험하는 애들은 못 쓰겠어”라고 들으면 부딪힌다. 전에 몇몇 분이 (주민자치 활동을) 했는데, 그런 마음속의 상처가 있고, 괴리가 너무 크다고 하시더라.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 (마을과 자치 주민 간의 괴리에 대해) 괴리라고 하긴 좀 뭐하고. 제 생각에는 권위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주민자치위원)이분들은 2000년도부터 계속 조직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굶은살이 배긴 것.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누리는 거에 대해서 침범하게 되면 당연히 싫은 거다. 괴리라기보다는 “나는 다 알아. 내 돈 내서 하는 거야. 난 돈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난 이 정도는 받아야 해.”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다.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 (마을이 자치로 귀속된다는 주민의 우려에 대해) 왜 귀속이라고 생각하나? 주민자치가 마을활동 아닌가? 똑같다고 생각한다. (귀속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회관 운영하는 것만 했지만, 동장님이 마을의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고 협조 요청하는 거지. 그게 주민의 삶과 동떨어지는 활동은 아니다. 그렇지만 행정하고 협업이 돼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 <u>마을에서 능력 있고, 의지가 있고, 재능이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u> 많이 들어오셔야 한다. 다만,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주민분들이) 많은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들을 자기 고집으로만 갖고 가시지만 않으면 좋겠다.… 경험은 많은데 유연성이 떨어지면, 내가 경험했던 것만 고집할 수가 있지 않나.…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마을활동 하셨던 분들이 혹시라도 경직되어있으면, 자기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만 있으면 발전하거나 융합하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좀 유연성을 가진 주민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E 주민자치사업단 담당자] • <u>마을이든 자치든 공동체 확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u> 주민자치가 3천, 5천 갖고 뭐 하나 바꾸기 어렵다. 그 예산이 주민들이 공동체를

	<p>(형성)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내 이웃을 알고, 내 이웃에 친구가 생기면 이사 안가고 이 마을에 살고 싶고, 그래서 마을에 살면서 오늘 발견한 문제를 내일이나 모레 해결하고... 나는 이게 주민자치와 마을이 해야 하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한다. [E 주민자치사업단 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활동가들이 주민자치회에 융합하려면 위원의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또는 활동가의 입장에서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사실 그분들은(마을활동가) 그냥 자치위원이다. 위원으로서 대우할 수밖에 없다. 위원으로서만 생각하고 위원으로서만 발언하고 있게 때문에. [F 동자치지원관] • 정책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공동체 활동이 이고, 꽃을 피우는 것이 주민자치회다. 서울시 정책 방향도 그렇게 갔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와 마을 사업을 융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많이 있었다. [G 구로구청 공무원] • 주민자치의 경우 행정 주도로 갔으니 관변적인 성향이 있다. 마을은 시민단체 주도로 태생이 다른데. 서로의 가치가 공유된다면, 주민자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마을공동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방향성을 잡고,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정책 기관에서 화두를 던져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G 구로구청 공무원]
추진체계 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이 하나로 합쳐졌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의 자치팀, 마을팀, 구분이 있는데, 돈도 서울시에서 내리는 게 다르다. 이쪽은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오고 여긴 공동체에서 내려와서 합쳐지지 않는다. 쓰는 것도 좀 다르다. 우린 똑같은 밥을 먹는데 여긴 인정되고, 여긴 인정 안 된다. 저희 센터 입장에서도 융합을 자꾸 하라고 하지만, 위에서 융합이 안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융합을 하겠나.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 주민들은 그냥 만나서 밥 먹고 행사한다. 그런데 예산은 너넨 3천원, 너넨 4천원이 되는 거다. 애매해지는 상황이 있다. 저희도 사실 사업단으로 센터 안에 분리되어 있고, 예산도 다르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조직 6명, 10명이 역할이 되는 대로 다양하게 역할 하면 좋다... (조직원이) 같이 성장해서 조직이 하나로 되면 부서별로 움직이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안 된다.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 조직에서는 예산도 다르고 행정도 다르고 다 이원체제인데 융합을 하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이나 주민 모으는 방법밖에 할 수가 없다.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 (마을과 자치에 추진체계에 대해) 현재는 두 팀으로 분리. 체계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직제를 아예 교육, 홍보, 공모 파트 등으로 나누고, 마을과 자치를 구분하지 말고 통합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 [G 구로구청 공무원]
마을과 자치의 공동의제 발굴 및 마을데이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 하는 분은 어떤 점에서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원하는 공동체 이슈가 중심. 예를 들어 환경문제가 나오면 대개 진보가 된다. 갑자기 공장이 들어온다 하면, 그러면 안되지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닌 (다른 주제에는) 관심이 없다. 주민자치는 이 문제를 저 문제를 마을에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도 있다. 행정이 물어보는 조직이 주민자치회밖에 없으니까.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 (공동의제 발굴 역할에 대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관해서 하기엔 큰 문제인 것 같다. 행정에서 느끼기에 마을자치센터 역할이 뭐냐고 하면 공모사업 지원해주는 거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공모사업 지원만 하나, 그거 말고도 많이 하는데 (행정에서는) 그건 작다고 생각한다.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마을데이터 구축]

- 서울시에서 (마을 관련) 데이터 연구한 거 보고 정말 좋더라. 우리도 해야 되겠다 싶고, 필요한 거 같다. 전반적 생활을 다 조사했다. 저희가 이런 데이터가 없다, 사실 구 단위에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의제를 숙의할 때, ... 객관적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데이터 없이 단순히 나오는 의제만 논의하게 되면 약간 준비 없이 싸움밖에 될 수가 없고. 행정은 뭐든 받아들이는 걸 민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숙의했으니 해달라고 말해도 민원으로 받아들이면 저희가 한 게 수포고, 의미가 없다.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중에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생활의제 포럼 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미션이 구청장님에게 전달되고, 미션처럼 내려오면 당연히 너무 좋다.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 (중간지원조직의 마을 활동 데이터에 대해) 직원 바뀔 때마다 없어진다. 저희도 앞의 것(활동 기록)이 단절돼 버렸다. 예전에 서울시 마을공동체 최우수상까지 받았는데, 앞의 자료가 하나도 없다. ... 예전에는 (활동기록을) 축적하고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네트워크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놓쳤다. [D 마을자치센터 담당자]
- 마을기록 작업이 의미 있을 수 있고, ... 의제 데이터 구축되는 것도 좋은데, 데이터베이스 구축보다는, 서로의 방향성에 대한 (주민) 교육이 제 생각에는 필요하지 않나 싶다. 마을 활동이 주로 소규모로 이뤄지고, 지역에서 마을하고 자치하는 분들이 다른 게 아닌, 같은 주민이다. 생각의 방향은 달라도, 서로 공유하는 부분 있을 것이다. [G 구로구청 공무원]

3.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① 대상 :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주민
- ② 응답자 수
 - 구로구 마을공동체 참여주민 : 182명(온라인 조사 172명, 오프라인 조사 10명)
 - 구로구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주민 : 99명(온라인 조사 68명, 오프라인 조사 31명)
- ③ 기간 : 2020년 10월 26일 ~ 2020년 11월 13일
- ④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SNS 채널 활용 설문 배부(네이버폼)
 - 오프라인 조사 :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주민 대상 설문 배부
- ⑤ 설문문항
 - 기본질문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단어에 연상되는 키워드를 각각 선택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마을공동체 참여주민의 경우, 활동에 참여하는 역할을 선택하는 질문이 추가되었다.

마을공동체 주민 대상 문항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대상 문항					
기본질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padding: 2px;">역할</td></tr> <tr><td style="padding: 2px;">연상 단어(마을공동체)</td></tr> <tr><td style="padding: 2px;">연상 단어(주민자치)</td></tr> </table>	역할	연상 단어(마을공동체)	연상 단어(주민자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 style="padding: 2px;">연상 단어(마을공동체)</td></tr> <tr><td style="padding: 2px;">연상 단어(주민자치)</td></tr> </table>	연상 단어(마을공동체)	연상 단어(주민자치)
역할						
연상 단어(마을공동체)						
연상 단어(주민자치)						
연상 단어(마을공동체)						
연상 단어(주민자치)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실태와 활동 인식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주민들은 자기 활동에 대한 평가와 상대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주민의 경우,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해 참여 의향을 질문하였으며, 참여의 부정적인 이유와 긍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마을공동체 주민 대상 문항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대상 문항																												
마을공동체 참여실태 및 활동인식(자기평가)	마을공동체 활동인식 및 평가																												
<table border="1"> <tr><td>목적</td></tr> <tr><td>활동기간</td></tr> <tr><td>활동시간</td></tr> <tr><td>활동일(월평균)</td></tr> <tr><td>활동일(연평균)</td></tr> <tr><td>참여 시간대</td></tr> <tr><td>참여 장애물</td></tr> <tr><td>기대하는 점</td></tr> <tr><td>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td></tr> <tr><td>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td></tr> <tr><td>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td></tr> <tr><td>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td></tr> <tr><td>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td></tr> <tr><td>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td></tr> <tr><td>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td></tr> <tr><td>주민 적극활동 비율</td></tr> <tr><td>관계 맺은 주민 수</td></tr> <tr><td>중간지원조직 역할</td></tr> <tr><td>행정 역할</td></tr> </table>	목적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일(월평균)	활동일(연평균)	참여 시간대	참여 장애물	기대하는 점	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	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주민 적극활동 비율	관계 맺은 주민 수	중간지원조직 역할	행정 역할	<table border="1"> <tr><td>공모사업 인식 정도</td></tr> <tr><td>활동 내용 인식 정도</td></tr> <tr><td>마을자치센터 지원 내용 인식 정도</td></tr> <tr><td>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td></tr> <tr><td>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td></tr> <tr><td>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td></tr> <tr><td>참여 의향</td></tr> <tr><td>참여 부정 이유</td></tr> <tr><td>참여 기대요소</td></tr> </table>	공모사업 인식 정도	활동 내용 인식 정도	마을자치센터 지원 내용 인식 정도	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참여 의향	참여 부정 이유	참여 기대요소
목적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일(월평균)																													
활동일(연평균)																													
참여 시간대																													
참여 장애물																													
기대하는 점																													
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																													
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주민 적극활동 비율																													
관계 맺은 주민 수																													
중간지원조직 역할																													
행정 역할																													
공모사업 인식 정도																													
활동 내용 인식 정도																													
마을자치센터 지원 내용 인식 정도																													
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참여 의향																													
참여 부정 이유																													
참여 기대요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인식 및 평가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실태 및 활동인식(자기평가)																												
<table border="1"> <tr><td>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정도</td></tr> <tr><td>활동 내용 인식 정도</td></tr> <tr><td>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인식 정도</td></tr> <tr><td>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정도</td></tr> <tr><td>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td></tr> <tr><td>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td></tr> <tr><td>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td></tr> </table>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정도	활동 내용 인식 정도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인식 정도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정도	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table border="1"> <tr><td>목적</td></tr> <tr><td>활동기간</td></tr> <tr><td>활동시간</td></tr> <tr><td>활동일(월평균)</td></tr> <tr><td>활동일(연평균)</td></tr> <tr><td>참여 시간대</td></tr> <tr><td>참여 장애물</td></tr> <tr><td>기대하는 점</td></tr> <tr><td>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td></tr> <tr><td>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td></tr> <tr><td>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td></tr> <tr><td>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td></tr> <tr><td>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td></tr> <tr><td>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td></tr> <tr><td>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td></tr> <tr><td>위원 적극활동 비율</td></tr> <tr><td>관계 맺은 주민 수</td></tr> <tr><td>중간지원조직 역할</td></tr> <tr><td>행정 역할</td></tr> </table>	목적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일(월평균)	활동일(연평균)	참여 시간대	참여 장애물	기대하는 점	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	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위원 적극활동 비율	관계 맺은 주민 수	중간지원조직 역할	행정 역할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정도																													
활동 내용 인식 정도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인식 정도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정도																													
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목적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일(월평균)																													
활동일(연평균)																													
참여 시간대																													
참여 장애물																													
기대하는 점																													
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																													
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위원 적극활동 비율																													
관계 맺은 주민 수																													
중간지원조직 역할																													
행정 역할																													

-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및 참여여부, 주민자치의 핵심의제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마을공동체 주민 대상 문항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대상 문항
주민자치회 인식 및 참여 의향	
핵심의제	핵심의제
소속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정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차이 인식 정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차이 인식 정도
4개동에서 시범동 시행 인식 정도	4개동에서 시범동 시행 인식 정도
주민자치회 권한 인식 정도	주민자치회 권한 인식 정도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정도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정도
참여 의향	참여 의향
참여 부정 이유	참여 부정 이유
참여 기대요소	참여 기대요소
주민자치 활성화 위한 필요 요소	주민자치 활성화 위한 필요 요소

- 응답자 기본정보로 '성별', '연령', '거주동 또는 생활동', '거주기간'을 질문으로 구성했다. 거주동 또는 생활동의 경우 구로구 16개 행정동을 4개 생활권역으로 구분하였다.
 -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 : 가리봉동, 구로3동, 구로4동
 - 구로신도림생활권 : 신도림동, 구로1동, 구로2동, 구로5동
 - 고척개봉생활권 : 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 개봉2동, 개봉3동
 - 오류수궁생활권 : 오류1동, 오류2동, 수궁동, 향동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주민의 경우, 마을공동체 활동의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

마을공동체 주민 대상 문항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대상 문항
응답자 기본정보	
성별	성별
연령	연령
거주동 또는 생활동	거주동 또는 생활동
거주기간	거주기간
	마을공동체 참여 여부

2) 설문조사 분석

(1) 응답자 기본 현황

① 성별

[표 57] 성별

구분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남성	27	15.1%	56	58.9%
여성	152	84.9%	39	41.1%
전체	179	100.0%	95	100.0%

[그림 33] 성별



-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설문 응답자 179명 중 여성이 152명(84.9%), 남성 27명(15.1%)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설문 응답자 95명 중 남성이 56명(58.9%), 여성 39명(41.1%)이다.
-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의 대부분이 여성이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높다.

② 연령

[표 58] 연령

구분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0대	6	3.3%	0	0.0%
30대	19	10.6%	4	4.1%
40대	76	42.2%	14	14.4%
50대	43	23.9%	37	38.1%
60대	22	12.2%	37	38.1%
70대 이상	14	7.8%	5	5.2%
전체	180	100.0%	97	100.0%

[그림 34] 연령



- 마을공동체 참여자 180명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76명(42.2%)으로 가장 많고, 50대 43명(23.9%), 60대 22명(12.2%), 30대 19명(10.6%), 70대 이상 14명(7.8%) 등의 순이다.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 97명 중 50대와 60대가 37명(38.1%)로 가장 많고, 40대 14명(14.4%), 70대 이상 5명(5.2%) 등이 그 뒤를 잇는다.
- 마을공동체의 경우 40대 이하의 비중 56.1%, 50대 이상 43.9%이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는 40대 이하 18.6%, 50대 이상 81.4%이며, 20대는 없다.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주민은 50~60대가 76.1%로 40대가 대부분인 마을공동체와 비교

해 연령대가 높다.

③ 거주동 또는 생활동

[표 59] 마을:거주동

구분	빈도	비율
오류2동	36	20.0%
항동	23	12.8%
개봉1동	14	7.8%
개봉2동	13	7.2%
수궁동	13	7.2%
구로1동	12	6.7%
오류1동	11	6.1%
고척1동	10	5.6%
구로4동	9	5.0%
고척2동	8	4.4%
신도림동	6	3.3%
구로2동	6	3.3%
구로5동	6	3.3%
가리봉동	5	2.8%
개봉3동	5	2.8%
구로3동	3	1.7%
전체	180	100.0%

[그림 35] 마을:거주동



- 마을공동체 참여자 180명의 거주동 또는 생활동을 살펴보면, 오류2동 36명(20.0%), 항동 23명(12.8%), 개봉1동 14명(7.8%), 개봉2동과 수궁동 각 13명(7.2%), 구로1동 12명(6.7%)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60] 자치:거주동

구분	빈도	비율
개봉2동	20	20.6%
항동	18	18.6%
구로2동	17	17.5%
고척1동	13	13.4%
구로5동	10	10.3%
구로3동	9	9.3%
구로1동	5	5.2%
오류2동	3	3.1%
신도림동	2	2.1%
전체	97	100.0%

[그림 36] 자치:거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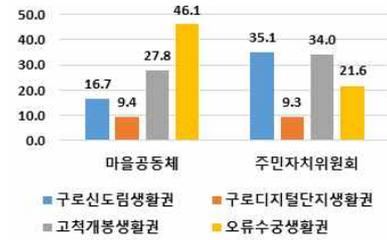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 97명의 거주동 또는 생활동을 보면, 개봉2동 20명(20.6%), 항동 18명(18.6%), 구로2동 17명(17.5%), 고척1동 13명(13.4%), 구로5동 10명(10.3%)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61] 생활권

구분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구로신도림생활권	30	16.7%	34	35.1%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	17	9.4%	9	9.3%
고척개봉생활권	50	27.8%	33	34.0%
오류수궁생활권	83	46.1%	21	21.6%
전체	180	100.0%	97	100.0%

[그림 37] 생활권



- 마을공동체 참여 응답자의 경우 오류수궁생활권 46.1%, 고척개봉생활권 27.8%, 구로신도림생활권 16.7% 등의 순이며,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응답자는 구로신도림생활권이 35.1%로 가장 많고, 고척개봉생활권(34.0%), 오류수궁생활권(21.6%)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④ 거주기간

[표 62] 거주기간

구분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3년 미만	29	16.1%	11	11.3%
3년~5년	16	8.9%	3	3.1%
6년~10년	38	21.1%	8	8.2%
11년~15년	34	18.9%	7	7.2%
16년~20년	17	9.4%	17	17.5%
20년 이상	46	25.6%	51	52.6%
전체	180	100.0%	97	100.0%

[그림 38]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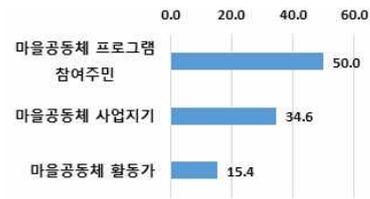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응답자의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180명 중 20년 이상이 46명(25.6%)으로 가장 많고, 6~10년 38명(21.1%), 11~15년 34명(18.9%), 3년 미만 29명(16.1%)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의 거주기간은 응답자 97명 중 20년 이상이 51명(52.6%)으로 과반을 넘고, 16~20년 17명(17.5%), 3년 미만 11명(11.3%), 11년~15년 7명(7.2%)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 마을공동체의 경우 11년 이상 53.9%, 10년 이하 46.1%이며, 주민자치회의의 경우는 11년 이상 77.3%, 10년 이하 22.7%이다.

⑤ 마을공동체 참여주민의 역할

[표 63] 마을:참여주민의 역할

구분	빈도	비율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	91	50.0%
마을공동체 사업지기	63	34.6%
마을공동체 활동가	28	15.4%
전체	182	100.0%

[그림 39] 마을:참여주민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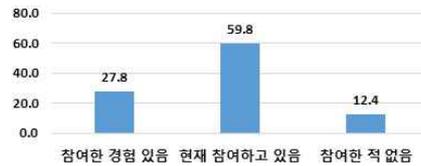
- 현재 어떤 역할로 구로구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질문에 대해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이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고, 마을공동체 사업지기 34.6%, 마을공동체 활동가 15.4%이다.

⑥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응답자의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 여부

[표 64] 자치:마을공동체 활동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참여한 경험 있음	27	27.8%
현재 참여하고 있음	58	59.8%
참여한 적 없음	12	12.4%
전체	97	100.0%

[그림 40] 자치:마을공동체 활동 여부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응답자 97명 중 58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음(59.8%)으로 답해 가장 많고, 참여한 경험 있음 27명(27.8%), 참여한 적 없음 12명(12.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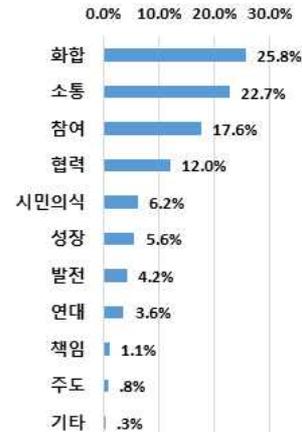
(2)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연상 단어

-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를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단어를 2개씩 선택하도록 질문했다.
- 설문응답 결과를 마을공동체의 경우, 역할별로 교차분석했다.

[표 65] 마을:‘마을공동체’ 연상 단어

구분	빈도	비율
화합	92	25.8%
소통	81	22.7%
참여	63	17.6%
협력	43	12.0%
시민의식	22	6.2%
성장	20	5.6%
발전	15	4.2%
연대	13	3.6%
책임	4	1.1%
주도	3	0.8%
기타	1	0.3%
전체	357	100.0%

[그림 41] 마을:‘마을공동체’ 연상 단어



- 마을공동체와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묻는 질문에 마을공동체 참여자의 응답을 보면, **화합이 25.8%로 1순위**로 나타나고, 소통(22.7%), 참여(17.6%), 협력(12.0%), 시민의식(6.2%) 순으로 나타난다.

[표 66] 자치:‘마을공동체’ 연상 단어

구분	빈도	비율
화합	43	22.2%
참여	43	22.2%
소통	30	15.5%
시민의식	24	12.4%
협력	15	7.7%
발전	14	7.2%
성장	10	5.2%
주도	9	4.6%
연대	2	1.0%
책임	2	1.0%
미래	2	1.0%
전체	194	100.0%

[그림 42] 자치:‘마을공동체’ 연상 단어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주민은 마을공동체 연상 단어로 **화합과 참여(22.2%)를 공동 1순위**로 꼽고, 소통(15.5%), 시민의식(12.4%), 협력(7.7%) 등의 순으로 꼽는다.

[표 67] 마을: '주민자치' 연상 단어

구분	빈도	비율
참여	64	17.8%
시민의식	59	16.4%
협력	47	13.1%
화합	43	11.9%
소통	39	10.8%
주도	26	7.2%
발전	25	6.9%
책임	24	6.7%
성장	15	4.2%
연대	12	3.3%
미래	6	1.7%
전체	360	100.0%

[그림 43] 마을: '주민자치' 연상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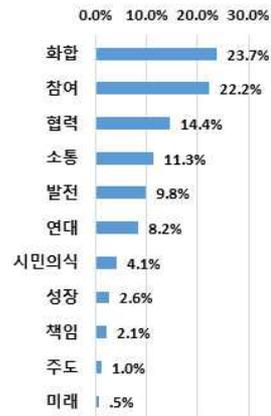


- 주민자치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마을공동체 참여자들의 경우 **참여(17.8%)**, **시민의식(16.4%)**, **협력(13.1%)**, **화합(11.9%)**, **소통(10.8%)** 등의 순으로 답한다.

[표 68] 자치: '주민자치' 연상 단어

구분	빈도	비율
화합	46	23.7%
참여	43	22.2%
협력	28	14.4%
소통	22	11.3%
발전	19	9.8%
연대	16	8.2%
시민의식	8	4.1%
성장	5	2.6%
책임	4	2.1%
주도	2	1.0%
미래	1	0.5%
전체	194	100.0%

[그림 44] 자치: '주민자치' 연상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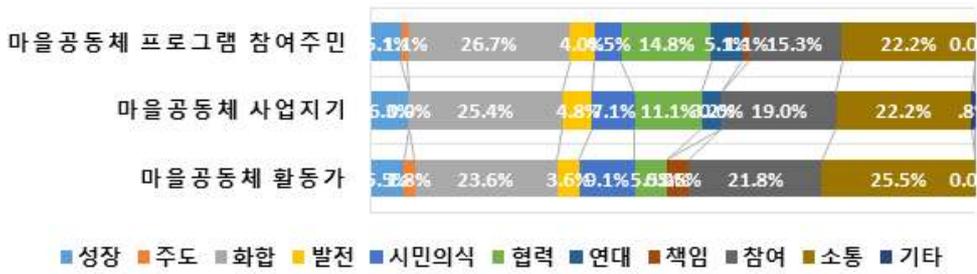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들의 경우, 주민자치 연상 단어로 **화합(23.7%)**을 1순위로 꼽고, **참여(22.2%)**, **협력(14.4%)**, **소통(11.3%)** 등의 순으로 답한다. **마을공동체 참여자들과 비교했을 때 화합에 대한 비중은 높은 대신 시민의식에 대한 비중은 낮다.**

[표 69] 마을:역할별 '마을공동체' 연상 단어

구분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		마을공동체 사업지기		마을공동체 활동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장	9	5.1%	8	6.3%	3	5.5%	20
주도	2	1.1%	0	0.0%	1	1.8%	3
화합	47	26.7%	32	25.4%	13	23.6%	92
발전	7	4.0%	6	4.8%	2	3.6%	15
시민의식	8	4.5%	9	7.1%	5	9.1%	22
협력	26	14.8%	14	11.1%	3	5.5%	43
연대	9	5.1%	4	3.2%	0	0.0%	13
책임	2	1.1%	0	0.0%	2	3.6%	4
참여	27	15.3%	24	19.0%	12	21.8%	63
소통	39	22.2%	28	22.2%	14	25.5%	81
기타	0	0.0%	1	0.8%	0	0.0%	1
전체	176	100%	126	100%	55	100%	357

[그림 45] 마을:역할별 '마을공동체' 연상 단어



-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역할별로 마을공동체에 연상되는 단어 응답을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경우 전체 응답이나 역할별 다른 응답군과는 달리 소통(25.5%)을 1순위로 꼽으며, 참여(21.8%)와 시민의식(9.1%)의 비중이 다른 응답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협력(5.5%)은 낮다.

(3)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실태

-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을 대상으로 활동의 '목적', '기간', '시간', '평균 참여 일', '참여 장애물', '활동 지속의 어려움' 등에 대해 질문했다.
- 설문 응답 결과를 마을공동체의 경우 역할별, 연령별, 생활권별, 거주기간별로 교차분석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연령별, 생활권별, 거주기간별, 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로 교차분석했다.

①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목적

[표 70] 마을공동체 참여 목적

구분	빈도	비율
이웃 주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77	42.8%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51	28.3%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21	11.7%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6	8.9%
지역과 이웃들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	13	7.2%
내가 사는 지역의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서	2	1.1%
전체	180	100.0%

[표 71]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목적

구분	빈도	비율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28	30.1%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4	25.8%
지역과 이웃들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	21	22.6%
이웃 주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8	8.6%
주민자치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8	8.6%
내가 사는 지역의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서	3	3.2%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	1.1%
전체	93	100.0%

[그림 46] 마을공동체 참여 목적



[그림 47]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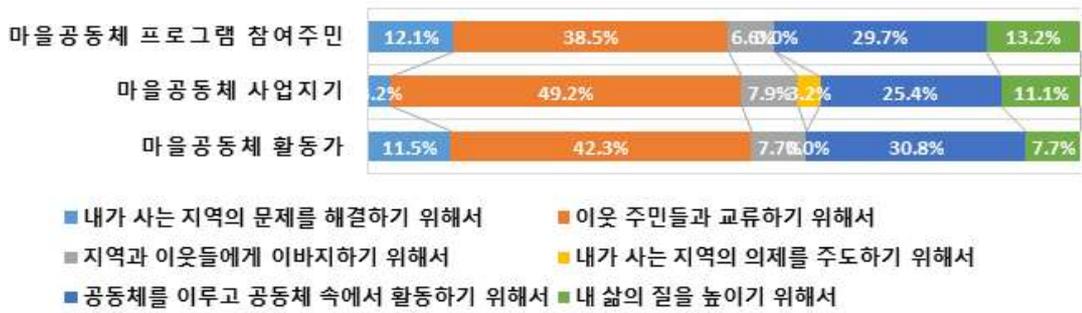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웃 주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2.8%로 1순위를 차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된 목적에 대해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0.1%로 가장 많다.
- 마을공동체의 경우, 이웃 주민과 교류하고,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기 위한 목적이 전체 응답자의 71.1%에 달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과 이웃에게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 전체 응답자의 78.5%에 달한다. 특히, 두 주민 그룹 모두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기 위한 목적에 30% 가까운 응답이 나온다. 반면, 마을공동체 주민에게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이웃 주민과 교류하기 위한 목적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에게서는 8.6%로 응답이 저조하다.

[표 72] 역할별 마을공동체 참여 목적

구분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 주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지역과 이웃들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지역의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	빈도	11	35	6	0	27	12	91
	비율	12.1%	38.5%	6.6%	0.0%	29.7%	13.2%	100.0%
마을공동체 사업지기	빈도	2	31	5	2	16	7	63
	비율	3.2%	49.2%	7.9%	3.2%	25.4%	11.1%	100.0%
마을공동체 활동가	빈도	3	11	2	0	8	2	26
	비율	11.5%	42.3%	7.7%	0.0%	30.8%	7.7%	100.0%
전체	빈도	16	77	13	2	51	21	180
	비율	8.9%	42.8%	7.2%	1.1%	28.3%	11.7%	100.0%

[그림 48] 역할별 마을공동체 참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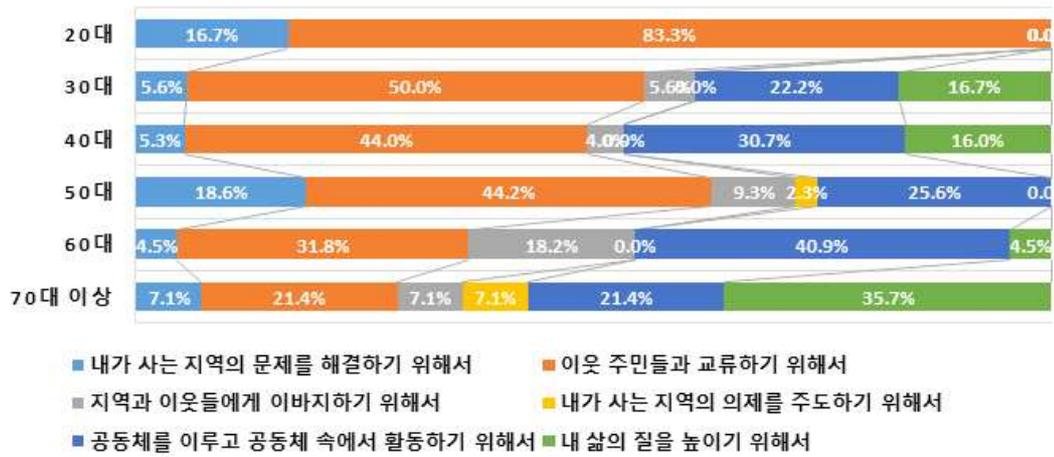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역할별로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지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웃 주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라는 응답 비중이 높은 반면,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상당히 낮다.
- 반면,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의 경우는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와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의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표 73] 연령대별 마을공동체 참여 목적

구분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 주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지역과 이웃들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지역의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
20대	빈도	1	5	0	0	0	0	6
	비율	16.7%	83.3%	0.0%	0.0%	0.0%	0.0%	100.0%
30대	빈도	1	9	1	0	4	3	18
	비율	5.6%	50.0%	5.6%	0.0%	22.2%	16.7%	100.0%
40대	빈도	4	33	3	0	23	12	75
	비율	5.3%	44.0%	4.0%	0.0%	30.7%	16.0%	100.0%
50대	빈도	8	19	4	1	11	0	43
	비율	18.6%	44.2%	9.3%	2.3%	25.6%	0.0%	100.0%
60대	빈도	1	7	4	0	9	1	22
	비율	4.5%	31.8%	18.2%	0.0%	40.9%	4.5%	100.0%
70대 이상	빈도	1	3	1	1	3	5	14
	비율	7.1%	21.4%	7.1%	7.1%	21.4%	35.7%	100.0%
전체	빈도	16	76	13	2	50	21	178
	비율	9.0%	42.7%	7.3%	1.1%	28.1%	11.8%	100.0%

[그림 49] 연령대별 마을공동체 참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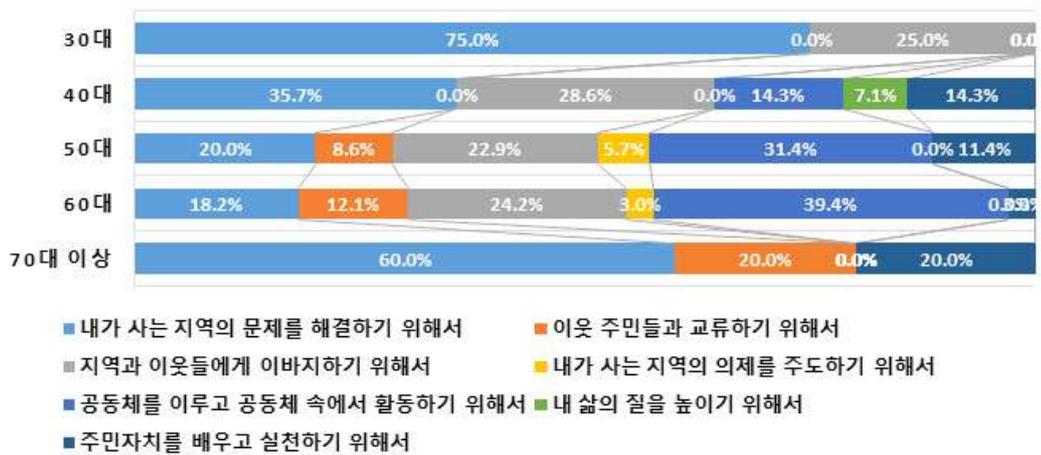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주민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전체 응답에서 1순위였던 ‘이웃 주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의 비중이 작아져서, 60대의 경우에는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기 위해서’가, 70대 이상에서는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가 1순위를 차지한다.
- 20대와 50대에서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74] 연령대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목적

구분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 주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지역과 이웃들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지역의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자치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전체
30대	빈도	3	0	1	0	0	0	4
	비율	75.0%	0.0%	25.0%	0.0%	0.0%	0.0%	100.0%
40대	빈도	5	0	4	0	2	1	14
	비율	35.7%	0.0%	28.6%	0.0%	14.3%	7.1%	100.0%
50대	빈도	7	3	8	2	11	0	35
	비율	20.0%	8.6%	22.9%	5.7%	31.4%	0.0%	100.0%
60대	빈도	6	4	8	1	13	0	33
	비율	18.2%	12.1%	24.2%	3.0%	39.4%	0.0%	100.0%
70대 이상	빈도	3	1	0	0	0	0	5
	비율	60.0%	20.0%	0.0%	0.0%	0.0%	0.0%	100.0%
전체	빈도	24	8	21	3	26	1	91
	비율	26.4%	8.8%	23.1%	3.3%	28.6%	1.1%	100.0%

[그림 50] 연령대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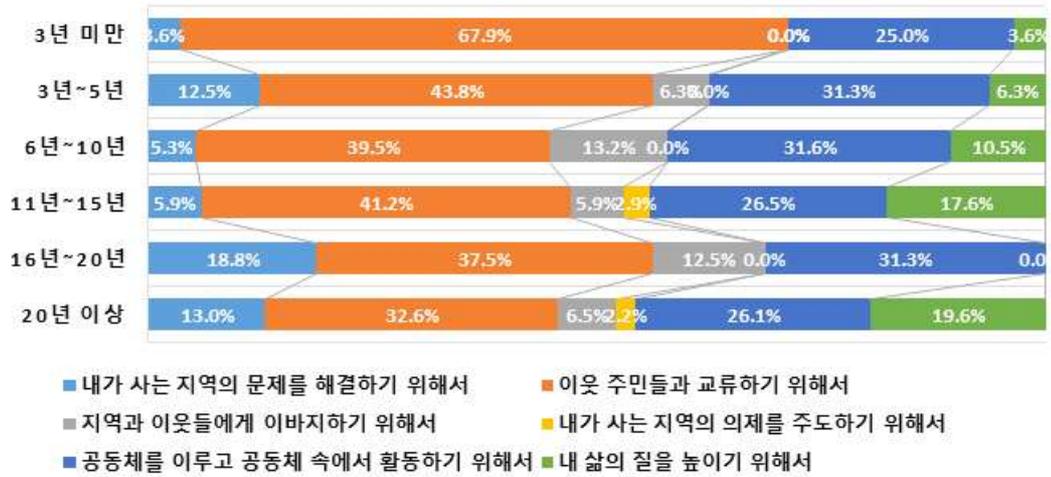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에서 60대까지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의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응답 비중은 낮아진다.

[표 75] 거주기간별 마을공동체 참여 목적

구분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 주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지역과 이웃들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지역의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체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3년 미만	빈도	1	19	0	0	7	1	28
	비율	3.6%	67.9%	0.0%	0.0%	25.0%	3.6%	100.0%
3년~5년	빈도	2	7	1	0	5	1	16
	비율	12.5%	43.8%	6.3%	0.0%	31.3%	6.3%	100.0%
6년~10년	빈도	2	15	5	0	12	4	38
	비율	5.3%	39.5%	13.2%	0.0%	31.6%	10.5%	100.0%
11년~15년	빈도	2	14	2	1	9	6	34
	비율	5.9%	41.2%	5.9%	2.9%	26.5%	17.6%	100.0%
16년~20년	빈도	3	6	2	0	5	0	16
	비율	18.8%	37.5%	12.5%	0.0%	31.3%	0.0%	100.0%
20년 이상	빈도	6	15	3	1	12	9	46
	비율	13.0%	32.6%	6.5%	2.2%	26.1%	19.6%	100.0%
전체	빈도	16	76	13	2	50	21	178
	비율	9.0%	42.7%	7.3%	1.1%	28.1%	11.8%	100.0%

[그림 51] 거주기간별 마을공동체 참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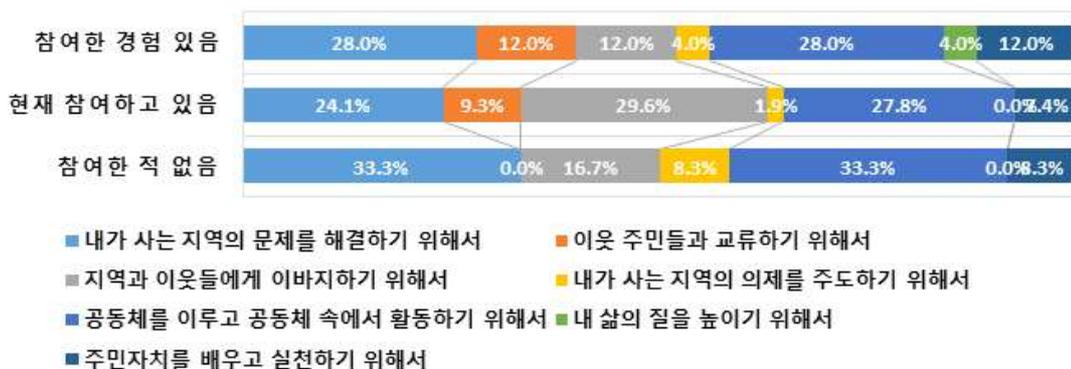


- 대체적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의 거주기간이 높아질수록 ‘이웃 주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의 비중은 낮아지고,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의 비중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 거주기간 16~20년 응답군의 경우는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없다.

[표 76]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목적

구분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 주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지역과 이웃들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지역의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자치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전체	
참여한 경험 있음	빈도	7	3	3	1	7	1	3	25
	비율	28.0%	12.0%	12.0%	4.0%	28.0%	4.0%	12.0%	100.0%
현재 참여하고 있음	빈도	13	5	16	1	15	0	4	54
	비율	24.1%	9.3%	29.6%	1.9%	27.8%	0.0%	7.4%	100.0%
참여한 적 없음	빈도	4	0	2	1	4	0	1	12
	비율	33.3%	0.0%	16.7%	8.3%	33.3%	0.0%	8.3%	100.0%
전체	빈도	24	8	21	3	26	1	8	91
	비율	26.4%	8.8%	23.1%	3.3%	28.6%	1.1%	8.8%	100.0%

[그림 52]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목적



-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경험 여부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의 참여의 목적을 살펴보면, 현재 마을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군의 경우 다른 응답군에 비해 ‘지역과 이웃들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라는 응답 비중이 상당히 높아 1순위를 차지한다.
-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군에서는 ‘이웃주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자치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라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참여한 적 없다는 응답군에서는 내가 사는 지역의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서 비중이 높다.

② 마을공동체 활동기간 및 참여시간

[표 77] 마을공동체 활동기간

구분	빈도	비율
6개월 미만	38	20.9%
6개월~1년 미만	67	36.8%
1년~2년 미만	28	15.4%
2년~3년 미만	19	10.4%
3년~4년 미만	11	6.0%
4년 이상	19	10.4%
전체	182	100.0%

[그림 53] 마을공동체 활동기간



- 마을공동체 활동 총 기간에 대해 6개월~1년 미만이 가장 많아 36.8%이다.
- 6개월 미만 20.9%, 1년~2년 미만 15.4%, 2년~3년 미만과 4년 이상이 각각 10.4% 순으로 그 뒤를 잇는다.
- 전체 주민 중 73.1%가 활동기간 2년 미만이고, 2년 이상은 26.9%이다.

[표 78]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평균 활동기간

구분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활동시간(주 평균)	55	0.0	40.0	4.1
활동일(월평균)	86	0.0	20.0	3.8
활동일(연평균)	33	0.0	300.0	47.7

- 마을공동체 참여주민은 주평균 4.1시간, 월평균 3.8일, 연평균 47.7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54]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시간대

[표 79]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시간대

구분	빈도	비율
오전 9시~낮 12시	94	51.6%
낮 12시~오후 3시	28	15.4%
오후 3시~오후 6시	28	15.4%
오후 6시~오후 9시	31	17.0%
오후 9시 이후	1	0.5%
전체	182	100.0%



-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대는 언제인가에 대해 절반이 넘는 51.6%가 ‘오전 9시~낮 12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③ 마을공동체 참여 장애 및 기대 요인

[표 80] 마을:참여 장애 요인

구분	빈도	비율
생업과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워서	61	36.5%
회의, 모임 장소가 멀거나, 열리는 시간에 참석하기 어려워서	50	29.9%
자녀 등 부양가족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18	10.8%
기타	15	9.0%
마을공동체 활동이 공감되지 않아서	13	7.8%
활동이 너무 어렵고, 내 역할을 찾기 어려워서	7	4.2%
나와 생각이 다른 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서	3	1.8%
전체	167	100.0%

[그림 55] 마을:참여 장애 요인



-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생업과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워서 (36.5%)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회의, 모임 장소가 멀거나, 열리는 시간에 참석하기 어려워서(29.9%), 자녀 등 부양가족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10.8%) 등의 순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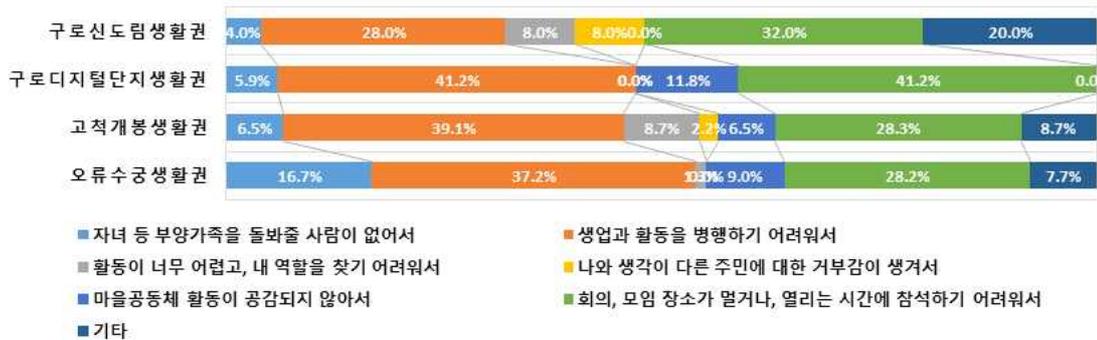
타난다.

- 전체의 77.2%에 달하는 주민이 ‘생업과 활동 병행’, ‘거리와 시간’, ‘부양의 의무’ 등 활동의 내용보다 일상의 환경으로 인해 참여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81] 마을:생활권별 참여 장애 요인

구분		자녀 등 부양가족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생업과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워서	활동이 너무 어렵고, 내 역할을 찾기 어려워서	나와 생각이 다른 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서	마을공동체 활동이 공감되지 않아서	회의, 모임 장소가 멀거나, 열리는 시간에 참석하기 어려워서	기타	전체
구로신도림 생활권	빈도	1	7	2	2	0	8	5	25
	비율	4.0%	28.0%	8.0%	8.0%	0.0%	32.0%	20.0%	100.0%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	빈도	1	7	0	0	2	7	0	17
	비율	5.9%	41.2%	0.0%	0.0%	11.8%	41.2%	0.0%	100.0%
고척개봉 생활권	빈도	3	18	4	1	3	13	4	46
	비율	6.5%	39.1%	8.7%	2.2%	6.5%	28.3%	8.7%	100.0%
오류수궁 생활권	빈도	13	29	1	0	7	22	6	78
	비율	16.7%	37.2%	1.3%	0.0%	9.0%	28.2%	7.7%	100.0%
전체	빈도	18	61	7	3	12	50	15	166
	비율	10.8%	36.7%	4.2%	1.8%	7.2%	30.1%	9.0%	100.0%

[그림 56] 마을:생활권별 참여 장애 요인



- 구로신도림생활권과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의 경우, 회의, 모임 장소가 멀거나, 열리는 시간에 참석하기 어려워서의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서 1순위를 차지한다.
- 구로신도림생활권의 경우, 나와 생각이 다른 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서, 오류수궁생활권의 경우 자녀 등 부양가족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82] 마을:참여 시 기대하는 점

구분	빈도	비율
이웃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서로 화합하는 마을이 되는 것	118	32.7%
다양한 이웃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59	16.3%
내가 사는 마을이 계속 살고 싶은 곳이 되는 것	48	13.3%
내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46	12.7%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	34	9.4%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27	7.5%
나와 이웃들이 원하는 의제가 실현되는 것	18	5.0%
불우이웃 등 사회적 취약층을 돕고 사는 것	11	3.0%
전체	361	100.0%

[그림 57] 마을:참여 시 기대하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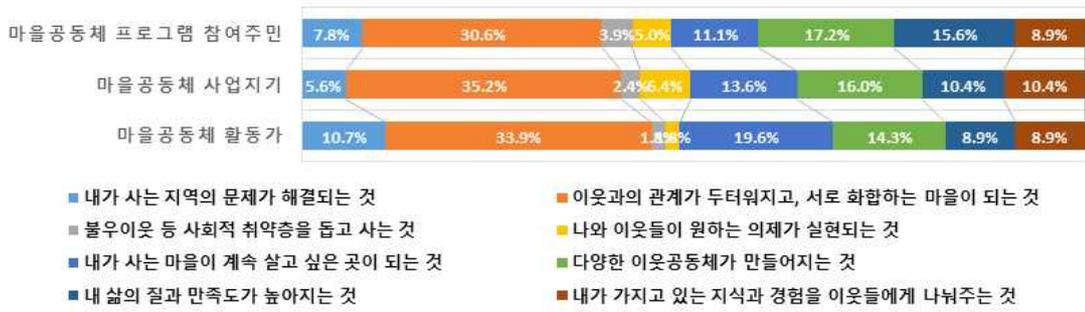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대하는 점(복수 응답)에 대해 이웃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서로 화합하는 마을이 되는 것(32.7%)이 1순위로 나타난다.
- 다양한 이웃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16.3%), 내가 사는 마을이 계속 살고 싶은 곳이 되는 것(13.3%), 내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12.7%)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83] 마을:역할별 참여 시 기대하는 점

구분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웃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서로 화합하는 마을이 되는 것	불우이웃 등 사회적 취약층을 돕고 사는 것	나와 이웃들이 원하는 의제가 실현되는 것	내가 사는 마을이 계속 살고 싶은 곳이 되는 것	다양한 이웃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내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	전체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	빈도	14	55	7	9	20	31	28	16	180
	비율	7.8%	30.6%	3.9%	5.0%	11.1%	17.2%	15.6%	8.9%	100%
마을공동체 사업지기	빈도	7	44	3	8	17	20	13	13	125
	비율	5.6%	35.2%	2.4%	6.4%	13.6%	16.0%	10.4%	10.4%	100%
마을공동체 활동가	빈도	6	19	1	1	11	8	5	5	56
	비율	10.7%	33.9%	1.8%	1.8%	19.6%	14.3%	8.9%	8.9%	100%
전체	빈도	27	118	11	18	48	59	46	34	361

[그림 58] 마을:역할별 참여 시 기대하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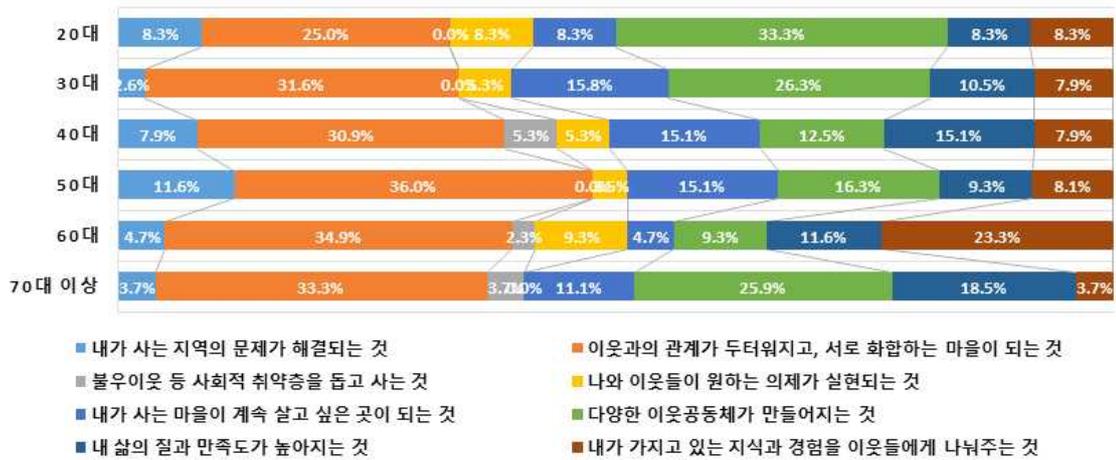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역할별로 기대하는 점을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경우 내가 사는 마을이 계속 살고 싶은 곳이 되는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2순위를 차지한다.

[표 84] 마을:연령대별 참여 시 기대하는 점

구분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웃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서로 화합하는 마을이 되는 것	불우이웃 등 사회적 취약층을 돕고 사는 것	나와 이웃들이 원하는 의제가 실현되는 것	내가 사는 마을이 계속 살고 싶은 곳이 되는 것	다양한 이웃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내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	전체
20대	빈도	1	3	0	1	1	4	1	12
	비율	8.3%	25.0%	0.0%	8.3%	8.3%	33.3%	8.3%	8.3%
30대	빈도	1	12	0	2	6	10	4	38
	비율	2.6%	31.6%	0.0%	5.3%	15.8%	26.3%	10.5%	7.9%
40대	빈도	12	47	8	8	23	19	23	152
	비율	7.9%	30.9%	5.3%	5.3%	15.1%	12.5%	15.1%	7.9%
50대	빈도	10	31	0	3	13	14	8	86
	비율	11.6%	36.0%	0.0%	3.5%	15.1%	16.3%	9.3%	8.1%
60대	빈도	2	15	1	4	2	4	5	43
	비율	4.7%	34.9%	2.3%	9.3%	4.7%	9.3%	11.6%	23.3%
70대 이상	빈도	1	9	1	0	3	7	5	27
	비율	3.7%	33.3%	3.7%	0.0%	11.1%	25.9%	18.5%	3.7%
전체	빈도	27	117	10	18	48	58	46	358

[그림 59] 마을:연령대별 참여 시 기대하는 점



- 연령대별로 기대하는 점을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다양한 이웃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33.3%)이라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1순위를 차지한다.
- 60대의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23.3%로 2순위를 차지한다.

④ 마을공동체 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표 85] 마을: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구분	빈도	비율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사무가 많기 때문에	50	29.1%
활동을 의미 있게 이끌어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40	23.3%
활동을 위한 예산 등 다양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6	20.9%
마음이 맞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28	16.3%
기타	13	7.6%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3	1.7%
의제 논의와 토론이 지치고 피로하기 때문에	2	1.2%
전체	172	100.0%

[그림 60] 마을: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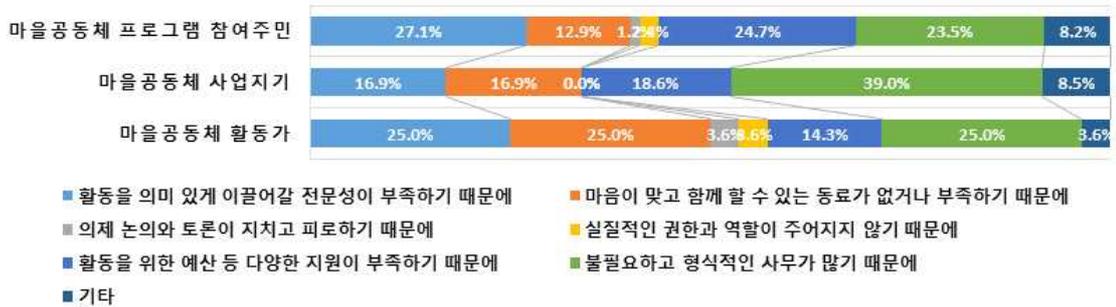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사무가 많기 때문에(29.1%)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
- 활동을 의미 있게 이끌어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23.3%), 활동을 위한 예산 등 다양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20.9%), 마음이 맞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16.3%)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잇는다.

[표 86] 마을:역할별 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구분		활동을 의미 있게 이끌어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이 맞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의제 논의와 토론이 지치고 피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활동을 위한 예산 등 다양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사무가 많기 때문에	기타	전체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	빈도	23	11	1	2	21	20	7	85
	비율	27.1%	12.9%	1.2%	2.4%	24.7%	23.5%	8.2%	100.0%
마을공동체 사업지기	빈도	10	10	0	0	11	23	5	59
	비율	16.9%	16.9%	0.0%	0.0%	18.6%	39.0%	8.5%	100.0%
마을공동체 활동가	빈도	7	7	1	1	4	7	1	28
	비율	25.0%	25.0%	3.6%	3.6%	14.3%	25.0%	3.6%	100.0%
전체	빈도	40	28	2	3	36	50	13	172
	비율	23.3%	16.3%	1.2%	1.7%	20.9%	29.1%	7.6%	100.0%

[그림 61] 마을:역할별 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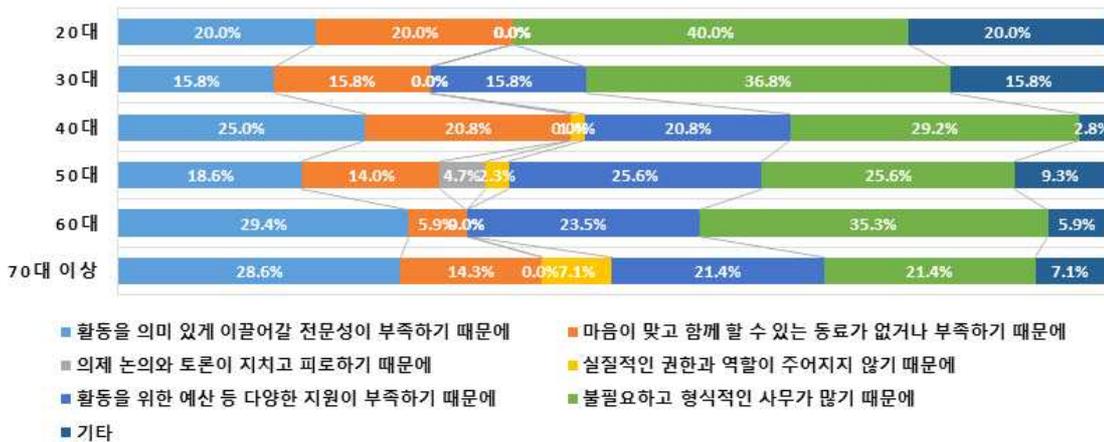


- 역할별로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의 경우, 전체 응답이나 다른 역할군과 달리 활동을 의미 있게 이끌어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를 1순위로, 활동을 위한 예산 등 다양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를 2순위로 꼽고 있다.
- 마을공동체 사업지기의 경우,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사무가 많기 때문에의 비중이 다른 군에 비해 상당히 높고,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경우 마음이 맞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의 비중이 다른 군에 비해 높다.

[표 87] 마을:연령대별 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구분		활동을 의미 있게 이끌어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이 맞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의제 논의와 토론이 지치고 피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활동을 위한 예산 등 다양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사무가 많기 때문에	기타	전체
20대	빈도	1	1	0	0	0	2	1	5
	비율	20.0%	20.0%	0.0%	0.0%	0.0%	40.0%	20.0%	100.0%
30대	빈도	3	3	0	0	3	7	3	19
	비율	15.8%	15.8%	0.0%	0.0%	15.8%	36.8%	15.8%	100.0%
40대	빈도	18	15	0	1	15	21	2	72
	비율	25.0%	20.8%	0.0%	1.4%	20.8%	29.2%	2.8%	100.0%
50대	빈도	8	6	2	1	11	11	4	43
	비율	18.6%	14.0%	4.7%	2.3%	25.6%	25.6%	9.3%	100.0%
60대	빈도	5	1	0	0	4	6	1	17
	비율	29.4%	5.9%	0.0%	0.0%	23.5%	35.3%	5.9%	100.0%
70대 이상	빈도	4	2	0	1	3	3	1	14
	비율	28.6%	14.3%	0.0%	7.1%	21.4%	21.4%	7.1%	100.0%
전체	빈도	39	28	2	3	36	50	12	170
	비율	22.9%	16.5%	1.2%	1.8%	21.2%	29.4%	7.1%	100.0%

[그림 62] 마을:연령대별 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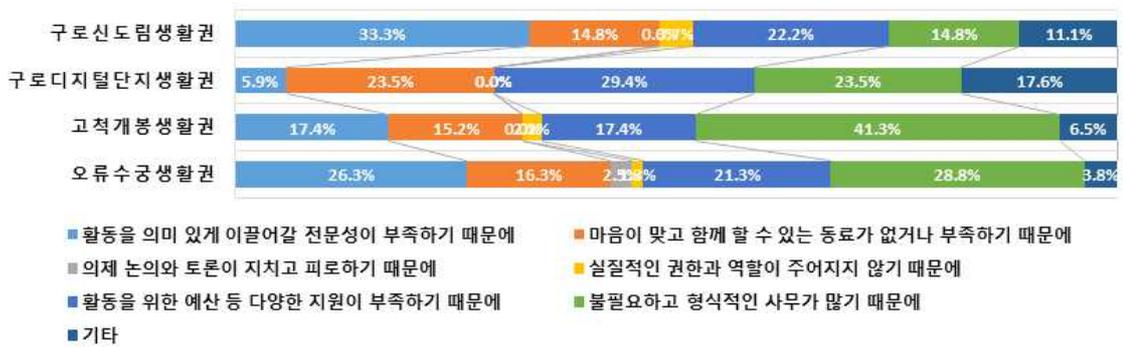


- 연령대별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를 보면, 70대 이상에서는 ‘활동을 의미 있게 이끌어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를, 50대의 경우는 ‘활동을 위한 예산 등 다양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를 각각 1순위로 꼽는다.
- 50대에서만 유일하게 의제 논의와 토론이 지치고 피로하기 때문에 응답이 나온다.

[표 88] 마을:생활권별 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구분		활동을 의미 있게 이끌어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이 맞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의제 논의와 토론이 지치고 피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활동을 위한 예산 등 다양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사무가 많기 때문에	기타	전체
구로신도림 생활권	빈도	9	4	0	1	6	4	3	27
	비율	33.3%	14.8%	0.0%	3.7%	22.2%	14.8%	11.1%	100.0%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	빈도	1	4	0	0	5	4	3	17
	비율	5.9%	23.5%	0.0%	0.0%	29.4%	23.5%	17.6%	100.0%
고척개봉 생활권	빈도	8	7	0	1	8	19	3	46
	비율	17.4%	15.2%	0.0%	2.2%	17.4%	41.3%	6.5%	100.0%
오류수궁 생활권	빈도	21	13	2	1	17	23	3	80
	비율	26.3%	16.3%	2.5%	1.3%	21.3%	28.8%	3.8%	100.0%
전체	빈도	39	28	2	3	36	50	12	170
	비율	22.9%	16.5%	1.2%	1.8%	21.2%	29.4%	7.1%	100.0%

[그림 63] 마을:생활권별 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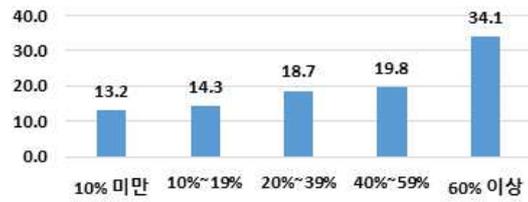
- 생활권별로 살펴보면, 구로신도림생활권의 경우는 ‘활동을 의미 있게 이끌어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를 1순위로, ‘활동을 위한 예산 등 다양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를 2순위로 꼽는다.
- 반면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의 경우는 ‘활동을 위한 예산 등 다양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가 1순위고, ‘활동을 의미 있게 이끌어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라는 응답 비중은 상당히 낮다.
- 고척개봉생활권과 오류수궁생활권에서는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사무가 많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1순위이고, 특히 고척개봉생활권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⑤ 마을공동체 주민의 적극 활동 비율, 관계 맺은 주민 수

[표 89] 마을:적극 활동 주민 비율

구분	빈도	비율
10% 미만	24	13.2%
10%~19%	26	14.3%
20%~39%	34	18.7%
40%~59%	36	19.8%
60% 이상	62	34.1%
전체	182	100.0%

[그림 64] 마을:적극 활동 주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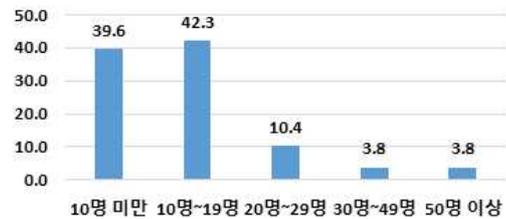


- 본인이 속한 마을공동체의 전체 주민 중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비율에 대해 60% 이상이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많다.

[표 90] 마을:관계 맺은 주민 수

구분	빈도	비율
10명 미만	72	39.6
10명~19명	77	42.3
20명~29명	19	10.4
30명~49명	7	3.8
50명 이상	7	3.8
전체	182	100.0

[그림 65] 마을:관계 맺은 주민 수



- 마을공동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소통하는 주민은 총 몇 명인가를 묻는 질문에 10명~19명 (42.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10명 미만(39.6%)이라는 응답이 그 뒤를 잇는다.

⑥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기간 및 참여시간

[표 91]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기간

구분	빈도	비율
6개월 미만	3	3.0%
6개월~1년 미만	19	19.2%
1년~2년 미만	21	21.2%
2년~3년 미만	19	19.2%
3년~4년 미만	24	24.2%
4년 이상	13	13.1%
전체	99	100.0%

[그림 66]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기간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한 응답을 보면, 3년~4년 미만이 24.2%로 가장 많고, 1년~2년 미만(21.2%), 6개월~1년 미만과 2년~3년 미만이 각각 19.2%로 그 뒤를 잇는다.

- 전체 주민 중 43.4%가 활동기간 2년 미만이고, 2년 이상은 56.6%이다.

[표 92] 주민자치위원회 평균 활동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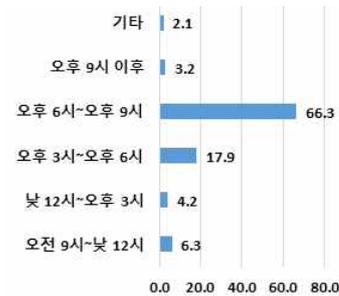
구분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활동시간(주평균)	19	0.0	15.0	3.1
활동일(월평균)	57	0.0	10.0	2.7
활동일(연평균)	18	0.0	40.0	14.4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주민들은 주평균 3.1시간, 월평균 2.7일, 연평균 14.4일 활동을 하고 있다.

[표 93]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시간대

구분	빈도	비율
오전 9시~낮 12시	6	6.3%
낮 12시~오후 3시	4	4.2%
오후 3시~오후 6시	17	17.9%
오후 6시~오후 9시	63	66.3%
오후 9시 이후	3	3.2%
기타	2	2.1%
전체	95	100.0%

[그림 67]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시간대



-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시간대에 대해 66.3%가 오후 6시~오후 9시라고 답해 압도적으로 많고, 오후 3시~오후 6시(17.9%)가 그 뒤를 잇는다.

⑦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장애 및 기대 요인

[표 94] 자치:참여 장애 요인

구분	빈도	비율
생업과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워서	41	54.7%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공감되지 않아서	9	12.0%
기타	7	9.3%
회의, 모임 장소가 멀거나, 열리는 시간에 참석하기 어려워서	6	8.0%
나와 생각이 다른 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서	5	6.7%
자녀 등 부양가족을 돌보줄 사람이 없어서	4	5.3%
활동이 너무 어렵고, 내 역할을 찾기 어려워서	3	4.0%
전체	75	100.0%

[그림 68] 자치:참여 장애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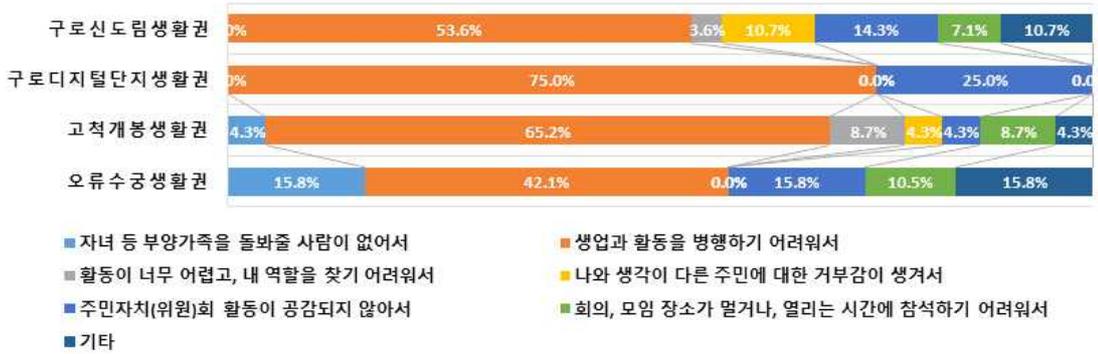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로 절반이 넘는 54.7%가 생업과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워서를 꼽으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공감되지 않아서(12.0%), 기타(9.3%), 회의, 모임 장소가 멀거나, 열리는 시간에 참석하기 어려워서(8.0%) 등의 순으로 답한다.

[표 95] 자치:생활권별 참여 장애 요인

구분	자녀 등 부양가족을 돌보줄 사람이 없어서	생업과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워서	활동이 너무 어렵고, 내 역할을 찾기 어려워서	나와 생각이 다른 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공감되지 않아서	회의, 모임 장소가 멀거나, 열리는 시간에 참석하기 어려워서	기타	전체	
구로신도림 생활권	빈도	0	15	1	3	4	2	3	28
	비율	0.0%	53.6%	3.6%	10.7%	14.3%	7.1%	10.7%	100.0%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	빈도	0	3	0	0	1	0	0	4
	비율	0.0%	75.0%	0.0%	0.0%	25.0%	0.0%	0.0%	100.0%
고척개봉 생활권	빈도	1	15	2	1	1	2	1	23
	비율	4.3%	65.2%	8.7%	4.3%	4.3%	8.7%	4.3%	100.0%
오류수궁 생활권	빈도	3	8	0	0	3	2	3	19
	비율	15.8%	42.1%	0.0%	0.0%	15.8%	10.5%	15.8%	100.0%
전체	빈도	4	41	3	4	9	6	7	74
	비율	5.4%	55.4%	4.1%	5.4%	12.2%	8.1%	9.5%	100.0%

[그림 69] 자치:생활권별 참여 장애 요인



- 구로신도림생활권의 경우, 나와 생각이 다른 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서, 오류수궁생활권은 자녀 등 부양가족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고척개봉생활권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공감되지 않아서의 비중이 매우 낮다.

[표 96] 자치:참여 시 기대하는 점

구분	빈도	비율
이웃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서로 화합하는 마을이 되는 것	50	27.0%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40	21.6%
내가 사는 마을이 계속 살고 싶은 곳이 되는 것	29	15.7%
불우이웃 등 사회적 취약층을 돕고 사는 것	17	9.2%
다양한 이웃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16	8.6%
나와 이웃들이 원하는 의제가 실현되는 것	13	7.0%
내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11	5.9%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	9	4.9%
전체	185	100.0%

[그림 70] 자치:참여 시 기대하는 점



-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기대하는 점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서로 화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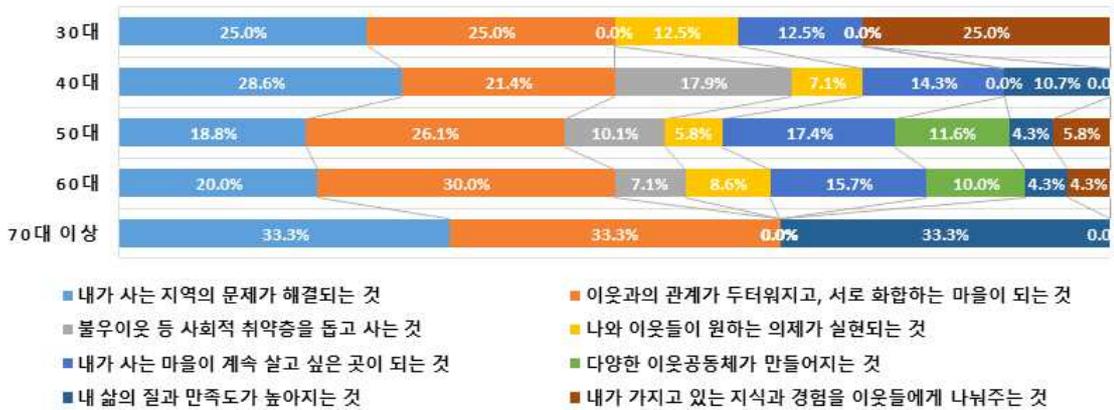
는 마을이 되는 것(27.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

-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21.6%), 내가 사는 마을이 계속 살고 싶은 곳이 되는 것(15.7%), 불우이웃 등 사회적 취약층을 돕고 사는 것(9.2%) 등이 그 뒤를 잇는다.

[표 97] 자치:연령대별 참여 시 기대하는 점

구분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웃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서로 화합하는 마을이 되는 것	불우이웃 등 사회적 취약층을 돕고 사는 것	나와 이웃들이 원하는 의제가 실현되는 것	내가 사는 마을이 계속 살고 싶은 곳이 되는 것	다양한 이웃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내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	전체
30대	빈도	2	2	0	1	1	0	0	2	8
	비율	25.0%	25.0%	0.0%	12.5%	12.5%	0.0%	0.0%	25.0%	100%
40대	빈도	8	6	5	2	4	0	3	0	28
	비율	28.6%	21.4%	17.9%	7.1%	14.3%	0.0%	10.7%	0.0%	100%
50대	빈도	13	18	7	4	12	8	3	4	69
	비율	18.8%	26.1%	10.1%	5.8%	17.4%	11.6%	4.3%	5.8%	100%
60대	빈도	14	21	5	6	11	7	3	3	70
	비율	20.0%	30.0%	7.1%	8.6%	15.7%	10.0%	4.3%	4.3%	100%
70대 이상	빈도	2	2	0	0	0	0	2	0	6
	비율	33.3%	33.3%	0.0%	0.0%	0.0%	0.0%	33.3%	0.0%	100%
전체	빈도	39	49	17	13	28	15	11	9	181

[그림 71] 자치:연령대별 참여 시 기대하는 점



- 연령대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시 기대하는 점을 살펴보면, 40대의 경우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아 1순위이며, 불우이웃 등 사회적 취약층을 돕고 사는 것이라는 응답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
- 다양한 이웃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응답은 50~60대에서만 나타난다.

⑧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표 98] 자치·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구분	빈도	비율
활동을 의미 있게 이끌어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26	32.9%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20	25.3%
활동을 위한 예산 등 다양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5	19.0%
기타	6	7.6%
마음이 맞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5	6.3%
의제 논의와 토론이 지치고 피로하기 때문에	4	5.1%
주민자치의 개념이 어렵고, 실천하기 모호하기 때문에	3	3.8%
전체	79	100.0%

[그림 72] 자치·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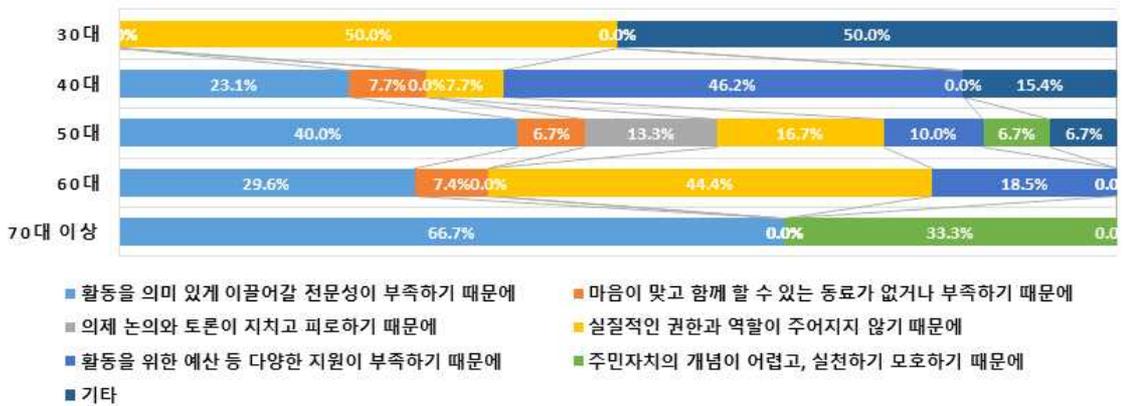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로 활동을 의미 있게 이끌어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32.9%)를 가장 많이 꼽고 있다.
-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25.3%), 활동을 위한 예산 등 다양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19.0%)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99] 자치:연령대별 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구분		활동을 의미 있게 이끌어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이 맞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의제 논의와 토론이 지치고 피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활동을 위한 예산 등 다양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개념이 어렵고, 실천하기 모호하기 때문에	기타	전체
30대	빈도	0	0	0	2	0	0	2	4
	비율	0.0%	0.0%	0.0%	50.0%	0.0%	0.0%	50.0%	100.0%
40대	빈도	3	1	0	1	6	0	2	13
	비율	23.1%	7.7%	0.0%	7.7%	46.2%	0.0%	15.4%	100.0%
50대	빈도	12	2	4	5	3	2	2	30
	비율	40.0%	6.7%	13.3%	16.7%	10.0%	6.7%	6.7%	100.0%
60대	빈도	8	2	0	12	5	0	0	27
	비율	29.6%	7.4%	0.0%	44.4%	18.5%	0.0%	0.0%	100.0%
70대 이상	빈도	2	0	0	0	0	1	0	3
	비율	66.7%	0.0%	0.0%	0.0%	0.0%	33.3%	0.0%	100.0%
전체	빈도	25	5	4	20	14	3	6	77
	비율	32.5%	6.5%	5.2%	26.0%	18.2%	3.9%	7.8%	100.0%

[그림 73] 자치:연령대별 활동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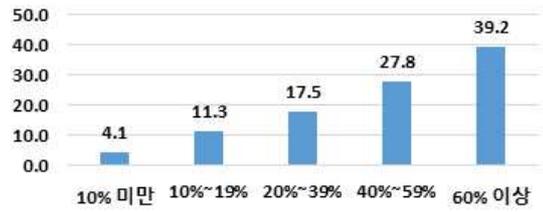
- 연령대별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면, 40대의 경우는 활동을 위한 예산 등 다양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0대는 활동을 의미 있게 이끌어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60대에서는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1순위이다.
-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의 개념이 어렵고, 실천하기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⑨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의 적극 활동 비율, 관계 맺은 주민 수

[표 100] 자치:적극 참여 위원 비율

구분	빈도	비율
10% 미만	4	4.1%
10%~19%	11	11.3%
20%~39%	17	17.5%
40%~59%	27	27.8%
60% 이상	38	39.2%
전체	97	100.0%

[그림 74] 자치:적극 참여 위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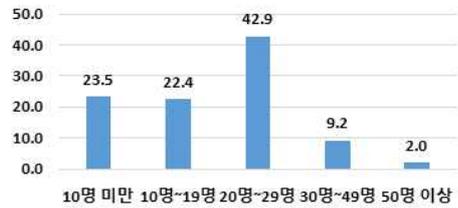


-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중 의제 논의, 토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에 대해 60% 이상(39.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

[표 101] 자치:관계 맺은 주민 수

구분	빈도	비율
10명 미만	23	23.5%
10명~19명	22	22.4%
20명~29명	42	42.9%
30명~49명	9	9.2%
50명 이상	2	2.0%
전체	98	100.0%

[그림 75] 자치:관계 맺은 주민 수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소통하는 주민은 총 몇 명인가의 문항에 대해 20~29명이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많고, 10명 미만(23.5%), 10명~19명(22.4%) 등의 순으로 답한다.

(4)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주민의 마을공동체 참여 의향

-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참여 의향에 대해 질문했고, 참여 의향에 따라 참여에 부정적인 이유와 참여로 기대하는 점을 질문했다.
- 설문응답 결과를 활동기간별, 생활권별, 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로 교차분석했다.

[표 102] 마을공동체 참여 의향

구분	빈도	비율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1	1.1%
가급적 참여하지 않는다	5	5.3%
참여해볼 수도 있다	44	46.8%
적극 참여할 것이다	44	46.8%
전체	94	100.0%

[그림 76] 마을공동체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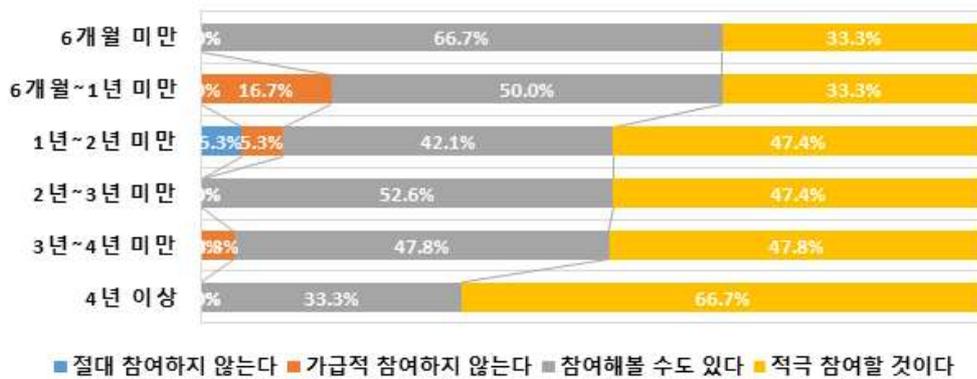


- 거주하는 동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참여해볼 수도 있다’와 ‘적극 참여할 것이다’는 응답이 각각 46.8%로 나타나며 이를 합한 참여 의향은 93.6%이다.

[표 103] 활동기간별 마을공동체 참여 의향

구분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가급적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해볼 수도 있다	적극 참여할 것이다	전체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6개월 미만	빈도	0	0	2	1	3
	비율	0.0%	0.0%	66.7%	33.3%	100.0%
6개월~1년 미만	빈도	0	3	9	6	18
	비율	0.0%	16.7%	50.0%	33.3%	100.0%
1년~2년 미만	빈도	1	1	8	9	19
	비율	5.3%	5.3%	42.1%	47.4%	100.0%
2년~3년 미만	빈도	0	0	10	9	19
	비율	0.0%	0.0%	52.6%	47.4%	100.0%
3년~4년 미만	빈도	0	1	11	11	23
	비율	0.0%	4.3%	47.8%	47.8%	100.0%
4년 이상	빈도	0	0	4	8	12
	비율	0.0%	0.0%	33.3%	66.7%	100.0%
전체	빈도	1	5	44	44	94
	비율	1.1%	5.3%	46.8%	46.8%	100.0%

[그림 77] 활동기간별 마을공동체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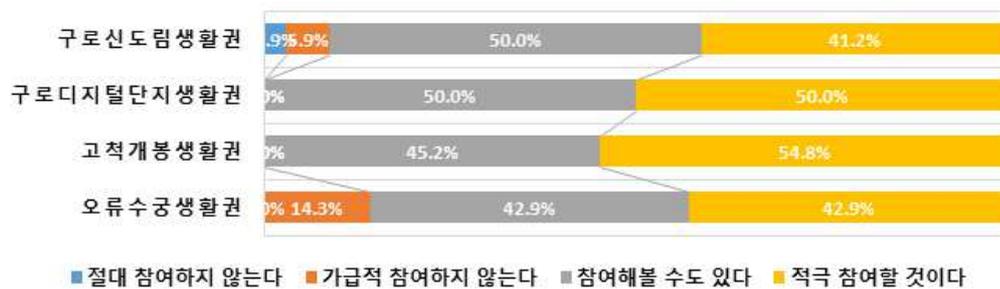


- 이를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기간별로 살펴보면, 활동기간이 길수록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아져 4년 이상 응답군에서는 66.7%이고,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0%이다.
- 6개월~1년 미만 응답군에서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큰 16.7%이다.

[표 104] 생활권별 마을공동체 참여 의향

구분	구분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가급적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해볼 수도 있다	적극 참여할 것이다	전체
구로신도림 생활권	빈도	1	2	17	14	34
	비율	2.9%	5.9%	50.0%	41.2%	100.0%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	빈도	0	0	4	4	8
	비율	0.0%	0.0%	50.0%	50.0%	100.0%
고척개봉 생활권	빈도	0	0	14	17	31
	비율	0.0%	0.0%	45.2%	54.8%	100.0%
오류수궁 생활권	빈도	0	3	9	9	21
	비율	0.0%	14.3%	42.9%	42.9%	100.0%
전체	빈도	1	5	44	44	94
	비율	1.1%	5.3%	46.8%	46.8%	100.0%

[그림 78] 생활권별 마을공동체 참여 의향



- 생활권별로 살펴보면, 오류수궁생활권에서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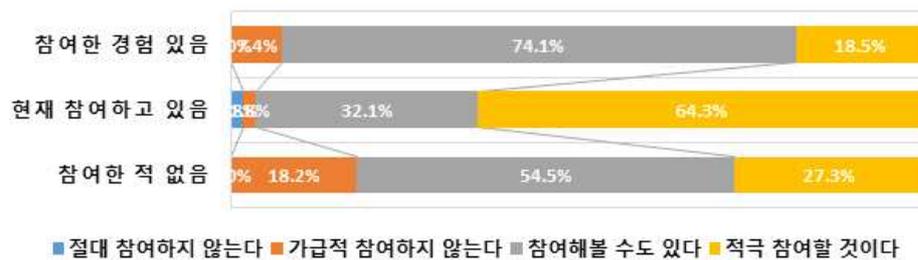
14.3%이며, 구로신도림생활권에서는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는와 가급적 참여하지 않는다는를 합한 참여부정 응답이 8.8%이다.

-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고척개봉생활권에서 가장 높다,

[표 105] 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마을공동체 참여 의향

구분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가급적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해볼 수도 있다	적극 참여할 것이다	전체
참여한 경험 있음	빈도	0	2	20	5	27
	비율	0.0%	7.4%	74.1%	18.5%	100.0%
현재 참여하고 있음	빈도	1	1	18	36	56
	비율	1.8%	1.8%	32.1%	64.3%	100.0%
참여한 적 없음	빈도	0	2	6	3	11
	비율	0.0%	18.2%	54.5%	27.3%	100.0%
전체	빈도	1	5	44	44	94
	비율	1.1%	5.3%	46.8%	46.8%	100.0%

[그림 79] 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마을공동체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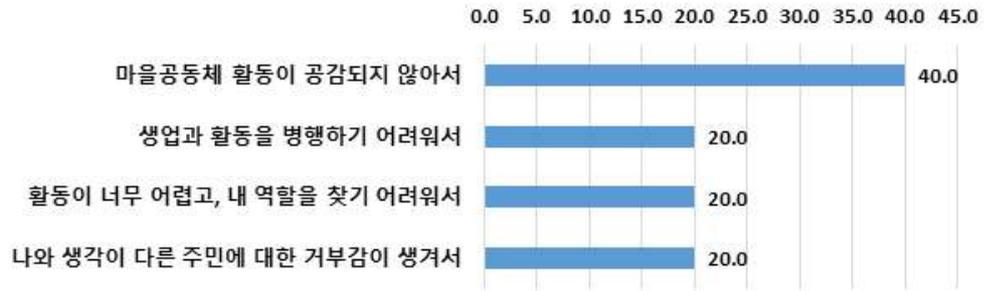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별로 응답을 나눠 살펴보면,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군에서 적극 참여할 것이다와 참여해볼 수도 있다는를 합한 긍정적 참여 의향이 96.4%로 가장 높고, 참여 부정 의향은 3.6%에 불과하다.
- 참여한 적 없다고 답한 응답군에서 참여할 의향이 없다는 비중이 가장 높다.

[참여 부정 이유]

[표 106] 마을공동체 참여 부정 이유

구분	빈도	비율
마을공동체 활동이 공감되지 않아서	2	40.0%
생업과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워서	1	20.0%
활동이 너무 어렵고, 내 역할을 찾기 어려워서	1	20.0%
나와 생각이 다른 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서	1	20.0%
전체	5	100.0%

[그림 80] 마을공동체 참여 부정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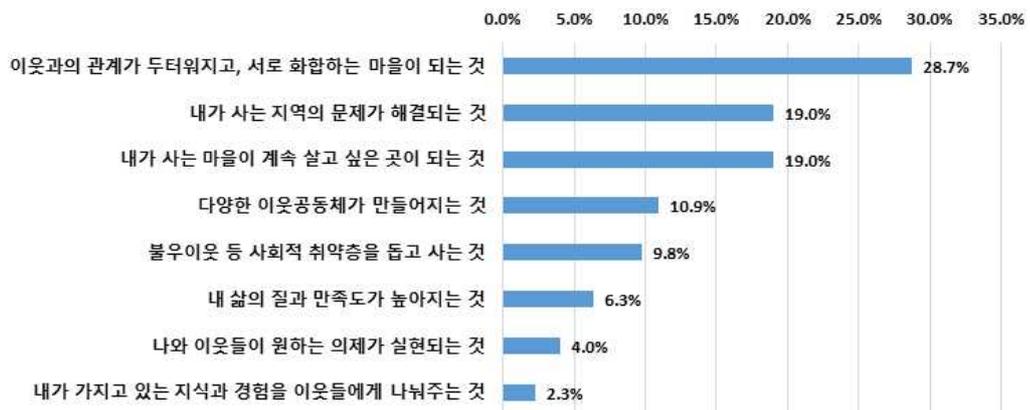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 중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5명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 마을공동체 활동이 공감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명 (40.0%)으로 가장 많다.

[참여 기대 요소]

[표 107] 마을공동체 참여 기대 요소

구분	빈도	비율
이웃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서로 화합하는 마을이 되는 것	50	28.7%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33	19.0%
내가 사는 마을이 계속 살고 싶은 곳이 되는 것	33	19.0%
다양한 이웃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19	10.9%
불우이웃 등 사회적 취약층을 돕고 사는 것	17	9.8%
내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11	6.3%
나와 이웃들이 원하는 의제가 실현되는 것	7	4.0%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	4	2.3%
전체	174	100.0%

[그림 81] 마을공동체 참여 기대 요소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 중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88명이 참여로 어떤 점을 기대하는가(중복 응답)에 답한 내용을 보면, 이웃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서로 화합하는 마을이 되는 것(28.7%)을 1순위로 꼽고 있다.
-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내가 사는 마을이 계속 살고 싶은 곳이 되는 것이 각각 19.0%, 다양한 이웃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10.9%) 등이 뒤를 잇는다.

(5) 마을공동체 활동 평가

- 마을공동체 활동이 ‘마을공동체 개념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시민으로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구로구에 계속 거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마을공동체 주민들은 5점 척도로 자기활동 평가를 진행했다.
- 마을공동체 활동이 ‘마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마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이웃 간의 화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마을공동체 주민들은 5점 척도로 자기활동 평가를 진행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은 상대활동 평가를 진행했다.
- 설문응답 결과를 마을공동체의 경우, 역할별, 활동목적별, 활동기간별, 연령별, 생활권별로 교차분석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로 교차분석했다.

[표 108] 마을공동체 활동 평가

구분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	181	3.90		
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182	3.76	96	3.70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182	3.59	96	3.49
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182	4.03	96	3.55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182	3.92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182	3.96		

- 평가 결과 마을공동체 참여주민의 경우, 이웃 간의 화합 도움(4.03)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으며,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3.96),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3.92),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해 도움(3.90)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그러나,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에는 가장 낮은 점수(3.59)를 주고 있다.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의 경우, 마을의 발전 도움에 3.7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에 3.4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의 경우, 공통 세 항목에 대해서 마을공동체 참여자들보다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다.

①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

[표 109] 마을: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2	1.1%
도움되지 않는다	5	2.8%
보통이다	53	29.3%
도움된다	71	39.2%
매우 도움된다	50	27.6%
전체	181	100.0%

[그림 82] 마을: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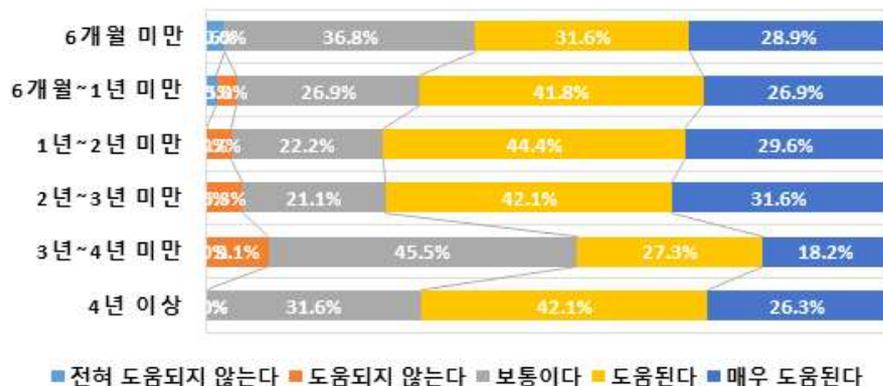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활동이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된다는 응답이 39.8%로 가장 많고, 보통이다가 29.3%로 그 뒤를 잇고 있다.
- 도움된다는와 매우 도움된다는를 합한 긍정 평가는 66.9%이며, 도움되지 않는다는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를 합한 부정 평가는 3.9%이다.

[표 110] 마을:활동기간별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전체
6개월 미만	빈도	1	0	14	12	11	38
	비율	2.6%	0.0%	36.8%	31.6%	28.9%	100.0%
6개월~1년 미만	빈도	1	2	18	28	18	67
	비율	1.5%	3.0%	26.9%	41.8%	26.9%	100.0%
1년~2년 미만	빈도	0	1	6	12	8	27
	비율	0.0%	3.7%	22.2%	44.4%	29.6%	100.0%
2년~3년 미만	빈도	0	1	4	8	6	19
	비율	0.0%	5.3%	21.1%	42.1%	31.6%	100.0%
3년~4년 미만	빈도	0	1	5	3	2	11
	비율	0.0%	9.1%	45.5%	27.3%	18.2%	100.0%
4년 이상	빈도	0	0	6	8	5	19
	비율	0.0%	0.0%	31.6%	42.1%	26.3%	100.0%
전체	빈도	2	5	53	71	50	181
	비율	1.1%	2.8%	29.3%	39.2%	27.6%	100.0%

[그림 83] 마을:활동기간별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



- 마을공동체 활동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2년 미만 응답군에서 도움이 된다는 긍정 평가가 74.1%로 가장 높고, 부정 평가는 3년~4년 미만에서 9.1%로 가장 높다.

② 마을의 발전에 도움 정도

[표 111] 마을: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2	1.1%
도움되지 않는다	10	5.5%
보통이다	60	33.0%
도움된다	68	37.4%
매우 도움된다	42	23.1%
전체	182	100.0%

[그림 84] 마을: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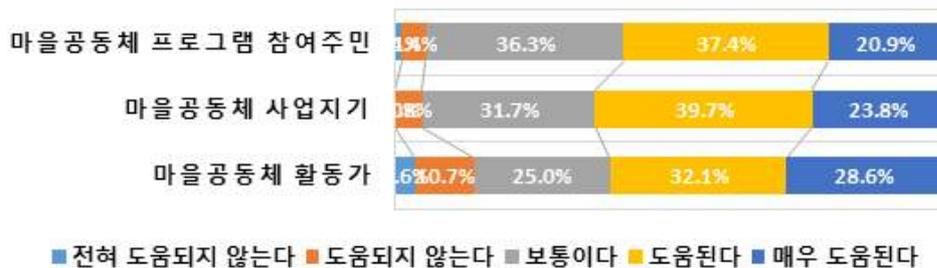


- 마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도움된다’는 응답이 37.4%로 가장 많으며, ‘보통이다’(33.0%), ‘매우 도움된다’(23.1%)의 순으로 나타난다.
- 도움된다와 매우 도움된다를 합한 긍정 평가는 60.5%이며, 도움되지 않는다와 전혀 도움되지 않음을 합한 부정 평가는 6.6%이다.

[표 112] 마을:역할별 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	빈도	1	4	33	34	19	91
	비율	1.1%	4.4%	36.3%	37.4%	20.9%	100.0%
마을공동체 사업지기	빈도	0	3	20	25	15	63
	비율	0.0%	4.8%	31.7%	39.7%	23.8%	100.0%
마을공동체 활동가	빈도	1	3	7	9	8	28
	비율	3.6%	10.7%	25.0%	32.1%	28.6%	100.0%
전체	빈도	2	10	60	68	42	182
	비율	1.1%	5.5%	33.0%	37.4%	23.1%	100.0%

[그림 85] 마을:역할별 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역할별로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지기의 긍정 평가가 가장 높다.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경우, 부정 평가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매우 도움된다는 비중도 가장 높다.

[표 113] 자치: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2	2.1%
도움되지 않는다	10	10.4%
보통이다	25	26.0%
도움된다	37	38.5%
매우 도움된다	22	22.9%
전체	96	100.0%

[그림 86] 자치: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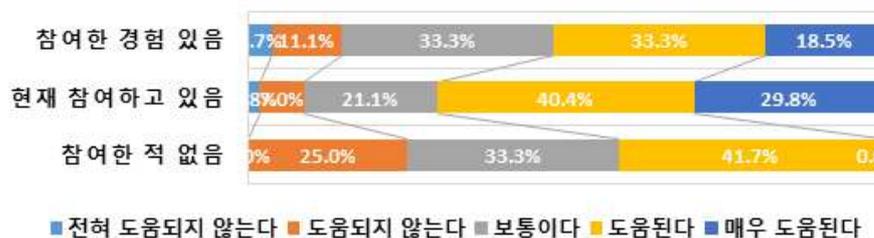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이 '마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평가한 것을 보면, '도움된다'(38.5%), '보통이다'(26.0%), '매우 도움된다'(22.9%)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 도움된다와 매우 도움된다는 합한 긍정 평가는 61.5%이며, 도움되지 않는다는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를 합한 부정 평가는 12.5%이다.

[표 114]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전체
참여한 경험 있음	빈도	1	3	9	9	5	27
	비율	3.7%	11.1%	33.3%	33.3%	18.5%	100.0%
현재 참여하고 있음	빈도	1	4	12	23	17	57
	비율	1.8%	7.0%	21.1%	40.4%	29.8%	100.0%
참여한 적 없음	빈도	0	3	4	5	0	12
	비율	0.0%	25.0%	33.3%	41.7%	0.0%	100.0%
전체	빈도	2	10	25	37	22	96
	비율	2.1%	10.4%	26.0%	38.5%	22.9%	100.0%

[그림 87]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의 마을공동체 참여 경험 여부별로 살펴보면, '현재 참여하고 있음'

응답군에서 긍정 평가 비중이 가장 높고, '참여한 적 없음' 응답군에서는 긍정 평가가 가장 낮고, 부정 평가는 가장 높다.

③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표 115] 마을: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4	2.2%
도움되지 않는다	18	9.9%
보통이다	63	34.6%
도움된다	61	33.5%
매우 도움된다	36	19.8%
전체	182	100.0%

[그림 88] 마을: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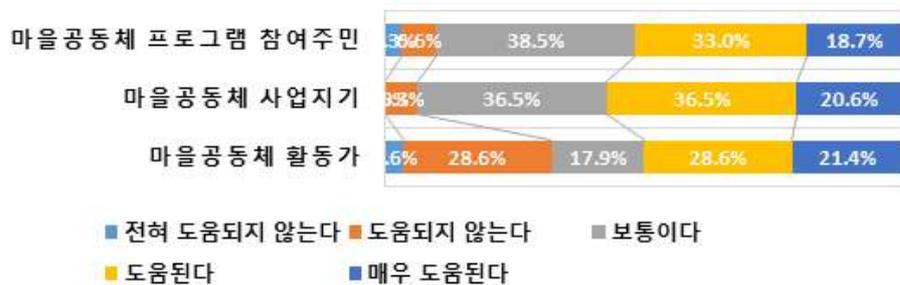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활동이 마을의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보통이다 34.6%, 도움된다 33.5%, 매우 도움된다는 19.8%이다.
- 도움된다와 매우 도움된다는 합한 긍정 평가는 53.3%이며, 도움되지 않는다와 전혀 도움되지 않다는 합한 부정 평가는 12.1%이다.

[표 116] 마을:역할별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전체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	빈도	3	6	35	30	17	91
	비율	3.3%	6.6%	38.5%	33.0%	18.7%	100.0%
마을공동체 사업지기	빈도	0	4	23	23	13	63
	비율	0.0%	6.3%	36.5%	36.5%	20.6%	100.0%
마을공동체 활동가	빈도	1	8	5	8	6	28
	비율	3.6%	28.6%	17.9%	28.6%	21.4%	100.0%
전체	빈도	4	18	63	61	36	182
	비율	2.2%	9.9%	34.6%	33.5%	19.8%	100.0%

[그림 89] 마을:역할별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 마을공동체 참여 역할별로 보면, 마을공동체 활동가에서 도움되지 않는다(28.6%)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3.6%)로 부정 평가가 다른 역할군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대체로 활동과 참여가 활발한 활동가 군이 일반주민과 사업지기군에 비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경향의 원인이 추가로 분석될 필요가 있으며, '행정추진 과정의 복잡함과 어려움', '심리적 책임성' 등이 원인일 수 있다.

[표 117] 자치: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7	7.3%
도움되지 않는다	9	9.4%
보통이다	30	31.3%
도움된다	30	31.3%
매우 도움된다	20	20.8%
전체	96	100.0%

[그림 90] 자치: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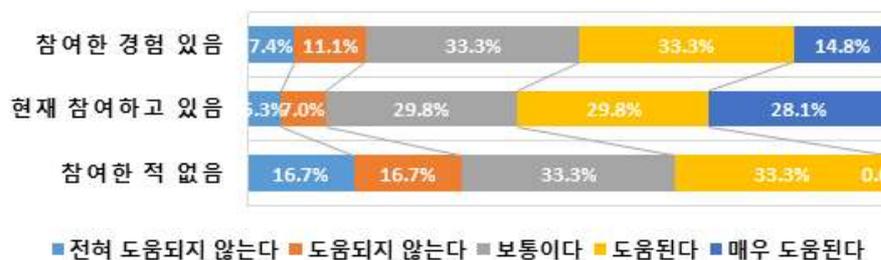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이 마을의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한 응답을 살펴보면, 보통이다와 도움된다가 각 31.3%로 가장 많고, 매우 도움된다가 20.8%이다.
- 도움된다와 매우 도움된다를 합한 긍정 평가는 52.1%이며, 도움되지 않는다와 전혀 도움되지 않음을 합한 부정 평가는 16.7%이다.

[표 118]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전체
참여한 경험 있음	빈도	2	3	9	9	4	27
	비율	7.4%	11.1%	33.3%	33.3%	14.8%	100.0%
현재 참여하고 있음	빈도	3	4	17	17	16	57
	비율	5.3%	7.0%	29.8%	29.8%	28.1%	100.0%
참여한 적 없음	빈도	2	2	4	4	0	12
	비율	16.7%	16.7%	33.3%	33.3%	0.0%	100.0%
전체	빈도	7	9	30	30	20	96
	비율	7.3%	9.4%	31.3%	31.3%	20.8%	100.0%

[그림 91]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 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응답으로 살펴보면, '현재 참여하고 있음' 응답군에서 긍정 평가 비중이 가장 높고, '참여한 적 없음' 응답군에서는 긍정 평가 비중은 가장 낮고, 부정 평가 비중은 가장 높다.

④ 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표 119] 마을: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구분	빈도	비율
도움되지 않는다	9	4.9%
보통이다	43	23.6%
도움된다	64	35.2%
매우 도움된다	66	36.3%
전체	182	100.0%

[그림 92] 마을: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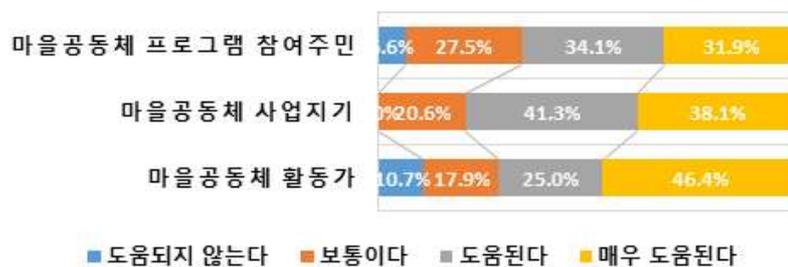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활동이 이웃 간의 화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매우 도움된다는 응답이 36.3%, 도움된다는 응답이 35.2%, 보통이다 23.6%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 도움된다는 매우 도움된다는 합한 긍정 평가는 71.5%이며, 도움되지 않는다와 전혀 도움되지 않다는 합한 부정 평가는 4.9%이다. 평가 문항 중 유일하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

[표 120] 마을:역할별 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구분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전체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	빈도	6	25	31	29	91
	비율	6.6%	27.5%	34.1%	31.9%	100.0%
마을공동체 사업지기	빈도	0	13	26	24	63
	비율	0.0%	20.6%	41.3%	38.1%	100.0%
마을공동체 활동가	빈도	3	5	7	13	28
	비율	10.7%	17.9%	25.0%	46.4%	100.0%
전체	빈도	9	43	64	66	182
	비율	4.9%	23.6%	35.2%	36.3%	100.0%

[그림 93] 마을:역할별 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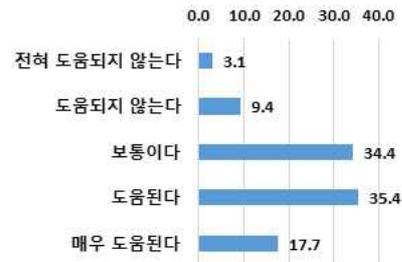


- 이들 마을공동체 참여 역할별로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지기 응답군에서 긍정 평가 비중이 가장 높고, 마을공동체 활동가 응답군에서는 부정 평가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매우 도움된다는 응답 비중도 가장 크다.

[표 121] 자치: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3	3.1%
도움되지 않는다	9	9.4%
보통이다	33	34.4%
도움된다	34	35.4%
매우 도움된다	17	17.7%
전체	96	100.0%

[그림 94] 자치: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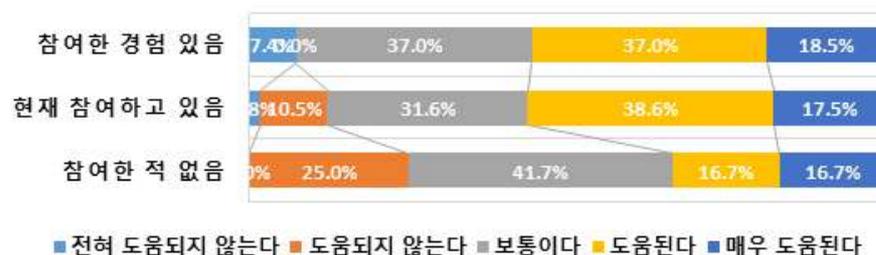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가 마을공동체 활동이 이웃 간의 화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보면, 도움된다 35.4%, 보통이다 34.4%, 매우 도움된다 17.7%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 도움된다와 매우 도움된다를 합한 긍정 평가는 53.1%이며, 도움되지 않는다와 전혀 도움되지 않음을 합한 부정 평가는 12.5%이다.

[표 122]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전체
참여한 경험 있음	빈도	2	0	10	10	5	27
	비율	7.4%	0.0%	37.0%	37.0%	18.5%	100.0%
현재 참여하고 있음	빈도	1	6	18	22	10	57
	비율	1.8%	10.5%	31.6%	38.6%	17.5%	100.0%
참여한 적 없음	빈도	0	3	5	2	2	12
	비율	0.0%	25.0%	41.7%	16.7%	16.7%	100.0%
전체	빈도	3	9	33	34	17	96
	비율	3.1%	9.4%	34.4%	35.4%	17.7%	100.0%

[그림 95]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 마을공동체 참여 경험 여부별로 살펴보면,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군에서 긍정 응답 비중이 가장 높고, '참여한 적 없음' 응답군에서는 부정 응답 비중이 가장 높다.
- 참여한 경험이 있음 응답군의 경우에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이 다른 응답군에 비해 가장 크다.

⑤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표 123] 마을: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1	0.5%
도움되지 않는다	13	7.1%
보통이다	47	25.8%
도움된다	60	33.0%
매우 도움된다	61	33.5%

[그림 96] 마을: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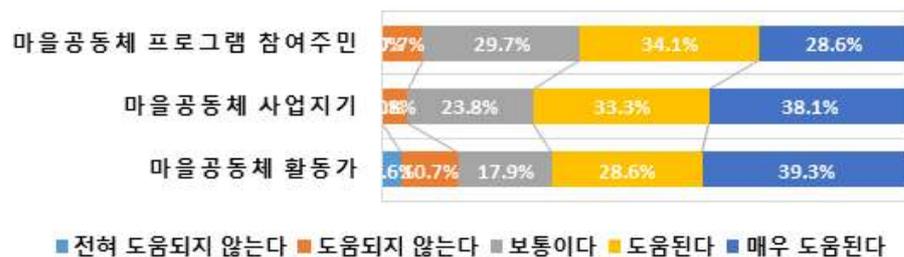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활동이 시민으로서 성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 매우 도움된다는 응답이 33.5%로 가장 많고, 도움된다(33.0%), 보통이다(25.8%) 순으로 나타난다.
- 도움된다와 매우 도움된다는 합한 긍정 평가는 66.5%이며, 도움되지 않는다는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를 합한 부정 평가는 7.6%이다.

[표 124] 마을:역할별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전체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	빈도	0	7	27	31	26	91
	비율	0.0%	7.7%	29.7%	34.1%	28.6%	100.0%
마을공동체 사업지기	빈도	0	3	15	21	24	63
	비율	0.0%	4.8%	23.8%	33.3%	38.1%	100.0%
마을공동체 활동가	빈도	1	3	5	8	11	28
	비율	3.6%	10.7%	17.9%	28.6%	39.3%	100.0%
전체	빈도	1	13	47	60	61	182
	비율	.5%	7.1%	25.8%	33.0%	33.5%	100.0%

[그림 97] 마을:역할별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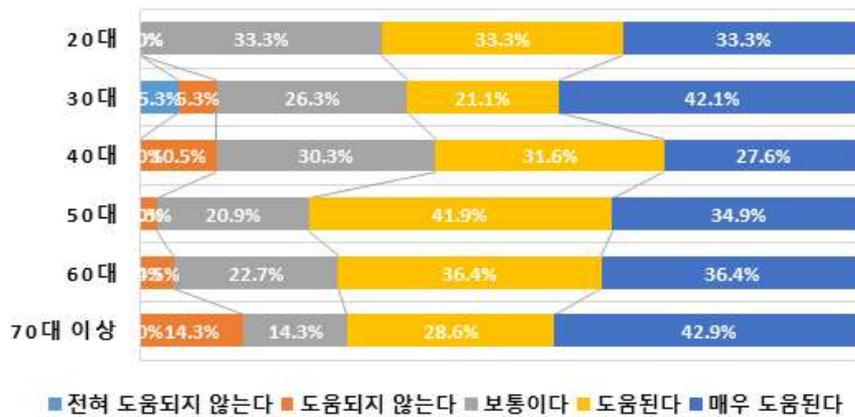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역할별로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지기군에서 긍정 평가 비중이 가장 높고, 마을공동체 활동기군에서는 부정 평가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매우 도움된다는 응답 비중도 가장 높다.

[표 125] 마을:연령별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전체
20대	빈도	0	0	2	2	2	6
	비율	0.0%	0.0%	33.3%	33.3%	33.3%	100.0%
30대	빈도	1	1	5	4	8	19
	비율	5.3%	5.3%	26.3%	21.1%	42.1%	100.0%
40대	빈도	0	8	23	24	21	76
	비율	0.0%	10.5%	30.3%	31.6%	27.6%	100.0%
50대	빈도	0	1	9	18	15	43
	비율	0.0%	2.3%	20.9%	41.9%	34.9%	100.0%
60대	빈도	0	1	5	8	8	22
	비율	0.0%	4.5%	22.7%	36.4%	36.4%	100.0%
70대 이상	빈도	0	2	2	4	6	14
	비율	0.0%	14.3%	14.3%	28.6%	42.9%	100.0%
전체	빈도	1	13	46	60	60	180
	비율	.6%	7.2%	25.6%	33.3%	33.3%	100.0%

[그림 98] 마을:연령별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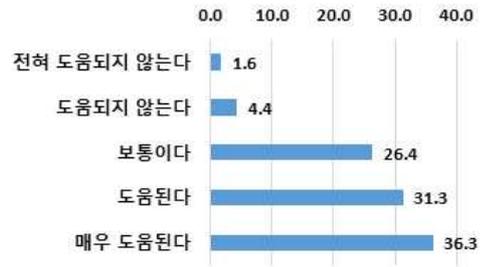
- 응답자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에서 긍정 응답 비중이 가장 적고, 50대에서 가장 높다. 4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부정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⑥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표 126] 마을: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3	1.6%
도움되지 않는다	8	4.4%
보통이다	48	26.4%
도움된다	57	31.3%
매우 도움된다	66	36.3%
전체	182	100.0%

[그림 99] 마을: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 마을공동체 활동이 구로구에 계속 거주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매우 도움된다는 응답이 36.3%로 가장 높고, 도움된다 31.3%, 보통이다 26.4% 순으로 나타난다.
- 도움된다와 매우 도움된다를 합한 긍정 평가는 67.6%이며, 도움되지 않는다와 전혀 도움되지 않음을 합한 부정 평가는 6.0%이다.

[표 127] 마을:역할별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전체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	빈도	1	3	24	34	29	91
	비율	1.1%	3.3%	26.4%	37.4%	31.9%	100.0%
마을공동체 사업지기	빈도	0	1	17	18	27	63
	비율	0.0%	1.6%	27.0%	28.6%	42.9%	100.0%
마을공동체 활동가	빈도	2	4	7	5	10	28
	비율	7.1%	14.3%	25.0%	17.9%	35.7%	100.0%
전체	빈도	3	8	48	57	66	182
	비율	1.6%	4.4%	26.4%	31.3%	36.3%	100.0%

[그림 100] 마을:역할별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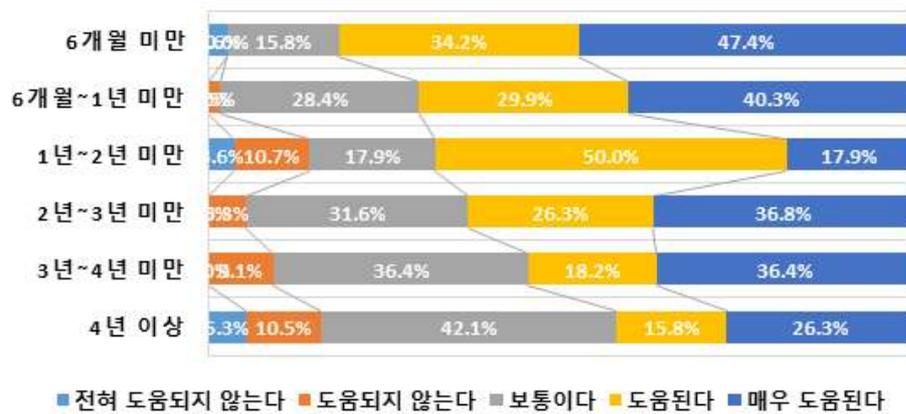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참여 역할별로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지기군에서 긍정 평가 비중이 가장 높고, 마을공동체 활동가군에서는 부정 평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표 128] 마을:활동기간별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전체
6개월 미만	빈도	1	0	6	13	18	38
	비율	2.6%	0.0%	15.8%	34.2%	47.4%	100.0%
6개월~1년 미만	빈도	0	1	19	20	27	67
	비율	0.0%	1.5%	28.4%	29.9%	40.3%	100.0%
1년~2년 미만	빈도	1	3	5	14	5	28
	비율	3.6%	10.7%	17.9%	50.0%	17.9%	100.0%
2년~3년 미만	빈도	0	1	6	5	7	19
	비율	0.0%	5.3%	31.6%	26.3%	36.8%	100.0%
3년~4년 미만	빈도	0	1	4	2	4	11
	비율	0.0%	9.1%	36.4%	18.2%	36.4%	100.0%
4년 이상	빈도	1	2	8	3	5	19
	비율	5.3%	10.5%	42.1%	15.8%	26.3%	100.0%
전체	빈도	3	8	48	57	66	182
	비율	1.6%	4.4%	26.4%	31.3%	36.3%	100.0%

[그림 101] 마을:활동기간별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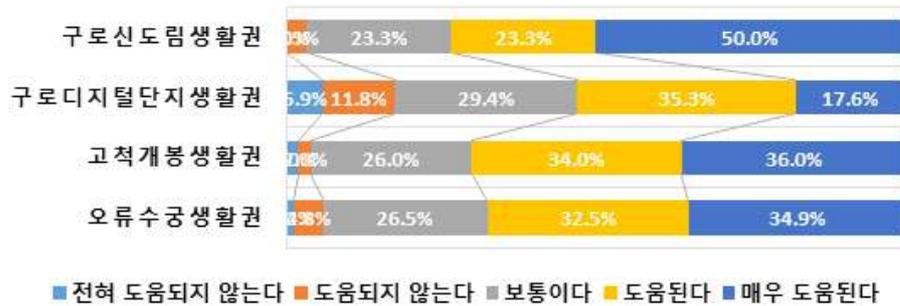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활동기간별로 보면, 활동기간이 길수록 긍정 응답 비중이 상당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서 4년 이상 응답군에서 부정 응답 비중이 가장 크고,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비중도 가장 크다.

[표 129] 마을:생활권별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전체
구로신도림 생활권	빈도	0	1	7	7	15	30
	비율	0.0%	3.3%	23.3%	23.3%	50.0%	100.0%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	빈도	1	2	5	6	3	17
	비율	5.9%	11.8%	29.4%	35.3%	17.6%	100.0%
고척개봉 생활권	빈도	1	1	13	17	18	50
	비율	2.0%	2.0%	26.0%	34.0%	36.0%	100.0%
오류수궁 생활권	빈도	1	4	22	27	29	83
	비율	1.2%	4.8%	26.5%	32.5%	34.9%	100.0%
전체	빈도	3	8	47	57	65	180
	비율	1.7%	4.4%	26.1%	31.7%	36.1%	100.0%

[그림 102] 마을:생활권별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 생활권별로 마을공동체 활동이 구로구에 계속 거주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 살펴보면, 구로신도림생활권에서 긍정 응답 비중이 가장 높고, 매우 도움된다는 평가 비중도 가장 높은 반면,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에서 부정 응답 비중이 가장 크고,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비중도 가장 크다.

(6)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동 인식

-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 지 세 가지 문항으로(공모사업에 대한 인식, 활동내용에 대한 인식, 마을자치센터의 지원 내용에 대한 인식) 질문하고, 5점 척도로 답하도록 했다.
- 설문응답 결과를 생활권별로 교차분석했다.

[표 130] 마을공동체 활동 인식

구분	빈도	평균
공모사업 인식 정도	96	3.64
활동 내용 인식 정도	95	3.39
마을자치센터 지원 내용 인식 정도	95	3.38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의 활동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5점 척도로 답한 평균을 살펴보면, 구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3.64점, 거주동의 마을공동체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3.39점, 마을공동체 지원조직인 마을자치센터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3.38점을 주었다.

① 공모사업 인식 정도

[표 131]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인식 정도

구분	빈도	비율
모른다	9	9.4%
보통이다	41	42.7%
알고 있다	22	22.9%
잘 알고 있다	24	25.0%
전체	96	100.0%

[그림 103]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인식 정도



- 구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도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42.7%, 잘 알고 있다 25.0%, 알고 있다 22.9% 등의 순으로 답한다.
-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은 47.9%, 모른다는 9.4%이다. 전혀 모른다는 답변은 없다.

[표 132] 생활권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인식 정도

구분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구로신도림 생활권	빈도	4	11	8	11	34
	비율	11.8%	32.4%	23.5%	32.4%	100.0%
구로디지털단지 생활권	빈도	1	5	2	1	9
	비율	11.1%	55.6%	22.2%	11.1%	100.0%
고척개봉 생활권	빈도	1	17	7	7	32
	비율	3.1%	53.1%	21.9%	21.9%	100.0%
오류수궁 생활권	빈도	3	8	5	5	21
	비율	14.3%	38.1%	23.8%	23.8%	100.0%
전체	빈도	9	41	22	24	96
	비율	9.4%	42.7%	22.9%	25.0%	100.0%

[그림 104] 생활권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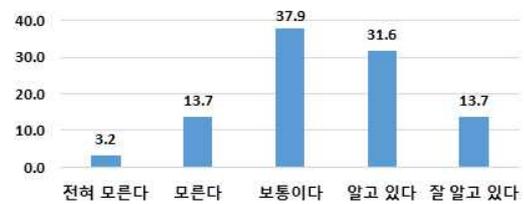
- 생활권별로 살펴보면, 구로신도림생활권에서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을 합친 비율이 가장 높다. 오류수궁생활권에서는 모른다는 비율이 가장 높다.

② 활동내용 인식 정도

[표 133] 마을공동체 활동내용 인식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모른다	3	3.2%
모른다	13	13.7%
보통이다	36	37.9%
알고 있다	30	31.6%
잘 알고 있다	13	13.7%
전체	95	100.0%

[그림 105] 마을공동체 활동내용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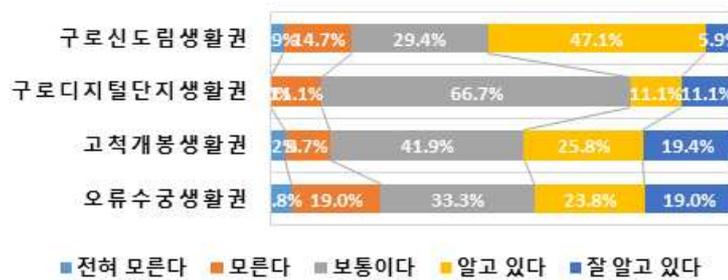
- 거주동의 마을공동체 활동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고, 알고 있다(31.6%), 잘 알고 있다(13.7%), 모른다(13.7%)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은 45.3%,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는 비율은

16.9%이다.

[표 134] 생활권별 마을공동체 활동 내용 인식 정도

구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구로신도림 생활권	빈도	1	5	10	16	2	34
	비율	2.9%	14.7%	29.4%	47.1%	5.9%	100.0%
구로디지털단지 생활권	빈도	0	1	6	1	1	9
	비율	0.0%	11.1%	66.7%	11.1%	11.1%	100.0%
고척개봉 생활권	빈도	1	3	13	8	6	31
	비율	3.2%	9.7%	41.9%	25.8%	19.4%	100.0%
오류수궁 생활권	빈도	1	4	7	5	4	21
	비율	4.8%	19.0%	33.3%	23.8%	19.0%	100.0%
전체	빈도	3	13	36	30	13	95
	비율	3.2%	13.7%	37.9%	31.6%	13.7%	100.0%

[그림 106] 생활권별 마을공동체 활동 내용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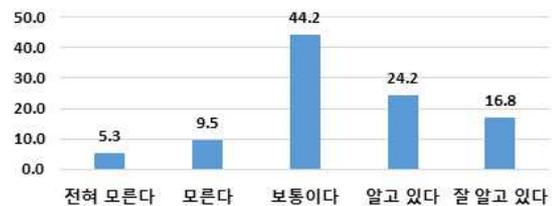
- 생활권별로 살펴보면, 구로신도림생활권에서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을 합친 비율이 가장 높고, 오류수궁생활권에서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는 합친 비율이 가장 높다.

③ 마을자치센터 지원 내용 인식 정도

[표 135] 마을자치센터 지원 내용 인식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모른다	5	5.3%
모른다	9	9.5%
보통이다	42	44.2%
알고 있다	23	24.2%
잘 알고 있다	16	16.8%
전체	95	100.0%

[그림 107] 마을자치센터 지원 내용 인식 정도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가 마을공동체 지원조직인 마을자치센터의 지원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다 44.2%로 가장 많고, 알고 있다(24.2%),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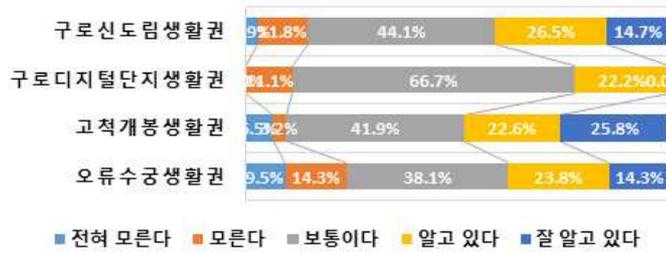
(16.8%)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이 41.0%,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는 합한 비율은 14.8%이다.

[표 136] 생활권별 마을자치센터 지원 내용 인식 정도

구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구로신도림 생활권	빈도	1	4	15	9	5	34
	비율	2.9%	11.8%	44.1%	26.5%	14.7%	100.0%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	빈도	0	1	6	2	0	9
	비율	0.0%	11.1%	66.7%	22.2%	0.0%	100.0%
고척개봉 생활권	빈도	2	1	13	7	8	31
	비율	6.5%	3.2%	41.9%	22.6%	25.8%	100.0%
오류수궁 생활권	빈도	2	3	8	5	3	21
	비율	9.5%	14.3%	38.1%	23.8%	14.3%	100.0%
전체	빈도	5	9	42	23	16	95
	비율	5.3%	9.5%	44.2%	24.2%	16.8%	100.0%

[그림 108] 생활권별 마을자치센터 지원 내용 인식 정도



- 생활권별로 보면, 고척개봉생활권에서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오류수궁생활권에서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는 합친 비율이 가장 높다.

(7)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평가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시민으로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구로구에 계속 거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5점 척도로 자기활동 평가를 진행했다.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마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마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이웃 간의 화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은 5점 척도로 자기활동 평가를 진행하고, 마을공동체 주민들은 상대활동 평가를 진행했다.
- 설문응답 결과를 연령별, 생활권별, 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로 교차분석했다.

[표 137]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평가 및 인식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	
	빈도	평균	빈도	평균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	97	3.66		
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96	3.57	181	3.43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97	3.49	180	3.37
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97	3.52	181	3.48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97	3.80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96	3.85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한 항목들에 참여자들이 5점 척도로 매긴 점수의 평균을 보면,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가 3.85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가 3.49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다. 마을공동체 참여자들의 경우, 질문한 모든 항목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들의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①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

[표 138] 자치: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1	1.0%
도움되지 않는다	10	10.3%
보통이다	35	36.1%
도움된다	26	26.8%
매우 도움된다	25	25.8%
전체	97	100.0%

[그림 109] 자치: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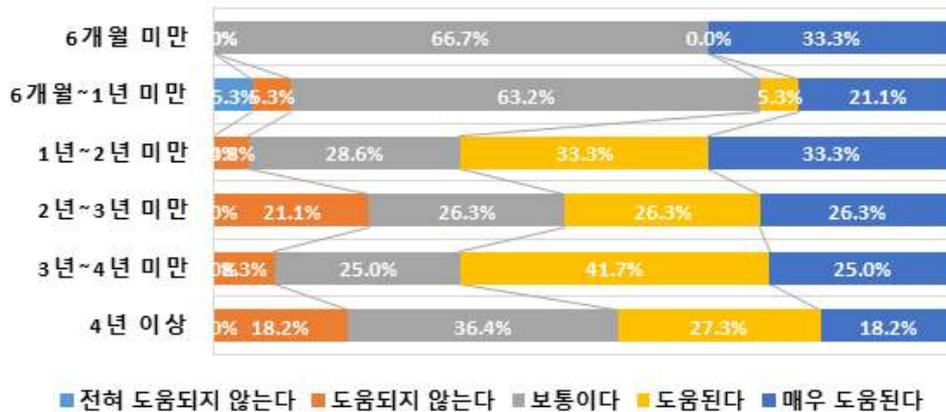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36.1%로 가장 많고, 도움된다 26.8%, 매우 도움된다 25.8%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 도움된다와 매우 도움된다를 합한 긍정 평가는 52.6%이며, 도움되지 않는다와 전혀 도움되지 않음을 합한 부정 평가는 11.3%다.

[표 139] 자치:활동기간별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전체
6개월 미만	빈도	0	0	2	0	1	3
	비율	0.0%	0.0%	66.7%	0.0%	33.3%	100.0%
6개월~1년 미만	빈도	1	1	12	1	4	19
	비율	5.3%	5.3%	63.2%	5.3%	21.1%	100.0%
1년~2년 미만	빈도	0	1	6	7	7	21
	비율	0.0%	4.8%	28.6%	33.3%	33.3%	100.0%
2년~3년 미만	빈도	0	4	5	5	5	19
	비율	0.0%	21.1%	26.3%	26.3%	26.3%	100.0%
3년~4년 미만	빈도	0	2	6	10	6	24
	비율	0.0%	8.3%	25.0%	41.7%	25.0%	100.0%
4년 이상	빈도	0	2	4	3	2	11
	비율	0.0%	18.2%	36.4%	27.3%	18.2%	100.0%
전체	빈도	1	10	35	26	25	97
	비율	1.0%	10.3%	36.1%	26.8%	25.8%	100.0%

[그림 110] 자치:활동기간별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도움 정도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기간별로 살펴보면, 3년~4년 미만 응답군에서 긍정 평가 비중이 가장 높고, 2년~3년 미만에서 부정 평가 비중이 가장 높다. 1년 이상부터는 활동기간이 길어질수록 매우 도움된다는 응답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② 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표 140] 자치: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구분	빈도	비율
도움되지 않는다	15	15.6%
보통이다	31	32.3%
도움된다	30	31.3%
매우 도움된다	20	20.8%
전체	96	100.0%

[그림 111] 자치: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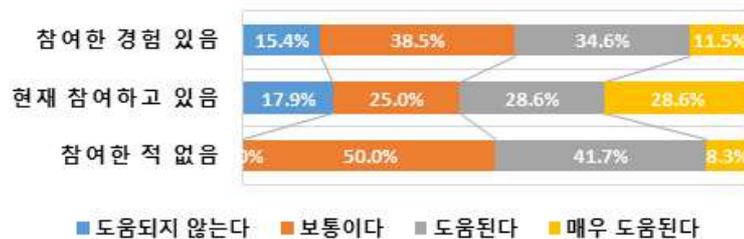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의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32.3%)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도움된다 31.3%, 매우 도움된다 20.8%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 도움된다와 매우 도움된다를 합한 긍정 평가는 52.1%이며, 도움되지 않는다와 전혀 도움되지 않음을 합한 부정 평가는 15.6%이다.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나오지 않는다.

[표 141]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구분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전체
참여한 경험 있음	빈도	4	10	9	3	26
	비율	15.4%	38.5%	34.6%	11.5%	100.0%
현재 참여하고 있음	빈도	10	14	16	16	56
	비율	17.9%	25.0%	28.6%	28.6%	100.0%
참여한 적 없음	빈도	0	6	5	1	12
	비율	0.0%	50.0%	41.7%	8.3%	100.0%
전체	빈도	14	30	30	20	94
	비율	14.9%	31.9%	31.9%	21.3%	100.0%

[그림 112]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의 마을공동체 참여 경험 여부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의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군에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비중이 모두 가장 높다. 주목할 점은 참여한 경험이 없는 주민에게서

는 부정 평가가 나오지 않으며,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참여 중인 주민에게서만 부정 평가가 나온다.

[표 142] 마을: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5	2.8%
도움되지 않는다	25	13.8%
보통이다	60	33.1%
도움된다	69	38.1%
매우 도움된다	22	12.2%
전체	181	100.0%

[그림 113] 마을:마을의 발전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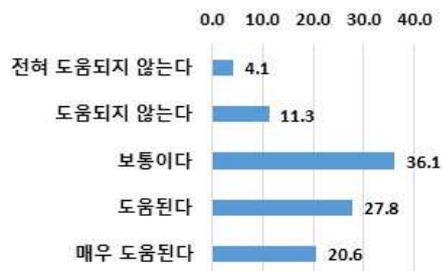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참여자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의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한 평가 응답을 보면, 도움된다는 응답이 38.1%로 가장 많고, 보통이다(33.1%), 도움되지 않는다(13.8%) 등이 그 뒤를 잇는다.
- 도움된다와 매우 도움된다를 합한 긍정 평가는 50.3%이며, 도움되지 않는다는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를 합한 부정 평가는 16.6%이다.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는 답변은 나오지 않는다.

③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표 143] 자치: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4	4.1%
도움되지 않는다	11	11.3%
보통이다	35	36.1%
도움된다	27	27.8%
매우 도움된다	20	20.6%
전체	97	100.0%

[그림 114] 자치: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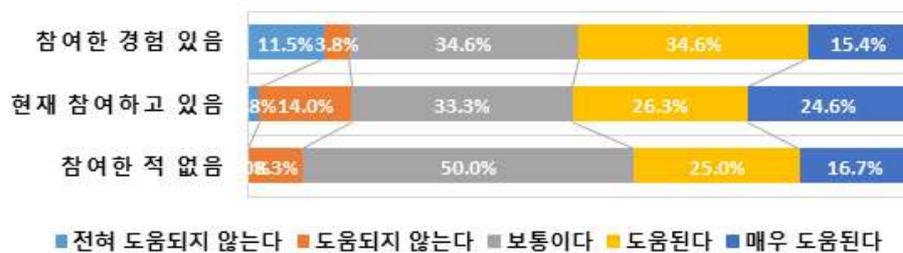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한 응답을 살펴보면, 보통이다(36.1%), 도움된다(27.8%), 매우 도움된다(20.6%)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 도움된다와 매우 도움된다를 합한 긍정 평가는 48.4%이며, 도움되지 않는다는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를 합한 부정 평가는 15.4%이다.

[표 144]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전체
참여한 경험 있음	빈도	3	1	9	9	4	26
	비율	11.5%	3.8%	34.6%	34.6%	15.4%	100.0%
현재 참여하고 있음	빈도	1	8	19	15	14	57
	비율	1.8%	14.0%	33.3%	26.3%	24.6%	100.0%
참여한 적 없음	빈도	0	1	6	3	2	12
	비율	0.0%	8.3%	50.0%	25.0%	16.7%	100.0%
전체	빈도	4	10	34	27	20	95
	비율	4.2%	10.5%	35.8%	28.4%	21.1%	100.0%

[그림 115]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 마을공동체에 참여한 경험 여부별로 보면,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군에서 긍정 평가 비중 뿐만 아니라 부정 평가 비중도 가장 높다.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군에서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참여 중인 주민의 부정 평가 비중이, 참여 경험이 없는 주민보다 높다.

[표 145] 마을: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5	2.8%
도움되지 않는다	24	13.3%
보통이다	74	41.1%
도움된다	53	29.4%
매우 도움된다	24	13.3%
전체	180	100.0%

[그림 116] 마을: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 정도



- 마을공동체 참여자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의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평가한 응답을 살펴보면, 보통이라는 응답이 41.1%로 가장 많고, 도움된다 29.4%, 매우 도움된다와 도움되지 않는다가 각각 13.3%이다.
- 도움된다와 매우 도움된다를 합한 긍정 평가는 42.7%이며, 도움되지 않는다는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를 합한 부정 평가는 16.1%이다.

④ 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표 146] 자치: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4	4.1%
도움되지 않는다	9	9.3%
보통이다	33	34.0%
도움된다	35	36.1%
매우 도움된다	16	16.5%
전체	97	100.0%

[그림 117] 자치: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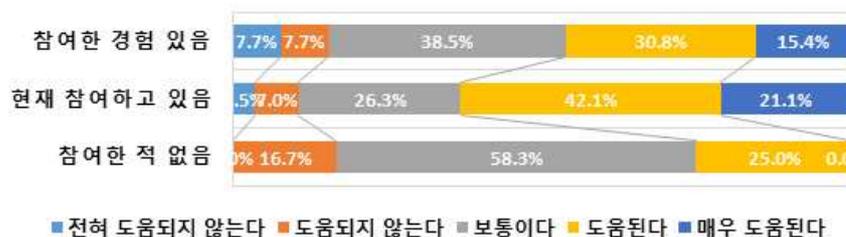


- 자치위원회 참여자들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이웃 간의 화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도움된다(36.1%)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고, 보통이다 34.0%, 매우 도움된다 16.5% 등의 순이다.
- 도움된다와 매우 도움된다를 합한 긍정 평가는 52.6%이며, 도움되지 않는다와 전혀 도움되지 않음을 합한 부정 평가는 13.4%이다.

[표 147]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전체
참여한 경험 있음	빈도	2	2	10	8	4	26
	비율	7.7%	7.7%	38.5%	30.8%	15.4%	100.0%
현재 참여하고 있음	빈도	2	4	15	24	12	57
	비율	3.5%	7.0%	26.3%	42.1%	21.1%	100.0%
참여한 적 없음	빈도	0	2	7	3	0	12
	비율	0.0%	16.7%	58.3%	25.0%	0.0%	100.0%
전체	빈도	4	8	32	35	16	95
	비율	4.2%	8.4%	33.7%	36.8%	16.8%	100.0%

[그림 118]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 마을공동체 참여 경험 여부별로 보면,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군에서 긍정 평가 비중이 가장 높다. 참여한 적 없다는 응답군에서 부정 평가 비중이 가장 높고, 매우 도움된다는 응

답은 없다. 마을공동체 경험이 있을수록 이웃 간의 화합 도움에 대한 평가에는 긍정적으로 응답한다.

[표 148] 마을: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4	2.2%
도움되지 않는다	22	12.2%
보통이다	64	35.4%
도움된다	65	35.9%
매우 도움된다	26	14.4%
전체	181	100.0%

[그림 119] 마을:이웃 간의 화합 도움 정도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이웃 간의 화합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마을공동체 참여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도움된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고, 보통이다(35.4%), 매우 도움된다(14.4%), 도움되지 않는다(12.2%) 등이 그 뒤를 잇는다.
- 도움된다는 매우 도움된다는 합한 긍정 평가는 50.3%이며, 도움되지 않는다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합한 '부정' 평가는 14.4%이다.

⑤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표 149] 자치: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1	1.0%
도움되지 않는다	8	8.2%
보통이다	24	24.7%
도움된다	40	41.2%
매우 도움된다	24	24.7%
전체	97	100.0%

[그림 120] 자치: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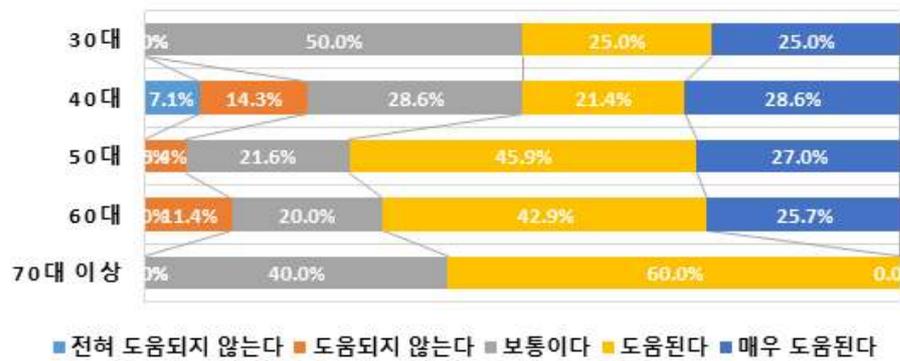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들은 활동이 시민으로서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도움된다(41.2%)는 응답이 가장 많고, 매우 도움된다는 보통이다 응답이 각각 24.7%이다.
- 도움된다는 매우 도움된다는 합한 긍정 평가는 65.9%이며, 도움되지 않는다는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합한 부정 평가는 9.2%이다.

[표 150] 자치:연령대별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전체
30대	빈도	0	0	2	1	1	4
	비율	0.0%	0.0%	50.0%	25.0%	25.0%	100.0%
40대	빈도	1	2	4	3	4	14
	비율	7.1%	14.3%	28.6%	21.4%	28.6%	100.0%
50대	빈도	0	2	8	17	10	37
	비율	0.0%	5.4%	21.6%	45.9%	27.0%	100.0%
60대	빈도	0	4	7	15	9	35
	비율	0.0%	11.4%	20.0%	42.9%	25.7%	100.0%
70대 이상	빈도	0	0	2	3	0	5
	비율	0.0%	0.0%	40.0%	60.0%	0.0%	100.0%
전체	빈도	1	8	23	39	24	95
	비율	1.1%	8.4%	24.2%	41.1%	25.3%	100.0%

[그림 121] 자치:연령대별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의 연령대별 응답을 보면, 50대에서 긍정 응답 비중이 가장 높고, 40대에서는 부정 비중도 가장 높고,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유일하게 나온다.

[표 151]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전체
참여한 경험 있음	빈도	1	3	4	11	7	26
	비율	3.8%	11.5%	15.4%	42.3%	26.9%	100.0%
현재 참여하고 있음	빈도	0	5	12	25	15	57
	비율	0.0%	8.8%	21.1%	43.9%	26.3%	100.0%
참여한 적 없음	빈도	0	0	7	3	2	12
	비율	0.0%	0.0%	58.3%	25.0%	16.7%	100.0%
전체	빈도	1	8	23	39	24	95
	비율	1.1%	8.4%	24.2%	41.1%	25.3%	100.0%

[그림 122]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시민으로서 성장 도움 정도



- 마을공동체 참여 경험 여부별로 살펴보면,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군에서 긍정 응답 비중이 가장 높다.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군에서는 부정 비중이 가장 높으나, 참여한 경험이 없는 응답군에서는 긍정 응답 비중이 가장 낮다.

⑥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표 152] 자치: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5	5.2%
도움되지 않는다	8	8.3%
보통이다	17	17.7%
도움된다	32	33.3%
매우 도움된다	34	35.4%
전체	96	100.0%

[그림 123] 자치: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구로구에 계속 거주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매우 도움된다는 응답이 35.4%로 가장 많고, 다른 항목과 비교해 응답 비중이 매우 높다.
- 도움된다와 매우 도움된다는 합한 긍정 평가는 68.7%이며, 도움되지 않는다와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합한 부정 평가는 13.5%이다.

[표 153] 자치:생활권별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전체
구로신도림 생활권	빈도	3	0	3	14	14	34
	비율	8.8%	0.0%	8.8%	41.2%	41.2%	100.0%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	빈도	0	3	3	0	2	8
	비율	0.0%	37.5%	37.5%	0.0%	25.0%	100.0%
고척개봉 생활권	빈도	0	1	6	10	14	31
	비율	0.0%	3.2%	19.4%	32.3%	45.2%	100.0%
오류수궁 생활권	빈도	2	4	3	8	4	21
	비율	9.5%	19.0%	14.3%	38.1%	19.0%	100.0%
전체	빈도	5	8	15	32	34	94
	비율	5.3%	8.5%	16.0%	34.0%	36.2%	100.0%

[그림 124] 자치:생활권별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 생활권별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구로구에 계속 거주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 응답을 보면, 구로신도림생활권에서 긍정 응답 비중이 가장 높고, 고척개봉 생활권에서는 매우 도움된다는 비중이 가장 높고, 부정 비중은 가장 낮다. 오류수궁생활권,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의 경우, 부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154]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도움된다	매우 도움된다	전체
참여한 경험 있음	빈도	3	2	6	10	5	26
	비율	11.5%	7.7%	23.1%	38.5%	19.2%	100.0%
현재 참여하고 있음	빈도	1	4	7	17	27	56
	비율	1.8%	7.1%	12.5%	30.4%	48.2%	100.0%
참여한 적 없음	빈도	1	2	2	5	2	12
	비율	8.3%	16.7%	16.7%	41.7%	16.7%	100.0%
전체	빈도	5	8	15	32	34	94
	비율	5.3%	8.5%	16.0%	34.0%	36.2%	100.0%

[그림 125] 자치:마을공동체 참여 여부별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 정도



- 마을공동체 참여 경험 여부별로 보면,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군에서 긍정 응답 비중이 가장 높고, 참여한 적 없다는 응답군에서 부정 비중이 가장 높다.

(8) 마을공동체 참여주민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인식

- 마을공동체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네 가지 문항으로(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활동내용 인식,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인식,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질문하고, 5점 척도로 답하도록 했다.
- 설문응답 결과를 마을공동체 역할별, 활동기간별, 생활권역별로 교차분석했다.

[표 155] 마을공동체 참여주민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인식

구분	빈도	평균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정도	181	3.38
활동내용 인식 정도	181	2.96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인식 정도	180	2.88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정도	181	3.07

- 마을공동체 참여주민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 평균으로 보면,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정도가 3.38점으로 가장 높고,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인식 정도는 2.88점으로 가장 낮다.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정도는 3.07점, 활동내용 인식 정도는 2.96점이다.

①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정도

[표 156] 마을: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모른다	6	3.3%
모른다	24	13.3%
보통이다	70	38.7%
알고 있다	57	31.5%
잘 알고 있다	24	13.3%
전체	181	100.0%

[그림 126] 마을: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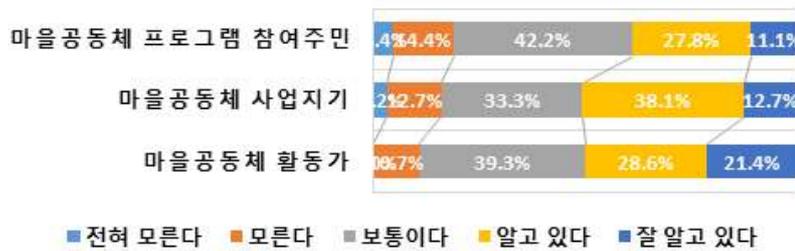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참여자들이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을 보면, 보통이다가 38.7%로 가장 많고, 알고 있다 31.5%, 잘 알고 있다와 모른다가 각각 13.3%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은 44.8%이며,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가 합한 비율은 16.6%이다.

[표 157] 마을:역할별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정도

구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	빈도	4	13	38	25	10	90
	비율	4.4%	14.4%	42.2%	27.8%	11.1%	100.0%
마을공동체 사업지기	빈도	2	8	21	24	8	63
	비율	3.2%	12.7%	33.3%	38.1%	12.7%	100.0%
마을공동체 활동가	빈도	0	3	11	8	6	28
	비율	0.0%	10.7%	39.3%	28.6%	21.4%	100.0%
전체	빈도	6	24	70	57	24	181
	비율	3.3%	13.3%	38.7%	31.5%	13.3%	100.0%

[그림 127] 마을:역할별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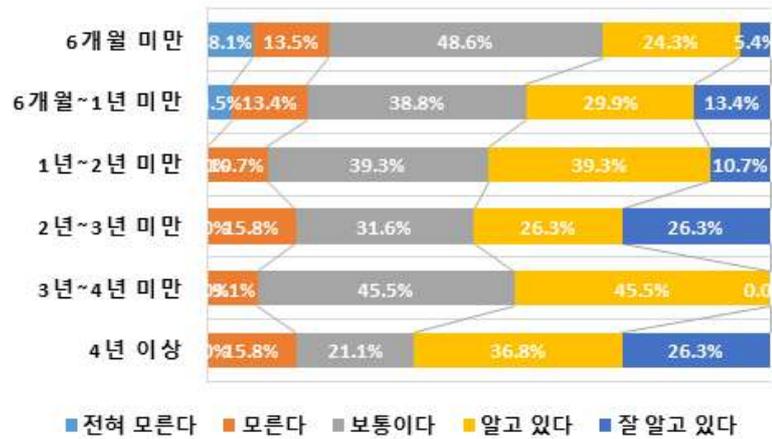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참여 역할별로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지기 그룹에서 주민자치 개념과 의미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 그룹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표 158] 마을:활동기간별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정도

구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6개월 미만	빈도	3	5	18	9	2	37
	비율	8.1%	13.5%	48.6%	24.3%	5.4%	100.0%
6개월~1년 미만	빈도	3	9	26	20	9	67
	비율	4.5%	13.4%	38.8%	29.9%	13.4%	100.0%
1년~2년 미만	빈도	0	3	11	11	3	28
	비율	0.0%	10.7%	39.3%	39.3%	10.7%	100.0%
2년~3년 미만	빈도	0	3	6	5	5	19
	비율	0.0%	15.8%	31.6%	26.3%	26.3%	100.0%
3년~4년 미만	빈도	0	1	5	5	0	11
	비율	0.0%	9.1%	45.5%	45.5%	0.0%	100.0%
4년 이상	빈도	0	3	4	7	5	19
	비율	0.0%	15.8%	21.1%	36.8%	26.3%	100.0%
전체	빈도	6	24	70	57	24	181
	비율	3.3%	13.3%	38.7%	31.5%	13.3%	100.0%

[그림 128] 마을:활동기간별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정도



- 이를 마을공동체 활동기간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활동기간이 길수록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친 비율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159] 마을:생활권별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정도

구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구로신도림 생활권	빈도	1	9	12	3	5	30
	비율	3.3%	30.0%	40.0%	10.0%	16.7%	100.0%
구로디지털단지 생활권	빈도	0	2	7	5	3	17
	비율	0.0%	11.8%	41.2%	29.4%	17.6%	100.0%
고척개봉 생활권	빈도	2	6	22	16	4	50
	비율	4.0%	12.0%	44.0%	32.0%	8.0%	100.0%
오류수궁 생활권	빈도	3	6	29	33	12	83
	비율	3.6%	7.2%	34.9%	39.8%	14.5%	100.0%
전체	빈도	6	23	70	57	24	180
	비율	3.3%	12.8%	38.9%	31.7%	13.3%	100.0%

[그림 129] 마을:생활권별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정도



- 마을공동체 참여자의 생활권별로 살펴보면, 오류수궁생활권에서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친 비율이 가장 높고, 구로신도림생활권에서는 비율이 가장 낮으며,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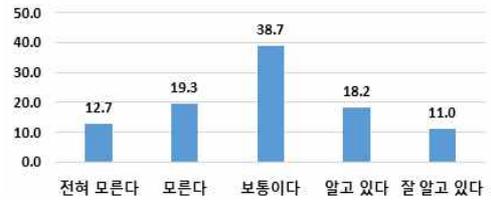
를 합친 비율은 가장 높다.

②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 인식 정도

[표 160] 마을: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 인식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모른다	23	12.7%
모른다	35	19.3%
보통이다	70	38.7%
알고 있다	33	18.2%
잘 알고 있다	20	11.0%
전체	181	100.0%

[그림 130] 마을: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 인식 정도



- 마을공동체 참여자가 자신의 거주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38.7%)는 응답이 가장 많고, 모른다(19.3%), 알고 있다(18.2%), 전혀 모른다(12.7%)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은 29.2%, 모른다와 전혀 모르다를 합한 비율은 32.0%로, 모르는 비율이 아는 비율보다 높다.

[표 161] 마을:역할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 인식 정도

구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	빈도	16	15	34	16	9	90
	비율	17.8%	16.7%	37.8%	17.8%	10.0%	100.0%
마을공동체 사업지기	빈도	4	15	25	14	5	63
	비율	6.3%	23.8%	39.7%	22.2%	7.9%	100.0%
마을공동체 활동가	빈도	3	5	11	3	6	28
	비율	10.7%	17.9%	39.3%	10.7%	21.4%	100.0%
전체	빈도	23	35	70	33	20	181
	비율	12.7%	19.3%	38.7%	18.2%	11.0%	100.0%

[그림 131] 마을:역할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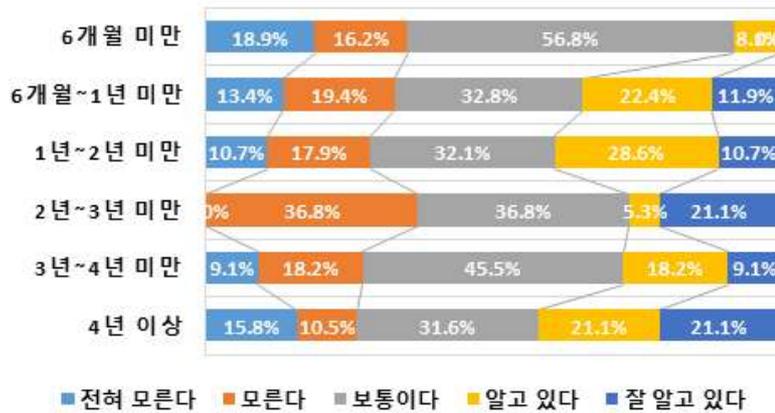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참여 역할별로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활동가군에서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친 비율이 가장 높고, 참여주민군에서는 모른다는 비율이 아는 비율보다 더 높다.

[표 162] 마을: 활동기간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 인식 정도

구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6개월 미만	빈도	7	6	21	3	0	37
	비율	18.9%	16.2%	56.8%	8.1%	0.0%	100.0%
6개월~1년 미만	빈도	9	13	22	15	8	67
	비율	13.4%	19.4%	32.8%	22.4%	11.9%	100.0%
1년~2년 미만	빈도	3	5	9	8	3	28
	비율	10.7%	17.9%	32.1%	28.6%	10.7%	100.0%
2년~3년 미만	빈도	0	7	7	1	4	19
	비율	0.0%	36.8%	36.8%	5.3%	21.1%	100.0%
3년~4년 미만	빈도	1	2	5	2	1	11
	비율	9.1%	18.2%	45.5%	18.2%	9.1%	100.0%
4년 이상	빈도	3	2	6	4	4	19
	비율	15.8%	10.5%	31.6%	21.1%	21.1%	100.0%
전체	빈도	23	35	70	33	20	181
	비율	12.7%	19.3%	38.7%	18.2%	11.0%	100.0%

[그림 132] 마을: 활동기간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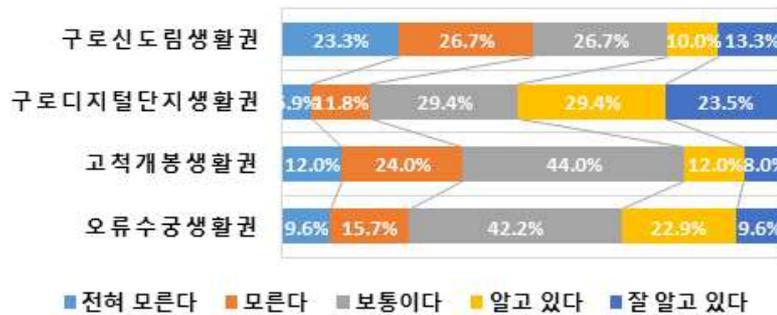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활동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이 넘어가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내용을 인지하는 비율 크게 늘어나고, 4년 이상 그룹에서는 비율이 가장 높다. 2년~3년 응답군에서는 모른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유일하게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없다.

[표 163] 마을: 생활권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 인식 정도

구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구로신도림 생활권	빈도	7	8	8	3	4	30
	비율	23.3%	26.7%	26.7%	10.0%	13.3%	100.0%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	빈도	1	2	5	5	4	17
	비율	5.9%	11.8%	29.4%	29.4%	23.5%	100.0%
고척개봉 생활권	빈도	6	12	22	6	4	50
	비율	12.0%	24.0%	44.0%	12.0%	8.0%	100.0%
오류수궁 생활권	빈도	8	13	35	19	8	83
	비율	9.6%	15.7%	42.2%	22.9%	9.6%	100.0%
전체	빈도	22	35	70	33	20	180
	비율	12.2%	19.4%	38.9%	18.3%	11.1%	100.0%

[그림 133] 마을: 생활권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 인식 정도



- 생활권별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내용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에서 인지 비율이 가장 높고, 구로신도림생활권에서는 모르는 비율이 50.0%로 가장 높다.

③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인식 정도

[표 164] 마을: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인식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모른다	23	12.8%
모른다	39	21.7%
보통이다	71	39.4%
알고 있다	31	17.2%
잘 알고 있다	16	8.9%
전체	180	100.0%

[그림 134] 마을: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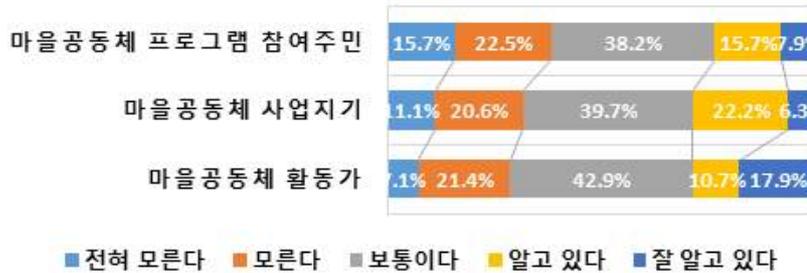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참여자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보면, 보통이다(39.4%), 모른다(21.7%), 알고 있다(17.2%) 등의 순으로 답하고 있다.
-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은 26.1%이며,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를 합한 비율은 34.5%로, 모른다는 비율이 안다는 비율보다 높다.

[표 165] 마을:역할별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인식 정도

구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	빈도	14	20	34	14	7	89
	비율	15.7%	22.5%	38.2%	15.7%	7.9%	100.0%
마을공동체 사업지기	빈도	7	13	25	14	4	63
	비율	11.1%	20.6%	39.7%	22.2%	6.3%	100.0%
마을공동체 활동가	빈도	2	6	12	3	5	28
	비율	7.1%	21.4%	42.9%	10.7%	17.9%	100.0%
전체	빈도	23	39	71	31	16	180
	비율	12.8%	21.7%	39.4%	17.2%	8.9%	100.0%

[그림 135] 마을:역할별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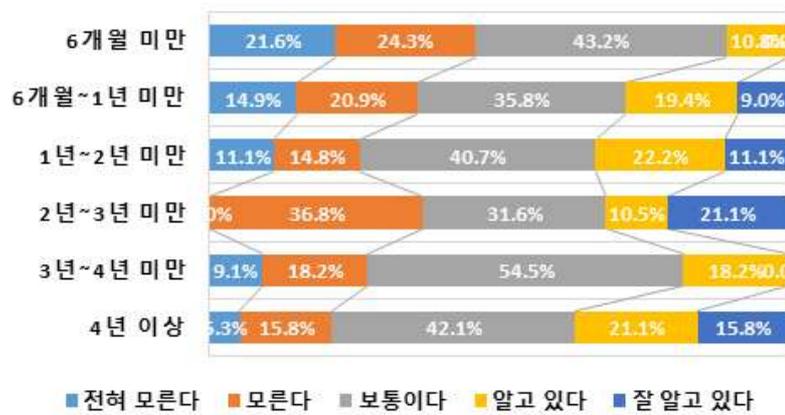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참여 역할별로 보면, 마을공동체 활동가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에 대해 인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참여주민, 사업지기군에서는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안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다.

[표 166] 마을:활동기간별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인식 정도

구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6개월 미만	빈도	8	9	16	4	0	37
	비율	21.6%	24.3%	43.2%	10.8%	0.0%	100.0%
6개월~1년 미만	빈도	10	14	24	13	6	67
	비율	14.9%	20.9%	35.8%	19.4%	9.0%	100.0%
1년~2년 미만	빈도	3	4	11	6	3	27
	비율	11.1%	14.8%	40.7%	22.2%	11.1%	100.0%
2년~3년 미만	빈도	0	7	6	2	4	19
	비율	0.0%	36.8%	31.6%	10.5%	21.1%	100.0%
3년~4년 미만	빈도	1	2	6	2	0	11
	비율	9.1%	18.2%	54.5%	18.2%	0.0%	100.0%
4년 이상	빈도	1	3	8	4	3	19
	비율	5.3%	15.8%	42.1%	21.1%	15.8%	100.0%
전체	빈도	23	39	71	31	16	180
	비율	12.8%	21.7%	39.4%	17.2%	8.9%	100.0%

[그림 136] 마을:활동기간별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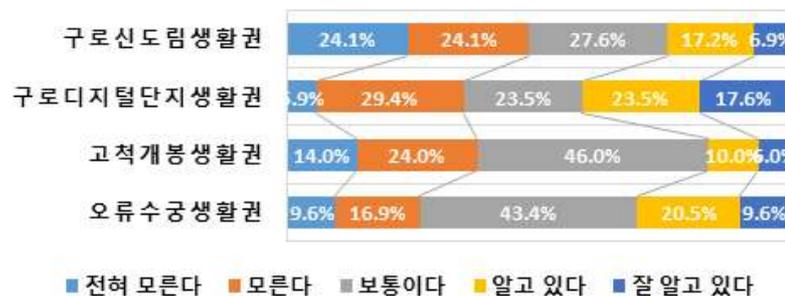


- 활동기간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활동기간이 길수록 모른다는 응답 비중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인지 비율 역시 4년 이상 응답군에서 가장 높지만, 3년~4년 응답군에서는 유일하게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없고, 알고 있다는 응답 비중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표 167] 마을:생활권별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인식 정도

구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구로신도림 생활권	빈도	7	7	8	5	2	29
	비율	24.1%	24.1%	27.6%	17.2%	6.9%	100.0%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	빈도	1	5	4	4	3	17
	비율	5.9%	29.4%	23.5%	23.5%	17.6%	100.0%
고척개봉 생활권	빈도	7	12	23	5	3	50
	비율	14.0%	24.0%	46.0%	10.0%	6.0%	100.0%
오류수궁 생활권	빈도	8	14	36	17	8	83
	비율	9.6%	16.9%	43.4%	20.5%	9.6%	100.0%
전체	빈도	23	38	71	31	16	179
	비율	12.8%	21.2%	39.7%	17.3%	8.9%	100.0%

[그림 137] 마을:생활권별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인식 정도



- 생활권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보면, 인지 비율은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에서 가장 높다. 모른다는 비율은 구로신도림생활권에서 가장 높고, 고척개봉생활권과 함께 모른다는 비율이 안다는 비율보다 높다.

④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정도

[표 168] 마을:주민자치위원회 참여방법 /선정방법 인식 정도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모른다	21	11.6%
모른다	33	18.2%
보통이다	61	33.7%
알고 있다	44	24.3%
잘 알고 있다	22	12.2%
전체	181	100.0%

[그림 138] 마을:주민자치위원회 참여방법 /선정방법 인식 정도



- 마을공동체 참여자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방법/선정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보통이다(33.7%)는 응답이 많고, 알고 있다(24.3%), 모른다(18.2%) 등이 그 뒤를 잇는다.
-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은 36.5%이며,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는를 합한 비율은 29.8%이다.

[표 169] 마을:역할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정도

구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	빈도	12	19	29	21	9	90
	비율	13.3%	21.1%	32.2%	23.3%	10.0%	100.0%
마을공동체 사업지기	빈도	6	10	22	18	7	63
	비율	9.5%	15.9%	34.9%	28.6%	11.1%	100.0%
마을공동체 활동가	빈도	3	4	10	5	6	28
	비율	10.7%	14.3%	35.7%	17.9%	21.4%	100.0%
전체	빈도	21	33	61	44	22	181
	비율	11.6%	18.2%	33.7%	24.3%	12.2%	100.0%

[그림 139] 마을:역할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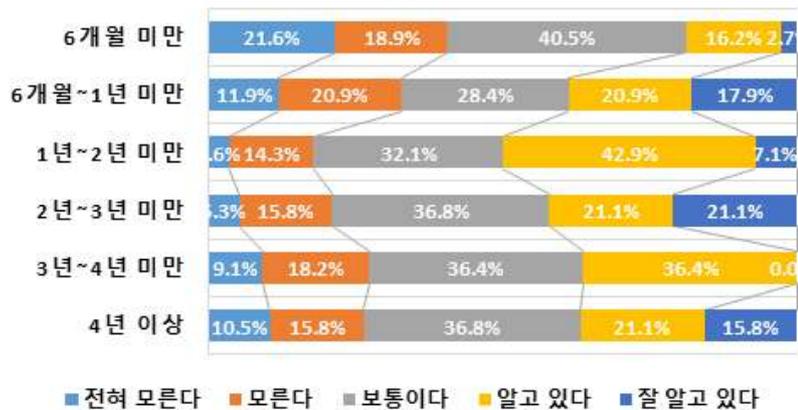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참여 역할별로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지기군에서 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군에서 모른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모른다는 비율이 안다는 비율보다 높다.

[표 170] 마을:활동기간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정도

구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6개월 미만	빈도	8	7	15	6	1	37
	비율	21.6%	18.9%	40.5%	16.2%	2.7%	100.0%
6개월~1년 미만	빈도	8	14	19	14	12	67
	비율	11.9%	20.9%	28.4%	20.9%	17.9%	100.0%
1년~2년 미만	빈도	1	4	9	12	2	28
	비율	3.6%	14.3%	32.1%	42.9%	7.1%	100.0%
2년~3년 미만	빈도	1	3	7	4	4	19
	비율	5.3%	15.8%	36.8%	21.1%	21.1%	100.0%
3년~4년 미만	빈도	1	2	4	4	0	11
	비율	9.1%	18.2%	36.4%	36.4%	0.0%	100.0%
4년 이상	빈도	2	3	7	4	3	19
	비율	10.5%	15.8%	36.8%	21.1%	15.8%	100.0%
전체	빈도	21	33	61	44	22	181
	비율	11.6%	18.2%	33.7%	24.3%	12.2%	100.0%

[그림 140] 마을:활동기간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정도



- 활동기간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1년~2년 미만 응답군을 정점으로 인지율이 지속해서 떨어지고, 모르는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171] 마을:생활권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정도

구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구로신도림 생활권	빈도	6	6	8	7	3	30
	비율	20.0%	20.0%	26.7%	23.3%	10.0%	100.0%
구로디지털단지 생활권	빈도	1	1	6	5	4	17
	비율	5.9%	5.9%	35.3%	29.4%	23.5%	100.0%
고척개봉 생활권	빈도	5	15	16	11	3	50
	비율	10.0%	30.0%	32.0%	22.0%	6.0%	100.0%
오류수궁 생활권	빈도	9	10	31	21	12	83
	비율	10.8%	12.0%	37.3%	25.3%	14.5%	100.0%
전체	빈도	21	32	61	44	22	180
	비율	11.7%	17.8%	33.9%	24.4%	12.2%	100.0%

[그림 141] 마을:생활권별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정도



- 생활권별로 살펴보면, 인지율은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에서 가장 높다. 모른다는 비율은 구로신도림생활권과 고척개봉생활권에서 가장 높고, 안다는 응답보다 높다.

(9) 마을자치센터 및 구로구청 역할

- 마을공동체 주민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자치센터와 구로구청 각각에 기대하는 역할을 비교하면서 답하도록 질문했다.
- 설문응답 결과를 마을공동체의 경우, 역할별, 활동목적별, 활동기간별로 교차분석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활동목적별, 활동기간별로 교차분석했다.

① 마을자치센터 역할

[표 172] 마을:마을자치센터 역할에 대한 기대

구분	빈도	비율
모임 공간 등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36	20.3%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	31	17.5%
공동체 활동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	30	16.9%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	23	13.0%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	16	9.0%
물품 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	16	9.0%
공동체 자생과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역할	15	8.5%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	10	5.6%
전체	177	100.0%

[표 173] 자치:마을자치센터 역할에 대한 기대

구분	빈도	비율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	23	24.0%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	19	19.8%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	13	13.5%
주민자치 활동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	11	11.5%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	10	10.4%
모임 공간 등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10	10.4%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역할	6	6.3%
물품 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	4	4.2%
전체	96	100.0%

[그림 142] 마을:마을자치센터 역할에 대한 기대



[그림 143] 자치:마을자치센터 역할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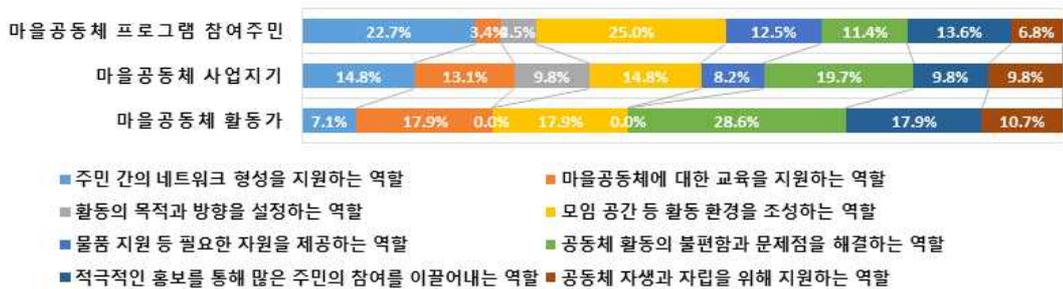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자치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마을공동체 참여자들의 응답을 보면, 모임 공간 등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20.3%)을 1순위로 꼽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24.0%)을 1순위로 꼽는다.
- 두 주민 그룹 모두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2순위로 꼽고 있으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에게서 많은 응답이 나온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3순위)의 경우, 마을공동체 주민에게서는 8순위로 거의 응답이 나오지 않는다.

[표 174] 마을:역할별 마을자치센터 역할에 대한 기대

구분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	마을공동체 교육에 지원하는 역할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	모임 공간 등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물품 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	공동체 활동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	공동체 자생과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역할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	빈도	20	3	4	22	11	10	12	6	88
	비율	22.7%	3.4%	4.5%	25.0%	12.5%	11.4%	13.6%	6.8%	100.0%
마을공동체 사업지기	빈도	9	8	6	9	5	12	6	6	61
	비율	14.8%	13.1%	9.8%	14.8%	8.2%	19.7%	9.8%	9.8%	100.0%
마을공동체 활동가	빈도	2	5	0	5	0	8	5	3	28
	비율	7.1%	17.9%	0.0%	17.9%	0.0%	28.6%	17.9%	10.7%	100.0%
전체	빈도	31	16	10	36	16	30	23	15	177
	비율	17.5%	9.0%	5.6%	20.3%	9.0%	16.9%	13.0%	8.5%	100.0%

[그림 144] 마을:역할별 마을자치센터 역할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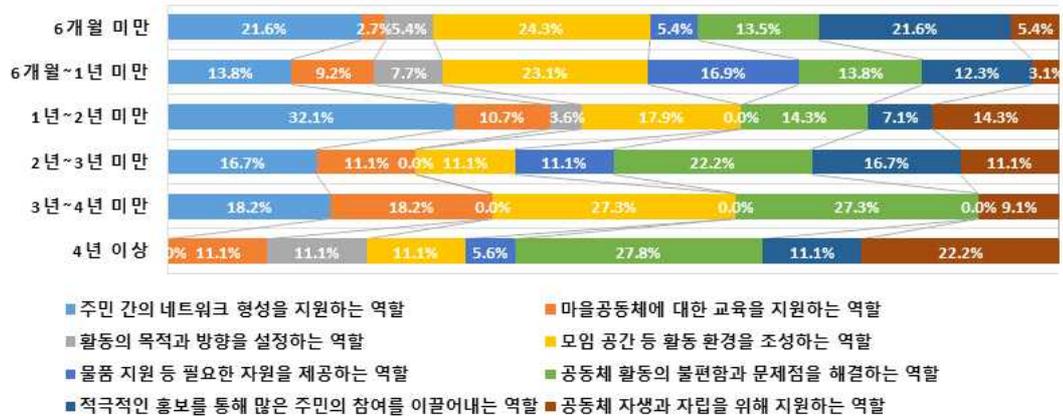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참여 역할별로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지기와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경우 공동체 활동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을 1순위로 꼽고 있으며,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에 대한 응답 비중이 참여주민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그만큼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 비중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 활동가군에서만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과 물품 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에 대한 응답이 없다.

[표 175] 마을:활동기간별 마을자치센터 역할에 대한 기대

구분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	모임 공간 등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물품 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	공동체 활동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	공동체 자생과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역할	전체
6개월 미만	빈도	8	1	2	9	2	5	8	2	37
	비율	21.6%	2.7%	5.4%	24.3%	5.4%	13.5%	21.6%	5.4%	100.0%
6개월~1년 미만	빈도	9	6	5	15	11	9	8	2	65
	비율	13.8%	9.2%	7.7%	23.1%	16.9%	13.8%	12.3%	3.1%	100.0%
1년~2년 미만	빈도	9	3	1	5	0	4	2	4	28
	비율	32.1%	10.7%	3.6%	17.9%	0.0%	14.3%	7.1%	14.3%	100.0%
2년~3년 미만	빈도	3	2	0	2	2	4	3	2	18
	비율	16.7%	11.1%	0.0%	11.1%	11.1%	22.2%	16.7%	11.1%	100.0%
3년~4년 미만	빈도	2	2	0	3	0	3	0	1	11
	비율	18.2%	18.2%	0.0%	27.3%	0.0%	27.3%	0.0%	9.1%	100.0%
4년 이상	빈도	0	2	2	2	1	5	2	4	18
	비율	0.0%	11.1%	11.1%	11.1%	5.6%	27.8%	11.1%	22.2%	100.0%
전체	빈도	31	16	10	36	16	30	23	15	177
	비율	17.5%	9.0%	5.6%	20.3%	9.0%	16.9%	13.0%	8.5%	100.0%

[그림 145] 마을:활동기간별 마을자치센터 역할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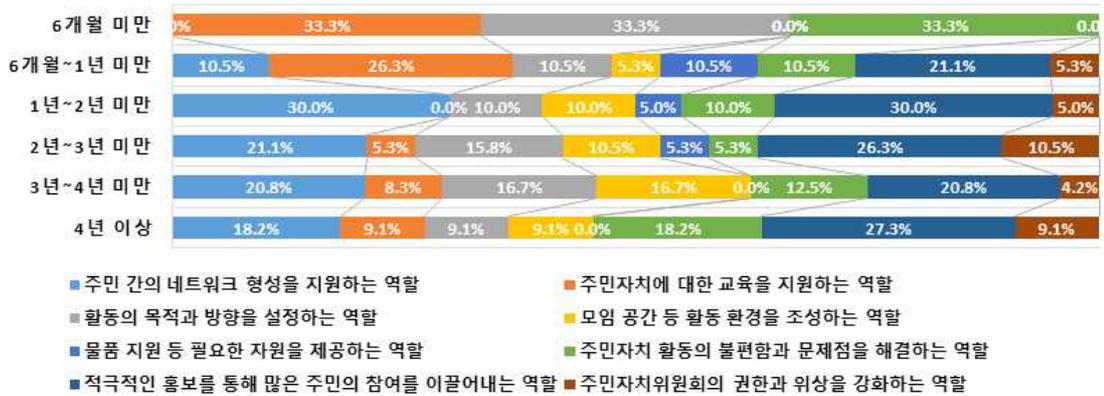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활동기간별로 보면, 활동기간이 길어질수록 공동체 활동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의 응답 비중이 높아져, 2년 이상에서는 1순위이다.
- 4년 이상 응답군에서는 유일하게 주민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에 대한 응답이 없는 반면, 공동체 자생과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역할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2순위이다.

[표 176] 자치:활동기간별 마을자치센터 역할에 대한 기대

구분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	모임 공간 등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물품 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	주민자치 활동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역할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6개월 미만	빈도	0	1	1	0	0	1	0	0	3
	비율	0.0%	33.3%	33.3%	0.0%	0.0%	33.3%	0.0%	0.0%	100.0%
6개월~1년 미만	빈도	2	5	2	1	2	2	4	1	19
	비율	10.5%	26.3%	10.5%	5.3%	10.5%	10.5%	21.1%	5.3%	100.0%
1년~2년 미만	빈도	6	0	2	2	1	2	6	1	20
	비율	30.0%	0.0%	10.0%	10.0%	5.0%	10.0%	30.0%	5.0%	100.0%
2년~3년 미만	빈도	4	1	3	2	1	1	5	2	19
	비율	21.1%	5.3%	15.8%	10.5%	5.3%	5.3%	26.3%	10.5%	100.0%
3년~4년 미만	빈도	5	2	4	4	0	3	5	1	24
	비율	20.8%	8.3%	16.7%	16.7%	0.0%	12.5%	20.8%	4.2%	100.0%
4년 이상	빈도	2	1	1	1	0	2	3	1	11
	비율	18.2%	9.1%	9.1%	9.1%	0.0%	18.2%	27.3%	9.1%	100.0%
전체	빈도	19	10	13	10	4	11	23	6	96
	비율	19.8%	10.4%	13.5%	10.4%	4.2%	11.5%	24.0%	6.3%	100.0%

[그림 146] 자치:활동기간별 마을자치센터 역할에 대한 기대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미만 응답권에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1순위로 꼽고 있으며, 1년~2년 미만에서는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의 비중이 다른 응답군에 비해 높아 1순위를 차지했다. 1, 2년차 주민과 3, 4년차 주민을 비교했을 때, 활동 연차가 높을수록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에 대한 요구는 줄고,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는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② 구로구청 역할

[표 177] 마을:구로구청 역할에 대한 기대

구분	빈도	비율
모임 공간 등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33	18.8%
물품 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	31	17.6%
공동체 활동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	28	15.9%
정책을 수립해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역할	21	11.9%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	19	10.8%
공동체 자생과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역할	17	9.7%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	13	7.4%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	12	6.8%
기타	2	1.1%
전체	1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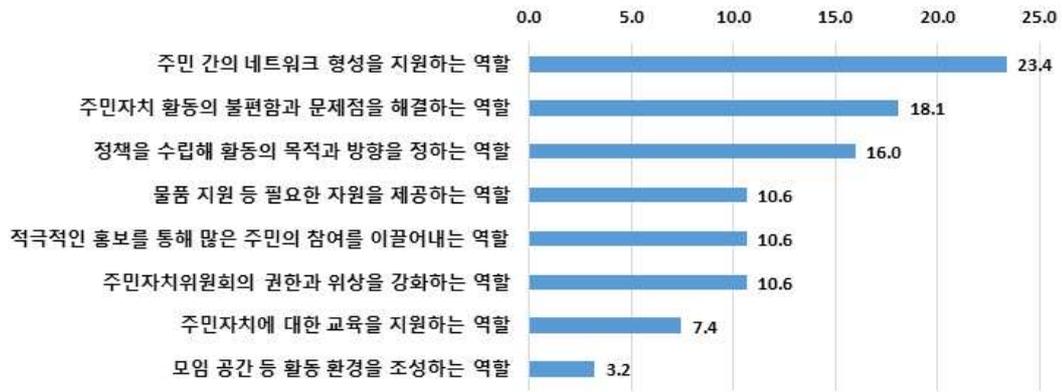
[표 178] 자치:구로구청 역할에 대한 기대

구분	빈도	비율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	22	23.4%
주민자치 활동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	17	18.1%
정책을 수립해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역할	15	16.0%
물품 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	10	10.6%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	10	10.6%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역할	10	10.6%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	7	7.4%
모임 공간 등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3	3.2%
전체	94	100.0%

[그림 147] 마을:구로구청 역할에 대한 기대



[그림 148] 자치:구로구청 역할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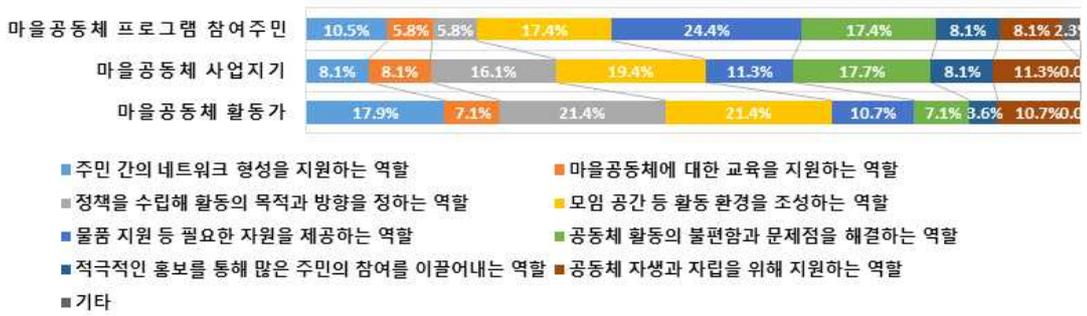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로구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마을공동체 참여자들은 모임 공간 등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18.8%)을 1순위로 꼽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들은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23.4%)을 1순위로 꼽는다.
- 마을공동체 주민이 가장 많이 응답한 모임 공간 등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에게서는 8순위로 가장 응답이 적다. 이는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활동이 가능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두 주민 그룹 모두 활동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에 대한 응답이 각각 3순위, 2순위로 높게 나타난다.

[표 179] 마을:역할별 구로구청 역할에 대한 기대

구분	빈도	주민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원하는 역할	정책을 수립해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역할	모임 공간 등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물품 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	공동체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	공동체 자생과를 위해 지원하는 역할	기타	전체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	빈도	9	5	5	15	21	15	7	7	2	86
	비율	10.5%	5.8%	5.8%	17.4%	24.4%	17.4%	8.1%	8.1%	2.3%	100.0%
마을공동체 사업지기	빈도	5	5	10	12	7	11	5	7	0	62
	비율	8.1%	8.1%	16.1%	19.4%	11.3%	17.7%	8.1%	11.3%	0.0%	100.0%
마을공동체 활동가	빈도	5	2	6	6	3	2	1	3	0	28
	비율	17.9%	7.1%	21.4%	21.4%	10.7%	7.1%	3.6%	10.7%	0.0%	100.0%
전체	빈도	19	12	21	33	31	28	13	17	2	176
	비율	10.8%	6.8%	11.9%	18.8%	17.6%	15.9%	7.4%	9.7%	1.1%	100.0%

[그림 149] 마을:역할별 구로구청 역할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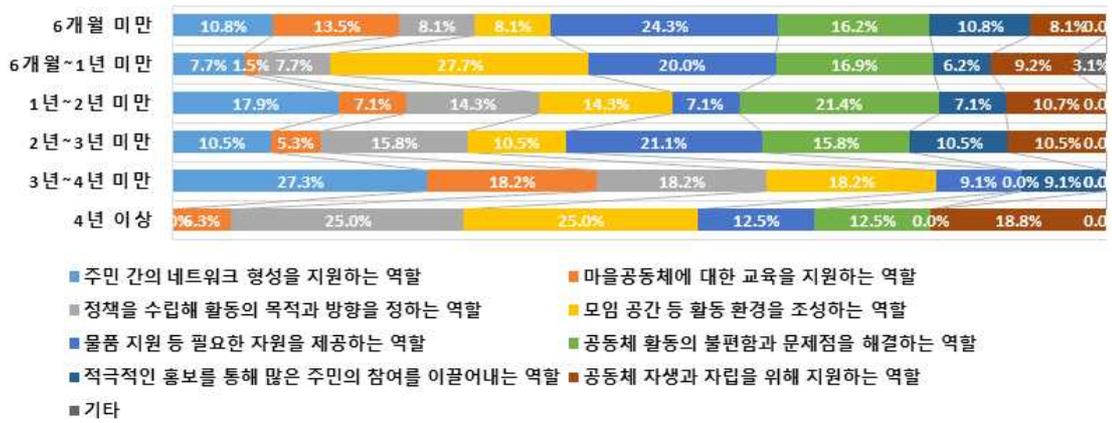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참여 역할별로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군에서는 물품 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마을공동체 사업지기와 활동가군에서는 모임 등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의 응답 비중이 높아 1순위이다. 특히, 활동가군에서는 정책을 수립해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역할이 공동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80] 마을:활동기간별 구로구청 역할에 대한 기대

구분		주민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	정책을 수립해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역할	모임 공간 등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물품 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	공동체 의의와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	공동체 자생과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역할	기타	전체
		빈도	4	5	3	3	9	6	4	3	0
비율	10.8%	13.5%	8.1%	8.1%	24.3%	16.2%	10.8%	8.1%	0.0%	100.0%	
6개월~1년 미만	빈도	5	1	5	18	13	11	4	6	2	65
	비율	7.7%	1.5%	7.7%	27.7%	20.0%	16.9%	6.2%	9.2%	3.1%	100.0%
1년~2년 미만	빈도	5	2	4	4	2	6	2	3	0	28
	비율	17.9%	7.1%	14.3%	14.3%	7.1%	21.4%	7.1%	10.7%	0.0%	100.0%
2년~3년 미만	빈도	2	1	3	2	4	3	2	2	0	19
	비율	10.5%	5.3%	15.8%	10.5%	21.1%	15.8%	10.5%	10.5%	0.0%	100.0%
3년~4년 미만	빈도	3	2	2	2	1	0	1	0	0	11
	비율	27.3%	18.2%	18.2%	18.2%	9.1%	0.0%	9.1%	0.0%	0.0%	100.0%
4년 이상	빈도	0	1	4	4	2	2	0	3	0	16
	비율	0.0%	6.3%	25.0%	25.0%	12.5%	12.5%	0.0%	18.8%	0.0%	100.0%
전체	빈도	19	12	21	33	31	28	13	17	2	176
	비율	10.8%	6.8%	11.9%	18.8%	17.6%	15.9%	7.4%	9.7%	1.1%	100.0%

[그림 150] 마을:활동기간별 구로구청 역할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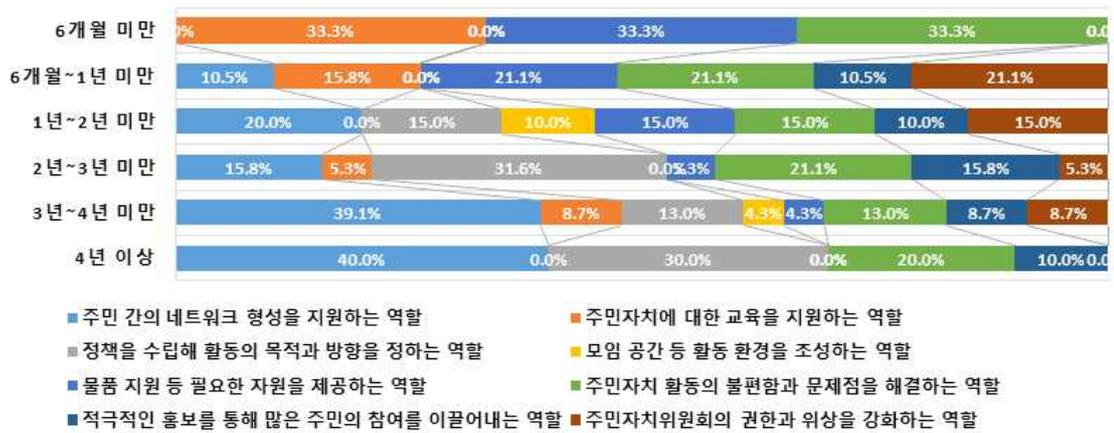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활동기간별로 구로구청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 6개월 미만과 2년~3년 미만에서는 물품 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1년~2년 미만에서는 공동체 활동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 3년~4년 미만에서는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 4년 이상에서는 정책을 수립해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1순위로 꼽고 있어 각각의 요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4년 이상의 응답군에서는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이라는 응답이 유일하게 없는 대신 공동체 자생과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의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두 배 가까이 높다.

[표 181] 자치:활동기간별 구로구청 역할에 대한 기대

구분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	정책을 수립해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역할	모임 공간 등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물품 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	주민자치 활동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	주민자치 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역할	전체
6개월 미만	빈도	0	1	0	0	1	1	0	3
	비율	0.0%	33.3%	0.0%	0.0%	33.3%	33.3%	0.0%	100.0%
6개월~1년 미만	빈도	2	3	0	0	4	4	2	19
	비율	10.5%	15.8%	0.0%	0.0%	21.1%	21.1%	10.5%	100.0%
1년~2년 미만	빈도	4	0	3	2	3	3	2	20
	비율	20.0%	0.0%	15.0%	10.0%	15.0%	15.0%	10.0%	100.0%
2년~3년 미만	빈도	3	1	6	0	1	4	3	19
	비율	15.8%	5.3%	31.6%	0.0%	5.3%	21.1%	15.8%	100.0%
3년~4년 미만	빈도	9	2	3	1	1	3	2	23
	비율	39.1%	8.7%	13.0%	4.3%	4.3%	13.0%	8.7%	100.0%
4년 이상	빈도	4	0	3	0	0	2	1	10
	비율	40.0%	0.0%	30.0%	0.0%	0.0%	20.0%	10.0%	100.0%
전체	빈도	22	7	15	3	10	17	10	94
	비율	23.4%	7.4%	16.0%	3.2%	10.6%	18.1%	10.6%	100.0%

[그림 151] 자치:활동기간별 구로구청 역할에 대한 기대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기간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활동기간이 길수록 주민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 응답 비중이 커지는 반면, 물품 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역할에 대한 응답 비중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3년 미만 군에서는 정책을 수립해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역할이 다른 그룹에 비해 매우 높아 1순위로 꼽는다.

(10) 주민자치회 인식 정도

- 마을공동체 주민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 정도를 질문하고, 5점 척도로 답하도록 했다. 문항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차이, 주민자치회 권한, 4개동(가리봉동, 구로4동, 개봉1동, 오류1동)에서 시범동 시행, 참여방법/선정방법을 질문했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에게는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 설문응답 결과를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생활권별로 교차분석했다.

[표 182] 주민자치회 활동 인식

구분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빈도	평균	빈도	평균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의 차이 인식 정도	181	2.65	93	3.77
4개동에서 시범동 시행 인식 정도	181	2.83	91	3.76
주민자치회 권한 인식 정도	180	2.64	93	3.58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정도	180	2.85	92	3.88

-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인식 정도를 5점 척도로 살펴보면, 4개 항목 모두 마을공동체 참여자보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들의 인식도가 평균 1점 가까이 높다. 두 그룹 모두에서 주민자치회의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정도 항목의 평균이 가장 높고, 주민자치회 권한 인식 정도 항목의 평균이 가장 낮다.

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 인식

[표 183] 마을: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차이 인식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모른다	40	22.1%
모른다	39	21.5%
보통이다	59	32.6%
알고 있다	31	17.1%
잘 알고 있다	12	6.6%
전체	181	100.0%

[그림 152] 마을: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차이 인식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마을공동체 참여자들은 보통이다(32.6%)는 응답이 가장 많다.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는 합한 비율은 43.6%로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는 합한 비율 23.8%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표 184] 자치: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차이 인식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모른다	4	4.3%
모른다	7	7.5%
보통이다	25	26.9%
알고 있다	27	29.0%
잘 알고 있다	30	32.3%
전체	93	100.0%

[그림 153] 자치: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차이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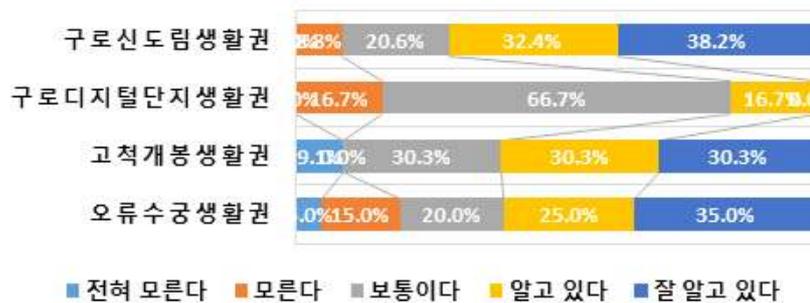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의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차이 인식도를 보면, 잘 알고 있다 (32.3%), 알고 있다(29.0%), 보통이다(26.9%) 순이다.
-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이 61.3%로,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는 합한 비율 11.8%의 5배가 넘는다.

[표 185] 자치:생활권별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차이 인식

구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구로신도림 생활권	빈도	0	3	7	11	13	34
	비율	0.0%	8.8%	20.6%	32.4%	38.2%	100.0%
구로디지털단지 생활권	빈도	0	1	4	1	0	6
	비율	0.0%	16.7%	66.7%	16.7%	0.0%	100.0%
고척개봉 생활권	빈도	3	0	10	10	10	33
	비율	9.1%	0.0%	30.3%	30.3%	30.3%	100.0%
오류수궁 생활권	빈도	1	3	4	5	7	20
	비율	5.0%	15.0%	20.0%	25.0%	35.0%	100.0%
전체	빈도	4	7	25	27	30	93
	비율	4.3%	7.5%	26.9%	29.0%	32.3%	100.0%

[그림 154] 자치:생활권별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차이 인식



- 생활권별로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가리봉동과 구로4동이 속한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에서는 인지율이 가장 낮으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이 1명에 불과해 비교분석이 어렵다.
- 인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시범동이 없는 구로신도림생활권으로 모른다는 비율 또한 가장 낮다. 모른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오류1동이 속한 오류수궁생활권이다.

② 4개동(가리봉동, 구로4동, 개봉1동, 오류1동)에서 시범동 시행

[표 186] 마을:4개동에서 시범동 시행 인식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모른다	44	24.3%
모른다	35	19.3%
보통이다	40	22.1%
알고 있다	31	17.1%
잘 알고 있다	31	17.1%
전체	181	100.0%

[그림 155] 마을:4개동에서 시범동 시행 인식



- 4개의 시범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행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질문에 마을공동체 참여자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24.5%로 가장 많고, 보통이다 22.1%, 모른다 19.3%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 모른다는 것과 전혀 모른다는 것을 합한 비율이 43.6%로 알고 있다는 것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합한 비율 34.2%보다 약간 높다.

[표 187] 자치:4개동에서 시범동 시행 인식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모른다	5	5.5%
모른다	9	9.9%
보통이다	22	24.2%
알고 있다	22	24.2%
잘 알고 있다	33	36.3%
전체	91	100.0%

[그림 156] 자치:4개동에서 시범동 시행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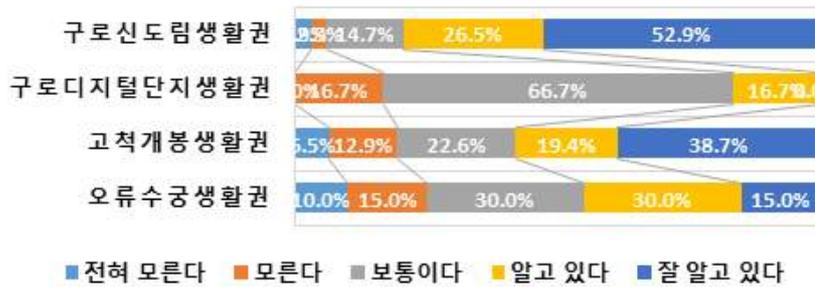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의 주민자치회 시범동 시행 인식도에 대한 응답을 보면, 잘 알고 있다 36.3%, 알고 있다는 것과 보통이다가 각각 24.2%이다.
- 알고 있다는 것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합한 비율은 60.5%고, 모른다는 것과 전혀 모른다는 것을 합한 비율은 15.4%다.

[표 188] 자치:생활권별 4개동에서 시범동 시행 인식

구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구로신도림 생활권	빈도	1	1	5	9	18	34
	비율	2.9%	2.9%	14.7%	26.5%	52.9%	100.0%
구로디지털단지 생활권	빈도	0	1	4	1	0	6
	비율	0.0%	16.7%	66.7%	16.7%	0.0%	100.0%
고척개봉 생활권	빈도	2	4	7	6	12	31
	비율	6.5%	12.9%	22.6%	19.4%	38.7%	100.0%
오류수궁 생활권	빈도	2	3	6	6	3	20
	비율	10.0%	15.0%	30.0%	30.0%	15.0%	100.0%
전체	빈도	5	9	22	22	33	91
	비율	5.5%	9.9%	24.2%	24.2%	36.3%	100.0%

[그림 157] 자치:생활권별 4개동에서 시범동 시행 인식



- 생활권별로 보면, 시범동이 없는 구로신도림생활권에서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이 가장 높고, 모른다는 응답 비율도 가장 낮다.

③ 주민자치회 권한 인식

[표 189] 마을:주민자치회 권한 인식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모른다	45	25.0%
모른다	34	18.9%
보통이다	56	31.1%
알고 있다	31	17.2%
잘 알고 있다	14	7.8%
전체	180	100.0%

[그림 158] 마을:주민자치회 권한 인식



- 마을공동체 참여자의 주민자치회 권한 인식도에 대한 응답을 보면, 보통이다가 31.1%로 가장 많지만, 전혀 모른다(25.0%)는 응답도 매우 높게 나타난다.
-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은 25.0%이고,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는 합한 비율은 43.9%이다.

[표 190] 자치:주민자치회 권한 인식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모른다	6	6.5%
모른다	7	7.5%
보통이다	29	31.2%
알고 있다	29	31.2%
잘 알고 있다	22	23.7%
전체	93	100.0%

[그림 159] 자치:주민자치회 권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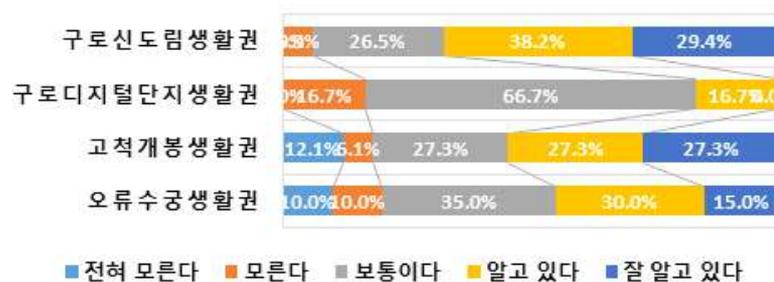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들이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통 이다와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31.2%로 가장 많고, 잘 알고 있다 23.7%이다.
-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은 54.9%이고,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를 합한 비율은 14.0%이다.

[표 191] 자치:생활권별 주민자치회 권한 인식

구분	빈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구로신도림 생활권	빈도	0	2	9	13	10	34
	비율	0.0%	5.9%	26.5%	38.2%	29.4%	100.0%
구로디지털단지 생활권	빈도	0	1	4	1	0	6
	비율	0.0%	16.7%	66.7%	16.7%	0.0%	100.0%
고척개봉 생활권	빈도	4	2	9	9	9	33
	비율	12.1%	6.1%	27.3%	27.3%	27.3%	100.0%
오류수궁 생활권	빈도	2	2	7	6	3	20
	비율	10.0%	10.0%	35.0%	30.0%	15.0%	100.0%
전체	빈도	6	7	29	29	22	93
	비율	6.5%	7.5%	31.2%	31.2%	23.7%	100.0%

[그림 160] 자치:생활권별 주민자치회 권한 인식



- 생활권별로 보면, 시범동이 없는 구로신도림생활권에서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이 가장 높고, 모른다는 비율은 가장 낮다.

④ 주민자치회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표 192] 마을:주민자치회 참여방법/
선정방법 인식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모른다	36	20.0%
모른다	39	21.7%
보통이다	46	25.6%
알고 있다	34	18.9%
잘 알고 있다	25	13.9%
전체	180	100.0%

[그림 161] 마을:주민자치회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 마을공동체 참여자가 주민자치회의 참여방법/선정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을 보면, 보통이다 25.6%, 모른다 21.7%, 전혀 모른다 20.0% 등의 순이다.
-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은 32.8%이고,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를 합한 비율은 41.7%이다.

[표 193] 자치:주민자치회 참여방법/
선정방법 인식

구분	빈도	비율
전혀 모른다	4	4.3%
모른다	4	4.3%
보통이다	23	25.0%
알고 있다	29	31.5%
잘 알고 있다	32	34.8%
전체	92	100.0%

[그림 162] 자치:주민자치회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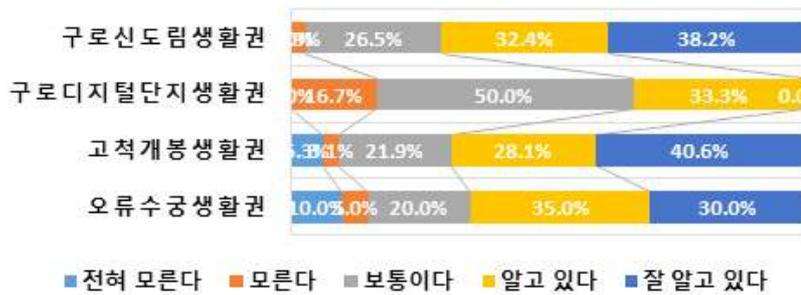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들의 주민자치회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도를 보면, 잘 알고 있다 (34.8%)는 응답이 가장 많고, 알고 있다(31.5%), 보통이다(25.0%) 등의 순서이다.
-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은 66.3%고,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를 합한 비율은 8.6%에 불과하다.

[표 194] 자치:생활권별 주민자치회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구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구로신도림 생활권	빈도	0	1	9	11	13	34
	비율	0.0%	2.9%	26.5%	32.4%	38.2%	100.0%
구로디지털단지 생활권	빈도	0	1	3	2	0	6
	비율	0.0%	16.7%	50.0%	33.3%	0.0%	100.0%
고척개봉 생활권	빈도	2	1	7	9	13	32
	비율	6.3%	3.1%	21.9%	28.1%	40.6%	100.0%
오류수궁 생활권	빈도	2	1	4	7	6	20
	비율	10.0%	5.0%	20.0%	35.0%	30.0%	100.0%
전체	빈도	4	4	23	29	32	92
	비율	4.3%	4.3%	25.0%	31.5%	34.8%	100.0%

[그림 163] 자치:생활권별 주민자치회 참여방법/선정방법 인식



- 시범동이 없는 구로신도림생활권에서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이 가장 높고, 모른다는 비율은 가장 낮다.

⑤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주민의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인식

[표 195] 자치:주민자치 개념과 의미 인식

구분	빈도	비율
모른다	6	6.5%
보통이다	26	28.0%
알고 있다	34	36.6%
잘 알고 있다	27	29.0%
전체	93	100.0%

[그림 164] 자치:주민자치 개념과 의미 인식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가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답한 것을 보면, 알고 있다가 36.6%로 가장 많고, 잘 알고 있다 29.0%, 보통이다 28.0%다.
-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은 65.6%이고, 모른다는 6.5%이며,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없다.

[표 196] 자치:생활권별 주민자치 개념과 의미 인식

구분		모른다	보통이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전체
구로신도림 생활권	빈도	1	6	17	10	34
	비율	2.9%	17.6%	50.0%	29.4%	100.0%
구로디지털단지 생활권	빈도	1	5	0	0	6
	비율	16.7%	83.3%	0.0%	0.0%	100.0%
고척개봉 생활권	빈도	4	9	10	10	33
	비율	12.1%	27.3%	30.3%	30.3%	100.0%
오류수궁 생활권	빈도	0	6	7	7	20
	비율	0.0%	30.0%	35.0%	35.0%	100.0%
전체	빈도	6	26	34	27	93
	비율	6.5%	28.0%	36.6%	29.0%	100.0%

[그림 165] 자치:생활권별 주민자치 개념과 의미 인식



- 생활권별로 보면, 시범동이 없는 구로신도림생활권에서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를 합한 비율은 가장 높고, 모른다는 비율은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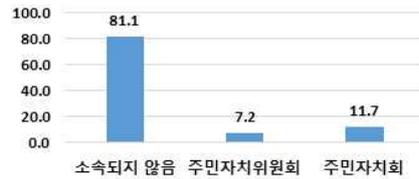
(11)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 및 주민자치 핵심의제

-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을 대상으로 거주하는 동에 주민자치회가 시행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또한, 참여 의향에 따라 참여에 부정적인 이유와 참여로 기대하는 점을 질문했다.
- 설문응답 결과를 마을공동체의 경우 역할별, 생활권별,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여부별로 교차분석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활동기간별, 생활권별로 교차분석했다.
- 거주하는 동의 주민자치와 관련한 핵심의제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를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각 주민 그룹에 질문했다.
- 핵심의제의 경우, 마을공동체 역할별, 활동기간별, 생활권별로 교차분석을 진행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기간별, 생활권별로도 교차분석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의 경우, 마을공동체 주민 중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여부별로 교차분석을 진행했다.
- 먼저, 마을공동체 주민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표 197] 마을:주민자치회 소속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소속되지 않음	146	81.1%
주민자치위원회	13	7.2%
주민자치회	21	11.7%
전체	180	100.0%

[그림 166] 마을:주민자치회 소속 여부



- 마을공동체 참여자 중 11.7%는 주민자치회에 소속되어있고, 7.2%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총 18.9%의 주민이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81.1% 주민은 주민자치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소속되지 않는다)이다.

①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

[표 198] 마을:주민자치회 참여 의향

구분	빈도	비율
절대 참여하고 싶지 않다	4	2.2%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33	18.3%
다소 참여하고 싶다	116	64.4%
적극 참여하고 싶다	27	15.0%
전체	180	100.0%

[그림 167] 마을:주민자치회 참여 의향



- 거주하는 동에 향후 주민자치회가 출범한다면 참여하겠는지에 대해 마을공동체 참여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다소 참여하고 싶다가 절반을 넘는 64.4%이며, 적극 참여하고 싶다는 15.0%로, 긍정 비중이 79.4%에 달한다. 부정 응답 비중은 20.5%다.

[표 199] 마을:역할별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

구분		절대 참여하고 싶지 않다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다소 참여하고 싶다	적극 참여하고 싶다	전체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	빈도	2	23	56	8	89
	비율	2.2%	25.8%	62.9%	9.0%	100.0%
마을공동체 사업지기	빈도	1	9	41	12	63
	비율	1.6%	14.3%	65.1%	19.0%	100.0%
마을공동체 활동가	빈도	1	1	19	7	28
	비율	3.6%	3.6%	67.9%	25.0%	100.0%
전체	빈도	4	33	116	27	180
	비율	2.2%	18.3%	64.4%	15.0%	100.0%

[그림 168] 마을:역할별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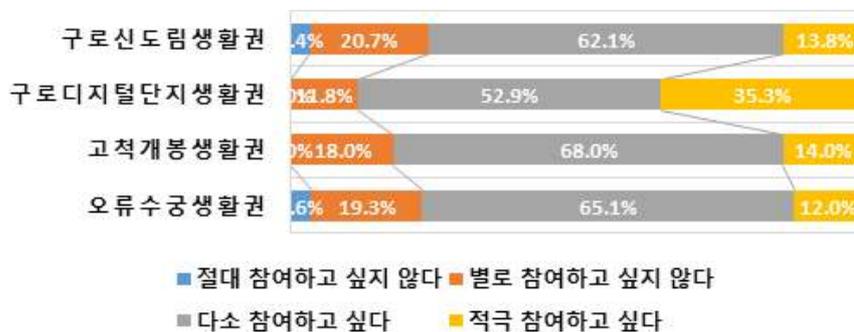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참여 역할별로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활동가군에서 긍정과 적극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고,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에서 부정 비중이 가장 높다.

[표 200] 마을:생활권별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

구분		절대 참여하고 싶지 않다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다소 참여하고 싶다	적극 참여하고 싶다	전체
구로신도림 생활권	빈도	1	6	18	4	29
	비율	3.4%	20.7%	62.1%	13.8%	100.0%
구로디지털 단지생활권	빈도	0	2	9	6	17
	비율	0.0%	11.8%	52.9%	35.3%	100.0%
고척개봉 생활권	빈도	0	9	34	7	50
	비율	0.0%	18.0%	68.0%	14.0%	100.0%
오류수궁 생활권	빈도	3	16	54	10	83
	비율	3.6%	19.3%	65.1%	12.0%	100.0%
전체	빈도	4	33	115	27	179
	비율	2.2%	18.4%	64.2%	15.1%	100.0%

[그림 169] 마을:생활권별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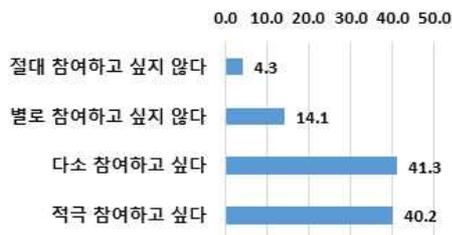


- 생활권별로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을 살펴보면,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에서 적극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고, 부정 비중은 구로신도림생활권에서 가장 높다.

[표 201] 자치:주민자치회 참여 의향

구분	빈도	비율
절대 참여하고 싶지 않다	4	4.3%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13	14.1%
다소 참여하고 싶다	38	41.3%
적극 참여하고 싶다	37	40.2%
전체	92	100.0%

[그림 170] 자치:주민자치회 참여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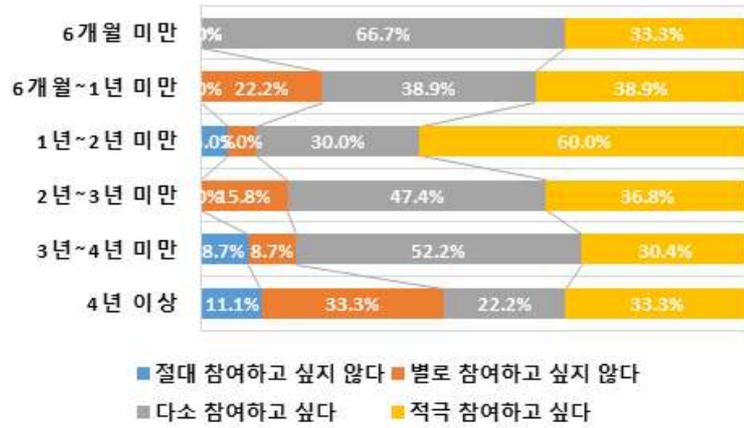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의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을 살펴보면, 다소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고, 적극 참여하고 싶다는 40.2%여서, 긍정 응답이 81.5%에 달한다. 부정 응답 비중은 18.4%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은 마을공동체 주민보다 주민자치회 적극 참여 의향이 매우 높다.

[표 202] 자치:활동기간별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

구분		절대 참여하고 싶지 않다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다소 참여하고 싶다	적극 참여하고 싶다	전체
6개월 미만	빈도	0	0	2	1	3
	비율	0.0%	0.0%	66.7%	33.3%	100.0%
6개월~1년 미만	빈도	0	4	7	7	18
	비율	0.0%	22.2%	38.9%	38.9%	100.0%
1년~2년 미만	빈도	1	1	6	12	20
	비율	5.0%	5.0%	30.0%	60.0%	100.0%
2년~3년 미만	빈도	0	3	9	7	19
	비율	0.0%	15.8%	47.4%	36.8%	100.0%
3년~4년 미만	빈도	2	2	12	7	23
	비율	8.7%	8.7%	52.2%	30.4%	100.0%
4년 이상	빈도	1	3	2	3	9
	비율	11.1%	33.3%	22.2%	33.3%	100.0%
전체	빈도	4	13	38	37	92
	비율	4.3%	14.1%	41.3%	40.2%	100.0%

[그림 171] 자치:활동기간별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기간별로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을 살펴보면, 6개월 미만에서는 부정 응답이 없고, 1년~2년 미만 응답군에서는 그다음으로 적극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 비중이 매우 높다.
- 부정 비중은 대체로 1년 이상부터 활동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4년 이상 응답군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4.4%가 나온다.

② 주민자치회 참여에 부정적인 이유

[표 203] 마을:주민자치회 참여 부정 이유

구분	빈도	비율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9	25.0%
내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9	25.0%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그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8	22.2%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7	19.4%
기타	2	5.6%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위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1	2.8%
전체	36	100.0%

[그림 172] 마을:주민자치회 참여 부정 이유



- 마을공동체 참여자 중 주민자치회 참여에 부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의 이유를 살펴보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와 ‘내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가 각각 25.0%로 1순위이다.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그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22.2%,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19.4%로 응답 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

[표 204] 자치:주민자치회 참여 부정 이유

구분	빈도	비율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8	47.1%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7	41.2%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그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1	5.9%
기타	1	5.9%
전체	17	100.0%

[그림 173] 자치:주민자치회 참여 부정 이유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 중 주민자치회 참여에 부정적인 응답자의 이유를 살펴보면,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47.1%),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41.2%)가 1, 2순위를 차지한다.

③ 주민자치회 참여 기대요소

[표 205] 마을:주민자치회 참여 기대요소

구분	빈도	비율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제를 만드는 것	55	38.2%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이 참여하게 되는 것	38	26.4%
주민자치 활동을 위해 체계적이고 풍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33	22.9%
소수의 의사결정이 아닌, 다수가 원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10	6.9%
역할이 고루 분배되고, 역할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것	7	4.9%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위상이 확대되는 것	1	0.7%
전체	144	100.0%

[그림 174] 마을:주민자치회 참여 기대요소



- 마을공동체 참여자 중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참여로 어떤 점을 기대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제를 만드는 것(38.3%)을 1순위로 꼽는다.
-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이 참여하게 되는 것(26.4%), 주민자치 활동을 위해 체계적이고 풍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22.9%)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잇는다.

[표 206] 자치:주민자치회 참여 기대 요소

구분	빈도	비율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이 참여하게 되는 것	19	25.0%
주민자치 활동을 위해 체계적이고 풍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18	23.7%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제를 만드는 것	14	18.4%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위상이 확대되는 것	11	14.5%
소수의 의사결정이 아닌, 다수가 원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7	9.2%
역할이 고루 분배되고, 역할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것	7	9.2%
전체	76	100.0%

[그림 175] 자치:주민자치회 참여 기대 요소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 중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참여로 어떤 점을 기대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이 참여하게 되는 것(25.0%)을 1순위로 꼽는다.

- 주민자치 활동을 위해 체계적이고 풍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23.7%),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제를 만드는 것(18.4%),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위상이 확대되는 것(14.5%)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잇는다.

④ 주민자치 핵심의제

[표 207] 마을:주민자치 핵심의제

구분	빈도	비율
이웃 간의 화합, 관계 강화	88	24.7%
평생교육시설 확대, 아동·청소년·청년 교육기관 확대	56	15.7%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즐길 거리 확대	44	12.4%
주민자치 문화의 확산, 정책참여 확대	41	11.5%
지역 경제 활성화	37	10.4%
주민 간, 세대 간의 갈등 문제 해결	26	7.3%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지원	16	4.5%
동네 안전 및 치안 강화	14	3.9%
노후주택 정비 및 재개발	14	3.9%
병원, 보건서비스 등 주민 건강권 확대	13	3.7%
교통 연결망 강화	6	1.7%
기타	1	0.3%
전체	356	100.0%

[그림 176] 마을:주민자치 핵심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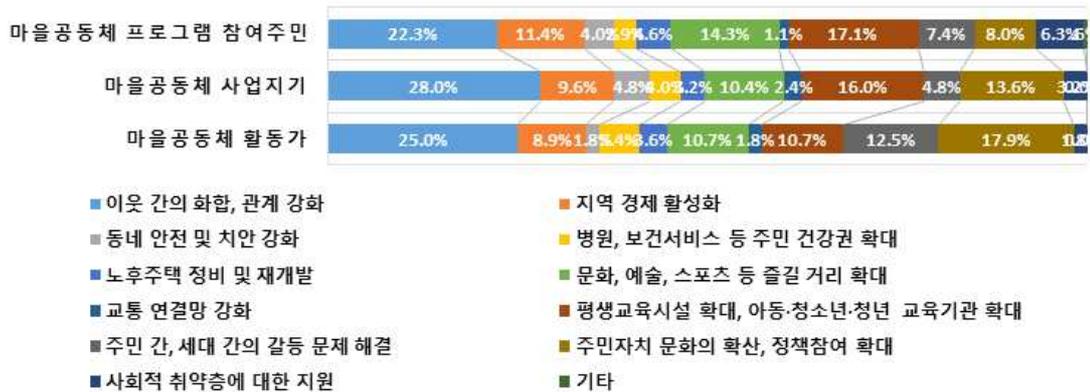
- 주민자치회가 다뤄야 할 우리 마을(생활동 또는 거주동) 핵심의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복수 응답)에 대해 마을공동체 참여자는 이웃 간의 화합, 관계 강화(24.7%)를 1순위로 꼽는다.

- 평생교육시설 확대, 아동·청소년·청년 교육기관 확대(15.7%),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즐길 거리 확대(12.4%), 주민자치 문화의 확산, 정책참여 확대(11.5%), 지역 경제 활성화(10.4%)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잇는다.

[표 208] 마을:역할별 주민자치 핵심의제

구분		이웃 간의 화합, 관계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동네 안전 및 치안 강화	병원, 보건서비스 등 주민 건강권 확대	노후주택 정비 및 재개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즐길 거리 확대	교통 연결망 강화	평생교육시설 확대, 아동·청소년·청년 교육기관 확대	주민 간, 세대 간의 갈등 문제 해결	주민자치 문화의 확산, 정책참여 확대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지원	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	빈도	39	20	7	5	8	25	2	30	13	14	11	1	175
	비율	22.3%	11.4%	4.0%	2.9%	4.6%	14.3%	1.1%	17.1%	7.4%	8.0%	6.3%	0.6%	100%
마을공동체 사업지기	빈도	35	12	6	5	4	13	3	20	6	17	4	0	125
	비율	28.0%	9.6%	4.8%	4.0%	3.2%	10.4%	2.4%	16.0%	4.8%	13.6%	3.2%	0.0%	100%
마을공동체 활동가	빈도	14	5	1	3	2	6	1	6	7	10	1	0	56
	비율	25.0%	8.9%	1.8%	5.4%	3.6%	10.7%	1.8%	10.7%	12.5%	17.9%	1.8%	0.0%	100%
전체	빈도	88	37	14	13	14	44	6	56	26	41	16	1	356

[그림 177] 마을:역할별 주민자치 핵심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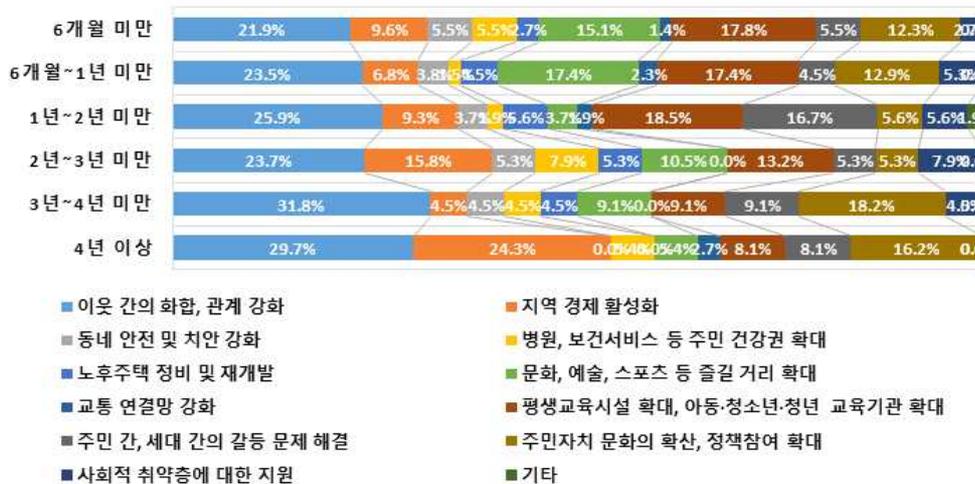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참여 역할별로 보면, 전체 응답 결과와 대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 마을공동체 활동가에서 주민자치 문화의 확산, 정책참여 확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아 2순위를 차지한다.

[표 209] 마을:활동기간별 주민자치 핵심의제

구분		이웃 간의 화합, 관계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동네 안전 및 치안 강화	병원, 보건서비스 등 주민 건강권 확대	노후주택 정비 및 재개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즐길 거리 확대	교통 연결망 강화	평생교육시설 확대, 아동·청소년·청년 교육기관 확대	주민 간, 세대 간의 갈등 문제 해결	주민자치 문화의 확산, 정책참여 확대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지원	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6개월 미만	빈도	16	7	4	4	2	11	1	13	4	9	2	0	73
	비율	21.9%	9.6%	5.5%	5.5%	2.7%	15.1%	1.4%	17.8%	5.5%	12.3%	2.7%	0.0%	100%
6개월~1년 미만	빈도	31	9	5	2	6	23	3	23	6	17	7	0	132
	비율	23.5%	6.8%	3.8%	1.5%	4.5%	17.4%	2.3%	17.4%	4.5%	12.9%	5.3%	0.0%	100%
1년~2년 미만	빈도	14	5	2	1	3	2	1	10	9	3	3	1	54
	비율	25.9%	9.3%	3.7%	1.9%	5.6%	3.7%	1.9%	18.5%	16.7%	5.6%	5.6%	1.9%	100%
2년~3년 미만	빈도	9	6	2	3	2	4	0	5	2	2	3	0	38
	비율	23.7%	15.8%	5.3%	7.9%	5.3%	10.5%	0.0%	13.2%	5.3%	5.3%	7.9%	0.0%	100%
3년~4년 미만	빈도	7	1	1	1	1	2	0	2	2	4	1	0	22
	비율	31.8%	4.5%	4.5%	4.5%	4.5%	9.1%	0.0%	9.1%	9.1%	18.2%	4.5%	0.0%	100%
4년 이상	빈도	11	9	0	2	0	2	1	3	3	6	0	0	37
	비율	29.7%	24.3%	0.0%	5.4%	0.0%	5.4%	2.7%	8.1%	8.1%	16.2%	0.0%	0.0%	100%
전체	빈도	88	37	14	13	14	44	6	56	26	41	16	1	356

[그림 178] 마을:활동기간별 주민자치 핵심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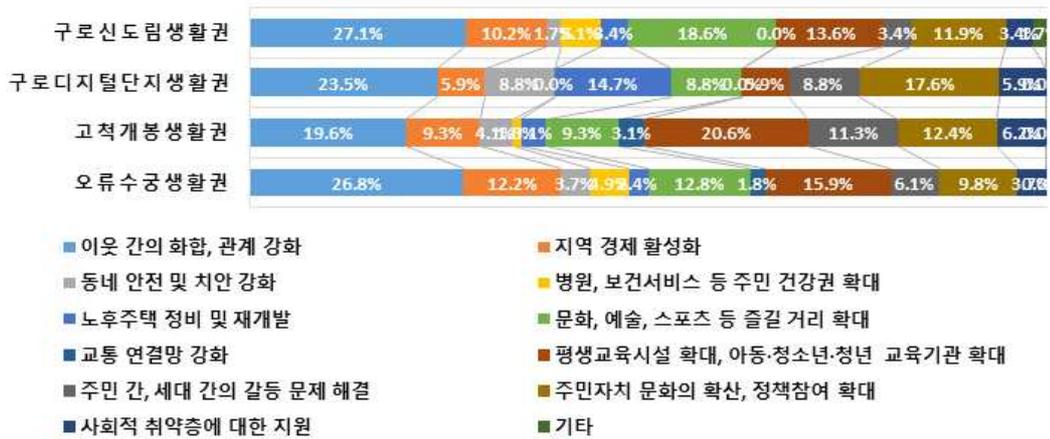


- 마을공동체 주민의 활동기간별로 살펴보면, 모든 활동기간 그룹에서 이웃 간의 화합, 관계 강화가 1순위이다.
- 1년 미만 응답군에서는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즐길 거리 확대, 1년~2년 미만에서는 주민 간, 세대 간의 갈등 문제 해결, 3년~4년 미만에서는 주민자치 문화의 확산, 정책참여 확대, 4년 이상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210] 마을:생활권별 주민자치 핵심의제

구분		이웃 간의 화합, 관계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동네 안전 및 치안 강화	병원, 보건서비스 등 주민 건강권 확대	노후주택 정비 및 재개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즐길 거리 확대	교통 연결망 강화	평생교육시설 확대, 아동·청소년·청년 교육기관 확대	주민 간, 세대 간의 갈등 문제 해결	주민자치 문화의 확산, 정책참여 확대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지원	기타	전체
구로신도림생활권	빈도	16	6	1	3	2	11	0	8	2	7	2	1	59
	비율	27.1%	10.2%	1.7%	5.1%	3.4%	18.6%	0.0%	13.6%	3.4%	11.9%	3.4%	1.7%	100%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	빈도	8	2	3	0	5	3	0	2	3	6	2	0	34
	비율	23.5%	5.9%	8.8%	0.0%	14.7%	8.8%	0.0%	5.9%	8.8%	17.6%	5.9%	0.0%	100%
고척개봉생활권	빈도	19	9	4	1	3	9	3	20	11	12	6	0	97
	비율	19.6%	9.3%	4.1%	1.0%	3.1%	9.3%	3.1%	20.6%	11.3%	12.4%	6.2%	0.0%	100%
오류수궁생활권	빈도	44	20	6	8	4	21	3	26	10	16	6	0	164
	비율	26.8%	12.2%	3.7%	4.9%	2.4%	12.8%	1.8%	15.9%	6.1%	9.8%	3.7%	0.0%	100%
전체		87	37	14	12	14	44	6	56	26	41	16	1	354

[그림 179] 마을:생활권별 주민자치 핵심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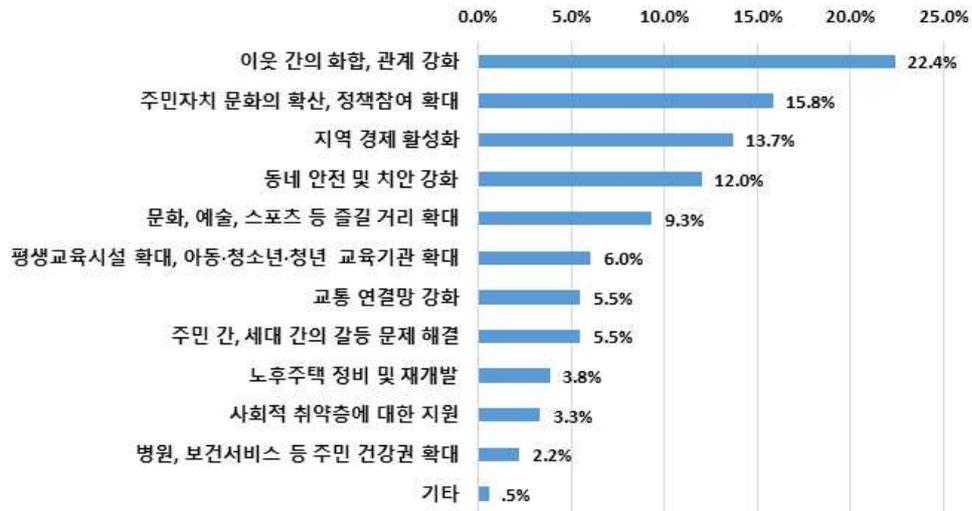


- 생활권별로 주민자치회의 핵심의제를 살펴보면, 고척개봉생활권에서는 평생교육시설 확대, 아동·청소년·청년 교육기관 확대의 비중이 높아 1순위를 차지한다.
- 구로신도림생활권에서는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즐길거리 확대,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에서는 주민자치 문화의 확산, 정책참여 확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2순위이다.
-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에서는 노후주택 정비 및 재개발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표 211] 자치:주민자치 핵심의제

구분	빈도	비율
이웃 간의 화합, 관계 강화	41	22.4%
주민자치 문화의 확산, 정책참여 확대	29	15.8%
지역 경제 활성화	25	13.7%
동네 안전 및 치안 강화	22	12.0%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즐길 거리 확대	17	9.3%
평생교육시설 확대, 아동·청소년·청년 교육기관 확대	11	6.0%
교통 연결망 강화	10	5.5%
주민 간, 세대 간의 갈등 문제 해결	10	5.5%
노후주택 정비 및 재개발	7	3.8%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지원	6	3.3%
병원, 보건서비스 등 주민 건강권 확대	4	2.2%
기타	1	0.5%
전체	183	100.0%

[그림 180] 자치:주민자치 핵심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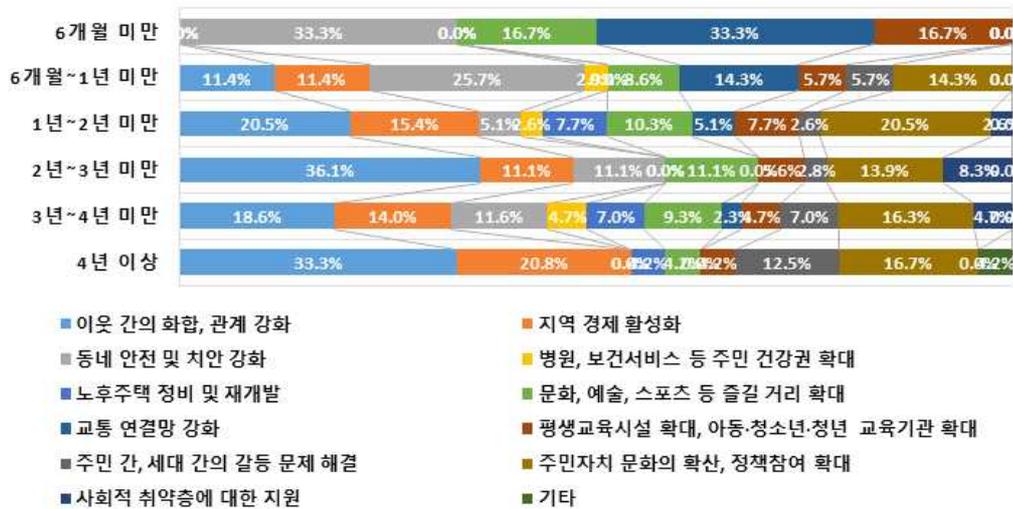


- 주민자치회가 다뤄야 할 우리 마을(생활동 또는 거주동) 핵심의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는 이웃 간의 화합, 관계 강화(22.4%)를 1순위로 꼽는다.
- 주민자치 문화의 확산, 정책참여 확대(15.8%), 지역 경제 활성화(13.7%), 동네 안전 및 치안 강화(12.0%)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잇는다.

[표 212] 자치:활동기간별 주민자치 핵심의제

구분		이웃 간의 화합, 관계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동네 안전 및 치안 강화	병원, 보건서비스 등 주민 건강권 확대	노후주택 정비 및 재개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즐길 거리 확대	교통 연결망 강화	평생교육시설 확대, 아동·청소년·청년 교육기관 확대	주민 간, 세대 간의 갈등 문제 해결	주민자치 문화의 확산, 정책참여 확대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지원	기타	전체
		6개월 미만	빈도	0	0	2	0	0	1	2	1	0	0	0
	비율	0.0%	0.0%	33.3%	0.0%	0.0%	16.7%	33.3%	16.7%	0.0%	0.0%	0.0%	0.0%	100%
6개월~1년 미만	빈도	4	4	9	1	0	3	5	2	2	5	0	0	35
	비율	11.4%	11.4%	25.7%	2.9%	0.0%	8.6%	14.3%	5.7%	5.7%	14.3%	0.0%	0.0%	100%
1년~2년 미만	빈도	8	6	2	1	3	4	2	3	1	8	1	0	39
	비율	20.5%	15.4%	5.1%	2.6%	7.7%	10.3%	5.1%	7.7%	2.6%	20.5%	2.6%	0.0%	100%
2년~3년 미만	빈도	13	4	4	0	0	4	0	2	1	5	3	0	36
	비율	36.1%	11.1%	11.1%	0.0%	0.0%	11.1%	0.0%	5.6%	2.8%	13.9%	8.3%	0.0%	100%
3년~4년 미만	빈도	8	6	5	2	3	4	1	2	3	7	2	0	43
	비율	18.6%	14.0%	11.6%	4.7%	7.0%	9.3%	2.3%	4.7%	7.0%	16.3%	4.7%	0.0%	100%
4년 이상	빈도	8	5	0	0	1	1	0	1	3	4	0	1	24
	비율	33.3%	20.8%	0.0%	0.0%	4.2%	4.2%	0.0%	4.2%	12.5%	16.7%	0.0%	4.2%	100%
전체	빈도	41	25	22	4	7	17	10	11	10	29	6	1	183

[그림 181] 자치:활동기간별 주민자치 핵심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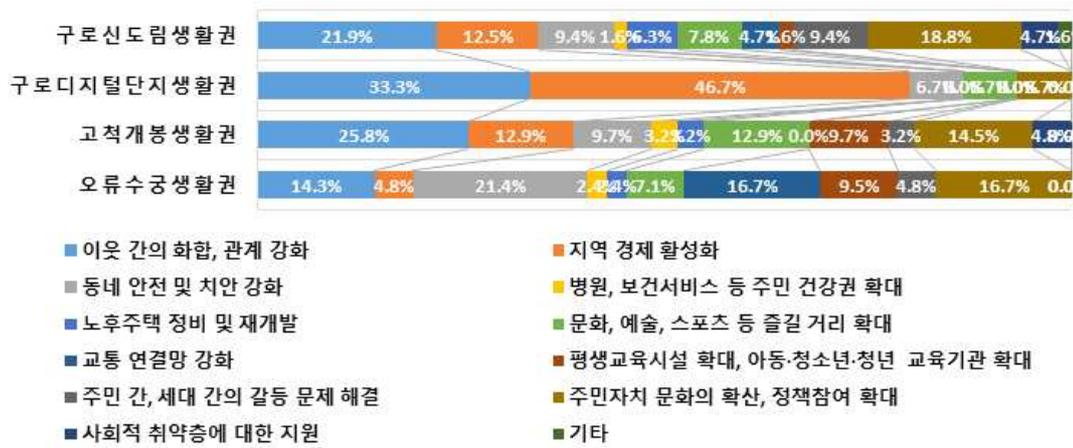


-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미만 응답군에서는 동네 안전 및 치안 강화가 1순위를 차지한다.
- 활동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체로 평생교육시설 확대, 아동·청소년·청년 교육기관 확대 응답 비중은 낮아지고, 주민 간, 세대 간의 갈등 문제 해결 응답 비중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213] 자치:생활권별 주민자치 핵심의제

구분		이웃 간의 화합, 관계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동네 안전 및 치안 강화	병원, 보건서비스 등 주민 건강권 확대	노후주택 정비 및 재개발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즐길 거리 확대	교통 연결망 강화	평생교육시설 확대, 아동·청소년·청년 교육기관 확대	주민 간, 세대 간의 갈등 문제 해결	주민자치 문화의 확산, 정책참여 확대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지원	기타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구로신도림생활권	빈도	14	8	6	1	4	5	3	1	6	12	3	1	64
	비율	21.9%	12.5%	9.4%	1.6%	6.3%	7.8%	4.7%	1.6%	9.4%	18.8%	4.7%	1.6%	100%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	빈도	5	7	1	0	0	1	0	0	0	1	0	0	15
	비율	33.3%	46.7%	6.7%	0.0%	0.0%	6.7%	0.0%	0.0%	0.0%	6.7%	0.0%	0.0%	100%
고척개봉생활권	빈도	16	8	6	2	2	8	0	6	2	9	3	0	62
	비율	25.8%	12.9%	9.7%	3.2%	3.2%	12.9%	0.0%	9.7%	3.2%	14.5%	4.8%	0.0%	100%
오류수궁생활권	빈도	6	2	9	1	1	3	7	4	2	7	0	0	42
	비율	14.3%	4.8%	21.4%	2.4%	2.4%	7.1%	16.7%	9.5%	4.8%	16.7%	0.0%	0.0%	100%
전체		41	25	22	4	7	17	10	11	10	29	6	1	183

[그림 182] 자치:생활권별 주민자치 핵심의제



- 생활권별로 주민자치회 핵심의제를 꼽아보면,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오류수궁생활권에서는 동네 안전 및 치안 강화가 1순위이다.
- 오류수궁생활권에서는 교통 연결망 강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2순위이다.

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

[표 214] 마을: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

구분	빈도	비율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85	47.2%
이웃과 마을을 위한 봉사 정신	34	18.9%
열린 마음과 배우려는 자세	34	18.9%
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16	8.9%
공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6	3.3%
열띤 토론과 다양한 의견 제시	5	2.8%
전체	180	100.0%

[그림 183] 마을: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는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마을공동체 참여자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47.2%)를 1순위로 꼽는다.
- 이웃과 마을을 위한 봉사 정신과 열린 마음과 배우려는 자세가 각각 18.9%로 그 뒤를 잇는다.

[표 215] 마을:소속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

구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열띤 토론과 다양한 의견 제시	이웃과 마을을 위한 봉사 정신	공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열린 마음과 배우려는 자세	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전체
소속되지 않음	빈도	68	3	25	5	29	15	145
	평균	46.9%	2.1%	17.2%	3.4%	20.0%	10.3%	100.0%
주민자치 위원회	빈도	6	0	3	1	2	1	13
	평균	46.2%	0.0%	23.1%	7.7%	15.4%	7.7%	100.0%
주민자치 회	빈도	11	2	5	0	3	0	21
	평균	52.4%	9.5%	23.8%	0.0%	14.3%	0.0%	100.0%
전체	빈도	85	5	33	6	34	16	179
	평균	47.5%	2.8%	18.4%	3.4%	19.0%	8.9%	100.0%

[그림 184] 마을:소속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



- 주민자치 관련 소속별로 보면, 주민자치회 소속군에서는 열띤 토론과 다양한 의견 제시의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표 216] 자치: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

구분	빈도	비율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50	53.8%
이웃과 마을을 위한 봉사 정신	17	18.3%
공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8	8.6%
열띤 토론과 다양한 의견 제시	7	7.5%
열린 마음과 배우려는 자세	7	7.5%
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3	3.2%
기타	1	1.1%
전체	93	100.0%

[그림 185] 자치: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는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주민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53.8%)를 가장 많이 꼽는다.
- 이웃과 마을을 위한 봉사 정신(18.3%), 공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8.6%) 등이 큰 응답수 차이로 그 뒤를 잇는다.

4. 요약 및 시사점

1) 마을, 자치 핵심 키워드: ‘이웃’, ‘화합’, ‘관계’

- 주민과 중간지원조직의 시각에서 엿보이는 활동 환경의 차이
 - 심층인터뷰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바라보는 주민과 담당자(중간지원조직, 행정)의 시각을 분석한 결과, 주민은 이웃 간의 관계라는 키워드가, 마을자치센터는 주민의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두드러져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주민자치의 경우, ‘주민의 주도’, ‘조직된 주민’이라는 키워드가 두드러졌는데, 주민과 마을자치센터, 구로구청 모두 주민자치를 유사한 키워드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을공동체에 대해 시각의 차이가 발생하고, 주민자치에서는 유사하게 인식하는 상황은 각각의 활동 환경이 갖는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동 단위 대표성과 권한이 부여된 주민자치조직이라는 점에서 주체들이 단일한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마을공동체의 경우, 주민들이 공모사업을 통해 다양한 주체의 활동을 3인 이상의 이웃들과 주도해야 하는 환경이라는 점과 사업을 주관하는 담당자들의 다양한 목적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느끼는 한계에 대해 마을공동체 주체들은 ‘지속가능성’, ‘자립’에 대한 부분, ‘관계 형성과 취미여가적 수준에 머무는 상황’ 등을 지목했다. 이는 주민이 원하는 형태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개방적인 특성이 있는 데 반해, 활동의 자립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한계로는 ‘자치역량의 부족’, ‘경직된 소통구조’, ‘선거법 등 제약사항’이 지목됐다는 점에서, 단일한 목적의식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량’과 ‘구조’가 주민자치에서 중요하게 인식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연상단어에 대한 두 주민 그룹 간의 유사성 존재. 마을 주민이 주민자치 연상단어로 시민의식으로 인식하는 점 두드러져
 -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비교해보면, 마을공동체라는 단어에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주민들 모두 ‘화합’을 1순위로 꼽았다. 마을공동체 참여주민은 2, 3순위로 ‘소통’, ‘참여’를,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주민은 2, 3순위로 ‘참여’, ‘소통’을 답했다. 주민자치라는 단어에 마을공동체 참여주민은 1순위로 ‘참여’를 꼽았으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주민은 1순위로 ‘화합’을 꼽았다. 마을공동체 참여주민은 2, 3순위로 ‘시민의식’, ‘협력’을 선택했으나,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주민은 2, 3순위로 ‘참여’, ‘협력’을 선택했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에 대해 두 그룹 모두 ‘화합’, ‘참여’, ‘소통’, ‘협력’ 등으로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마을공동체 주민이 ‘주민자치’를 ‘시민의식’으로 인식하는 데 반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은 답변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 주민자치 핵심의제: '이웃 간의 화합' 가장 중요, 다만 활동기간, 생활권별 선호하는 의제는 차이
- 주민자치 핵심의제에 대한 두 주민 그룹 간의 설문조사 결과, 두 그룹의 주민들은 이웃 간의 화합, 관계 강화를 압도적인 1순위로 꼽고 있다. 다만 2순위부터 마을공동체 주민은 '평생교육시설·아동·청소년·청년 교육기관 확대', '문화·예술·스포츠 즐길거리 확대' 등 '교육'과 '즐길거리'를 의제로 선호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은 '주민자치 문화 확산과 정책참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자치문화', '정책참여', '지역경제'를 의제로 선호하는 차이가 있다. 활동기간과 생활권별로도 차이가 있다. 1순위인 이웃 간의 화합을 제외하고, 2순위부터는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의제를 선호한다.

[마을]

- 1년 미만 : 문화·예술·스포츠 즐길거리 확대
- 1년~2년 미만 : 주민 간, 세대 간의 갈등 문제 해결
- 3년~4년 미만 : 주민자치 문화의 확산과 정책참여 확대
- 4년 이상 : 지역 경제 활성화
- 고척개봉생활권 : 평생교육시설·아동·청소년·청년 교육기관 확대(1순위)
- 구로신도림생활권 : 문화·예술·스포츠 즐길거리 확대
- 구로디지털생활권 : 주민자치 문화 확산과 정책참여 확대
- 오류수궁생활권 : 평생교육시설·아동·청소년·청년 교육기관 확대

[자치]

- 1년 미만 : 동네 안전 및 치안 강화(1순위)
- 1년 이상 : 주민자치 문화 확산과 정책참여 확대
- 고척개봉생활권 : 주민자치 문화 확산과 정책참여 확대
- 구로신도림생활권 : 주민자치 문화 확산과 정책참여 확대
- 구로디지털생활권 : 지역 경제 활성화(1순위)
- 오류수궁생활권 : 동네 안전 및 치안 강화(1순위)

- 주민자치 활성화 요소: 적극적 관심과 참여. 마을-주민자치회 병행하는 주민, 열띤 토론과 의견 제시 비중도 높아
- 두 주민 그룹 모두 주민자치 활성화 요소로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압도적인 1순위로 꼽고, 2순위로 이웃과 마을을 위한 봉사 정신을 꼽는다. 한편, 마을공동체 참여주민 중 현재 주민자치회에 소속된 군의 경우, 열띤 토론과 의견 제시라는 응답도 상당히 많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의 환경적 조건의 차이로 인터뷰 속에서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키워드, 한계점 등은 차이가 있으나, 두 주민 그룹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주민 자치를 바라보는 시각, 연상단어, 주민자치 핵심의제 등을 살펴보았을 때, 각각의 개념마다 상당히 유사한 인식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융합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주민조직으로서의 환경을 고려함과 동시에 동네의 이슈를 주제로 두 그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활동 등의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 주민자치 핵심의제에 대해 마을공동체 그룹과 주민자치위원회 그룹이 선호하는 의제가 유사하나, 활동기간과 생활권, 공동체 참여 역할별로 살펴보면 관심을 가지는 의제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홍보 등의 다양한 활동은 활동기간과 생활권, 역할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고, 주민의 관심주제에 따라 다각도의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2) 마을-자치활동 병행 주민: 목적성과 비판적 시각에서 뚜렷한 특징 존재

- 마을-자치 활동 병행하는 주민: 지역과 이웃에 이바지 목적 강해, 주민 그룹별 활동상의 어려움에 주목하되, 연령, 역할별로 느끼는 어려움의 차이에도 주목해야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의 참여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마을공동체 주민은 이웃 주민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은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많다. 다만, 마을공동체 주민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웃 주민과의 교류 목적은 약해져, 60대는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기 위한 목적이, 70대 이상에서는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거주기간이 높을수록 이웃 주민과의 교류 목적은 낮아지는 대신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높아진다. 주민자치위원회 그룹에서는 30대에서 60대까지 연령이 높을수록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기 위한 목적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은 줄어든다. 한편,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동시에 활동하고 있는 주민의 상당수가 지역과 이웃에게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다.
 - 마을공동체 주민은 연평균 47.7일 활동에 참여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의 연평균 활동일 14.4일보다 연평균 3배 이상 활발한 참여를 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주민 설문 응답자의 활동기간은 2년 미만이 대다수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은 대다수가 2년 이상의 활동 경험이 있다. 참여 시간대도 마을공동체 주민은 오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은 오후(저녁)가 주 활동 시간대로 차이가 있다. 참여의 장애물로 마을공동체 주민은 '생업과 활동 병행', '거리와 시간', '부양의 의무' 등 활동의 내용보다는 일상의 환경과 조건을 원인으로 꼽는다.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의 경우도 생업과 활동 병행이 원인인 경우가 대다수다. 한편, 활동에 공감하지 못해서라는 원인이 마을공동체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 마을공동체 주민의 1/3은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사무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답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은 “전문성이 부족해서”와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부재해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역할, 연령대별로 응답한 이유는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다.

[마을]

- 참여주민 : 활동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 사업지기 :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사무가 많다
- 활동가 : 마음에 맞는 동료가 없다
- 40대 이하 :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사무가 많다
- 50대 : 활동을 위한 예산과 지원이 부족하다,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사무가 많다
- 60대 :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사무가 많다
- 70대 이상 : 전문성이 부족하다

[자치]

- 40대 : 활동을 위한 예산과 지원이 부족하다
 - 50대 : 전문성이 부족하다
 - 60대 :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부재하다
 - 70대 이상 : 활동을 위한 예산과 지원이 부족하다
- 마을-자치 활동 “마을 문제 해결에 큰 도움되지 않는다” 평가. 마을 경험有 자치위원, 마을발전과 문제해결 측면에서 자치활동에 비판적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이 스스로의 활동을 평가하고, 서로의 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분석했을 때, 마을공동체에 대해 주민 스스로는 이웃 간의 화합 도움(4.03)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주민들은 마을의 발전 도움(3.70)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그룹 모두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에는 가장 낮은 점수(마을 3.59, 자치 3.49)를 준다. 공통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은 마을공동체 주민보다 다소 낮은 점수를 준다. 마을공동체 역할별로는 마을공동체 활동가 그룹이 모든 질문에서 참여주민, 사업지기 그룹보다 부정 평가 비중이 높다.

[활동가 그룹의 문항별 부정평가 비중]

- 마을의 발전에 도움 정도 : 14.7%
- 마을 문제 해결의 도움 정도 : 32.2%
- 이웃 간의 화합에 도움 정도 : 10.7%
- 시민으로서의 성장에 도움 정도 : 14.3%

■ 구로구 계속 거주의 도움 정도 : 21.4%

다른 그룹과 비교해보았을 때, 활동상의 풍부한 경험이 있는 마을공동체 활동가 그룹이 모든 문항에서 부정 평가 비중이 가장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활동가 그룹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활동가들의 활동 환경상의 어려움 때문인지, 또는 스스로의 활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내리는 것인지, 심리적 책임감이 높게 반영되었기 때문인지 등 여러 원인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며,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마을공동체 활동가를 위한 지원책이 재설계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활동기간이 길수록 마을공동체 이해에 도움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아지나, 3년차 주민에서는 긍정 평가가 45.5%로 크게 준다(타연령대 긍정 평가 60%대 이상). 또한, 활동기간이 길수록 구로구 계속 거주의 도움에 대한 긍정 평가 비중도 상당히 낮아진다. 또한, 마을공동체 경험이 없는 주민자치위원 그룹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일수록 마을공동체에 대한 긍정 평가가 매우 높다. 분석결과를 고려했을 때, 마을공동체 3년차 주민에게 공모사업 지원이 마무리되는 해인 만큼, 활동의 마무리 시점에서 마을공동체의 개념과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는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정평가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마을활동가와 함께하는 마을 문제 해결 워크숍, 마을에서의 정주의식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주민들의 활동에서 연결점을 찾는 시도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

-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주민 스스로는 구로구에 계속 거주 도움(3.85)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마을공동체 참여주민들은 이웃 간의 화합 도움(3.48)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그룹 모두 마을의 문제 해결 도움에 가장 낮은 점수(마을 3.49, 자치 3.37)를 준다. 공통적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보다 낮은 점수를 준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기간 1년 이상부터는 활동기간이 길수록 주민자치 이해에 도움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마을공동체 경험 있는 주민에게서 ‘마을 발전’, ‘마을 문제 해결’에 경험이 없는 주민보다 부정 평가 비중 높으나, ‘이웃 간의 화합’, ‘시민으로 성장’, ‘계속 거주’ 도움에는 긍정 평가가 훨씬 더 높다.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해 두 주민 그룹 모두에서 마을 문제 해결에 도움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마을과 자치의 구분 없이 주민들은 “스스로의 활동과 상대의 활동이 마을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시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경험이 있는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두 활동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마을의 발전과 마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마을공동체 경험을 통해 마을 발전과 문제 해결 측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융합 환경 조성 위해 거버넌스 차이 극복, 교육 토대 마련

- 거버넌스 차이는 마을-자치 융합의 과제
 - 심층인터뷰 분석결과, 민관협치의 관점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은 대체로 행정과의 소통·협의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행정의 소통 의지가 부족한 점”을 주원인으로 꼽는다. 중간지원조직 역할인 마을자치센터와의 협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활동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주민자치 참여주민의 경우, 행정과의 소통·협의를 대해 부정적, 긍정적 인식보다는, “행정의 요구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마을공동체 주민은 공동체의 운영과 사업 진행을 마을자치센터나 멘토 역할인 마을지원활동가와 소통하고, 자문을 받는 상황에 있지만, 주민자치 소속 주민의 경우 동자치지원관, 동자치간사 등 동에 상주하며 실무와 소통을 아우르는 주체가 있고, 위원장(또는 회장)과 분과장이 의제 개발을 주도하고 있어, 거버넌스를 이루는 구조가 매우 다르다. 거버넌스의 차이는 결국 마을과 자치 주민들이 협치와 거버넌스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이는 마을과 자치가 융합하는 데 있어서 과제로도 여겨진다. 따라서, 올바른 거버넌스 정립에 기초한 참여주민의 구체적인 역할 정의, 마을과 자치 간의 유사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우선시된다.

- 마을자치센터, 구로구청에 대한 주민의 기대: **역할의 명확한 구분보다는 역할 집중 요구**
 - 설문분석 결과, **마을공동체** 주민은 **마을자치센터와 구로구청** 모두에게 **모임 공간 등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의 역할 구분과는 무관하게 활동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필요가 매우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은 **마을자치센터의 역할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을 가장 기대하고, **구로구청에 대해서는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이 마을자치센터에 기대하는 역할 응답 2순위로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역할인 것을 고려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역시 중간지원조직과 행정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보다는 네트워크 형성과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위해 역할을 집중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마을공동체 역할과 활동기간별로 기대하는 역할의 1순위 응답이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었다.

[마을 주민의 마을자치센터에 대한 역할 기대]

- 참여주민 : 모임 공간 등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 사업지기-활동가 : 공동체 활동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
- 1년 미만 : 모임 공간 등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 2년 이상 : 공동체 활동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
- 4년 이상 : 공동체 자생과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역할(2순위)

[자치 주민의 마을자치센터에 대한 역할 기대]

- 1년 미만 :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
- 1년 이상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

[마을 주민의 구로구청에 대한 역할 기대]

- 참여주민 : 물품 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
- 사업지기-활동가 : 모임 공간 등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분석한 결과,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의 명확한 역할 구분에 힘쓰기보다는 주민이 원하는 역할에 중간지원조직과 행정 모두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민 교육: 융합의 취지에 공감하는 교육 토대 마련 필요

- 심층인터뷰 결과, 마을자치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에게 지원하는 교육의 경우, 참여주민과 사업지기를 대상으로 하는 마을아카데미 모두의 성장학교와 마을지원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역할에 따른 교육 커리큘럼의 세분화와 전문화에 집중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에게 지원하는 교육의 경우, 토론 기법과 의사소통 방식, 민주주의 회의 기법 등 구성원 간의 라포형성과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기반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기획하는 중이다. 한편,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교육이 마을공동체 주민과 주민자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는 활동의 개념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마을지원활동가, 동자치지원관, 동자치간사 등을 대상으로 마을·자치 강사 양성과정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활동 성격을 지닌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에게서 교육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낮은 사례가 확인되고, 마을공동체 주민 또한 융합의 필요성과 인식이 낮을다는 점에서 융합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마을과 자치의 개념을 단순히 합치는 차원이 아닌, 융합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득력 있는 정보로 주민에게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서로에 대한 인식: 마을은 활동성과 부각, 자치는 권한과 주민자치회 차별점 부각 필요

-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각각의 주민 그룹이 서로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활동내용', '마을자치센터 지원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지만(3개 평균 3.47점, 모른다는 비율 평균 13.7%),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응답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3.39점, 16.9%).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을 생활권별로 나눴을 때는, 오류수공생활권이 3개 응답 모두 다른 생활권보다 모른다는 비중이 높다. 공모사업과 활동내용에 대한 인지율은 구로신도림생활권이 가장 높고, 마을자치센터 지원 내용에 대한 인지율은 고척개봉생활권이 가장 높다.
- 마을공동체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에 대해 2.88점으로 가장 낮게 인지하고 있다.

가장 높게 인지하는 것은 3.38점으로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이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내용과 권한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한 주민이 알거나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주민보다 많다. 다만, 사업지기-활동가일수록, 활동기간이 길수록 모른다는 응답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마을공동체 생활권별로는 구로신도림생활권의 인식이 타생활권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모른다는 응답 비중이 안다는 응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 두 주민 그룹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지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두 그룹 모두에서 주민자치회의 참여방법/선정방법 항목의 인지율이 가장 높고, 주민자치회 권한 항목의 인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을공동체 주민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에 대한 인지율이 가장 낮다. 주민자치위원회 생활권별로는 현재 시범동이 없는 구로신도림생활권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모든 문항에서 인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시범동이 실시되고 있는 동보다 시범동이 아닌 구로신도림생활권 주민들의 인지율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며, 향후 주민자치회 출범 시 주민들의 참여 여부에 관한 측면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 마을공동체와 관련해서는 활동내용에 대한 인지율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대상의 교육, 마을공동체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에서 마을공동체의 구체적인 활동성과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필요하다.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권한과 함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에 대해서도 인지율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과 자치생활권별로 인지율의 차이가 큰 것을 고려해 홍보와 교육에도 차별화된 접근이 있어야 한다.

4) 다양한 공동체적 상상을 토대로 융합의 근거 마련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의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적극 참여 의향 높아. 마을 주민, 주민자치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 시각 존재.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에 대한 마을공동체 참여 의향을 설문분석한 결과, 주민의 93.6%는 마을공동체 참여에 긍정적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적극 참여 의향 비율은 46.8%이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기간이 길수록 적극 참여 의향 비중은 높아진다. 생활권별로는 고척개봉에서 적극 참여 의향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오류수궁, 구로신도림 생활권에서는 타생활권에 비해 참여 부정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다. 마을과 자치를 동시에 활동하는 주민들은 마을공동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64.3%). 이를 통해 마을과 자치 모두에서 활동하는 주민일수록 마을공동체 활동의 만족감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마을공동체 경험이 없는 주민에게서 참여 의향

이 없는 비율도 높다.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은 활동에 대한 기대로 이웃과의 관계, 화합 증진을 가장 많이 꼽는다.

-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공동체 주민에 대한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을 설문분석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극 참여 의향 군이 월등히 높지만(40.2%), 활동기간 1년 이상부터는 부정 의향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4년 이상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4.4%가 참여에 부정적이다. 설문에 참여한 마을공동체 주민의 18.9%는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고, 11.7%는 주민자치회에 소속되어있다. 마을공동체 주민의 79.4%는 거주하는 동에 주민자치회가 출범할 경우, 긍정적 참여 의향이 있다. 그러나, 적극 참여 의향의 경우 15%에 그친다. 마을공동체 활동기군에서 적극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나고(25%), 생활권별로는 구로디지털단지생활권 주민의 적극 참여 의향이 높고(35.3%), 부정적 의향 비중은 구로신도림생활권이 높다. 주민자치회 참여에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 마을공동체 주민(20.5%)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활동에 적절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으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대로 활동하기 때문”인 이유가 강하다. 주민들이 각각의 이유에 대해 고르게 응답한 것으로 보아, 주민자치회에 대해 마을공동체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은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인 이유가 강하다. 주민자치회 출범 시 마을공동체 주민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제를 만드는 것”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고,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의 참여”와, “주민자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풍부한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역시, 순서만 바뀔 뿐 비슷한 기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주민 그룹이 주민자치회 출범에 유사한 기대를 느끼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권한과 위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그룹만 기대를 가지고 있다.
- 주민자치회 분과활동의 경우, 위원이 아닌 주민에게도 참여가 열려있는 만큼 마을공동체 주민과의 다양한 협력·참여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활동에 적절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으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이 그대로 활동하기 때문” 등 마을공동체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 이유에 따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 융합: 한쪽으로의 흡수 아닌, 공동체의 다양한 형태를 상상하는 기회의 측면에서 접근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을 대상으로 융합에 대해 인터뷰한 결과, 주목되는 점은 마을과 자치 주민이 융합을 받아들이는 데 입장의 차이가 있는 점이다. 마을공동체 주민의 경우, 마을과 자치의 융합에 대해 “서로 활동 취지와 성격이 달라, 각자 구분돼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등의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반면에 주민자치 소속 주민은 마을과 자치의 융합에 대해 “역량 있는 사람이 유입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인식이 강했다. 인터

뷰 분석결과, 마을공동체 주민은 스스로의 활동을 주민자치 활동과는 다른 독자적인 활동으로 여기고 있으며, “융합이 곧 주민자치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반대로 주민자치 소속 주민의 경우, 융합이 “경험과 능력을 갖춘 새로운 사람이 조직으로 유입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결국은 의제 개발, 토론 등 다방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간지원조직과 행정 또한 마찬가지로 ‘마을 주민의 자치조직 유입’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다만, 마을과 자치의 융합을 공동체의 확장으로 이해하거나, 상호발전을 위한 관계로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했다. 입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융합에 대한 상반된 인식은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과 자치의 융합을 설명했을 때, 주민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마을과 자치 간의 융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도 인식된다. 따라서, 융합에 대한 방향을 모색할 때, 마을과 자치 한쪽으로의 흡수가 아닌, 공동체의 다양한 형태를 상상하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장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과제

1. 융합을 위한 방향
2. 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및 과제

1. 융합을 위한 방향

1) 공동체적 감수성 토대로 마을-자치 활동의 장점 극대화 필요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에 대한 연상단어, 주민자치 핵심의제, 활성화 요소 등에 대한 두 주민 그룹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이웃’, ‘화합’, ‘관계’ 등 두 주민 그룹 간의 상당히 유사한 시각과 목적의식이 공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두 그룹이 속해있는 활동상의 환경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마을공동체의 경우, 주민이 원하는 형태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개방적 특성이 있는 데 반해, 활동의 자립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단일한 목적의식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원들의 ‘역량’과 ‘소통구조’ 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환경이다. 또한, 선호하는 주민자치 활동 의제로 1순위인 ‘이웃 간의 화합’을 제외하고는 마을공동체 주민은 ‘교육’과 ‘즐길거리’ 의제를 선호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은 ‘자치문화’, ‘지역경제’, ‘정책참여’ 의제를 선호하는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과 자치의 융합을 위해서는 두 그룹이 처해있는 활동 환경과 선호하는 의제 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활동에 대한 유사한 시각과 목적의식으로 공유되는 ‘이웃’, ‘화합’, ‘관계’를 공동체적 키워드로 강조할 필요가 있으나,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동의 차이점을 고려하고, 각 활동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마을과 자치 주민은 서로가 가진 공동체적 감수성을 토대로 각 활동의 특이점과 차별점을 존중하며, 상호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네에서 논의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두 주민 그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융합을 위한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에서는 활동기간, 생활권, 역할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

2) 주민의 '활동 목적 다양화'하고, '문제 재정의 과정'에 대한 체험 유도

- 구로구에서 이루어지는 마을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 활동이 마을의 발전, 마을 문제 해결, 이웃 간의 화합, 시민으로서 성장, 계속 거주에 대한 도움 정도를 비교했을 때,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참여주민 모두에서 “스스로의 활동과 상대의 활동이 마을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 활동이 주민들이 느끼는 마을의 문제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을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각각의 활동을 바라보았을 때, 먼저 주민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 어떤 유형의 또는 수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상상해보는 것이 우선이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참여주민들이 생각하는 마을·자치 활동의 목적, 핵심의제로 ‘이웃과의 화합’, ‘관계 강화’가 두드러지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두 활동 간의 내용과 성격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주민 그룹 간의 인식 결과가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활동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고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무엇보다, 마을과 자치활동이 개인과 공동체 혹은 마을의 어떠한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등 충분한 가이드라인의 제공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마을과 자치 참여 주민이 개인의 입장에서 또는 공동체적 입장에서 활동의 목적을 정립하고, 이러한 목적들이 다양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들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활동 목적이 존재할 때, 마을 문제 해결에 창의적이고 세밀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다른 한편으로 참여주민이 활동에서 갖는 권한과 역할의 한계를 직시할 필요도 있다. 주민이 문제 해결을 원하는 마을의 의제는 지역경제 회복, 개발 이슈 등 거시적이고, 복합적인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마을과 자치 활동에 주어진 권한·역할·재원 등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마을의 문제를 이웃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문제를 재정의하는 과정이 주민의 입장에서 체험되어야 한다. 문제를 재정의하는 과정 없이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기 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3) 마을-자치 융합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의 역량 집중

- 마을자치센터와 구로구청에 대해 마을공동체 주민들은 두 기관의 역할 구분과는 무관하게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두 기관이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요구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역시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보다는 네트워크 형성과 주민참여 촉진을 위해 역할을 모아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현장 지원조직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역할의 전문성 강화 등 마을자치센터와 구로구청 간의 업무·역할 정립과 함께 주민이 요구하는 역할에 대한 두 기관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구로구 마을과 자치 주민이 서로 간의 활동과 개념에 대해 이해를 도모하는 등 융합을 위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융합을 위한 교육 토대 마련’에 두 기관이 역량을 집중하며, 구체적인 역할 정립을 시도해볼 수 있다.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을 대상으로 서로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마을공동체 주민은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차이점에 대해 잘 모르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의 경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방법, 마을자치센터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들이 주민자치 권한에 관심 없는 이유는 첫 번째, 권한을 가지는 것이 구체적인 행동과 성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충분한 가이드가 없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주민이 권한 행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융합을 위한 상호 이해과정 속에서 마을공동체 활동내용과 주민자치 권한 및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간의 차이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가이드라인과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에 두 기관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4) 마을-자치 활동 병행의 환경 마련, 융합을 위한 공동체적 상상력 필요

- 마을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 활동을 병행해서 하는 주민의 경우, 향후에도 마을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의향이 매우 높으며, 이는 두 활동을 병행해서 하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또한, 두 활동을 병행하는 주민의 상당수가 주민자치 활동에 있어서 '지역과 이웃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게 나타나고,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평가로 '이웃간의 화합', '시민으로 성장', '계속 거주'에 도움 여부에 긍정 평가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두 활동을 병행하는 주민이 마을과 자치 활동에서 만족감을 얻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과 자치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두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두 활동 간의 병행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먼저, 마을과 자치 활동 간의 접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민들에게 마을과 자치 활동은 단지 양적으로 나뉜 두 개의 활동을 수행하는 차원이기보다는, 관심 있는 주제 아래 상호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도가 참여하는 주민 개인의 성취에 또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보다 적극 참여 의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대다수는 긍정적인 참여 의향을 갖고 있고, 적극 참여 의향의 비율도 40%로 매우 높다. 두 주민 그룹이 주민자치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는 '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필요한 의제 형성', '폭넓은 주민참여', '풍부한 지원' 등으로 유사하나, 마을공동체 주민의 경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차이점 미비', '활동에 대한 보상 부재', '기존 위원회 소속 인원의 유지' 등 주민자치회 참여에 부정적인 이유들에 고르게 응답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마을공동체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대해 느끼는 부정적 이유에 대해서도 단지 오해를 잠재우기 위한 접근보다는 주민자치회가 갖는 제도적 한계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인터뷰 결과, 마을공동체 주민들은 '융합이 곧 주민자치회로의 흡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참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주민자치회 주민은 '융합을 주민자치회로 마을공동체 주민이 유입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민자치회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융합에 대한 두 주민 그룹 간의 상반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며, 차이를 극복하고, 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융합을

한쪽으로의 흡수가 아닌, 다양한 공동체적 상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주민이 마을과 자치 융합에 있어서 '공동체적 상상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곧 융합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가 형성되고, 실험되며, 활동의 시행착오를 겪는 공동체적 과정을 주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및 과제

1) 마을-자치 융합을 위한 교육과 공론장 추진

- 마을과 자치 융합의 관점에서 보면, 구로구는 주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서로 간의 활동·개념 이해 증진 노력이 증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융합을 위한 교육 토대 마련'에 마을자치센터와 구로구청 두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두 그룹의 주민이 서로에 대한 개념과 내용을 통해 이해하는 단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융합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융합의 취지에 공감하거나, 문제 제기하는 공론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공론장은 또한 주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학습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론장 마련을 위해 마을자치센터와 구로구청이 서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구로구 마을-자치 타운홀 미팅 개최

①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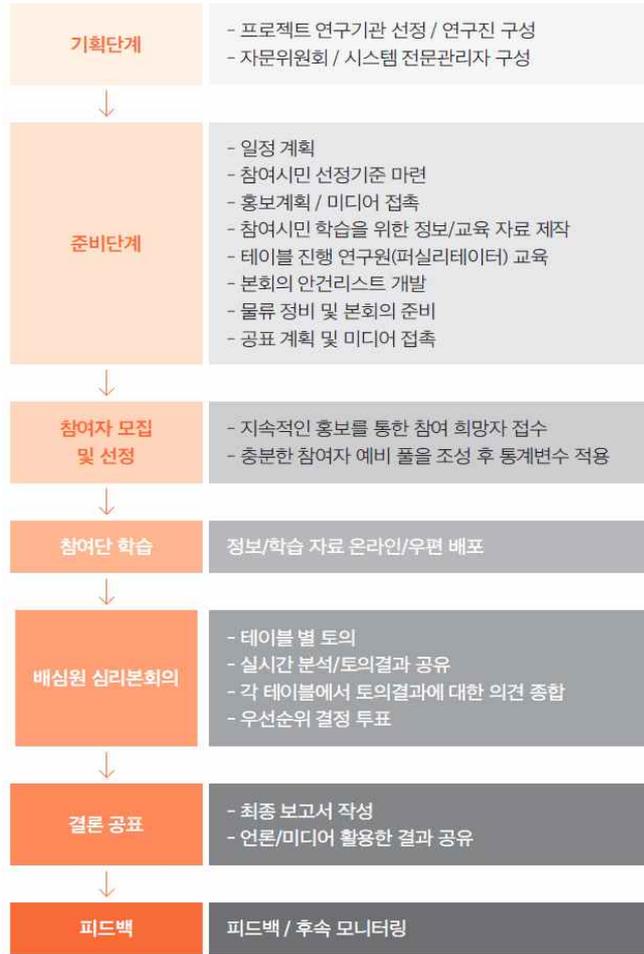
- 마을과 자치 융합을 위한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 구로구 마을-자치 융합의 방향을 도출한다.
- 공론장 결과에 따른 주민 활동 및 주민 대상 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다.
- 마을과 자치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한다.

② 주요 내용

- 구로구 마을과 자치 이슈 및 융합을 위한 현안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주민이 숙의 토론과정에 참여하여 융합의 취지에 공감하며, 융합을 위한 과제, 한계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정기적 타운홀 미팅(공론장)을 개최한다.
- 마을자치센터와 구로구청 및 구로구 지역 내 유관기관이 연대하여 타운홀 미팅을 추진하고, 타운홀 미팅 프로세스(그림 186 참고)에 따라 진행한다.
- 분기별 또는 반기별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마을과 자치, 융합에 대한 정기적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토론을 진행한다. 공론장 진행 및 결과에 대해 마을자치센터와 구로구청이 주도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추진하고, 결과를 반영한 과제를 마련한다. 또한, 공론장 결과에 따라 마을, 자치 참여주민 대상 교육과 활동 지원 등을 개선한다.

[그림 186] 타운홀 미팅 프로세스(희망제작소, 2019)

타운홀 미팅 프로세스



③ 참고 사례

◦ 2019 협력과 연대의 강서 컨퍼런스 ‘잇는 강서’

- 2019 협력과 연대의 강서 컨퍼런스 ‘잇는 강서’에는 마을·자치·사회적경제·협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 구의원, 중간지원조직, 각 급 행정부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함께 고민했다. 이 중 두 번째 세션은 강서구 마을자치센터의 주관 하에 ‘마을공동체로 주민자치를 잇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서구 4개 동의 사례(△방화3동 주민자치회 사업, △가양2동의 200여 가지의 주민의 색깔이 있는 마을협동금고, △화곡6동의 주민자치회, 주민과 자치를 잇다, △화곡본동의 마을회의)가 마을, 자치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 주민에게 공유되었다(라이프인, 2019).

2) 주민의 마을 문제 ‘재정의 과정’ 지원

- 마을의 문제를 이웃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문제를 재정의하는 과정이 주민의 입장에서 체험되어야 한다. 문제를 재정의하는 과정 없이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따라서, 중간지원 조직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마을의 문제를 공동체적 활동과 속의 과정을 통해 ‘문제 재정의’하는 과정을 지원해야 하며, 필요한 주민의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사례수집, 어드보커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을과 자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을 세부과제로 제안한다.

■ 마을-자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① 목적

-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과 자치의 공동 해결능력을 강화한다.
- 마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새로운 관점과 접근을 모색한다.
- 활동 목적에 대한 마을과 자치 참여주민들의 이해를 증진한다.
- 마을과 자치 융합 활동을 촉진한다.
- 주민 스스로가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② 주요 내용

- 마을과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해 일상에서 혁신의 아이디어를 찾고, 해결 방안에 대해 실험해보는 리빙랩¹¹⁾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마을자치센터와 구로구청은 리빙랩을 위한 주민 모임테이블 형성, 의제선정, 컨설팅, 리빙랩 실행, 평가 등 전반의 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지역 내 유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
-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리빙랩 실험을 통해 주민이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얻고, 활동 자체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1) 리빙랩은 살아 있는(living) 실험실(lab)이라는 뜻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자가 시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들어가 사용자와 함께 현장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개발 방법론이다. ‘일상생활 실험실’, ‘우리 마을 실험실’이라고도 불린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R&D)이나 사회혁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개방형·참여형 혁신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한겨레, 2020).

③ 참고 사례

◦ 희망제작소 국민해결 2018

- 행정안전부와 희망제작소가 진행하는 국민해결 2018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 중심의 표준화된 문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문제의 당사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프로젝트다. 3명 이상의 주민이 팀을 구성해 장소, 시간,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를 나누는 '상상테이블'을 진행하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팀은 소셜리빙랩을 진행하고, 네트워킹 데이와 성과 공유회를 가진다. 상상테이블 진행을 도울 진행자 교육부터 아이디어를 제안서로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 컨설팅, 실행지원금 등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참가자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되었다.

[그림 187] 국민해결 2018 프로세스



*출처: 희망제작소, 2018

◦ 관악구 여성안전 주민기획단

- 관악구는 주민, 기술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관악형 리빙랩을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의 도시문제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해결하는 주민 중심의 안전한 스마트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관악구 여성안전 주민기획단'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주민기획단의 주요 활동은 관악구 내에 여성 1인 가구 범죄예방 방안 및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며, 토론은 지역의 안전문제나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3) 마을-자치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 연구결과, 마을과 자치 활동을 병행하는 주민이 활동에서 만족감을 얻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마을과 자치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두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두 활동 간의 병행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먼저, 마을과 자치 활동 간의 접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지 양적으로 나뉜 두 개의 활동을 수행하는 차원보다는, 관심 있는 주제 아래, 마을과 자치 주민이 상호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로구의 주민참여 기반 토론 플랫폼인 구로 1번가에 대한 마을-자치 주민참여 강화를 세부과제로 제안한다.

■ 구로 1번가 제안·토론 과정에 마을-자치 주민참여 강화

① 목적

- 마을 의제 발굴을 위한 토론, 제안 과정에 마을-자치 주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 마을 의제 논의과정에 대한 마을-자치 주민의 주도과 역량을 강화한다.
-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과 자치의 공동 해결능력을 강화한다.
- 마을과 자치 융합 활동을 촉진한다.

② 주요 내용

- 주민과 구로구가 함께 지역문제에 대해 제안하고 토론하여 정책을 만드는 주민참여온라인 소통공간 ‘구로 1번가’에 대한 마을과 자치 주민의 참여를 촉진한다.
-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구로 1번가 마을자치참여단’을 구성해, 마을과 자치 활동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제들을 ‘구로 1번가’ 플랫폼과 상시적으로 연결하고, 온라인 공론장에서 나온 결과에 대한 행정부서와의 협의와 자문 권한을 마을자치참여단에 부여해,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하는 주체로서 파트너십을 구성한다.
- 마을과 자치 주민들이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마을 현장에서 함께 모여 논의하고, 활동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프라인 플랫폼 형태로 구로 1번가를 조성하여 마을-자치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

[그림 188] 구로 1번가 프로세스(구로1번가 홈페이지)

"구로 1번가"로 초대합니다!

구로1번가는 주민과 구로구가 함께 지역문제에 대해 제안하고 토론하여 정책을 만드는 주민참여온라인 소통공간입니다.



③ 참고 사례

◦ 금천구 유희공간 금천 1번가로 재탄생

- 행정안전부와 금천구청은 직접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주민들을 한 공간에 모아 주민자치력을 높이고 당사자인 주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숙성시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마을정책 플랫폼인 금천 1번가를 2019년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치했다. 유희공간이었던 옛 소방서 건물에 금천 1번가를 짓자는 아이디어를 낸 것은 마을교육을 운영하는 주민들이었으며, 주민참여 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곳을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활성화 공간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하였다. 때마침 행정안전부의 공공 유희공간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이 있어 실행에 옮겨졌다(행정안전부, 2019).

[그림 189] 금천 1번가 사례



*출처: 행정안전부, 2019

4) 마을-자치 융합을 위한 ‘홍보’ 강화 및 ‘소통 네트워크’ 구축

- 융합을 위한 상호 이해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동내용과 주민자치 권한 및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간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주민자치 권한을 주민이 이해하는 것은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기본 전제임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며, 권한과 활동에 대한 연계성 강화와 함께 주민 입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을자치센터와 구로구청은 연계성 강화 방안, 인센티브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특히 홍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주민들에게 마을과 자치 활동은 단지 양적으로 나뉜 두 개의 활동을 수행하는 차원이 기보다는, 관심 있는 주제 아래 상호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도가 참여하는 주민 개인의 성취에 또는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을 권역마다 설치되어있는 소통모임처럼, 마을과 자치 주민 그룹 간에도 소통모임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형성 시도에는 마을과 자치라는 두 개의 그룹을 묶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마을활동지원가와 동자치지원관 및 동자치간사, 또는 사업지기와 분과위원 등 역할별, 활동기간별, 권역별 네트워킹 또한 시도할 수 있다.

■ 구로마을자치주간

① 목적

- 마을과 자치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각 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한다.
- 마을과 자치 활동에 대한 주민의 상호이해를 증진한다.
- 융합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공감을 확대해, 융합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한다.
- 주민들의 마을과 자치 융합 활동을 촉진한다.

② 주요 내용

- 기존의 구로구 마을공동체 화합 한마당 추진 경험 등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참여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구로마을자치주간’으로 확대해 추진하고, 마을자치센터와 구로구청의 주도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한 기획을 추진하여, 마을과 자치에 대한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 마을공동체 활동 내용 및 성과와 함께 자치계획, 주민자치회 분과활동 등을 집중 홍보하여, 자치 의제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마을 주민을 모집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상황에 따라 자치계획에 대한 사전 선호투표를 마을과 자치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특히 주민자치와 관련해 주민의 갖는 권한과 역할, 활동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이 낯설어하는 주민자치 기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내용과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한다.

③ 참고 사례

- 2019 나누고 더하는 마을자치어울마당(마포구)
 - 마포구마을자치센터와 마포구는 마을과 자치가 하나되는 마을자치어울마당을 개최하고, 어울마당 시작 전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5개 동 분과의 25개 자치계획(안)에 대한 모의투표를 진행했다. 모의투표는 키오스크를 활용해 주민이 손쉽게 의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마을자치어울마당에서 이루어진 모의투표는 7월 주민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인 6월에 진행되어, 자치계획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기본적인 선호 조사를 확인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마을 활동 성과와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추진과정을 담은 영상이 공유되었으며, 마을자치센터가 진행하는 마을 의제토론회, 정태호소극장과 연계하는 참여형 마을공연 등이 이어졌다. 마을자치어울마당에는 마을 주민과 마을활동가, 주민자치회 참여주민 380여 명이 참여했다.

[그림 190] 마포구 2019 마을자치어울마당 사례



*출처: 마포구마을자치센터. 2019

■ 마을·자치 소통 네트워크 구축

① 목적

- 마을과 자치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한다.
- 마을과 자치에 대한 주민의 상호이해를 돕는다.
- 주민에 대한 마을과 자치 활동 병행 환경을 마련한다.
- 마을과 자치 연계 및 융합 활동을 촉진한다.

② 주요 내용

- 마을과 자치 주민 그룹 간의 소통모임 등 적극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지원한다.
- 일반 주민 간의 소통모임은 마을과 자치 활동 연차가 비슷한 주민 간의 모임, 예를 들어 2년 미만의 활동 주민모임, 2~3년 차 활동 주민모임을 비롯해, 권역별, 세대별 모임 등을 고려한다.
-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들의 주민자치회 참여를 독려하고,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회 간의 협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위원과 마을공동체 사업지기간의 소통모임을 구성한다. 또한, 마을·자치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만나는 마을활동지원가, 동자치지원관, 동자치간사 등의 현장지원 담당자들의 모임도 활성화한다.
- 마을과 자치 활동 주민 간의 소통모임을 다변화하는 것과 동시에 선호하는 마을 의제 별 마을·자치 모임을 구성하는 것에도 힘쓴다.

③ 참고 사례

- 고양시 관산동 마을정책상상모임
 -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2020년 8월,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인 ‘마을정책 상상모임’을 추진하고, 관산동에 위치한 우리들의 행복공감 작은도서관에서 마을공동체 참여주민과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모임을 진행했다. 모임은 지역 전문가(똑똑도서관장)를 초대해 마을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을과 자치 주민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5) 마을-자치 융합을 위한 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융합의 관점에서 시범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평가하고, 성과 결과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분과위원회하의 연계 활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민자치회 개선을 위한 논의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참여주민이 모두 모여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논의 역기도 추진해야 한다.

■ 구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평가 및 과제 연구

① 목적

- 마을과 자치 융합의 관점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평가·진단하여, 현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 융합의 관점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한계 및 과제를 도출하여, 융합과정에 도움이 되는 주민자치회 개선안을 마련한다.
- 주민들의 주민자치회 참여가 다양하고 폭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② 주요 내용

- 2018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2019 주민자치사업단,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2020 자치계획 결정 및 분과 활동, 2021 자치계획 실행 등 구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행 전반에 대한 성과 평가와 과제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 구로구 주민자치회 참여주민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고, 제도적 환경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 주민자치회 정책의 발전 방향과 주민자치회 차원에서 융합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③ 참고 사례

- 2019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선행 연구인 2017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지표개발 및 기초선 조사연구(안현찬 외, 2017)와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평가연구(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8)를 바탕으로 2019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과정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정책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분석, 성과분석을 위한 자료분석, 설문조사, FGI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림 192] 2019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연구



*출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9

◦ 2020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연구

- 성남시는 2021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예정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연구’를 희망제작소와 함께 진행했다. 희망제작소는 2021년 주민자치회 전면실시를 대비해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주민자치회의 의의 및 역할 △정부 정책방향 및 선행사례 분석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제시 등을 담은 연구결과를 지난 2020년 12월에 발표했다.

[그림 193] 구로구 마을-자치 융합을 위한 과제



- 마을과 자치 융합을 위한 방향과 과제, 세부과제를 정리하면 그림 193과 같다. 첫 번째 방향으로 마을과 자치 활동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이를 위해 주민 참여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세부과제로 구로1번가 제안·토론 과정에 마을·자치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방향으로 주민의 활동 목적성 다양화와 문제 재정의 과정 체험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의 마을문제 재정의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세부과제로 마을·자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진행을 제안한다. 세 번째 방향으로 융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융합을 위한 교육·공론장을 추진하고, 세부과제로 마을·자치 타운홀 미팅 개최를 제안한다. 또한, 융합을 위한 홍보·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하며, 세부과제로 구로마을자치주간 추진과 마을·자치 소통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한다. 네 번째 방향으로 마을·자치 활동의 병행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고, 융합을 위한 사업 평가 및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세부과제로 구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연구를 제안한다.

부록

1. 심층인터뷰 질문지
2. 설문조사 질문지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모색 연구

마을공동체 참여주민 심층인터뷰 질문

1. 주 제

- 마을공동체 활동
- 주민자치의 실현
- 마을공동체 지원 제도
- 구로구청과 마을자치센터(중간지원조직)의 역할

2. 질 문

① 마을공동체 활동

선생님께서 참여하는 공동체는 어떤 성격의 공동체이며, 마을공동체 활동의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① 마을공동체 활동

서울시는 공동체의 성장 시기를 아래와 같이 씨앗기] 새싹기] 성장기로 분류하여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기	씨앗기	새싹기	성장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모임을 구성 • 주민 필요와 마을 문제를 발견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필요와 마을 문제를 해소 • 마을 살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인 마을계획 수립, 실행
지원사업	부모커뮤니티 사업	공동육아 사업, 마을기업 육성, 공동주택 공동체 등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의 공동체 성장 시기 분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② 주민자치의 실현

서울시는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2018~2022년)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성장’과 함께 ‘주민 자치의 실현’을 강조하고, 공동체 활동 속에서 생활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 추진 방향(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를 연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② 주민자치의 실현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참여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온 주민과 같이 상대적으로 실행 여지가 높은 주민을 주민자치회로 융합해 자치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사업 경험자의 주민자치회 참여 비율을 2017년 14.6%에서 2022년 30% 까지 올리는 것을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추진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시거나, 참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없다면 향후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② 주민자치의 실현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사업예산 확보로 동단위 계획형 참여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주민세 개인균등 징수분을 주민자치회가 사용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주민세 개인균등 징수분의 활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③ 마을공동체 지원 제도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은 서울시와 구로구 조례에 시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아직 상위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을활동가, 주민 네트워크(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연합(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지자체 협의회(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등은 2016년 마을기본법 입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 국회에서 발의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에는 마을공동체의 정의와 원칙을 포함해, 마을발전계획, 마을공동체 중앙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추진에 대한 전망과 의견을 말씀해주시오.

④ 구로구청과 구로구 마을자치센터(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구로구청과 구로구 마을자치센터(중간지원조직)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모사업, 활동가 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 특화사업(시니어마을살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에 동자치지원관을 파견해 행정과 주민 간의 소통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사무 지원과 주민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구로구청과 구로구 마을자치센터(중간지원조직)에 기대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구로구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융합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모색 연구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주민 심층인터뷰 질문

1. 주 제

- 주민자치의 역할과 기능
- 주민의 주도와 참여 현황
- 자치위원 선정과 구성
- 주민자치 정책과 제도
- 구로구청과 구로마을자치센터(중간지원조직)의 역할

2. 질 문

① 주민자치의 역할과 기능

2012년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소속 근린자치분과는 주민자치회 모델로 1) 협력형, 2) 통합형, 3) 주민조직형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협력형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사무소 간의 동등한 관계 설정, 지자체장이 위원 위촉
통합형	주민자치회를 지자체장 직속기구로 설정, 읍면동 사무를 주민자치회 산하로 귀속
주민조직형	주민자치회 독자적 의사결정 및 집행 권한 부여, 읍면동 사무소 폐지(지자체 업무로 환원)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협력형을 주민자치회 모델로 최종결정하고, 시범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동(가리봉동, 개봉1동, 구로4동, 오류1동)에서 시행 중인 주민자치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거주하신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주민자치의 역할과 기능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센터 운영 읍면동 행정업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생활과 관련 있는 읍면동 업무협의심의 지방자치단체 위암위탁 업무
위원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단체 추천 및 공개모집 신청자 중 읍면동장이 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대표, 일반 주민 및 직능대표 공개모집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
위원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군구청장
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지원금 및 수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재원(사업수입, 사용료, 회비) 보조금, 기부금

안전행정부. 2013. 요약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으로 어떤 변화를 체감하십니까?

② 주민의 주도와 참여 현황

‘생업으로 인한 여유 부족’, ‘관심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자치위원들의 일상적 활동이 어려움을 겪거나, 소수 위원을 중심으로 의제 형성이 이뤄지는 경우 위원들의 주민 대표성이 약해지거나, 효과적인 주민자치의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의 정례회의 및 분과 활동 참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② 주민의 주도와 참여 현황

서울시는 마을사업 경험자의 주민자치회 참여 비율을 2017년 14.6%에서 2022년 30%까지 올리는 것을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추진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참여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온 주민과 같이 상대적으로 실행 여지가 높은 주민을 주민자치회로 융합해 자치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③ 자치위원 선정과 구성(주민자치위원회)

구로구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정과 구성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된 사람

위원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 주민 대표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위원 선정 기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③ 자치위원 선정과 구성(주민자치위원회)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권한을 가지며, 아래 사유로 해촉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직무 태만 또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5.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주민자치회의 경우, 구로구청장이 위원의 위촉 권한을 가지며, '자격요건 위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위촉과 해촉 권한이 동장 또는 구청장에 있는 현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③ 자치위원 선정과 구성(주민자치회)

구로구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만18세 미만,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위원, 공무원 제외)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직능, 공공)에 속한 사람

위원추첨관리위원회는 자격에 해당하는 주민 중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되, 60%는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 40%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 주민 대표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위원 선정 기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투명성, 공정성, 대표성 강화 등 주민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선정 비율(60% 공개모집, 40% 기관,단체,조직 추천)을 조정한다면, 비율상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③ 자치위원 선정과 구성(주민자치회)

동장이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권한을 가졌던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구로구청장이 위원의 위촉 권한을 가지며, '자격요건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위촉과 해촉 권한이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이전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④ 주민자치 정책과 제도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사업예산 확보로 동단위 계획형 참여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주민세 개인균등 징수분을 주민자치회가 사용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예산 확보 차원에서 주민세 개인균등 징수분의 활용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④ 주민자치 정책과 제도

서울시는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의 의제를 「지역생활권계획」(도시기본계획의 일부)에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등, 주민자치회 주도의 지역발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행정 중심의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지역주민이 동원되면서, 주민의 자치역량보다는 행정의 역량으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주민자치 역량으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구로구청과 구로구 마을자치센터(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구로구청과 구로구 마을자치센터(중간지원조직)는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에 동자치지원관을 파견해 행정과 주민 간의 소통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사무 지원과 주민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구로구청과 구로구 마을자치센터(중간지원조직)에 기대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중간지원조직-행정 심층인터뷰 질문

1. 주 제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 마을공동체 · 주민자치 정책과 제도
- 주민자치의 역할과 기능
- 주민의 주도과 참여 현황
- 자치위원 선정과 구성
- 주민자치 정책과 제도

2. 질 문

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서울시는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따라 시와 구의 중간지원조직 간의 기능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전문 지원 기능 강화(종합교육, 정책연구개발, 마을활동 등 DB 관리)

• 구 마을자치 통합지원센터 : 현장 밀착지원, 마을공동체 · 주민자치 통합 지원

자치구 전담 인원을 평균 3.82명(2017)에서 6명(2022년)으로 증원 목표

시, 구 중간지원조직 간의 기능 구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

마을넷은 2012년 서울시 마을정책 시행 초기부터 주민의 연결과 마을의 성장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이자, 공론장으로 등장했으며, 자치구 마을넷의 결성과 함께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행정과 주민 간의 소통과 관계 형성을 지원해온 마을넷의 역할이 현재 중간지원조직(마을 자치센터)의 기능으로 대체되면서 발생한 성과와 한계는 무엇입니까?

② 마을공동체 • 주민자치 정책과 제도

마을공동체 지원 정책은 서울시와 구로구 조례에 시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아직 상위법 제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을활동가, 주민 네트워크(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연합(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지자체 협의회(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등은 2016년 마을기본법 입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 국회에서 발의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에는 마을공동체의 정의와 원칙을 포함해, 마을발전계획, 마을공동체 중앙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추진에 대한 전망과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② 마을공동체 • 주민자치 정책과 제도

서울시는 마을공동체의 성장 시기를 아래와 같이 씨앗기] 새싹기] 성장기로 분류하여 공모 사업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기	씨앗기	새싹기	성장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모임을 구성 • 주민 필요와 마을 문제를 발견,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필요와 마을 문제를 해소 • 마을 살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인 마을계획 수립, 실행
지원사업	부모커뮤니티 사업	공동육아 사업, 마을기업 육성, 공동주택 공동체 등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의 공동체 성장 시기 분류에 따른 지원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로구 마을공동체의 현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② 마을공동체 · 주민자치 정책과 제도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사업예산 확보로 동단위 계획형 참여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주민세 개인균등 징수분을 주민자치회가 사용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예산 확보 차원에서 주민세 개인균등 징수분의 활용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③ 주민자치의 역할과 기능

2012년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소속 근린자치분과는 주민자치회 모델로 1) 협력형, 2) 통합형, 3) 주민조직형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협력형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사무소 간의 동등한 관계 설정, 지자체장이 위원 위촉
통합형	주민자치회를 지자체장 직속기구로 설정, 읍면동 사무를 주민자치회 산하로 귀속
주민조직형	주민자치회 독자적 의사결정 및 집행 권한 부여, 읍면동 사무소 폐지(지자체 업무로 환원)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협력형을 주민자치회 모델로 최종결정하고, 시범사업을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모델로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③ 주민자치의 역할과 기능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센터 운영 읍면동 행정업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생활과 관련 있는 읍면동 업무협약·심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위탁 업무
위원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단체 추천 및 공개모집 신청자 중 읍면동장이 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대표, 일반 주민 및 직능대표 공개모집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출
위원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군구청장
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지원금 및 수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재원(사업수입, 사용료, 회비) 보조금, 기부금

안전행정부. 2013. 요약

시범 지역의 주민들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에 대해 어떤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까?

④ 주민의 주도와 참여 현황

서울시는 마을사업 경험자의 주민자치회 참여 비율을 2017년 14.6%에서 2022년 30%까지 올리는 것을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추진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참여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온 주민과 같이 상대적으로 실행 여지가 높은 주민을 주민자치회로 융합해 자치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④ 주민의 주도와 참여 현황

‘생업으로 인한 여유 부족’, ‘관심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자치위원들의 일상적 활동이 어려움을 겪거나, 소수 위원을 중심으로 의제 형성이 이뤄지는 경우 위원들의 주민 대표성이 약해지거나, 효과적인 주민자치의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의 정례회의 및 분과 활동 참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④ 주민의 주도와 참여 현황

논의 시간이 매우 짧거나, 준비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 질적 토론과정의 부재 등 의사결정 문화가 미흡한 경우가 발생해 주민 주도의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민총회, 분과회의 등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 문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④ 주민의 주도와 참여 현황

서울시는 마을사업 경험자의 주민자치회 참여 비율을 2017년 14.6%에서 2022년 30%까지 올리는 것을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추진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참여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온 주민과 같이 상대적으로 실행 여지가 높은 주민을 주민자치회로 융합해 자치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⑤ 자치위원 선정과 구성

구로구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만18세 미만, 위원추첨관리위원회 위원, 공무원 제외)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직능, 공공)에 속한 사람

위원추첨관리위원회는 자격에 해당하는 주민 중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되, 60%는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 40%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 주민 대표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위원 선정 기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투명성, 공정성, 대표성 강화 등 주민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선정 비율(60% 공개모집, 40% 기관,단체,조직 추천)을 조정한다면, 비율상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⑥ 주민자치 정책과 제도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사업예산 확보로 동단위 계획형 참여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주민세 개인균등 징수분을 주민자치회가 사용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예산 확보 차원에서 주민세 개인균등 징수분의 활용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⑥ 주민자치 정책과 제도

서울시는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의 의제를 「지역생활권계획」(도시기본계획의 일부)에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등, 주민자치회 주도의 지역발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행정 중심의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지역주민이 동원되면서, 주민의 자치역량보다는 행정의 역량으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주민자치 역량으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D

--	--	--

구로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마을공동체)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구로구 마을자치센터와 (재)희망제작소가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구로구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마을-자치의 융합’ 과제 진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설문은 연구 및 분석 목적 이외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조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

귀하의 의견과 평가가 구로구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현장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관기관: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 조사기관: (재)희망제작소

■ 문의: (재)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이규홍 연구원

메일 : diltramesh@makehope.org 전화: 02)6395-1416

I	기본질문
---	------

1. 귀하는 현재 어떤 역할로 구로구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①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여주민 ② 마을공동체 사업지기
- ③ 마을공동체 활동가

2. '마을공동체' 하면 아래 단어 중 어떤 것이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 ① 성장 ② 주도 ③ 화합 ④ 발전
- ⑤ 시민의식 ⑥ 협력 ⑦ 연대 ⑧ 책임
- ⑨ 참여 ⑩ 미래 ⑪ 소통 ⑫ 기타()

3. '주민자치' 하면 아래 단어 중 어떤 것이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 ① 성장 ② 주도 ③ 화합 ④ 발전
- ⑤ 시민의식 ⑥ 협력 ⑦ 연대 ⑧ 책임
- ⑨ 참여 ⑩ 미래 ⑪ 소통 ⑫ 기타()

II	마을공동체 참여 실태 및 활동 인식
----	---------------------

[참여 실태]

4. 귀하께서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② 이웃 주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 ③ 지역과 이웃들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
- ④ 내가 사는 지역의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서
- ⑤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 ⑥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 ⑦ 기타()

5. 귀하의 ‘마을공동체’ 활동 총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2년 미만
- ④ 2년~3년 미만 ⑤ 3년~4년 미만 ⑥ 4년 이상

6. 귀하는 올해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에 평균 얼마나 활동하십니까?(온라인 참여 포함)

- 1주 중 : _____ 시간
- 1개월 중 : _____ 일
- 1년 중 : _____ 일

7. 귀하가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 ① 오전 9시 이전 ② 오전 9시~낮 12시 ③ 낮 12시~오후 3시
- ④ 오후 3시~오후 6시 ⑤ 오후 6시~오후 9시 ⑥ 오후 9시 이후
- ⑦ 기타()

8. 귀하가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 등 부양가족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 ② 생업과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워서
- ③ 활동이 너무 어렵고, 내 역할을 찾기 어려워서
- ④ 나와 생각이 다른 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서
- ⑤ 마을공동체 활동이 공감되지 않아서
- ⑥ 회의, 모임 장소가 멀거나, 열리는 시간에 참석하기 어려워서
- ⑦ 기타()

9. 귀하가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대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 ①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 ② 이웃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서로 화합하는 마을이 되는 것
- ③ 불우이웃 등 사회적 취약층을 돕고 사는 것
- ④ 나와 이웃들이 원하는 의제가 실현되는 것
- ⑤ 내가 사는 마을이 계속 살고 싶은 곳이 되는 것
- ⑥ 다양한 이웃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 ⑦ 내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 ⑧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
- ⑨ 기타()

[마을공동체 활동]

10. 귀하가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활동을 의미 있게 이끌어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 ② 마음이 맞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료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 ③ 의제 논의와 토론이 지치고 피로하기 때문에
- ④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 ⑤ 활동을 위한 예산 등 다양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 ⑥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사무가 많기 때문에
- ⑦ 기타()

11. 귀하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각 항목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점수로 표기해주시요.

문항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도움된다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마을의 발전	①	②	③	④	⑤
마을의 문제 해결	①	②	③	④	⑤
이웃 간의 화합	①	②	③	④	⑤
귀하의(시민으로서) 성장	①	②	③	④	⑤
구로구에 계속 거주	①	②	③	④	⑤

12. 귀하가 속한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는 전체 주민 중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 ① 10% 미만 ② 10%~19% ③ 20%~39%
- ④ 40%~59% ⑤ 60% 이상

13. 귀하가 '마을공동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소통하는 주민은 총 몇 명입니까?

- ① 10명 미만 ② 10명~19명 ③ 20명~29명
- ④ 30명~49명 ⑤ 50명 이상

14.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자치센터(중간지원조직)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 ①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
- ②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
- ③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
- ④ 모임 공간 등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 ⑤ 물품 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
- ⑥ 공동체 활동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
- ⑦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
- ⑧ 공동체 자생과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역할
- ⑨ 기타()

15.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로구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 ①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
- ②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
- ③ 정책을 수립해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역할
- ④ 모임 공간 등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 ⑤ 물품 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
- ⑥ 공동체 활동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
- ⑦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
- ⑧ 공동체 자생과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역할
- ⑨ 기타()

Ⅲ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인식 및 평가
---	--------------------

16. 귀하께서 아래 항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점수로 표기해주시요.

	전혀 모른다 ←----- 보통 -----> 잘 알고 있다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①	②	③	④	⑤
거주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내용	①	②	③	④	⑤
주민자치위원회 권한	①	②	③	④	⑤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방법/선정방법	①	②	③	④	⑤

17.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각 질문에 미치는 정도에 대해 5점 이내의 점수로 표기해주시요.

문항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도움된다				
마을의 발전	①	②	③	④	⑤
마을의 문제 해결	①	②	③	④	⑤
이웃 간의 화합	①	②	③	④	⑤

Ⅳ	주민자치회 인식 및 참여 의향
---	------------------

18. 주민자치회가 다뤄야 할 우리 마을(생활동 또는 거주동) 핵심의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 선택)

- ① 이웃 간의 화합, 관계 강화
- ② 지역 경제 활성화
- ③ 동네 안전 및 치안 강화
- ④ 병원, 보건서비스 등 주민 건강권 확대
- ⑤ 노후주택 정비 및 재개발
- ⑥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즐길 거리 확대
- ⑦ 교통 연결망 강화
- ⑧ 평생교육시설 확대, 아동, 청소년, 청년 교육기관 확대
- ⑨ 주민 간, 세대 간의 갈등 문제 해결
- ⑩ 주민자치 문화의 확산, 정책참여 확대
- ⑪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지원
- ⑫ 기타()

19. 귀하께서는 아래 중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① 소속되지 않음
- ② 주민자치위원회
- ③ 주민자치회

20. 귀하께서 아래 항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점수로 표기해주시시오.

	전혀 모른다 ←----- 보통 -----> 잘 알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	①	②	③	④	⑤
4개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동 시행	①	②	③	④	⑤
주민자치회 권한	①	②	③	④	⑤
주민자치회 참여방법/선정방법	①	②	③	④	⑤

*구로구 주민자치회 시범동 : 가리봉동, 구로4동, 개봉1동, 오류1동

21. 귀하가 거주하는동에 향후 주민자치회가 출범한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 ① 절대 참여하고 싶지 않다(☞ 21-1번으로) ②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21-1번으로)
 ③ 다소 참여하고 싶다(☞ 21-2번으로) ④ 적극 참여하고 싶다(☞ 21-2번으로)

21-1. 주민자치회 참여에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②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위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③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그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④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⑤ 예산 등 풍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⑥ 내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⑦ 기타()

21-2. 주민자치회 참여로 어떤 점을 기대하십니까?

- 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위상이 확대되는 것
- ②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이 참여하게 되는 것
- ③ 주민자치 활동을 위해 체계적이고 풍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 ④ 소수의 의사결정이 아닌, 다수가 원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 ⑤ 역할이 고루 분배되고, 역할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것
- ⑥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제를 만드는 것
- ⑦ 기타()

22. 아래의 문항 중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는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 ② 열린 토론과 다양한 의견 제시
- ③ 이웃과 마을을 위한 봉사 정신
- ④ 공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 ⑤ 열린 마음과 배우려는 자세
- ⑥ 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 ⑦ 기타()

V	응답자 기본 정보
---	-----------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령	<input type="checkbox"/> 10대 <input type="checkbox"/> 20대 <input type="checkbox"/> 30대 <input type="checkbox"/> 40대 <input type="checkbox"/> 50대 <input type="checkbox"/> 60대 <input type="checkbox"/> 70대 이상
거주동 또는 생활동	<input type="checkbox"/> 신도림동 <input type="checkbox"/> 구로1동 <input type="checkbox"/> 구로2동 <input type="checkbox"/> 구로3동 <input type="checkbox"/> 구로4동 <input type="checkbox"/> 구로5동 <input type="checkbox"/> 가리봉동 <input type="checkbox"/> 고척1동 <input type="checkbox"/> 고척2동 <input type="checkbox"/> 개봉1동 <input type="checkbox"/> 개봉2동 <input type="checkbox"/> 개봉3동 <input type="checkbox"/> 오류1동 <input type="checkbox"/> 오류2동 <input type="checkbox"/> 수궁동 <input type="checkbox"/> 향동
구로구 거주기간	<input type="checkbox"/>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5년 <input type="checkbox"/> 6년~10년 <input type="checkbox"/> 11년~15년 <input type="checkbox"/> 16년~20년 <input type="checkbox"/> 20년 이상

-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

ID

--	--	--

구로구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역주민(주민자치위원회)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구로구 마을자치센터와 (재)희망제작소가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구로구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마을-자치의 융합’ 과제 진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본 설문은 연구 및 분석 목적 이외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

귀하의 의견과 평가가 구로구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현장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관기관: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 조사기관: (재)희망제작소

■ 문의: (재)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이규홍 연구원

메일 : diltramesh@makehope.org 전화: 02)6395-1416

I	기본질문
---	------

1. '주민자치' 하면 아래 단어 중 어떤 것이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 | | | | |
|--------|------|------|--------------------|
| ① 성장 | ② 주도 | ③ 화합 | ④ 발전 |
| ⑤ 시민의식 | ⑥ 협력 | ⑦ 연대 | ⑧ 책임 |
| ⑨ 참여 | ⑩ 미래 | ⑪ 소통 | ⑫ 기타() |

2. '마을공동체' 하면 아래 단어 중 어떤 것이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 | | | | |
|--------|------|------|--------------------|
| ① 성장 | ② 주도 | ③ 화합 | ④ 발전 |
| ⑤ 시민의식 | ⑥ 협력 | ⑦ 연대 | ⑧ 책임 |
| ⑨ 참여 | ⑩ 미래 | ⑪ 소통 | ⑫ 기타() |

II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실태 및 활동 인식
----	-----------------------

[참여 실태]

3. 귀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② 이웃 주민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 ③ 지역과 이웃들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
- ④ 내가 사는 지역의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서
- ⑤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 속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 ⑥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 ⑦ 주민자치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 ⑧ 기타()

4. 귀하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총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미만 ③ 1년~2년 미만
- ④ 2년~3년 미만 ⑤ 3년~4년 미만 ⑥ 4년 이상

5. 귀하는 올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평균 얼마나 활동하십니까?(온라인 참여 포함)

- 1주 중 : _____ 시간
- 1개월 중 : _____ 일
- 1년 중 : _____ 일

6. 귀하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 ① 오전 9시 이전 ② 오전 9시~낮 12시 ③ 낮 12시~오후 3시
- ④ 오후 3시~오후 6시 ⑤ 오후 6시~오후 9시 ⑥ 오후 9시 이후
- ⑦ 기타()

7. 귀하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 등 부양가족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 ② 생업과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워서
- ③ 활동이 너무 어렵고, 내 역할을 찾기 어려워서
- ④ 나와 생각이 다른 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서
- 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공감되지 않아서
- ⑥ 회의, 모임 장소가 멀거나, 열리는 시간에 참석하기 어려워서
- ⑦ 기타()

8. 귀하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기대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 ①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 ② 이웃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서로 화합하는 마을이 되는 것
- ③ 불우이웃 등 사회적 취약층을 돕고 사는 것
- ④ 나와 이웃들이 원하는 의제가 실현되는 것
- ⑤ 내가 사는 마을이 계속 살고 싶은 곳이 되는 것
- ⑥ 다양한 이웃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 ⑦ 내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 ⑧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
- ⑨ 기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9. 귀하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활동을 의미 있게 이끌어갈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 ② 마음이 맞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료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 ③ 의제 논의와 토론이 지치고 피로하기 때문에
- ④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 ⑤ 활동을 위한 예산 등 다양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 ⑥ 주민자치의 개념이 어렵고, 실천하기 모호하기 때문에
- ⑦ 기타()

10. 귀하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각 항목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점수로 표기해주시시오.

문항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도움된다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마을의 발전	①	②	③	④	⑤
마을의 문제 해결	①	②	③	④	⑤
이웃 간의 화합	①	②	③	④	⑤
귀하의(시민으로서) 성장	①	②	③	④	⑤
구로구에 계속 거주	①	②	③	④	⑤

11.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중 [의제 논의, 토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 ① 10% 미만 ② 10%~19% ③ 20%~39%
 ④ 40%~59% ⑤ 60% 이상

12. 귀하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소통하는 주민은 총 몇 명입니까?

- ① 10명 미만 ② 10명~19명 ③ 20명~29명
 ④ 30명~49명 ⑤ 50명 이상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1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마을자치센터(중간지원조직)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 ①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
- ②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
- ③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
- ④ 모임 공간 등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 ⑤ 물품 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
- ⑥ 주민자치 활동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
- ⑦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
- ⑧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역할
- ⑨ 기타()

14.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구로구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 ①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
- ②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
- ③ 정책을 수립해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역할
- ④ 모임 공간 등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
- ⑤ 물품 지원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
- ⑥ 주민자치 활동의 불편함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역할
- ⑦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
- ⑧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는 역할
- ⑨ 기타()

Ⅲ	마을공동체 활동 인식 및 평가
---	------------------

15. 귀하께서 아래 항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점수로 표기해주시시오.

	전혀 모른다 ←----- 보통 -----> 잘 알고 있다				
구로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①	②	③	④	⑤
거주동의 마을공동체 활동 내용	①	②	③	④	⑤
마을공동체 지원조직인 [마을자치센터]의 지원 내용	①	②	③	④	⑤

16. '마을공동체' 활동이 각 항목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점수로 표기해주시시오.

문항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도움된다				
마을의 발전	①	②	③	④	⑤
마을의 문제 해결	①	②	③	④	⑤
이웃 간의 화합	①	②	③	④	⑤

[마을공동체 참여 의향]

17. 귀하가 거주하는 동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절대 참여하지 않는다(☑ 17-1번으로)
- ② 가급적 참여하지 않는다(☑ 17-1번으로)
- ③ 참여해볼 수도 있다(☑ 17-2번으로)
- ④ 적극 참여할 것이다(☑ 17-2번으로)

17-1.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 등 부양가족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 ② 생업과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워서
- ③ 활동이 너무 어렵고, 내 역할을 찾기 어려워서
- ④ 나와 생각이 다른 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서
- ⑤ 마을공동체 활동이 공감되지 않아서
- ⑥ 기타()

17-2.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로 어떤 점을 기대하십니까? (2개 선택)

- ①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 ② 이웃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서로 화합하는 마을이 되는 것
- ③ 불우이웃 등 사회적 취약층을 돕고 사는 것
- ④ 나와 이웃들이 원하는 의제가 실현되는 것
- ⑤ 내가 사는 마을이 계속 살고 싶은 곳이 되는 것
- ⑥ 다양한 이웃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 ⑦ 내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 ⑧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
- ⑨ 기타()

IV	주민자치회 참여 의향 및 평가
----	------------------

18. 귀하께서 아래 항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점수로 표기해주시시오.

	전혀 모른다 ←----- 보통 -----> 잘 알고 있다				
주민자치의 개념과 의미	①	②	③	④	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	①	②	③	④	⑤
4개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동 시행	①	②	③	④	⑤
주민자치회의 권한	①	②	③	④	⑤
주민자치회 참여방법/선정방법	①	②	③	④	⑤

*구로구 주민자치회 시범동 : 가리봉동, 구로4동, 개봉1동, 오류1동

19. 귀하가 거주하는 동에 향후 주민자치회가 출범한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 ① 절대 참여하고 싶지 않다(☞ 19-1번으로) ②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19-1번으로)
- ③ 다소 참여하고 싶다(☞ 19-2번으로) ④ 적극 참여하고 싶다(☞ 19-2번으로)

19-1. 주민자치회 참여에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 ②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위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 ③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그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 ④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 ⑤ 예산 등 풍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 ⑥ 내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 ⑦ 기타()

19-2. 주민자치회 참여로 어떤 점을 기대하십니까?

- 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위상이 확대되는 것
- ②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이 참여하게 되는 것
- ③ 주민자치 활동을 위해 체계적이고 풍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 ④ 소수의 의사결정이 아닌, 다수가 원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 ⑤ 역할이 고루 분배되고, 역할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것
- ⑥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제를 만드는 것
- ⑦ 기타()

20. 주민자치회가 다뤄야 할 우리 마을(생활동 또는 거주동) 핵심의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 선택)

- ① 이웃 간의 화합, 관계 강화
- ② 지역 경제 활성화
- ③ 동네 안전 및 치안 강화
- ④ 병원, 보건서비스 등 주민 건강권 확대
- ⑤ 노후주택 정비 및 재개발
- ⑥ 문화, 예술, 스포츠 등 즐길 거리 확대
- ⑦ 교통 연결망 강화
- ⑧ 평생교육시설 확대, 아동, 청소년, 청년 교육기관 확대
- ⑨ 주민 간, 세대 간의 갈등 문제 해결
- ⑩ 주민자치 문화의 확산, 정책참여 확대
- ⑪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지원
- ⑫ 기타()

21. 아래의 문항 중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참여하는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 ② 열린 토론과 다양한 의견 제시
- ③ 이웃과 마을을 위한 봉사 정신
- ④ 공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 ⑤ 열린 마음과 배우려는 자세
- ⑥ 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 ⑦ 기타()

참고문헌

[문헌자료]

- 강찬동. 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구아영. 2019.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성과와 개선방안.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기영화·신영재·김남숙. 2012. 부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상호작용의 탐색
- 김문호. 2015. 주민자치회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김병국·김필두. 2010. 주민자치회 법적 검토 및 시범실시 현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흥주. 2019.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평가와 향후발전과제: 부강면 사례를 중심으로. 대전세종연구원
- 구로구. 2012. 구로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 구로구. 2018년 마을공동체 사업 종합계획
- 구로구. 2018년 마을센터 운영계획
- 구로구. 2019년 마을공동체 사업 종합계획
- 구로구. 2019년 구로구 마을센터 운영계획
- 구로구. 2020년 마을공동체 사업 종합계획
- 구로구. 2020년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운영계획
- 구로구. 2020년 구로구 마을자치생태계조성사업 지원계획
-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2012~2019 구로구 마을공동체사업 백서 통계
-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2017. 구로마을생태계지원단 결과보고서
-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2017. 마을공동체 참여자 만족도 조사 통계
-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2018. 구로마을생태계지원단 결과보고서
-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2018. 마을공동체 참여자 만족도 조사 통계
-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2019. 구로마을자치센터 결과보고서
-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2019. 마을공동체 참여자 만족도 조사 통계
-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2020. 2021년 시범동 자치계획 주민투표 현황자료표 및 의제목록
-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2020. 마을아카데미 모두의 성장학교 운영계획
-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2020. 마을지원활동가 양성교육 계획서
-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2020. 마을·자치 강사 양성교육 계획안
- 서울특별시. 2013. 서울시 1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2018.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 백서
- 서울특별시. 201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매뉴얼 총괄_주민자치
- 서울특별시. 2020.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매뉴얼 마을·주민자치
- 서울특별시. 2020. 2030 서울생활권계획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8.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평가연구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9. 주민자치학교 교재-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이해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9. 주민자치학교 교재-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이해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9. 주민자치학교 교재-주민자치회와 사람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20. 주민자치학교 교재-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이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20. 주민자치학교 교재-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의 이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20. 주민자치학교 교재-주민자치회와 사람들
 안현찬·구아영. 2016.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안현찬·구아영. 2017.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지표개발 및 기초선 조사연구. 서울연구원
 안현찬·유창복·위성남. 2016. 「마을공동체」 서울을 바꾸는 정책 시리즈. 서울연구원
 안현찬·구아영·조윤정. 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오지은. 2020. 시민주권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참여예산 연계 발전방안-세종시와 서울시 은평구 시범 사례를 중심으로. 희망제작소
 이호. 2014. 주민자치회 전환 의미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전대욱·최인수. 2014.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모델(2)
 최준규·신아수. 2019. 사회혁신의 새로운 도구, 마을정책플랫폼
 최근열. 2014. 주민참여와 읍면동 주민자치회(주민자치센터)
 하혜영. 2020.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현황 및 향후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2020. 자치분권의 시대! 4·15국회의원선거 마을정책 공약자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2020. 전국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현황
 허종호·윤난희·황서은·황종남. 2019.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차년도 사업의 건강 영향 평가
 행정안전부. 2019.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운영현황
 행정안전부. 2020.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행정안전부. 2020. 보도자료_주민자치회 제도개선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한다

[법령자료]

국회참여입법센터. 2020. 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1015호. (2012.10.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1177호. (2015.12.3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833호. (2020.12.03.)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1376호. (2018.12.27.)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5262호. (2012.3.15.)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3935호. (2013.11.14.)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7641호. (2020.7.16.)
 이학재 외 12인. 2020.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4448. (2020.1.2.)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12.8.)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700호. (2020.12.22.)
 행정자치부. 2002.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중개정준칙
 행정안전부. 2020.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_자치분권제도과-1222. (2020.4.22.)

[온라인자료]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goyang.center/>
구로구청 홈페이지. <https://www.guro.go.kr/>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홈페이지. <https://guromaeul.org/>
관학FM. [관악포커스] 코로나19 현황 /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3종 세트 지원 / 여성안전 주민기획단
모집 <https://www.radiogfm.net/news/16932>
논산시 블로그. <https://m.blog.naver.com/nscity/221986011433>
법제처 홈페이지. <https://www.moleg.go.kr/>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seoulmaeul.org/>
자치분권대학. [논산-6강]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 이호 더 이음 대표 | 자치분권대학 논산캠퍼스 기
본과정_2019년 7월 강의(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NtyVU2HGQeY>
전북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 <http://www.jbckl.or.kr/>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홈페이지. <https://juminexpo.kr/>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https://www.archives.go.kr/>
행정안전부. 2019. 서울 금천1번가, 마을정책 플랫폼으로 탄생했어요!
<https://m.blog.naver.com/mopaspr/221567421879>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https://www.makehope.org/>

[기사자료]

가금현. 2020. 충청탐뉴스. 당진시 신평면, 충청남도 최초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
<http://www.ctnews.kr/article.php?aid=1596517970242657033>
김용만. 2020. 신아일보. 금천구 시흥3동,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상 수상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4780>
김자현. 2019. 더지방포스트
<https://www.thevoiceofus.co.kr/mobile/article.html?no=2433>
김정태. 2020. 금천구 시흥3동, 주민주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http://www.guminnews.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6080363424>
권용석. 2019. 용인시 사무 민간위탁 대해부. 시사타임
<http://www.sis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094>
성행경. 2020. 서울경제. “주민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울 관악구, ‘사람 중심 스마트도시 조성’ 박차
<https://www.sedaily.com/NewsVlew/1Z2QGLIUT5>
송소연. 2019. 강서구 마을·자치·사회적경제·협치로 잇다!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5384>
이종규. 2020. 한겨레. 마을이 실험실 주민은 연구원…사회혁신 ‘리빙랩’이 뜬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5334.html#csidxa4662e43cd150fcb8be

4493d482568f

이은파. 2020. 연합뉴스. '온라인총회 개최' 당진 신평면주민자치회, 주민자치박람회 대상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5047700063>

이희득. 2019. 중부매일. 근로자의 주민자치 활동 '공가'로 보장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4725>